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논문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교외 이동에 관한 연구
- 양평군 시각예술 집적지를 사례로 -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및지역계획전공
김 미 옥

국문초록

문화예술은 문화가 생산되고 형성되는 지역에 변화를 초래하며 도시의 창조적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산업 재구조화에 대한 대응 및 도시재생의 전략적 개입수단으로 미국과 유럽 도시들은 문화공간, 문화자원, 문화이벤트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문화 계획(Cultural Planning)을 강력하게 추진해오고 있다. 문화예술이 탈산업화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예술가로 불리우는 문화예술 창작인력과 그들의 창작공간이 주목 받고 있다. 예술가의 창작공간은 예술의 생산 뿐 아니라 문화소비 및 문화감수성 증진으로 이어져 지역에 사회·경제적 효과를 주기 때문인데 문화예술과 지역개발을 연계한 최근 연구들에서도 예술가와 창작공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예술가와 창작공간의 입지가 도심에만 한정되지 않고 교외로 확산되는 이원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수도권 시각예술산업 창작기능 입지를 분석하여 창작기능의 교외지역 이동 현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둘째, 창작공간의 교외 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양평군을 사례로 교외 입지 요인과 창작기능 집적을 통한 지역개발 활성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방법을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설문조사는 양평에 거주하거나 창작공간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 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심층인터뷰는 31명의 작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분석은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공간분포는 ArcGIS 10.0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각예술산업의 입지는 가치사슬 단계에 의해 창작단계와 유통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단계별로 공간적 입지특성을 살펴본 결과 창작기능은 지난 10여년 동안 양적으로 성장하였고 서울 도심과 더불어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양평, 파주 등 중소도시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여 도시 교외 지역으로의 이동이 확인되었다. 반면 유통단계인 화랑의 입지는 여전히 서울의 강북과 강남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시각예술산업 내에서 창작기능과 유통기

능의 입지가 공간상 다르게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창작기능은 도심과 교외의 이원적 입지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평지역 창작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창작공간의 교외 이동 요인은 '경제성', '창작 자원 접근성',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의 세 가지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세 가지 요인 중 '경제성'과 '창작 자원' 요인이 창작공간 교외 이동에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요인은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심층 면담 결과에서 도출된 교외화 입지 요인 및 공간이동에 미친 영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성', '창작 자원 접근성',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요인은 각각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창작공간의 교외 이동에 중요한 입지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경제성 중 '대도시 접근성'은 시장기능과 작품활동의 충전지로서 역할을 하며, '임대료와 지가'는 소득이 낮고 불안정성한 예술가의 경제적 특성 때문에 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창작공간 교외 지역 선택에 가장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였다.

교외 지역에서 '창작자원 접근성'이 되는 자연환경은 작품활동의 원료적 측면과 함께 정서적 측면 및 주거입지 요인으로 고려되었다.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요인은 창작공간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교외 지역 입지선정과 이동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입지 선정 이후에는 작품활동 및 인간적 교류와 정서적 측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세 가지 입지요인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교외지역으로 창작공간이 이동하지만 생산품의 시장 및 네트워크의 중심지인 서울로부터 구심력이 존재하므로 일정한 이동 반경이 결정된다. 창작공간의 교외화는 도심 외곽지역의 저렴한 지가와 임대료가 중요한 매력적 요소로 작용하고 추가로 시장 및 창작자원 접근성과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에 대한 고려를 통해 개별적·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창작공간의 교외화가 현재는 개별적·자율적 선택에 의해 결정되지만 창작공간의 점유면적 및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개인적 변화와 세금지원, 창작공간 지원 등을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면 국지적·자발적 집적지들이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창작공간의 도시 교외지역으로의 이동이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도심을 선호하는 창작인력들에 대해서도 도심선호를 유발하는 네트워크와 같은 입지 요인에 초점을 두고 정책지원을 한다면 도심에서도 창작클러스터가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례대상지인 양평군은 창작공간과 시각예술 인프라가 집적되어 창작공간 집적지라는 새로운 장소성이 부여되었다. 민간주도의 자발적 집적으로 생긴 지역의 변화는 공공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여 관련 정책 증가와 지역의 비전 설정에 문화예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문화운동 전개 등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지역 활성화 효과를 유도하고 있었다.

본 연구가 갖는 정책적 시사점과 의의는 첫째, 지역과 공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예술가와 창작공간의 특성과 입지를 파악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예술산업이 반드시 도심에서만 성장한다는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교외지역에서도 입지 여건에 부합하는 기능을 유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교외에 입지하는 예술가들의 특성을 도출한 것이다. 셋째, 창작인력과 창작공간이 집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교외지역에서는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양호한 자연환경 및 넓고 저렴한 공간을 제공 등 입지적 우위를 바탕으로 작가들이 원하는 창작공간 및 작품활동 지원과 세금 지원 등의 지원 방안을 구축한다면 향후 더 많은 작가들을 유입되어 교외형 창작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의 다양한 장르 중 시각예술분야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진행되었고 교외지역 중에서도 양평군만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이 이루어졌다. 향후에는 본 연구를 토대로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와 여러 지역에서의 실증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문화예술 창작기능의 입지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시각예술, 창작공간, 교외화, 입지 요인, 양평군, 문화예술,
지역 활성화

학 번 : 2007-31019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1. 연구의 내용	4
2. 연구 방법	6
제 2 장 이론적 배경	8
제 1 절 시각예술산업 및 창작공간의 개념	8
1. 시각예술산업의 개념	8
2. 시각예술산업의 가치사슬	14
3. 시각예술산업의 규모와 변화	16
4. 창작인력 및 창작공간의 개념	19
제 2 절 시각예술 창작공간 입지요인 및 공간이동	26
1. 창작공간 입지요인 도출 과정	26
2. 기존 입지이론	27
3. 시각예술창작공간의 특수성	28
4. 창작공간 입지 요인 도출	30
5. 시각예술인 및 창작공간의 공간이동	34

제 3 절	문화예술 창작클러스터의 역할과 지역발전	43
1.	문화예술 창작클러스터 국내외 사례	43
2.	문화예술 창작클러스터를 통한 지역발전	58
제 3 장	수도권 시각예술산업 공간적 입지 특성	62
제 1 절	가치사슬 단계별 입지와 공간적 변화	62
1.	가치사슬 단계별 입지분석의 필요성	62
2.	생산단계 입지 현황 및 공간 이동	64
3.	유통단계 입지 현황 및 공간 이동	83
제 2 절	수도권 시각예술인 창작공간의 입지 특성	90
1.	창작인력 및 창작공간의 양적 증가	90
2.	교외지역 집적지 형성과 양평의 특성	92
제 4 장	창작공간의 교외 입지요인	
	: 양평지역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93
제 1 절	양평군 창작인력 집중 배경과 분포	93
1.	시각예술인 유입 배경	93
2.	시각예술인 규모와 분포	95
제 2 절	시각예술인 및 창작공간 현황	97
1.	시각예술인 현황 및 특징	97
2.	창작공간 현황	112

제 3 절	창작공간 교외 입지요인	119
1.	분석방법 및 과정	119
2.	창작공간 입지 요인	120
3.	지방자치단체 지원 희망 사항	127
4.	창작공간 주요 입지 선택요인별 창작인력 특징	132
제 4 절	소결	136

제 5 장 창작공간의 교외화 특성과 효과

	: 양평지역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140
제 1 절	창작공간의 필요성과 교외 이동 배경	140
1.	분석개요	140
2.	창작공간의 필요성	144
3.	양평군으로의 이동 배경	150
제 2 절	창작공간 교외화 특성	154
1.	입지요인별 창작공간 교외화에 미친 영향	154
2.	입지요인과 창작공간의 교외화	162
제 3 절	양평군 창작공간 집적의 지역활성화 효과	164
1.	지역 정체성 확보 및 경제적 효과	164
2.	지방자치단체의 인식변화와 관련 정책 증가	170
3.	지역문화운동 태동	174
제 4 절	소결	177

제 6 장 결론	178
제 1 절 연구요약	178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181
참고문헌	184
부록 1. 창작인력 설문지	198
부록 2. 전문가 심층면담 질문지	201

표 목 차

[표 2-1] 유통영역별 미술시장 시장규모 (2011년 기준)	17
[표 2-2] 시각예술 창작인력의 범위 및 분류	21
[표 2-3] 주거입지 선택 요인 관련 선행연구	28
[표 2-4] 예술가 직업별 자기고용 경향	30
[표 2-5] 창작공간 입지 결정 요인 관련 선행연구	33
[표 2-6] 공연예술가와 시각예술가의 지리적 분포	35
[표 2-7] 상위 29개 대도시지역의 예술가 집중도 (2000년)	35
[표 2-8] 더블린 템블바의 창작클러스터 현황 및 성장과정	45
[표 2-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관련정책 추진 현황	53
[표 2-10] 문화지구 및 문화예술 클러스터 현황	55
[표 2-11] 예술가 창작공간 개발의 영향	59
[표 3-1] 인구총조사 예술인 및 시각예술인 직업분류	65
[표 3-2] 예술가 입지 변화(1995~2005년)	66
[표 3-3] 시각예술인의 입지 변화(1975~2010년)	66
[표 3-4] 시각예술인 거주지 현황(1999)	68
[표 3-5] 수도권 시각예술인 거주지 현황(1999년)	69
[표 3-6] 시각예술인 거주지 현황(2011년)	70
[표 3-7] 수도권 시각예술인 거주지 현황(2011년)	72
[표 3-8] 수도권 시군구별 창작인력 거주지 LQ 현황	74
[표 3-9] 시각예술인 LQ 상위 10개 시군구 현황(1999년 및 2011년)	76
[표 3-10] 전국 및 수도권 개인 창작공간 현황	80
[표 3-11] 수도권 개인 창작공간 현황(2010년)	82
[표 3-12] 전국 화랑 현황(1999년)	84
[표 3-13] 서울 지역 화랑 현황(1999년)	84
[표 3-14] 전국 화랑 현황(2010년)	86
[표 3-15] 서울·경기 지역 화랑 현황(2010년)	86
[표 3-16] 최근린지수 변화	88

[표 3-17] 서울시 주요 아트 클러스터 분포	89
[표 3-18] 시각예술 창작인력 규모 변화	90
[표 3-19] 시각예술 창작인력 지역별 규모 변화	90
[표 3-20] 화랑의 규모 변화	91
[표 3-21] 화랑의 지역별 규모 변화	91
[표 4-1] 설문지 문항 구성	98
[표 4-2] 인구통계학적 특성 빈도 분석	100
[표 4-3] 창작인력 네트워크 현황 빈도 분석	102
[표 4-4] 작품활동 현황 빈도 분석	103
[표 4-5] 세대간 인구통계학적 특성 카이제곱 검정 결과	105
[표 4-6] 장르간 인구통계학적 특성 카이제곱 검정 결과	106
[표 4-7] 세대간 작품활동 특성 카이제곱 검정 결과	107
[표 4-8] 장르간 작품활동 특성 카이제곱 검정 결과	108
[표 4-9] 세대별 네트워크 특성 카이제곱 검정 결과	110
[표 4-10] 장르간 작품활동 특성 카이제곱 검정 결과	111
[표 4-11] 창작공간 특성 빈도 분석	113
[표 4-12] 현재 작업실 만족도 및 미래 선호 빈도 분석	115
[표 4-13] 세대간 창작공간 현황 및 미래 선호 카이제곱 검정 결과	117
[표 4-14] 장르별 창작공간 현황 및 미래 선호 카이제곱 검정 결과	118
[표 4-15] 창작공간 입지 요인 설문내용 및 측정 형태	119
[표 4-16] 창작공간 선택요인 기술통계	121
[표 4-17] 단위행렬점검 및 표본 적합도 검정	121
[표 4-18] 설명된 총분산	122
[표 4-19] 회전된 성분행렬 ^a	122
[표 4-20] 창작공간 선택요인 산술평균	123
[표 4-21] 선택요인 요인점수 세대간 평균 비교	124
[표 4-22] 선택변수별 세대간 평균 비교	125
[표 4-23] 선택요인 요인점수 장르간 평균 비교	126
[표 4-24] 지방자치단체 지원 희망 사항 기술통계	127

[표 4-25] 단위행렬점검 및 표본 적합도 검정	128
[표 4-26] 설명된 총분산	128
[표 4-27] 회전된 성분행렬 ^a	129
[표 4-28] 지방자치단체 지원 희망 사항 산술평균	129
[표 4-29] 지방자치단체 지원항목 요인점수 세대간 평균 비교	130
[표 4-30] 지방자치단체 지원항목 세대간 평균 비교	130
[표 4-31] 지방자치단체 지원항목 요인점수 장르간 평균 비교	131
[표 4-32] 지방자치단체 지원항목 장르간 평균 비교	131
[표 4-33] 순서형 로짓분석 종속변수	132
[표 4-34] 순서형 로짓분석 독립변수	132
[표 4-35] ‘지가 및 임대료 저렴’ 요인에 대한 모수 추정값	133
[표 4-36] ‘서울과의 교통이 편리’ 요인에 대한 모수 추정값	134
[표 4-37]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쾌적’ 요인에 대한 모수 추정값	135
[표 5-1] 심층면담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작가 특성	141
[표 5-2] 심층 면담 설문지	143
[표 5-3] 양평군 창작인력 집적 관련 언론 보도자료	164
[표 5-4] 양평군 문화기반시설 현황	165

그 립 목 차

[그림 1-1] 연구 흐름도	5
[그림 2-1] 이스트앤드 지역 예술시설 분포 현황(2009년)	10
[그림 2-2] 마틴 로슨(Martin Rowson)의 런던 공간 묘사	11
[그림 2-3]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의 창조적 네트워크	11
[그림 2-4] 시각예술 기반 문화지역 형성과정 및 요소	13
[그림 2-5] 창조산업 선봉대로서의 예술가	13
[그림 2-6] 시각예술산업 가치사슬 단계 및 요소	15

[그림 2-7] 미술시장 가치사슬 및 생산체계	15
[그림 2-8] 미술시장 유통영역 시장규모 추이 (2008~2010년)	17
[그림 2-9] 2005년~2009년 한국 미술시장 규모 변화	18
[그림 2-10] 창작공간 입지요인 도출과정	33
[그림 2-11] 북경의 예술클러스터 현황 및 교외지역 이동 (1985-2010) ...	39
[그림 2-12] 예술가들의 공간적 집적지 형성·쇠퇴	42
[그림 2-13] 예술가들의 공간입지 변화 과정	42
[그림 2-14] 베이징의 창조 클러스터	47
[그림 2-15] 송주앙 예술가 레지던시, 임대형 아트 콤플렉스	48
[그림 2-16] 나오시마섬 위치도	49
[그림 2-17] 나오시마섬 베네세 하우스	50
[그림 2-18] 나오시마섬 지추미술관	51
[그림 2-19] 나오시마섬 몬무라지역 빈집 프로젝트	51
[그림 2-20] 문화관련 지역개발사업 정책 및 시책	53
[그림 3-1] 수도권 시각예술인 거주지 분포도 (1999년)	68
[그림 3-2] 수도권 시각예술인 거주지 분포도 (2011년)	71
[그림 3-3] 수도권 시각예술인 거주지역 LISA 분석 (1999년 기준)	78
[그림 3-4] 수도권 시각예술인 거주지역 LISA 분석 (2011년 기준)	78
[그림 3-5] 수도권 개인 창작공간 분포 현황도	81
[그림 3-6] 미술시장 작품거래 규모 및 매매주체	83
[그림 3-7] 수도권 화랑 입지 현황도 (1999년)	85
[그림 3-8] 수도권 화랑 입지 현황도 (2010년)	86
[그림 3-9] 2006년 주요 아트 클러스터 위치	89
[그림 4-1] 양평군 위치도	93
[그림 4-2] 양평군 수계 현황도	93
[그림 4-3] 양평지역 일대 시각예술 및 문화 기반 시설 분포 현황	95
[그림 4-4] 양평군 시각예술인 분포 현황	96
[그림 4-5] 미술시장 규모 변화 (2007~2010년)	99
[그림 4-6] 경기도 작가 밀집지역 지가 상승률 현황	99

[그림 4-7] 세대별 창작공간 선택요인 차이 분석 흐름도	124
[그림 4-8] 양평군 이주시기별 창작공간 입지요인 및 지원 선호	139
[그림 4-9] 장르별 창작공간 입지요인 및 지원 선호	139
[그림 5-1] 심층면담 내용 분석 틀	142
[그림 5-2] 창작공간의 필요성	146
[그림 5-3] 창작공간 물리적 선호 특성	147
[그림 5-4] 작업실 내부 물리적 특성	148
[그림 5-5] 유형별 작업실 형태	149
[그림 5-6] 양평군으로의 이주 배경	151
[그림 5-7] 지방자치단체 지원 선호 특성	153
[그림 5-8] '대도시 접근성'이 창작공간 선택에 미친 영향	155
[그림 5-9] '지가 및 임대료'가 창작공간 선택에 미친 영향	156
[그림 5-10] '창작자원 접근성'이 창작공간 선택에 미친 영향	158
[그림 5-11]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가 창작공간 선택에 미친 영향	161
[그림 5-12] 바탕골예술관 전경 및 주요시설	166
[그림 5-13] 양평군내 수도권 광역전철역 이용객 현황(2011년)	167
[그림 5-14] 자전거 전용열차 및 문화시설 연계 여행 프로그램	167
[그림 5-15] 양평군 예술관련 주요 계획	168
[그림 5-16] 서종면 인구변화(2000~2011년)	169
[그림 5-17] 양평군 부동산 거래건수(2000~2011년)	169
[그림 5-18] 수도권정비계획 권역구분도	170
[그림 5-19] 양평군 규제지역 현황도	170
[그림 5-20] 양평군 예술지도	172
[그림 5-21] 2013년 양평군 군정계획	173
[그림 5-22] 양평 비전 2020 읍면 발전계획(서종면)	173
[그림 5-23] 서종면 우리동네 음악회	174
[그림 5-24] 문화예술을 통한 양평군 활성화	176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최근 문화와 경제가 연계된 문화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확산으로 문화 생산의 주체인 예술가와 그들의 창작공간에 대한 관심도 부각되고 있다. 르네상스 시대의 플로렌스나 17세기 런던과 파리, 20세기 뉴욕과 같이 오래전부터 예술가들은 창조적 도시들에 집적해 있었지만 도시 및 지역 정책분야에서 전통적 생산요소 대신 지식, 창조성, 사회적 특성들을 강조하는 새로운 모델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공간적 측면에서 문화예술의 역할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1970년대 미국의 볼티모어(Baltimore), 보스톤(Boston), 피츠버그(Pittsburgh) 등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에 문화·예술이 활용되면서부터 문화예술과 도시정책의 결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말 부터는 문화경제가 생산과 소비 영역에서 내발적 성장에 기여하여 그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이라는 주장(Williams, 1997; Markusen, 2006b)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예술인들에게서 형성된 창조자본과 지역 경제의 성장은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매력 요소로 작용하여 지역의 새로운 장소성 형성으로 이어진다(Florida, 2002; Scott, 2000; Zukin, 1995).

문화예술에서의 핵심 기능은 문화예술이 생산되는 창작기능이다. 창작의 주체인 예술가와 그들의 생산공간인 창작공간은 생산을 통한 직접적 경제효과 뿐 아니라 지역의 문화소비 및 문화감수성 증진으로 이어져 주민이 삶의 질 향상과 창조력 습득의 기반 조성 등 다양한 외부효과를 가져다준다.

문화예술과 지역개발을 연계한 최근 연구들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효과를 유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물리적 인프라나 자본의 축적 등과 같은 전통적인 경쟁요소보다 “창의적인 인력집단”이 유용하며, 그들이 선호하는 환경여건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냐가 지역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ushton, 2006; Gabe, 2006; Markusen, 2006). 국내에서도 이미 홍대 앞, 북

촌, 가로수길, 헤이리 등 시각예술을 기반으로 독특한 장소성을 형성한 지역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문화를 생산하는 예술가에 대한 지원과 정책들도 증가하고 있다.

문화예술 창작기능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예술인 및 예술인의 창작공간에 대한 기초적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기초자료의 부족으로 현황 및 입지를 파악하기 힘들고 순수 창작기능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공간적 측면에서 창작기능의 지리적 집중과 확산은 사회·문화·경제적 효과를 통해 지역개발의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고 향후 문화예술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고려해 볼 때 창작기능 입지와 유입을 위해 어떠한 요소들이 갖추어져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해외에서도 창작공간의 입지가 도심에 한정되지 않고 교외로 이동하는 이원적 형태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한국의 창작공간에 대한 실증적 입지 분석을 통해 정확한 입지 분포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창작기능의 교외 이동 확인은 교외에 입지한 중소도시들의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개발의 가능성을 시사해줄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정책추진의 방안들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목적과 의의

본 연구는 문화예술 생산기능과 지역발전의 연계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는 문화예술 분야 중 공간과 연계성이 높은 시각예술 창작공간을 대상으로 창작기능 입지를 분석하여 창작기능의 교외지역 이동 현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시각예술 창작공간의 입지 현황은 시각예술산업 전체 스펙트럼의 일부이므로 가치사슬 단계별로 분석하고 이중 창작기능의 입지가 대도시권내에서 교외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두 번째 연구목적은 양평군 시각예술 집적지의 창작인력을 대상으로 교외 입지 요인 및 이동 특성을 분석하고 창작공간 집적을 통한 지역개발 활성화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최근 들어 개인의 문화 욕구 증대와 함께 도재재생정책에

서 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문화예술 창작공간에 대한 관심과 관련정책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대도시 내부 및 대도시 주변지역으로 창작공간이 확산되고 있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작기능에 대한 입지 요인과 특정 지역으로의 집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국내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지역 활성화 유도 측면에서 문화예술 창작기능의 입지와 교외 이동에 대해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실현은 문화예술 창작활동과 창작공간이 특정 공간상에서 어떻게 분포하고 활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것이며,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창작공간의 특성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문화예술 산업의 활용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 문화예술 산업의 연구들이 유럽이나 북미의 사례에 집중되어 있고 주로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외화 이동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본 연구는 문화예술이 다양한 공간적 단위에서의 지역개발과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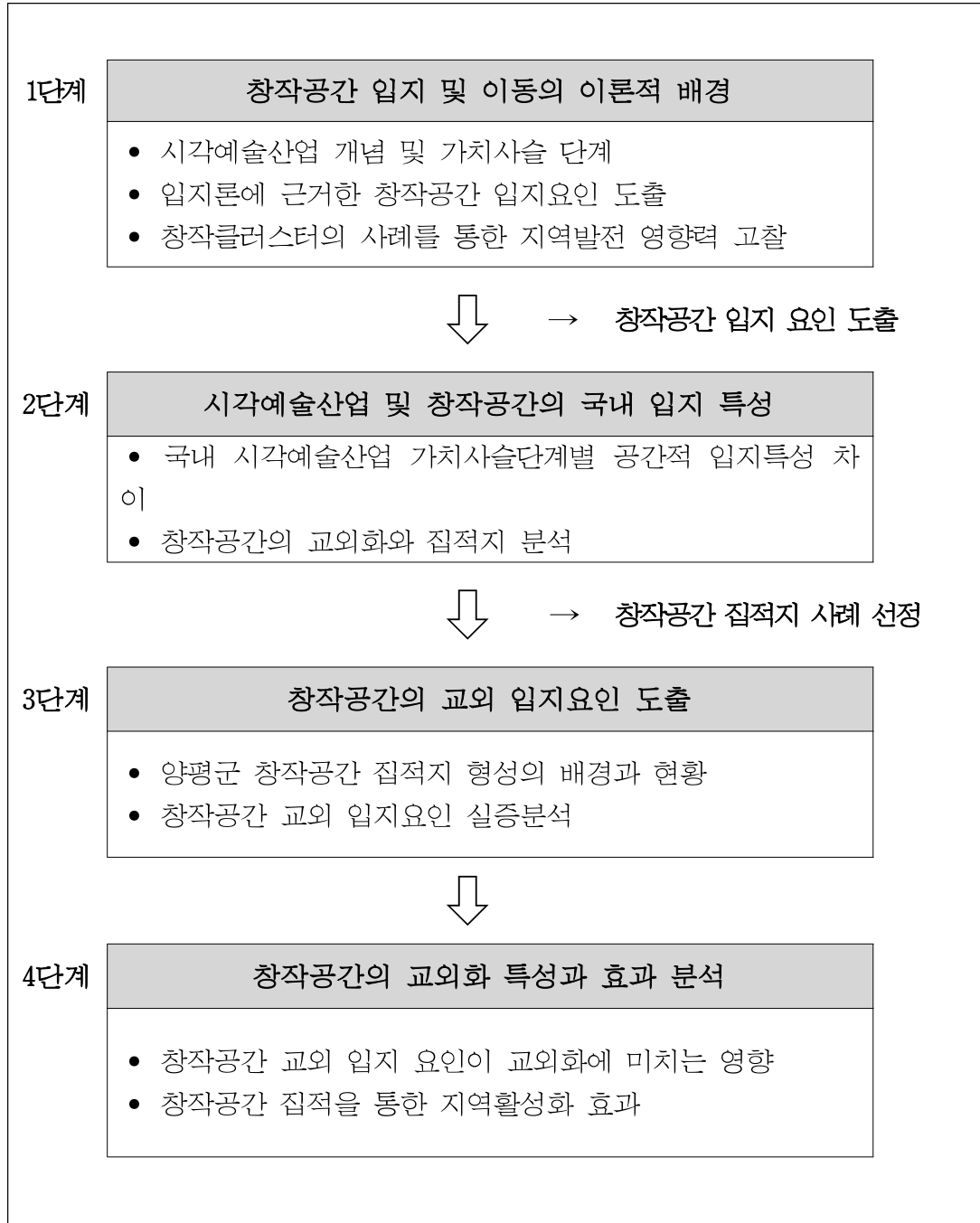
본 연구는 시각예술 창작기능의 입지와 교외 이동 분석을 다음과 같이 네 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첫 번째는 연구 대상에 대한 개념과 이론적 논의를 고찰하는 단계이다. 시각예술산업과 창작공간에 대한 개념 및 시각예술 창작공간의 공간적 친화력에 대한 개연성을 설명함으로써 도시 또는 지역 관점에서의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고 창작공간의 입지 요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창작기능의 공간이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한다. 국내외 창작클러스터들의 사례와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의 논의들을 통해 창작공간이 지역 활성화에 유의미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살펴본다.

두 번째 단계는 수도권 시각예술산업의 입지 특성을 가치사슬단계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창작단계의 입지 특성을 도출한다. 창작공간의 교외 입지 요인 분석은 도시 교외로 이동하는 창작단계의 차별적 입지 특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예술산업 내에서도 창작단계와 유통단계 입지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양평군 시각예술 집적지 창작인력의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창작공간의 교외 입지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입지 요인을 도출한다. 산업입지 및 주거입지의 복합적 측면을 고려하여 기존 입지 이론을 바탕으로 도출된 세 가지 요인(경제성, 창작자원 근접성, 네트워크)이 교외 창작공간 입지로 의미를 갖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입지요인은 장르나 연령대, 이주 시기 등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개인적 속성에 따른 입지 요인 차이도 함께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창작공간 교외 이동의 특성 및 지역개발 효과를 분석한다. 창작인력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결과는 창작공간의 교외 이동의 과정과 입지 요인들이 교외화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한다. 창작공간은 일정 지역에 지리적인 집적을 통해 지역에 경제, 사회, 문화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평군은 사회·문화·경제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을 중심으로 지역활성화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함으로써 창작 집적지가

지역 활성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그림 1-1] 연구 흐름도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분석을 사용하였다. 시각예술산업과 창작 공간의 입지요인 도출, 창작클러스터가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 등 이론적 배경과 양평지역 창작공간 클러스터가 지역에 활성화에 미친 효과의 분석은 문헌연구를 통해 이루어졌고 창작공간을 포함한 시각예술산업에 대한 입지 분석과 창작공간 입지 요인 도출은 실증분석을 사용하였다. 양평군 창작공간 집적지가 지역 활성화에 미친 효과는 통계, 양평군 정책자료, 언론자료 분석 등 문헌연구와 더불어 지역주민, 정책 담당자, 지방자치단체장 등과의 심층 인터뷰의 내용분석을 활용하였다.

입지 분석은 예술산업 비중이 높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시각예술산업의 가치사슬 단계를 생산부문과 유통기능으로 나누어 각각 공간적 분포와 집적형태를 파악하였다. 시계열적인 입지 패턴 변화를 통해 변화 양상도 살펴보았다. 창작단계에 대한 공간적 입지 패턴 분석은 창작인력 거주지와 창작공간을 대상으로 하였고 유통단계는 화랑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인구총조사(산업·직업 10% 표본 조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소속 한국미술협회 회원자료, 미술시장 실태조사, 오픈스튜디오네트워크 보고서 자료 등 2차 자료를 활용하였고 연구자가 시군구별 통계자료를 구축하였다. 생산부문 입지 분석은 창작인력 거주지와 창작공간으로 구분하고 각각 ArcGIS 10.0을 사용하여 공간분포 및 LISA분석, LQ분석을 통해 집중도를 파악하였다. 유통부문인 화랑은 주소 자료를 토대로 지오코딩한 후 최근린지수(nearest neighbor index) 분석을 실시하였다.

창작공간 교외 이동 요인 파악을 위한 사례 대상지는 창작단계 입지분석 결과 지난 10년 동안 창작인력 교외화 현상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양평군으로 선정하였다. 문헌연구에서도 양평군은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창작인력이 유입되고 있는 지역으로 시각예술 뿐 아니라 문학, 사진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인력 수 백 명이 집적된 지역으로 예술인 집적지로서의 독특한 장소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평군은 현재 문화예술인력을 통한 지역 내 문화자본 축적을 통해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콘텐츠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개발을 시도하고 있어 창작공간 교외 이동 분

석을 위한 대상지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교외 이동 입지 요인 및 특성에 대한 실증분석은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3월부터 6월 까지 양평에 거주하거나 창작공간을 갖고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104명의 작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같은 기간 동안 31명의 작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창작인력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장, 관련부서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창작인력 집적이 지역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파악하는데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분석은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교외화 이동 요인 추출은 기술통계와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창작인력의 이주시기별·장르별 입지 특성의 차이는 T-TEST를 실시하였다. 주요 입지 요인별 창작인력 특성 분석에는 순서형 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창작공간의 입지 요인이 교외화라는 공간이동에 미친 영향 및 공간이동과의 관련성에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심층면담의 내용분석은 정량적 결과의 해석과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으며, 장르와 양평지역에 온 이주시기에 따라 그룹을 구분하고 각 그룹별로 창작공간의 입지 요인인 경제성, 창작자원 접근성, 네트워크 요인이 입지선택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내용분석을 통해 정리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시각예술산업 및 창작공간의 개념

1. 시각예술산업의 개념

1) 시각예술산업의 개념

본 논문의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 시각예술이란, 시각적 조형요소에 의해 소통되고 이루어지는 예술을 말한다. 시각(視覺)의 사전적 정의는 “눈을 통해 빛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 작용”을 말하고, 시각예술(視覺藝術)의 사전적 의미는 “회화, 조각 등 시각만으로 감상하는 예술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된다. 시각예술은 영어로는 ‘visual arts’라고 표기되는데 이때의 visual은 ‘시각의’, ‘시각에 의한’, ‘시각에 호소하는’ 의미를 통칭하는 형용사이다. 사전적 의미를 통해 보면 시각예술은 ‘시각에 호소하는 예술’ 정도로 해석되는데 미술, 공예, 디자인, 사진, 퍼포먼스, 건축, 조경, 영화, 패션, 텔레비전, 컴퓨터그래픽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예술(김달진연구소, 2007)로 보는 견해도 있고 고급예술(순수미술과 박물관 및 미술관과 같은 문화 유산)과 상업예술(응용미술, 건축, 사진, 패션 등)을 망라하여 정보를 주로 눈에 의존하는 분야를 시각예술 혹은 미술산업(구문모 외, 2000)으로 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래픽, 사진, 영화, 텔레비전 등은 영상에 따른 시각 세계의 확대로 보며, 퍼포먼스, 건축, 조경, 영화, 텔레비전 등은 단지 시각에만 호소하는 것이 아닌 촉각, 청각 등과 함께 보여지는 예술행위이므로 국내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시각예술의 범위는 “청각이나 촉각과 같은 다른 감각에 주로 의존하기 보다는 주로 시각에 의해 호소하는 예술의 장르”를 시각예술로 보고 있다.

법률적·정책적 측면에서는 시각예술의 범위를 문화예술진흥법(2000년 개정)에서 미술의 일반적 범위를 순수미술과 응용미술로 구분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4년에 발표한 「새 예술정책」에서는 시각예술 분야를 순수미술과 더불어 건축, 사진, 디자인, 공예 등을 포함시켜 구체적인 응용미술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연감에서는 2006년부터 미술이라는 표기대신 시각예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시각예술 내 장르를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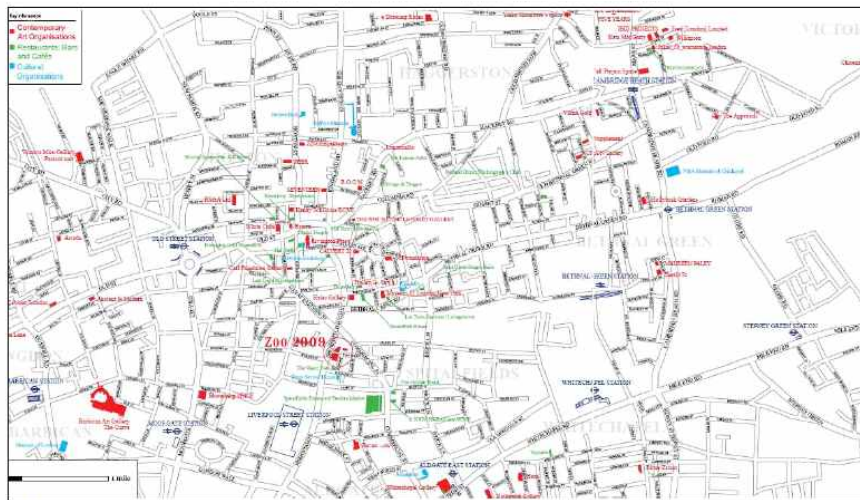
예·디자인·영상·설치 까지 포함하고 있어 순수미술만을 지칭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법률적·정책적·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시각예술의 범위는 순수미술·건축·사진·디자인·영상·설치 등이 포함되며, 순수미술에는 한국화·서양화·조각·서예·판화가 포함(김달진연구소, 2007)되고 시각예술산업은 시각예술과 연관된 산업분야를 총칭한다.

2) 시각예술산업의 공간 친화력

시각예술분야 예술가는 자신이 거주하고 활동하는 지역의 특성에 주목하여 그림이나, 조각,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작품을 창작하는 경향이 있고, 예술 작품 전시를 위해서는 미술관, 갤러리 등 물리적 공간을 필요하므로 다른 예술 장르보다 공간과의 연계가 강하다. 전세계 미술시장의 주요 중심지 중 한 곳인 런던을 보면 시각예술산업의 공간 친화력과 연계 과정을 잘 살펴볼 수 있다. 런던 중심부 Bond Street에는 Sotheby's나 Christie's와 같은 세계적인 경매 회사들이 입지해 있어 전 세계를 아우르는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인식되고 있다. 경매 회사 이외에도 자금력을 가진 소규모 갤러리들이 웨스트지역에 밀집되어 수세기 전부터 현재까지 유행과 경매의 중심에 서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경제불황으로 이들 지역 예술계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반면 저소득층 밀집 주거지로 전통적 문화예술 중심지와는 거리가 있었던 이스트 지역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이스트 지역에 형성된 다인종 밀집지역으로서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저렴하고 넓은 스튜디오, 그리고 골드스미스 대학을 중심으로 대안적이고 실험적인 현대미술을 추구하는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들면서 'yBa'(young British artists)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을 탄생시켰다. 'yBa'는 80년대 후반 골드스미스 대학(Goldsmith University of London) 학생들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 골드 스미스대학에는 데미안허스트 등 영국 현대미술에 큰 영향을 미친 예술가들이 다수 재학하고 있었다. 대학 학생예술가 네트워크를 통해 독립적이고 개성있는 작업들의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었고 1988년 'Freeze' 전시가 이들을 전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다. 이스트 지역에는 예술교육시설과 더불어 유명한 현대미술 작품 수집가인 사치의 갤러리와 같은 소비공간, 그리고 산업시대에 이용되다 남겨진 많은 빈 공간에 예술가,

큐레이터, 디자이너 등 창조계층이 거주하고 작업하기 시작하면서 이들간 상호 작용과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예술가와 시각예술관련 시설의 집적으로 이스트 앤드 지역에 다수의 미술기관(Contemporary Arts Organisations, Cultural Organisations)과 레스토랑, 바, 카페 등 상업시설을 밀집하게 되어 새로운 문화 클러스터가 만들어졌다(〔그림2-1〕 참조).



〔그림 2-1〕 이스트앤드 지역 예술시설 분포 현황(2009년)

자료 : www.zooartenterprises.com

‘yBa’라 지칭되는 작가들의 활발한 활동은 뉴욕, 파리, 베를린, 뒤셀도르프와 같은 도시에 밀려 침체되어 있던 영국 미술계에 활기를 주었을 뿐 아니라 런던동부의 낙후된 Hoxton, Shoreditch 지역에 도심 재활성화 및 젠트리피케이션에도 영향을 주어 공간정책적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Artfield, 1999; While, 2003). 런던의 문화예술적 공간 형성은 유명한 만화작가인 마틴 로슨(Martin Rowson)의 작품에서도 드러나는데〔그림2-2〕를 보면 대학, 갤러리, 바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런던의 예술과 공간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각예술과 공간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그림 2-3〕과 같이 창조적 네트워크가 작동한다. 창조적 네트워크는 생산 및 기획영역과 유통 및 판매영역이 일정 지역에 국지적으로 집적되면서 형성되고, 창조적 네트워크를 통해 데미안 허스트와 같은 신진작가가 만들어지고 유명작가로 성장한다. 창조적 네트워크는 창작인력, 교육시설 및 갤러리와 큐레이터, 동료 등이 상호 유기적 관계를 형성함

KEY: Alcoholism ☹️
 Wealthy Patron ☹️ Private View ☹️
 Stunning Art Prices ☹️
 Logging ☹️ Installation ☹️
 Bohemian Rough House ☹️
 Low-life model (including animal carcasses) ☹️
 Real of Vodka ☹️
 To be confused the ☹️

The 1930s: 'IMPRESSIONISM'
 1930-1935: 'MONTICUT'
 1935-1940: 'SURREALISM'
 1940-1950: 'ABSTRACT IMPRESSIONISM'
 1950-1960: 'ACTION PAINTING'
 1960 onwards: 'BRITISH INSTALLATION'
 Affordable Loft 'Space' ☹️

Other labels on the map include: STIVES, SAATCHI GALLERY, HEDDON, STEEL, STATE MODERN, GOLD SMITHS, VENICE BIENNALE, GAY PEARL, CLERKENWELL, SPITALFIELDS, and various smaller locations like 'The Old Fashioned' and 'The Cave of the Golden City'.

작품명: Art, alcohol and the social spaces of London

The diagram is a flowchart illustrating the art market structure, divided into two main functional areas: 'Production and Planning Area' (생산 및 기획 영역) and 'Distribution and Sales Area' (유통 및 판매 영역).

유통 및 판매 영역 (Distribution and Sales Area):

- 전사회 (General Society):** Receives '작가홍보' (Artist Promotion) from the artist and '신진작가 발굴' (Discovery of New Artists) from the gallery/auctioneer.
- 갤러리 및 후원자 사치(Saatchi):** Facilitates '작품판매' (Work Sale) to the consumer.
- 소비자 (Consumer):** Engages in '작품구입' (Work Purchase) from the artist.
- 미술관 화이트큐브(White Cube):** Acts as an intermediary for '작품구입' (Work Purchase) from the artist.

생산 및 기획 영역 (Production and Planning A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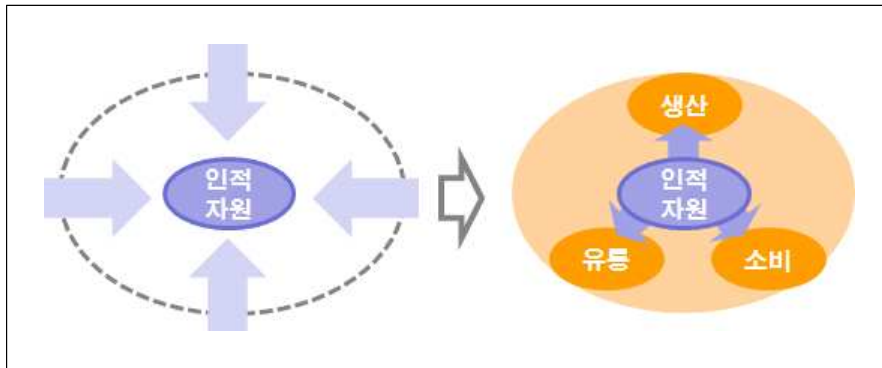
- 동료작가 (Peer Artists):** Engage in '공동작업 및 교류' (Joint Work and Exchange) with the artist.
- 작가 (Damien Hirst):** The central figure, involved in '전시' (Exhibition) with the museum and '전시기획 및 교류' (Exhibition Planning and Exchange) with the curator.
- 예술인단체 (Artist Trust):** Provides '작업' (Work) to the artist and receives '교육의뢰 및 전시' (Educational Request and Exhibition) from the university.
- 미술관 테이트모던(Tate Modern):** Receives '전시' (Exhibition) from the artist and provides '전시기획' (Exhibition Planning) to the curator.
- 큐레이터 (Curator):** Provides '전시기획 및 교류' (Exhibition Planning and Exchange) to the artist and '전시기획' (Exhibition Planning) to the ICA museum.
- 대학 골드스미스(Goldsmiths):** Provides '교육' (Education) to the artist and '교육의뢰 및 전시' (Educational Request and Exhibition) to the artist trust.
- 미술관 ICA:** Receives '전시기획' (Exhibition Planning) from the curator.

자료 : Hubbard(2008) p.227 Art network: Damien Hirst in networks of creativity
데미안 허스트의 창조성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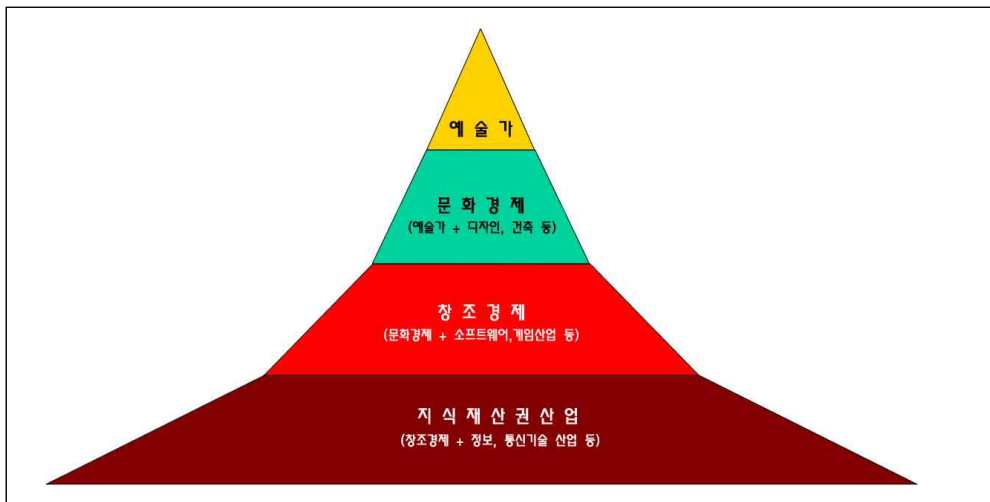
시각예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형성된 공간들은 비엔날레나 아트페어(Art Fair)¹⁾와 같은 미술 관련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도시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기도 한다. 세계 3대 아트페어로 꼽히는 바젤·윌른·시카고 아트페어를 비롯해 베를린·프랑크푸르트·파리·밀라노·뮌헨·마이애미·마드리드 등 세계 각국 도시에서 비엔날레나 아트페어가 경쟁적으로 개최되고 있는데(박과랑, 2003; 최병식, 1999) 아트페어를 통해 작가와 미술관 및 갤러리 관계자, 아트 딜러, 기업 및 개인 컬렉터, 언론인 등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최신 정보를 교환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뿐 아니라 개최 도시에는 주최 측의 기본 인력부터 통역, 물류, 국내외 운송에 관련된 업체, 숙박업체, 중장비 업체 등이 연계되어 다양한 고용 창출 효과를 발생시킨다(박과랑, 2003). 여기에 쇼핑몰, 브랜드 스토어, 바와 레스토랑, 극장과 같이 최신의 생활양식(lifestyle)을 반영하는 도시 내부의 세련된 소비공간과 박물관, 미술관과 갤러리를 비롯한 문화·예술공간, 호텔, 야외공원, 테마파크 같은 체험·여가공간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도시경제·문화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될 뿐 아니라 창조경제의 원동력, 즐거움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복합 문화소비공간, 재충전의 휴식공간으로 주목 받고 있다(Mikunda, 2004; Zukin, 1998).

런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각예술산업은 창조산업의 선봉대(spearhead)로 지칭되는(Marco, 2006) 예술가들은 특정 지역에 집중하여 문화예술산업 성장의 토대가 되는 인적자본을 제공한다. 또 시각 예술가와 예술가의 창작공간 집적을 바탕으로 유통 및 상업시설이 결부되면 새로운 문화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지역의 문화·경제·사회적 측면에서 활력을 가져오게 된다. 이것이 다른 예술 장르보다 시각예술이 공간 친화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이다.

1) 아트페어는 국적을 초월한 판매망 확충과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위해 한 장소에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갤러리들이 모여 4,5일간의 집단 전시를 통해 작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대규모 전시회인데, 미술 애호가를 위한 다양한 볼거리와 미술전문인들을 위한 파티가 풍부하게 제공되는 일종의 미술 축제이기도 하다. 또한 시장 경제체제에서 예술 작품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고 작품의 의미를 소통시키기 위한 전시를 기획하고 미술 관련자들이 모여 작품에 대한 담론을 생성하는 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대중에게 문화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공적인 기능도 담당한다(Fopp, 1997).



[그림 2-4] 시각예술 기반 문화지역 형성과정 및 요소



[그림 2-5] 창조산업 선봉대로서의 예술가

자료 : Hartley. J. (2005), Marco. M.(2006) p.6

2. 시각예술산업의 가치사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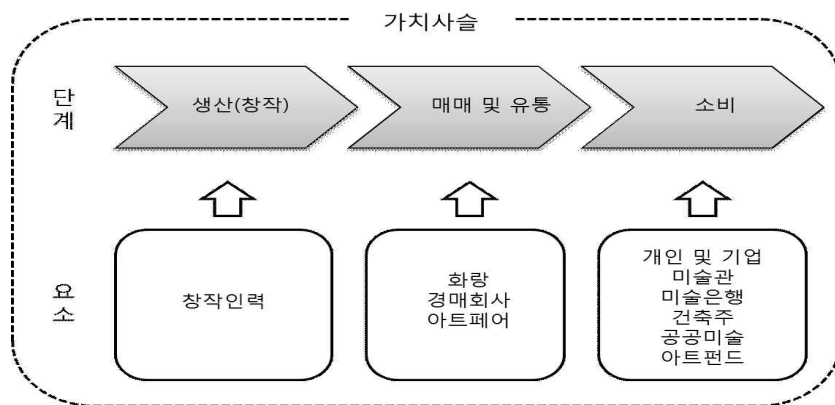
산업가치사슬이란 특정산업에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가치사슬(value chain)은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 기능, 프로세스의 연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1985년 마이클 포터에 의해 정형화된 모델로 정립된 이후 산업분석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포터는 기업의 경쟁우위의 원인을 규명·분석하려는 도구로 가치사슬을 제안했다. 하지만 분석의 대상을 산업으로 확산해 가치사슬을 적용해보면 가치 창출의 각 단계와 핵심활동이 무엇인가를 규명할 수 있으며 산업의 전후방 연계관계 및 핵심활동들의 장단점, 차별화 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최근 문화산업의 특성 및 군집에 대한 연구에서 가치사슬분석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예술산업이 생산되어 소비되는 일련의 과정 및 창작공간이 산업에서의 갖는 역할에 대한 이해를 위해 시각예술산업을 가치사슬 단계별로 나누어 입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창작공간의 교외 지역 이동에 대한 공간적 이동과 동일 산업 내 다른 가치사슬 단계와 비교해보기 위해 가치사슬 분석틀을 활용하였다.

가치사슬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구상(conception)에서부터 물리적 변형의 조합과 다양한 생산자 서비스의 투입을 포함하는 생산, 최종소비자에게의 배급(delivery), 사용 후 최종처리 단계까지 “재화나 서비스를 발생하는데 필요한 모든 범위의 활동”을 말한다. Pratt(2004)은 창조산업의 가치사슬 구조를 창작-제작-유통-소비 및 교환의 4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시각예술산업의 경우 창작과정과 제작과정이 하나의 단계로 이루어지므로 [그림 2-6]와 같이 창작-유통-매매-소비의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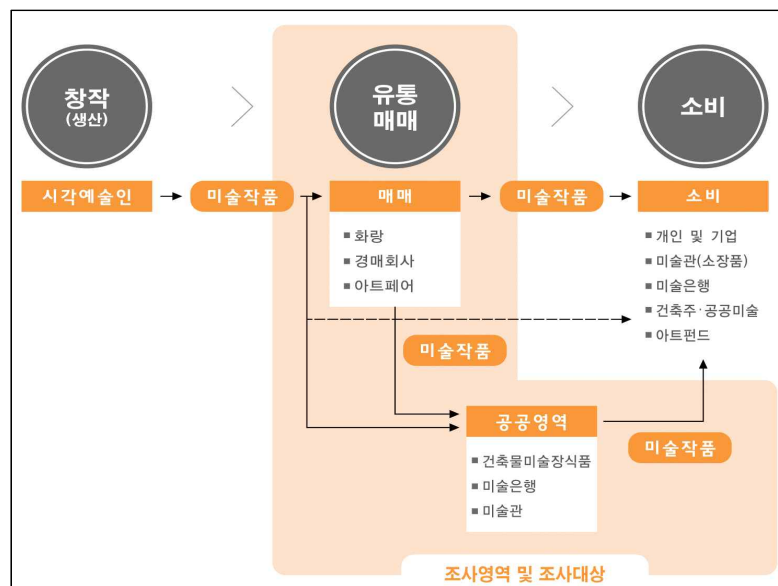
시각예술산업의 생산단계는 생산요소인 창작인력에 의해 창작활동의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다른 산업에서의 창작 및 생산과정이 결합된 형태이다. 시각예술산업에서는 첫 번째 창작 및 생산의 단계가 가장 핵심적 활동 단계로 창작공간의 입지는 생산단계의 입지에 해당한다. 시각예술산업의 두 번째 가치사슬 단계인 유통·매매에서는 창작인력에 의해 창작된 작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에서 매매는 [그림 2-7]과 같이 화랑, 경매회사, 아트페어로 구성된 민간영역과 건축미술장식품, 미술은행, 국·공립 미술관이 매매의 주체가 되는 공공영역으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소비 단계는 최종 소비자

들이 작품을 구입하여 체험하는 과정으로 유통·매매의 공급자들은 미술관, 전시 공간과 같은 물리적 장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도시 내 화랑이나 미술관은 새로운 창작 산출물의 향유와 소비가 일어나는 중요한 장소가 되며, 비공식적인 모임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비되기도 한다.

가치사슬 단계에 의한 접근은 창작공간이 산업군내에서 생산부문을 담당하는 공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으며 생산단계의 입지 변화와 유통단계에 입지와와의 차이점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림 2-6] 시각예술산업 가치사슬 단계 및 요소



[그림 2-7] 미술시장 가치사슬 및 생산체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미술시장 실태조사(2010년)

3. 시각예술산업의 규모와 변화

시각예술산업의 규모와 성장은 예술품 생산자인 창작자나 유통·매매를 담당하는 화랑의 입지와 공간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과 같이 미술시장이 급속히 성장할 경우 예술가나 갤러리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시각예술 관련 창작 클러스터 확산을 유도할 수 있지만 성장이 둔화되면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입지에도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각예술산업의 가치사슬 단계별 입지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나라 시각예술산업의 전체 규모와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창작-유통-소비로 이어지는 시각예술산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미술시장이다. 우리나라 미술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미술붐이 일어났던 1970년대 중반부터이지만 국가 공식 통계로 미술시장의 규모가 집계된 것은 2008년 부터이다. 2008년 이전에는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시각예술산업에 대해 체계적인 자료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미술시장의 흐름은 소병희(2012)와 서진수(2009)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였다.

1970년대부터 ‘중동경기’ 호황과 막 시작단계에 있던 아파트 건설이 직접적인 동기가 되어 ‘아파트-리빙룸-동양화액자’라는 등식의 미술붐이 일어났다. 그러나 1980년대 제5공화국 들어 자유가 억제되면서 미술시장도 얼어붙었다. 그후 제6공화국으로 바뀌어 민주화가 진행되던 1989년부터 다시 서서히 미술시장이 살아나서 1990년과 1991년 초까지 큰 호황을 누렸다. 당시, 그림 가격이 평균적으로 무려 세 배에서 다섯 배까지 올랐으나 1991년말부터 1995년까지는 미술시장이 계속 하향세를 보였고 1997년 말에 외환위기 이후 불황이 시작되면서 미술시장이 완전히 얼어붙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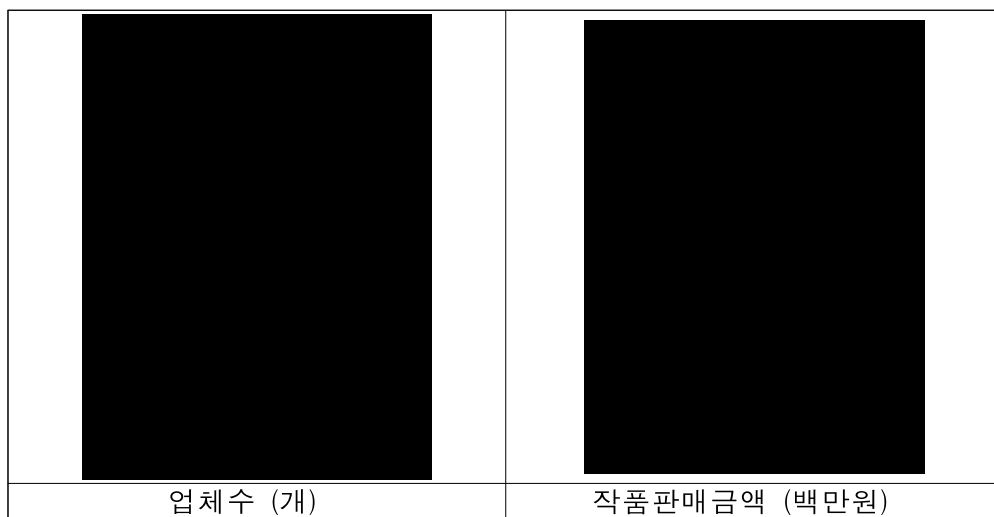
경제가 다시 살아난 1999년 이후 우리나라의 미술시장의 규모는 연간 약 699억에서 1,000억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건축물의 미술품장식물을 포함하여 화랑과 전시회, 인터넷상거래, 경매, 개인적인 거래를 모두 포괄하여 통계적으로 추산한 것이다.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한국 미술시장의 규모는 2004년에 약 2,800억원에 달했다. 미술시장에 대해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센터에서는 2008년부터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술시장실태조사」에서는 미술작품 매매중심의 시장을 대상으로 하

고 있으며, 주요 유통영역으로 미술작품 유통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화랑, 경매회사, 아트페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2010 미술시장실태조사」에 의하면 2011년 기준 전체 미술시장 규모는 작품거래금액 기준 약 5,193억원이다. 이 중 미술시장의 주요 유통영역인 화랑, 경매회사, 아트페어를 중심으로 미술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총 업체수는 421개, 종사자수는 1,583명, 미술작품판매금액은 약 5,193억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통영역에서는 화랑이 전체 작품판매의 70.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화랑이 미술시장의 주요한 유통경로이다. 미술시장실태조가 자료에서는 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후 미술시장 규모 추이는 [그림2-8] 과 같이 업체수는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미술작품판매 금액은 2008년 3,897억에서 3,784억으로 2.89%감소했다가 2010년에는 4,516억으로 19.3% 증가하고 있다.

[표 2-1] 유통영역별 미술시장 시장규모 (2011년 기준)

구분	업체수(개)	종사자수(명)	작품 판매 금액(백만원)
전체	421	1,583	519,295
화랑	371	1,204	296,308
경매	14	145	78,238
아트페어	36	234	46,446

자료 : 문화관광부, 예술경영센터, 2011년도 미술시장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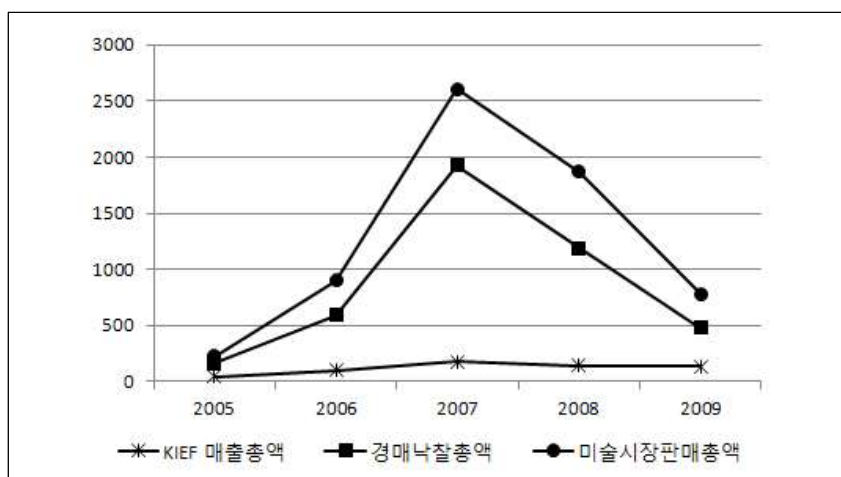


[그림 2-8] 미술시장 유통영역 시장규모 추이(2008~2010년)

자료 : 문화관광부, 예술경영센터, 2011년도 미술시장실태조사

미술시장의 규모 및 현황은 경기변동과 관련이 높고 변동성도 커서 2005년 이후 짧은 주기를 가지고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고 있다. 서진수(2009)에 의하면 [그림 2-9] 와 같이 2005년부터 2007년 말까지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다가 세계 경제가 침체하기 시작한 2007년 말부터 국내 미술시장의 경기도 급격히 후퇴해 2008년부터 극심한 불황을 경험하고 있다. 2008년 이후 미술시장의 침체는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세계 미술시장의 침체에 따른 영향과 전속작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은 미성숙한 시장구조, 경매시장의 과열, 급속한 가격상승, 화랑과 경매회사간의 갈등 등 경기침체와 더불어 미술시장 내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서진수, 2009).

2009년 이후에는 국세청 그림로비 의혹, 원화 평가절하로 인한 화랑들의 해외진출의 어려움 등이 소득감소와 구매감소, 전시감소와 판매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어 작가, 유통기관, 소비자를 모두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때문에 작가들의 소득은 더욱 낮아지고 있으며 현재 시각예술 유통시장의 구조가 대부분 상위 몇 개의 화랑과 경매회사에 의해 80%가량 점유되고 있어 신진작가들의 입지는 더욱 좁고 어렵다. 미술시장의 낮은 성장과 화랑을 통한 작가들의 지원 및 작품 판매 감소는 신진작가와 기존 작가 모두를 경제적으로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작가들의 낮은 수입은 창작활동에 필요한 창작공간 비용 감소로 이어진다. 결국 경제적 요인이 임대료가 낮은 지역으로 창작공간 입지의 이동을 유발하여 공간적 입지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그림 2-2] 2005년 ~ 2009년 한국 미술시장 규모 변화

자료 : 서진수(2009), p. 299 재인용, KIAF(Korea International Art Fair)

4. 창작인력 및 창작공간의 개념

1) 창작인력의 범위

창작인력은 문화예술의 핵심적 주체로 일반적으로는 예술인이라 불린다. 예술인의 사전적 정의는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되지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연구 대상으로서 예술인의 정의는 법적, 통계적, 행정적 기준과 같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나은, 2012)²⁾.

‘예술’과 ‘예술인’의 정의와 관련된 국내법은 「문화예술진흥법」, 「저작권법」, 「예술인 복지법」이 있다. 1972년에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은 국내 최초로 문화예술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된 관련 법령으로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시설에 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만 예술인을 정의하는 조항은 없다. 하지만 제2조제1항에서 ‘문화예술의 정의’에 12개 예술 장르를 명시하고 있어 예술인의 범주를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물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문화예술진흥법」과는 달리 저작물에 관여하는 방식에 따라 저작물을 창작하는 ‘저작자’와 ‘실연자’로 구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며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해 창작활동의 증진 및 예술계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국내법상 최초로 예술인에 대해 한정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예술인 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이상의 국내법상 정의로 통해 보면 예술인은 「문화예술진흥법」, 「저작권법」에서는 창작에 직접 관여하는 예술가로 「예술인 복지법」에서는 창작뿐 아니라 실연 및 기술지원까지 확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전세계 예술인의 법적, 사회적 지위를 공고화하기 위한 문서로 만들어진 유

2) 나은(2012)은 예술인의 정의를 국내법과 국제법상의 정의, 정책적 기준에 따른 정의, 비전형적 특징의 예술인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으나 비전형적 특징의 예술인은 개념에 따를 분류라기보다는 예술인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네스코의 ‘예술인 지위에 관한 권고(1980)’에서는 “예술인(Artist)이란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거나 혹은 이를 재창조하는 사람, 자신이 예술적 창작을 자기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방법으로 예술과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 고용되어 있거나 어떤 협회와 관여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예술가로 인정받을 수 있거나 인정받기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국내법보다는 포괄적으로 보고 있다. 적용 범위도 예술인에 의해 실행되는 예술 분야나 형태에 관계없이 창조적 작가만이 아니라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번역가까지 포함하는 광의적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정책적 기준에 의한 예술인의 정의는 주로 통계자료 구분과 정책수립을 위한 기준이 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에는 예술가를 대분류상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로 분류하고 중분류로는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중분류 28)’과 ‘교육전문가 및 관련직’에 예술관련 직업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세분류에서는 ‘큐레이터·사서 및 기록물관리사’가 포함된다. 통계청 표준직업분류 체계에 의한 예술인의 정의는 예술작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전문성에 따른 기준으로 보고 있다.³⁾ 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위해 박영정(2010)이 [표 2-2]와 같이 문화예술인력을 직업관점에서 분류하여 창작예술가(creative artists)와 이미 창작된 작품을 연기나 연주 등을 통해 재현하는 ‘실연예술가(interpretive)’로 나누고 있는데 창작예술가에는 소설가·극작가·시인·화가·조각가·안무가·디자이너 등이 포함되고 실연예술가는 가수·연주자·무용가·극배우 등이 포함된다.

3) 캐나다 표준직업분류 중 예술인의 범주는 ①작가, ②프로듀서, 감독, 안무가 및 관련 전문가, ③지휘자, 작곡가 및 편곡자, ④음악가 및 가수, ⑤무용수, ⑥배우, ⑦화가, 조각가 및 기타 시각예술인, ⑧기타공연예술인, ⑨장인 및 공예인이 포함되며, 호주에서는 ①시각예술 및 공예 전문가, ②사진가, ③디자이너 및 일러스트레이터, ④저널리스트 및 관련 전문가, ⑤저자 및 관련 전문가, ⑥영화, 텔레비전, 라디오 및 무대 감독, ⑦음악가 및 관련 전문가, ⑧배우, 무용수 및 관련 전문가, ⑨미디어 프레젠테이션으로 구분되어 있어 국가마다 예술가의 범주가 다르다.

[표 2-2] 시각예술 창작인력의 범위 및 분류

직업그룹	세부직업
회화및조각가	화가, 조각가, 서예가, 만화가, 미디어 아티스트
사진가	사진가
건축가	건축사
디자이너	삽화가, 글자 디자이너, 북 디자이너, 제품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디스플레이어, 무대디자이너, 웹 디자이너,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공예가	도예가, 종이 공예원, 목 공예원, 석 공예원, 금속 공예원, 보석 공예원

자료 : 문화예술인력의 분류(박영정 외, 2010),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개선방안연구(2009)에서 시각예술 분야만 재인용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개별법과 정책기준에 따라 예술가의 정의와 범위가 각각 상이하지만 창작기능을 예술가의 핵심기능으로 인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술의 분야 중 공간과 연계성이 높은 시각예술을 대상으로 하였고 시각예술 내에서는 자료 구득의 한계로 인해 박영정(2009)이 제시한 시각예술 창작인력 기준에서 ‘회화 및 조각가’, ‘도예가’로 분석 대상을 한정하였다⁴⁾.

2) 창작인력의 특징

기존 선행연구(유럽연합, 2006; 유럽연합, 2002;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2012;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7;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2009)를 토대로 보면 창작인력의 일반적 특징은 비정형성(atypical)으로 함축될 수 있다. 비정형성은 논리적 측면과, 종사상 지위, 활동영역, 경제구조, 결과 평가 및 경기변동의 영향력 측면에서 기존의 정형성을 탈피하고 있음을 말한다. 논리상의 비정형성은 보통 예술작업이 단순히 생계 수단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창의력을 표출하기 위해 시작되기 때문이며, 종사상 지위의 비정형성은 창작예술인 대부분이 자영자의 지위에서 임금근로자, 기업의 대표 또는 공무원으로 쉽게 지위를 전환하거나 두 개 이상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4) 시각예술 창작인력 중 디자이너 그룹은 시각예술산업 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분야로 세분되어 있어 직업의 범위는 제시된 것보다 더 다양할 수 있다.

또 보통의 노동자에 비해 국경을 초월한 활동 영역이 쉽게 형성되고 경제구조적 측면에서도 예술인들은 소규모 혹은 1인 기업의 형태로 존재하는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경기변동의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예술작품의 영향력이 문화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패션, 디자인 위주의 소비재, 관광, 소프트웨어 발달과 같은 다양한 사업부문에 핵심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예술작품의 성공과 영향력에 대한 척도도 일반 시장의 성과 척도로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긍정적 비정형성으로 인한 자유를 갖는 반면에 예술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직 열악하다. 2012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의 ‘문화예술인의 고용상태’ 변화 추이를 보면 정규직 고용직 수는 줄고 경제적 지위가 불안정한 임시고용직과 자영업자의 규모가 상승하였고 부가활동까지 포함한 월평균 수입액 100만원 이하가 문화인 91.5%, 미술 및 사진예술인이 79.0%로 나타나 경제적 지위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2년 유럽연합 25개국 예술 관련 노동자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전체 노동시장의 2.5%에 해당하는 예술관련 직종 종사자는 일반 종사자의 대학졸업자 비율이 2%에 비해 예술인은 4%로 학력 수준은 높지만 임시직 인구의 비율(전체 평균 12%, 예술인 18%)이나 단시간(part-time) 근무 비율(전체평균 18%, 예술인 25%)이 높아 경제적 불안정성의 위치에 놓여 있다.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성 때문에 유럽연합은 예술인을 “대부분의 경우, 매우 강한 개성을 드러내는 상이한 분야에 종사하지만 유사한 위험성을 감수하고 있는 특별한 사회적 전문직(socio-professional) 그룹을 형성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비정형적 특성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보장제도, 세금제도 혹은 법제도의 적용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창작공간의 개념 및 유형

창작공간(artist space)은 창작활동이 일어나는 물리적인 공간을 일컫는 것으로 예술인에게는 보편적으로 ‘작업실’로 일컬어지는 공간이다. 대부분 자영업 형태를 갖는 창작인력의 특성상 작업실은 창작을 위한 기술 습득과 연마, 조사, 연구 등을 위한 준비 과정과 예술작품의 구상, 제작, 수정, 완성 등의 전반적인

창작과정이 이루어지는(강안나, 2009) 복합적인 공간이다. 작업실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예술작품창작이라는 노동이 일어나는 장소라는 점에서 기능상 제조업의 공장과 유사하다. 또한 작업실은 공장과 같은 일터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주거지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즉, 창작공간은 기본적으로 예술가의 삶터와 일터가 교차하는 공간으로서 예술가 개인 생활의 영역과 직업상 실험적인 배움과 발전, 성장을 담보하고 예술작품과 그로인한 정보를 창조적으로 생산, 교류, 관리하는 기능적인 공간인 것이다.

창작공간의 이러한 특징은 창조성을 생명으로 하는 예술활동의 노동집약적인 수공성과 자기주도형 생산방식 그리고 예술이 숙명적으로 안고 있는 비용질환(Cost disease)⁵⁾에서 기인한다. 때문에 창작공간은 강도 높은 신체적, 정신적 예술노동으로 인해 작업장 내에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숙식, 거주공간을 겸하며 직업적인 활동공간과 거주공간이 통합되어 있다.

창작공간⁶⁾은 예술가의 창작활동이 일어나는 물리적인 공간으로 사용자의 창작경향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니지만 형태와 기능에 따라 크게 개별창작공간과 공동창작공간으로 구분된다. 개별 창작공간은 작가 개인이 특정 공간을 임대하거나 건립하여 활용하고 있는 작업실을 지칭한다. 대부분의 개별 창작공간은 독립적인 창작공간으로서 작품활동을 목적으로 조성되지만 작가 개인의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사이클에 의존하고 있는 예술적 노동의 특성상 작품활동 공간과 휴식, 재충전을 위한 삶의 현장이 통합된 형태를 지니고 있다. 개별

5) 예술과 문화에 대한 경제적인 분석을 위해 보몰(Baumol)과 보웰(Bowen)이 공연예술 분야를 연구하며 예술의 비경제적인 특성을 규정한 용어이다. 비용질환은 시장 논리에는 부합되지 않는 예술 작품만의 고유한 생산방식에서 기인하는 특징으로 예술창작 활동은 긴 시간과 높은 생산비용, 낮은 경쟁력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현상은 순환적인 악영향을 미치는데, 직접적으로는 재투자를 막아 창작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예술활동이 지닌 비용질환은 예술의 긍정적 외부성, 재화의 균등성에 입각한 재분배 등의 관점을 통해 예술가와 예술단체에 대한 공공지원의 이론적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김정수, 2010)

6) 개별 창작공간과 공동 창작공간 이외에 창작을 위해 보충공간이 필요한데 시각예술분야에서는 전시실, 야외 작업공간, 암실, 도색실, 강의실, 판매 공간, 주물실, 회의실 등이다. 판매공간이나 강의실 등 창작기능과 다소 떨어진 기능도 있으나 암실, 녹음실, 편집실 등 전문적인 보충공간은 광의로 보면 창작공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창작공간은 일터의 영역과 삶터의 영역의 비중에 따라 일과 생활공간이 혼합된 ‘주거복합형 작업공간(Live/Work Space)’과 작업활동만을 위한 ‘독립 작업공간(Work-Only Space)’의 두 가지 형태로 다시 구분될 수 있다⁷⁾. 그러나 이들은 각각 예술인의 성향과 편의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구성되어지지만 대부분이 기능이 중복되거나 혼재되어 있어 엄밀하게 따져 구분하기는 어렵다. 공동 창작공간은 두 명 이상의 작가가 하나의 공간을 공유하여 사용하거나 특수한 목적과 이해관계로 인해 다수의 개별 작업장이 밀집된 건물 혹은 지역에 작가들이 공동체로써 창작활동을 하는 형태가 있다. 전자는 주로 친분이나 동일한 기술적, 미학적 접근방법을 공유하는 작가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조성되며 후자는 지역적 연계성에 의해 또는 정책적 결정이나 특정 목적에 따라 전략적으로 조성된다(강안나, 2009).

공동 창작공간으로는 예술인촌 혹은 예술인 마을과 같은 비영리 예술인 집단 거주지(Nonprofit artist colonies)나 공동 아파트형 작업실(Cooperative studio), 창작스튜디오(Artist residencies)⁸⁾, 예술인 지원 협회(Artist service organization)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창작스튜디오나 예술인 지원 협회는 예술

7) "Keeping Boston's Creative Capital-A Survey of Artist Space Needs", Boston Redevelopment Authority, Boston, Massachusetts, USA, 2003. 7

8) 공동작업 공간의 대표적인 유형이 창작스튜디오인데 이는 안정된 창작 환경을 제공하는 전문적인 시설과 지원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용어로 ‘창작스튜디오’와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창작스튜디오가 일상적인 작업공간으로서 안정적인 작업 공간 제공을 기조로 하는 하드웨어적인 개념이라면,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물리적 공간보다는 일정기간의 체류를 통한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이 중심에 놓이는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으로, 대부분의 창작스튜디오는 이 두 개념을 병행하거나 혼합된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국제 창작실 프로그램 협회에서는 창작스튜디오를 ‘특히 예술가를 위해 제공되는 작업실 및 조직 뿐 아니라 독립적인 단위체로서의 경영으로 정의하며 창작스튜디오의 개념을 확장시켰는데, 넓은 개념적 범위만큼이나 창작스튜디오를 지칭하는 용어 또한 매우 다양하다. 국내에서는 창작스튜디오를 지칭하는 용어로 ‘미술스튜디오’,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프로그램’, ‘미술창작실’,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문화예술촌’, ‘창작촌’, ‘창작마을’ 등 통일되지 않은 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운영주체별로 구분하여 보면 우선 정부 및 공공기관과 민간재단에서 운영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스튜디오들을 ‘창작스튜디오’로 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 및 개인이 운영하는 스튜디오들은 ‘아틀리에’, ‘창작촌’ 등으로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 자연스럽게 분류되고 있다(최관호, 2006)

인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한다⁹⁾. 공동 창작공간은 각각 지원형태와 설립, 운영 주체, 운영방식 등 조건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작가들에게 창작의 제반시설을 제공하여 창작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본질적인 목적은 크게 다르지 않다. 작가들이 공공 작업공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경제적 부담해소, 교류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집단적인 예술활동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임대료와 사용료의 공동지출이나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에 입주하여 무상, 혹은 소액의 사용료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경제적 측면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교류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는 동일 공간을 공유하며 동료 작가 혹은 선후배 작가들과의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 비평과 피드백으로 자연스런 정보 교환과 기술전수로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작공간의 기능이 직업적인 활동공간과 거주공간이 통합되어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입지 요인 도출에 있어 산업입지적 특성과 주거 입지특성을 함께 고려하였다.

9) 창작스튜디오는 작가와 작가의 창작활동과정을 위한 용도로 마련된 비영리 스튜디오 공간이므로 지속적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한 작업공간, 장비 및 기술, 생활비, 창작비 등 현금지원, 정보, 재료 등을 지원한다. 셋째, 작가들에게 예술적 실험과 탐색을 위한 자율적인 환경을 제공한다(New York State Artist Workspace Consortium, 2004).

제 2 절 시각예술 창작공간 입지요인 및 공간이동

1. 창작공간 입지요인 도출 과정

입지는 공간구조상의 가장 합리적인 위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어떠한 산업활동이 특정 공간에 들어서게 될 때, 왜 산업활동들이 이 자리를 잡게 되는가를 밝혀주는 논리적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창작공간도 문화예술산업의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예술가들은 창작공간의 입지를 결정할 때 작업환경 및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숙식 등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위치를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창작공간의 입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입지론적 관점에서 도출하였으며 시각예술 창작공간의 입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전반적인 창작공간의 입지 패턴과 이동에 관하여 고찰하였다¹⁰⁾.

창작공간의 입지는 예술가가 하나의 문화예술산업 내에서 생산주체의 역할을 하므로 산업입지이론의 기업 입지 선정 요인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창작공간의 기능이 생산 공간과 주거공간이 혼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주거입지 요인과도 관련성이 높다. 따라서 산업입지와 주거입지의 일반적인 특성과 창작공간이 갖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통해 창작공간의 입지 결정 요인을 도출하였다.

10) 시각예술을 포괄하는 문화산업의 입지를 통해 시각예술의 입지요인을 도출할 수도 있으나 문화산업의 하위 분야마다 입지특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각예술창작인력의 기능에 따른 접근방법을 취하였다. 문화산업의 입지에 관한 논의로는 P. W. Daniels(1985), J. N. Marshal et al(1987), Walker & Sayer(1992), P. Wood(1991) 등이 생산자서비스산업에 대한 입지연구를 통해 문화산업의 일부를 포함하는 입지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이 논의들은 대단히 개괄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입지이론으로서도 일정한 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A. J. Scott은 로스앤젤레스와 파리를 비교하여 문화산업의 입지 및 성장특성을 분석한 바 있으나(Scott, 1997) 역시 문화산업의 입지에 대한 어떤 이론적 모델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이들의 전반적인 견해는 문화관련 산업활동들이 대도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관련 산업들끼리 공간적으로 집적하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2. 기존 입지이론

1) 산업 입지이론

전통적 산업 입지론에서는 핵심 생산요소를 토지와 자본으로 보고 농업·상업·공업의 각 분야별로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기업이 한 지역에 집적하는 현상에 대한 연구는 공업 입지이론에 의해 설명된다. 공업입지 이론은 최소비용이론, 최대수요이론, 수익극대화 이론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업의 입지결정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Weber와 Moses에 의해 제창된 수송비 극대화 이론은 다른 생산여건이 동일하다면 수송비가 가장 적게 드는 곳에 입지한다는 것이고 Fetter와 Losch 등이 제시한 최대수요 이론은 수요권역에 의한 시장영역을 주장하는 것으로 기업은 수요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중심지에 근접하며, 재화에 대한 수요가 지역적으로 균등하다면 기업은 수요가 집중되는 시장중심지에 입지한다는 것이다. 수익극대화이론은 공간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최대수요이론과 유사한 개념으로 Smith는 공간비용곡선과 평균수입과의 관계에서 한계수익을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지역에 산업입지가 결정된다.

요약하면 전통적 산업 입지론은 수송비와 수요가 이루어지는 시장과의 거리에 의해 입지가 결정된다. 그러나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면서 핵심 생산요소가 토지와 자본에서 인적·제도적·사회적 자본으로 변화하였고 산업입지의 관심분야도 전통제조업에서 지식기반산업으로 확대되면서 신산업공간이론, 산업지구론, 혁신환경론, 혁신클러스터론, 지역혁신체계이론 등이 등장하였다. 이들 이론에서는 입지요인으로 연구개발 기능과의 접근, 고급인력 및 두뇌의 확보, 고속교통 및 정보체계의 접근 용이성, 관련 산업의 집적, 쾌적한 정주환경, 풍부한 금융자본 등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전통산업의 입지요인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정 기업이 공간적 집적을 이루는 형태인 산업클러스터의 입지요인들에 대해서 Porter(1998)와 Notteboom(1999)은 경쟁자간 학습효과와 네트워크 등의 외부성을 강조하고 있고, Fujita(1999)와 Krugman(1991)은 강력한 산업 내 교역과 거래비용의 감소를 Scott(1986), Harrison(1992)은 내생적 성장이론을 주장하면서 협력적 혁신과 지식교환을 중요한 입지요인으로 꼽고 있다.

2) 주거 입지이론

주거입지와 관련한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표 2-3] 과 같이 주택 재고량, 유형, 질적 수준 등 주택 특성, 주택이 입지한 지역의 근린 특성, 그리고 서비스로의 접근 편리성 등 여러 요소들의 상호교환에 의한 효용 최대화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이창호, 2012). 주거입지는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가구구성원의 속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뿐 아니라 가구의 교육수준, 직업, 나이, 소득 등으로 구분되는 사회경제 계층에 따라 주거지의 입지 효용 산정에 고려하는 주거입지 선택 요인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업의 입지 결정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주거입지는 크게 보면 주택 특성, 근린특성, 교통특성으로 구분되는데 주택 특성은 재고량, 주택유형, 주택의 질적수준과 관련된 요인들이 주로 영향을 미치며, 근린 특성은 근린환경, 교육수준, 환경의 질, 주거관련 비용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교통 특성은 직장, 쇼핑 및 서비스시설과의 접근성이 주요 고려요소가 된다.

[표 2-3] 주거입지 선택 요인 관련 선행연구

구분		관련변수
주택 특성	재고량	공가량
	유형	공동/단독
	질적 수준	주택규모 / 가격 / 임대료 / 투자가치
근린 특성	근린 환경	밀도 / 근린수준
	교육수준	학교 질 / 거리
	환경의 질	대기질 / 소음
	비용	타 재화·서비스 대비 주거 지출
교통 특성	접근도	직장/쇼핑/서비스(거리/비용/시간)

자료 : 이창호, 2012, p.32

3. 시각예술창작공간의 특수성

2003년 BRA(Boston Redevelopment Authority)에서 시각예술창작인력만을 대상으로 한 창작공간과 입지에 대해 실시한 ‘창작공간 수요 조사(A survey of artist space needs)’를 보면 시각예술 창작공간의 입지와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스톤(Boston)과 주변의 캠브리지(Cambridge), 썬버빌(Somerville) 및 브루클린(Brookline)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작가(1,931명)을 대

상으로 창작공간과 입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독립 작업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작가들만을 대상으로 작업공간과 주거와의 거리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작가들 대부분이 주거용도의 공간을 작업실 인근(3mile 이내, 약 4.8km)에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의 함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일과 생활의 영역 전반에 걸쳐 있으며, 만약 선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활동 반경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¹¹⁾. 창작공간의 입지는 창작공간이 갖는 물리적 측면도 영향을 미치는데 일종의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창작공간은 예술가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는 물리적인 측면과 입지적 측면에 혼재되어 있다. 창작공간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으로는 보스턴의 〈창작공간 수요조사〉자료에 의하면 ‘넓은 공간’, ‘좋은 자연채광’, ‘높은 층고’, ‘작품 보관장소 확보’, ‘환기시설’, ‘방음’, ‘특별 전기설비’, ‘대형 출입구’, ‘배수시설’, ‘저층에 위치한 작업공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창작공간의 공간구성은 창작활동의 비정형성으로 인해 공간사용에 있어 유연함이 필요로 하므로 고정형과 비고정형 내벽 등을 혼합하여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좋고 공간의 수직적 높이도 창의적 사고활동을 위한 심리적 쾌적성과 작품의 크기를 고려하여 일반 사무 공간 보다 비교적 높은 것이 좋다. 이러한 물리적인 조건과 경제적 측면이 맞물려 많은 창작자들이 일반 주거용 건물보다 공장이나 창고와 같이 넓고 개방된 평면을 가진 공간을 선호하게 된다. 물리적 특성과 더불어 창작공간의 가격 적정성이 예술인들의 창작공간 선정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예술인들의 불안정한 소득을 감안하면 지속적으로 많은 금액의 지출이 요구되는 임대료는 현실적인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뉴욕이나 보스턴, 한국의 홍대앞 등에 밀집되어 있던 창작공간들이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지역으로 점차 이주되고 있는 현상을 보면 창작공간의 조건에 경제적 조건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다.

마커슨(2003; 2004; 2006)은 예술가의 입지를 분석한 연구에서 예술가들은 일반적으로 대도시 집중도가 높지만 시각예술과 같은 자기고용(Self-employed)적 성격을 강하고(시각예술의 자기고용률은 50.0%로 공연예술의 24%다 두 배

11) "Keeping Boston's Creative Capital-A Survey of Artist Space Needs", Boston Redevelopment Authority, Boston, Massachusetts, USA, 2003. 7

이상 높음, [표 2-4] 참조) 소득이 낮은 분야는 공연예술이나 타 작가군에 비해 대도시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시각예술분야가 이러한 입지적 차이를 보이는 것은 시각예술인이 보다 덜 혼잡한 어메니티를 선호하며 감성적으로 고독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 거주지나 창작공간을 선택할 때 중소규모의 비도시지역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창작작업을 위한 사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지만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예술작품의 판매의 경로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유통공간과의 접근성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입지 선택도 개인의 선호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표 2-4] 예술가 직업별 자기고용 경향(Self-employment trends, 2002)

직업 구분	전체 종사자수	자기고용자수	자기고용비율(%)
시각예술 작가 및 관련직 (순수 시각예술인)	307,254 (23,192)	155,159 (12,866)	50 (55)
공연예술가	176,463	42,724	24
뮤지션, 가수 및 관련직	215,425	83,121	39
디자이너	531,921	168,806	32
건축가	136,378	29,678	22

자료 : Markusen, A. and Gerg S.(2006a), p.1668

4. 창작공간 입지 요인 도출

앞서 살펴본 산업입지와 주거입지의 기존 입지이론 중에서 창작공간의 속성에 부합되며 선행연구에서 창작공간 주요 입지 요인으로 언급된 요인들을 종합하면 [그림 2-10] 과 같이 구조화 할 수 있다. 창작공간이 생산을 담당하는 1인 기업의 형태로 유통시장과의 접근성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산업입지적 특성을 가지며 주거입지 측면에서는 생산과 주거공간이 혼재되어 있고 주거지와 근 거리에 위치하며, 물리적으로 주거공간과 유사하다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입지 요인에서는 지가, 시장접근성, 원료접근성, 네트워크, 인적지원의 요인이 창작공간과 관련된 요인이 되며 주거입지 요인에서는 주택특성, 근린특성, 교통특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는데 이들 요인간의 관련성 및 공존하는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표 2-4] 와 같이 창작작업의 직업적 특성과 창작공간의 물리적 특성이라는 산업고유의 속성과 대도시의 문화적 환경이나 자연환경적 어메니티와 같이 작품 창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원료적 특성, 그리고 유통시장인 대도시와의 접근성 및 임대료 등의 경제적 요인 등이 주로 창작공간의 입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요인들간의 관련성을 고려하면 세 가지 요인에 대부분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입지 및 주거입지론에 근거하여 도출된 창작공간 입지 결정 요인을 다음과 같이 경제성, 창작자원 접근성, 네트워크의 세 가지 요인으로 가정하고 양평균 창작인력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으며 각 입지요인이 교외로의 공간이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첫째, 경제성이다. 경제성은 창작인력의 시장인 대도시로의 접근성을 결정하는 요소로 산업입지나 주거입지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경제성은 접근성과 임대료에 의해 결정된다. 접근성에서 발생하는 교통비용과 임대료는 상호보완적(Trade off) 관계로 일반적 주거입지나 산업입지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지점에 입지를 정하게 된다. 그러나 창작인력은 상대적으로 자영업 형태의 고용구조(self employed)가 많고 수입이 낮은 특징이 있으므로 임대료가 더 적극적으로 입지요인에 반영되므로 교외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창작자원 접근성이다. 창작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도시환경이나 자연환경은 산업의 원료와 같은 역할을 한다. 도심을 선호하는 작가들의 경우 도시내 물리적 환경과 유무형의 문화예술적 요소가 작품의 소재가 되므로 창작공간의 도심 입지를 결정하게 되고 전원적 환경에서 주로 작품의 소재를 찾을 경우 자연환경이 양호한 곳에 창작공간을 마련하게 된다. 양호한 자연환경은 전문가 사전인터뷰 결과 작품의 직접적 소재가 되거나 작품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주로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선호한다는 측면에서 창작공간으로 선호되는 장소이다. 시각예술이 다른 예술가들에 비해 교외지역으로 이동하는 패턴이 나타나는 것은 덜 혼잡한 어메니티에 대한 선호와 창작작업을 위한 사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며(Heilbrun, 1996; Hill Strategies Research Inc, 2006), 마커슨은 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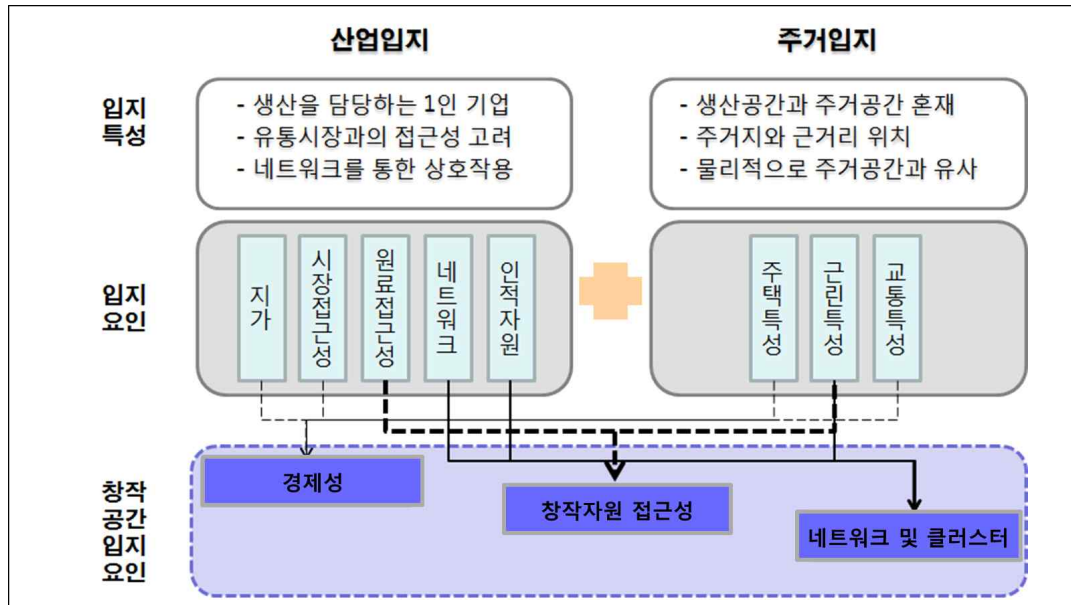
예술인들이 정서적으로 고독한 기질로 인해 중소규모의 비도시지역을 선호한다고 보았다. 실제로 전원적인 환경을 갖춘 해외 중소도시나 국내 제주도의 경우 화가들이 장기간 체류하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호한 자연환경이 작가가 작품을 창작하는데 신체적·정신적 측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소셜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이다. 산업입지 이론에서는 상호학습과 집적의 이익으로 인해 클러스터화 되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베커(2008)에 의하면 예술가가 하나의 예술작품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기획·전시·판매하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며, 동료 예술가 혹은 선·후배들과의 긴밀한 연계망 속에서 활동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 연계망속에서 예술 작품을 구상하고, 작품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며, 궁극적으로 예술가로서 인정받기 때문에 예술가의 창조성은 상호학습과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제도 속에서 발현되는 것이지 천재적 영감을 통해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각예술의 경우 일정공간에 생산 및 기획영역과 유통 및 판매영역이 일정 지역에 국지적으로 집적되면서 창조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는데 창작인력, 교육시설 및 갤러리와 큐레이터, 동료 등이 상호 유기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생산 및 기획영역에 사회적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 창조적 네트워크를 통해 신진작가가 만들어지고 유명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Hubbard, 2008).

Serifert·Stern·Zaman(2005)의 펜실베이니아 예술프로젝트 실증연구에 의하면 예술가들은 창조과정에서 평균적으로 3~6명으로부터 창작과정의 아이디어, 재료, 경제적인 지원, 교육이나 훈련의 도움을 받게 되므로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고 분석하였다. 이 네트워크는 도심지역에서는 작품 창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원료 접근성과도 관계가 있지만 네트워크와 클러스터가 별도의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입지 결정 요인으로 보았다.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요인은 창작예술인이 창작공간의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창작공간은 주택과 같이 전문화된 정보창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미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얻고 근접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인접한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 즉, 네트워크 요인은 입지선정단계나 작가의 성장 및 창작인력간 사회적 교류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한 요소이고 공간의 이동이 동기 부여 및 이동 후에도 지역 내 창작인
력들간의 교류와 사회적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림 2-10] 창작공간 입지요인 도출과정

[표 2-5] 창작공간 입지 결정 요인 관련 선행연구

입지 결정요인	선행연구
자기고용적 특성	Markusen(2003; 2004; 2006)
대도시의 문화적 분위기 및 네트워크	Scott(2000), Florida(2002), Currid(2006), Heilbrun(1992, 1996), Hill Strategies Research Inc(2006), Markusen(2006), Jacob(2012), Wojan and Lambert(2007), 김다윗(2011), Hubbard(2008), Serifert·Stern·Zaman(2005)
자연환경적 어메니티	Heilbrun(1992, 1996), 김다윗(2011), Markusen(2003; 2004; 2006, Jacob(2012)
경제적 요인	BRA(Boston Redevelopment Authority, 2003) Markusen(2003; 2004; 2006), Xuefei Ren and Meng Sun (2012)
물리적 공간 확보	Markusen(2003; 2004; 2006), BRA(Boston Redevelopment Authority, 2003)
대도시 접근성	김다윗(2011)
주거지와 거리	BRA(Boston Redevelopment Authority, 2003)

5. 시각예술인 및 창작공간의 공간이동

1) 예술가 및 시각예술인의 입지

플로리다는 예술가를 포함한 창조성을 가진 인적자본(창조계층)은 인간적 삶과 환경을 중시하며, 창조적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고, 인간의 소비 및 창의적 활동을 하기 위해 도시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지 특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창조계층 중에서도 예술가는 도시의 사교공간을 통해 독립된 영역에 존재하기보다는 서로 아이디어와 지원을 주고받는 끊임없는 상호 관계를 맺음으로써 문화의 생산과 경제적 가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도심 입지를 지향하는 특성을 갖는다(Currid, E. 2007; Markusen, A. 2003, 2004, 2006).

그러나 창조계층 및 예술가의 입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Scott, 2000; Florida, 2002; Currid, E. 2006; Heilbrun, J. 1992; Heilbrun, J. 1996; Hill Strategies Research Inc, 2006; Markusen, A. 2006; Jacob, D. J, 2012; Wojan, R. T, Lambert, M. D and McGranahan, A. D, ;2007; 김다윗, 2011)¹²⁾들을 종합하면 예술가 전체의 입지는 도심지향성이 강하지만 하위 분류에 따라 입지패턴이 다르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하일브룬은 예술과 문화를 중요한 장소 기능(Central Place Functions)으로 보고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예술가 입지연구를 진행하였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1970년대 공연예술가는 10대 대도시권의 비중이 35.2%에서 40.3%로 증가하였고 50대 대도시권 비중도 60.8%에서 64.3%로 증가하였지만 같은 시기 시각예술가는 10대 대도시권의 비중이 43.1%에서 33.6%로 감소하였고 뉴욕으로의 집중도도 15.2%에서 10.2%로 감소하여 분산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Heilbrun, 1992). 1980년과 1990년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시각예술인들은 대도시에서 이동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Heilbrun, 1996).

예술가의 도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공간적 입지에 대한 연구를 다수 진행한 마커슨(2003; 2004; 2006)의 연구는 최근의 입지 패턴까지 분석하였다. 그녀의 연구에 의하면 예술가를 작가, 음악가, 시각예술 및 공연예술 분야까지 모두 포

12) 이들 연구는 대부분 센서스자료나 기타 고용통계 등 통계자료에서 관련 직업 분류를 통한 입지 분석의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함하여 볼 경우 [표 2-6] 과 같이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의 3대 대도시권 집중도가 하위 29개 대도시 집중도보다 높지만 시각예술과 같은 자기고용(Self-employed)적 성격을 강하고 소득이 낮은 분야는 공연예술이나 작가군에 비해 3대 대도시 집중도와 29개 대도시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표 2-6] 공연예술가와 시각예술가의 지리적 분포

지역	공연예술가		시각예술가	
	1970	1980	1970	1980
미국 전체 합계(명)	103,512	220,930	100,893	153,162
50대 대도시권 비중	60.8%	64.3%	69.5%	61.3%
대도시권별 비중(%)				
10대 대도시권	35.2	40.3	43.1	33.6
뉴욕	11.4	14.1	15.2	10.2
로스앤젤레스	8.6	12.7	6.6	5.9
이외 8개 지역	15.1	13.5	21.3	17.5
20대 대도시권	10.4	9.7	11.9	12.5
30대 대도시권	7.2	6.6	7.1	7.5
40대 대도시권	4.7	4.9	4.6	5.1
50대 대도시권	3.3	2.8	2.9	2.6
50대 대도시권 이외	39.2%	35.7%	30.5%	38.7%

자료 : Heilbrun, 1992, p.208

[표 2-7] 상위 29개 대도시지역의 예술가 집중도(2000년)

지역	합계	공연예술가	시각예술가	작가	음악가
로스앤젤레스	2.99	5.44	2.34	2.71	1.95
뉴욕	2.52	3.71	2.01	2.99	1.85
샌프란시스코	1.82	1.85	1.83	2.51	1.12
29개 대도시	1.34	1.60	1.26	1.45	1.12

자료 : Markusen, A. and Gerg S.(2006a), p.1667

제이콥(Jacob, D. J., 2012)의 캐나다 소도시 문화종사자 주거 입지에 관한 연구에서도 문화산업은 대체로 대도시권에 집중되어 있지만 문화산업종사자의 입지가 반드시 도시의 규모에 의해 결정지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증분석 결과 도시의 어메니티, 낮은 제조업 비중, 노인인구 비율이 소도시 문화종사자 증가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어메니티는 가장 중요한 입지요인으로 힐 스트레티지 리서치 연구소(Hill Strategies Research Inc, 2006)의 의하면 시각예술인의 35%가 인구 5만 이하의 소도시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예술가의 입지에 대한 국내 실증 연구로는 김다윗(2010)의 연구가 있다. 김다윗은 한국고용정보원의 OES(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자료에서 예술가 직업군¹³⁾의 거주지 입지를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문화예술창작인력은 대도시(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주변 약 40km 주변까지 높게 분포하고 있으며 서울·경기·강원 춘천 지역이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보여 수도권지역에 집중적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내에서도 경기도 지역 클러스터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경기도의 문화예술 창작 인력 거주지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는 자연 환경요소인 어메니티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예술인의 입지관련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예술인의 분포가 일반적으로 대도시 지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예술인 중에서 시각예술인은 예술인의 입지 특성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시각예술인의 생산적 측면, 개인적 측면 그리고 도시적 측면에서 영향을 받아 교외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생산적 측면에서는 작업 형태가 입지조건 무제약성(footloose)과 창작공간이 갖는 물리적 특성을 충족시키기 위함이고, 개인적 측면에서는 경제적 수입이 일정치 않고 소득수준이 낮아 도심의 임대료를 지급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도시적 측면에서는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외곽지역에서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도심근처로 이동하는 교외화 현상이 이루어지지만 외곽지역에 임의로 흩어져 입지하지 않고 접근성이 좋고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에 군집하여 클러스터화 되는 입지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에서의 시각예술 창작인력의 입지 형태와 교외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실증조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13) 김다윗은 OES직업 세분류에서 작가, 화가 및 조각가, 사진작가 및 사진사,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 디자이너 종사자를 예술가로 한정하였다.

2) 시각예술 창작공간의 교외화

플로리다의 창조계층이나 예술가들은 선행연구들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뉴욕, 런던, 파리와 같은 대도시에서 형성된 네트워크와 많은 문화기반시설들로 예술가들은 문화 중심지에 거주하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도심의 공간은 실질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소득이 낮은 예술가들이 지속적으로 공간을 점유할 수 없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일반적으로 구도심지역의 주택이나 환경이 개발되어 고급화되는 과정을 말하는데 학자에 따라 고소득의 중산층이 도심부의 쇠퇴한 저소득층의 주거지로 이주해옴으로써 기존의 거주인구를 대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과정(Glass, 1964), 중산층에 의해 주변지역에서 나타나는 도심 재개발 현상(Smith & Williams, 1986), 저소득계층이 외곽으로 이주한 도심부 지역의 재산가치 상승으로 중산계층이 이주하는 현상(Schaffer & Smith, 1986) 등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레이는 높은 수익률의 창출을 위해 외곽지역에 투자되던 자본이 도심의 쇠퇴로 지가와 임대료가 낮아지자 도시내부로 이동(Smith, 1979)하고 전문직과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중산층이 다양한 여가와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도심부를 선호하게 되면서 도심부에 대한 중산층의 새로운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Ley, 1980; 1986;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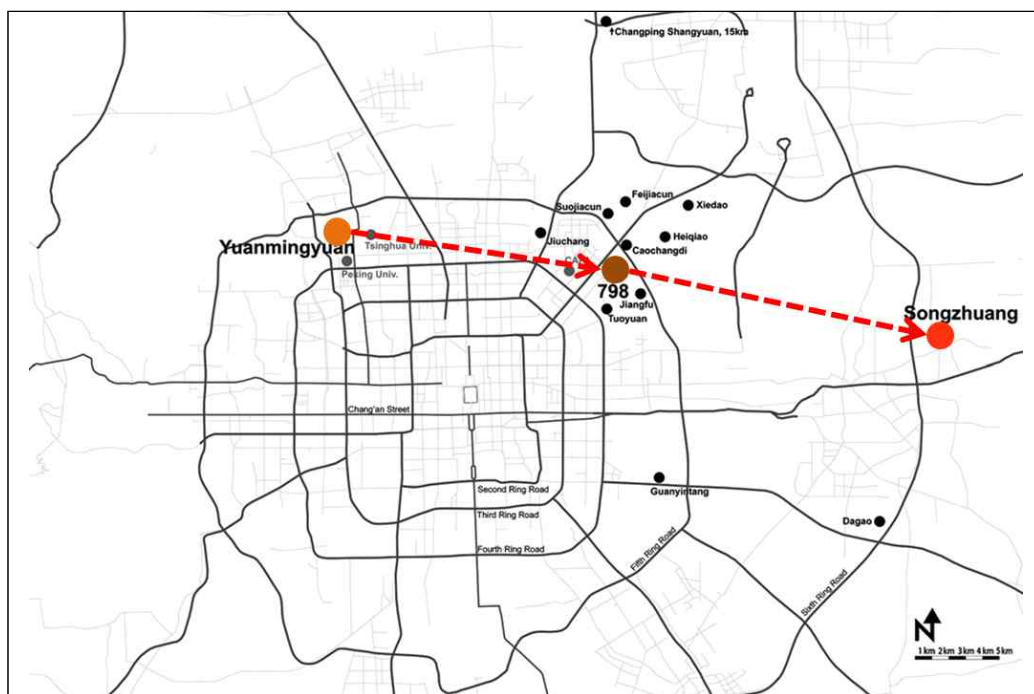
주킨(Zukin, 1982; 1987)의 뉴욕 소호지역을 대상으로 연구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과 이로 인한 창작공간의 이동과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구 산업시대의 건축적 유산들이 버려진 채 창고 등으로 쓰이고 있던 뉴욕 맨하탄의 소호에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예술가들과 미술관의 유입되었고 전통적 건물의 보존 가치와 미적 감각을 갖춘 중산층이 로프트 예술가들의 작업 활동에 관심을 가지면서 예술가보다 고소득의 중산층이 로프트를 더 많이 소유하게 되는 역전현상을 불러일으켜 소호가 고급 소비공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이 고급화된 주택의 공급과 도시중산계층의 생산과 소비패턴의 변화에 기인하며 이 과정에서 예술가들이 로프트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만들어낸 예술적 생활양식과 미국사회에서 형성된 전통에 대한 보존 가치의 상승, 그리고 정치·경제적 구조 등 복합적 관계 속에서 소호가 새로운 공간생성과 소비를 만들어 내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호의 새로운 장소성을 형성시킨 예술가들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

게 되어 결국 맨하탄의 고급 소비공간으로의 변화가 예술가들의 공간적 집적지 쇠퇴로 이어지게 된다.

소호에서의 창작공간 형성과 쇠퇴는 로프트와 같은 예술가들의 아뜰리에가 밀집하면서 이들을 위한 레스토랑, 카페와 같은 부대시설이 생기고 이런 시설들은 지역의 문화적 장소성과 더불어 일반대중에게 매력 있는 장소로 선호되면서 갤러리, 고급카페 등 상업시설이 밀집하게 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로 인해 임대료가 상승하면 예술가들은 임대료가 더 저렴한 이스트빌리지로 또 이스트빌리지에서 다시 주변의 브루클린의 덤보(DUMBO), 뱀(BAM), 윌리엄스버그 지구 등으로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고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신동호, 2011; 양은희, 2010; 김보름, 2010). 이러한 예술가들의 이동 과정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예술가들의 도심 외곽 이동으로 요약될 수 있다.

도심 외곽지역으로의 예술가들의 공간적 이동은 아시아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쉼페이렌과 밍선(2012)은 [그림 2-11] 과 같이 1985년에서 2010년까지 북경의 예술가들이 도심지역에서 교외지역의 이동하면서 예술적 도시화(artistic urbanization)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물론 예술가에 대한 감시와 검열이라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정책적으로 예술가들을 한 공간에 이주시켜 집적시키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도적 노력이 작용하기도 하였지만 1980년대 중반 형성된 예술가 클러스터 유안밍유안(원명원·圓明園)에서 1990년대 798로 이후 2000년대 송주양(Songzhuang)으로 예술가 클러스터가 도심 교외지역으로 이동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도심 개발 및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지가상승이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송주양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가는 국제적 경매 시장에서 각광받는 작가에서부터 생계유지가 힘든 예술가까지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미술대학을 졸업한 젊은 예술가들로 이들에게 교외지역의 낮은 임대료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창작공간 지원이 예술가들을 송주양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중국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예술시장 붐과 토지개발의 연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술구(art district)를 지정하고 있으며 송주양지역의 사례를 보면 북경시(Beijing city government) - 통주구(Tongzhou district government) - 송주양타운(Songzhuang town government) - 시아오푸 마을(Xiaopu village)까지 연계된 겹임이사회(interlocking directorate)를 만들어 예술구의 운영과 예술가

지원 및 아트페스티벌 개최를 진행하며 예술구를 교외로 확산시키고 있다.



[그림 2-11] 북경의 예술클러스터 현황 및 교외지역 이동(1985-2010)

자료 : Xuefei Ren and Meng Sun, 2012, p.509 수정

한국에서도 예술가의 도심내 저지가 지역으로 이동 및 교외지역으로의 이동이 나타났다. 1970년대부터 인사동을 중심으로 집적되었던 예술가들의 창작공간은 1980년대와 1990년대 대학로, 홍대앞으로 이동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삼청동 주변으로 이동하면서 삼청동¹⁴⁾ 지역을 대표적 문화소비공간으로 부상시켰다. 그러나 예술가와 갤러리들이 상승하는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면서 삼청동도 문화예술 장소성이 약해지고 있다(김학희, 2007; 김봉원 외, 2010).

박신의는 이러한 현상을 일종의 ‘축출효과(displacement)¹⁵⁾’로 보았지만 예술

14) 삼청동은 과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었기 때문에 지가가 낮아서 1980년대 초반 가난한 예술가들이 입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건축규제의 완화로 인해, 압구정에 위치한 갤러리들이 삼청동으로 분관을 두기 시작하면서 갤러리들이 생기고, 소규모 화랑들도 자리를 잡게 된다. 이후 삼청동은 기존 주택을 개성에 따라 개조하여 만든 카페, 공방, 옷가게 등이 들어서게 되었고 크고 작은 갤러리들이 생기면서 한옥과 어우러져 전통이 살아있는 화랑거리로 자리잡게 되었다.

15) 박신의(2012)는 도시발달에서 벌어지는 예술가들의 공간이동을 ‘축출효과’로 보았는

가의 이동을 반드시 타의에 의한 이동을 의미하는 축출로만 볼 수는 없다. 지가나 임대료 상승에 대한 압박의 의미에서 일부 축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1990년대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도심 근교로의 이동은 어메니티와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경향도 있었기 때문에 교외화 현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교외화란 주거 및 산업 등 도시의 중심기능이 중심도시의 지가상승 및 노후화와 교통·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외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지칭하는데¹⁶⁾ 미국을 중심으로 1960년대 이후 중심도시와 중심도시 주변지역의 공간적 구조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적 토대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서울 주변지역으로 거주 및 공업기능 확산을 교외화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교외화 현상과 그 과정은 구체적으로 중심도시 주변지역에서 전개되는 도시적 거주지역의 확장, 통근권의 광역적 전개, 도시적 산업지역의 확대, 옥외 여가공간의 형성 등의 측면에서 설명되는데 예술의 기능을 도시적 기능으로 보고 입지 이동의 패턴이 중심도시를 주변지역으로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인과 창작공간의 도심 외곽지역으로의 이동을 교외화 현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예술기능의 교외화 필요성에 대해서 이정훈(2004)은 ‘공간분업론’¹⁷⁾을 제시하고 있다. 공간분업론은 [그림 2-12]와 같이 도시 근교에 상대적으로 입지가 자유로운(foot loose) 창작기능이 교외로 일부 이전하여 예술인들의 창조적 공동체 형성함으로써 내발적 지역발전 방향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데 경제적 자본을 가진 강력한 사회자본 공동체가 창조적 공동체를 밀어내는 것을 지칭하고 있다.

16) 교외화(suburbanization)는 협의의 개념으로는 중심도시의 거주기능이 주변도시 주변지역으로 원심적으로 확대되면서 전개되는 거주교외화의 현상과 그 과정을 지칭한다(Eyles, 1981). 하지만 최근 그 의미가 좀더 포괄적으로 사용되어 취업과 고용의 교외화, 정치조직의 교외화, 유색인종 집단의 교외화, 소매업 활동의 교외화 등에서의 같이 거주기능 이외에 중심도시의 특정한 도시적 기능이 중심도시 주변지역에 원심적으로 확대되면서 전개되는 현상과 그 과정을 의미하고 있다(권용우, 2001).

17) 이정훈(2004)은 Scott(2000)이 문화클러스터를 거대도시 내부에 두어야 한다고 보았지만 문화산업의 가치사슬이 공간상에서 조직되는 방식에 대한 논증이 뒷받침된다면 기능에 따라 도심, 교외, 지방도시가 적합한 기능을 나누는 공간분업론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보았다.

도시 근교의 대한 관심은 문래동¹⁸⁾이나 삼청동 등 도심에 위치한 문화클러스터들이 직면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라자레티(Lazzeretti, 2003)는 도심에서 발생하는 예술가들의 잦은 이동은 지역의 문화적 영역화를 어렵게 만드는데 플로렌스의 경우처럼 로컬 시스템하에서 지역 내 창작인력과 예술자원을 통해 문화예술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토스카나주의 주도인 플로렌스¹⁹⁾의 경우 지역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자산(문화, 예술, 자연, 역사적 자산(CANH: Cultrue, Art, Nature, Heritate Assets)을 토대로 사회문화적 네트워크와 경제·생산적 네트워크가 복합되어 문화주도적 경제발전을 이룬 사례이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자산(CANH)은 고급문화 클러스터(High Culture Cluster: HCcluster)를 형성시켜 박물관, 공연예술, 수공예, 패션과 관련된 인적자원과 소규모 업체들을 통해 유발되는 문화관광 및 문화산업이 여러 개의 하위 클러스터(sub-cluster)들을 만들고 하위 클러스터내 민간 및 공공의 행위자들(actors)간에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생산적 자산으로 활용됨으로써 외부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문화산업활동을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 문화적 영역화(cultural districtualization)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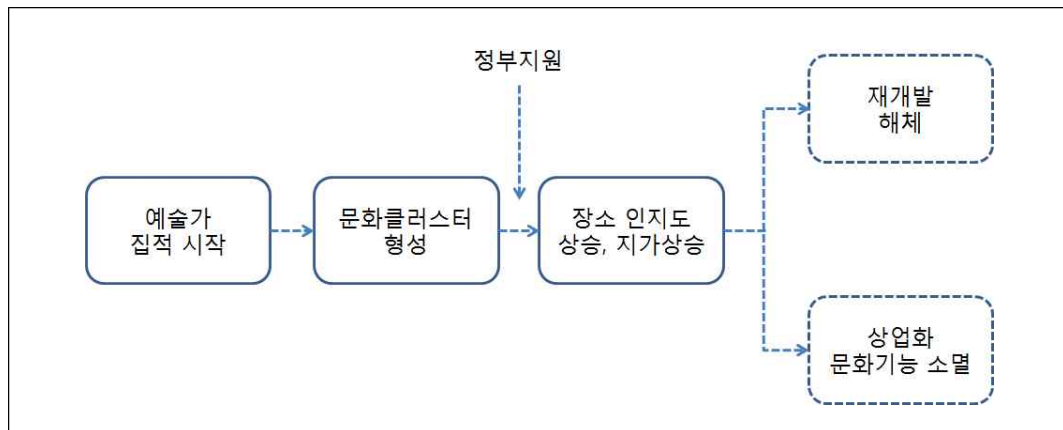
예술가의 입지와 도시의 젠트리피케이션 간의 관련된 선행연구 논의를 종합하면 도심에서 예술가들의 지속적 공간 점유는 도시가 발달할수록 상대적으로 더 어렵게 되어 [그림 2-12]²⁰⁾와 같은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입지가 도심 저지가 지역이나 도시 근교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도시 근교로의 이동은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예술가의 낮은 경제적 지위나 어메니티 및 라이프스타일에 의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기

18) 자발적 문화클러스터로 주목받고 있는 문래동의 경우 본래 철제공장이 밀집한 지역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공장들이 이전하면서 빈 공장이 생겨나자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싼 이곳으로 가난한 예술가들이 2004년부터 서서히 모여들기 시작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문화지구이다. 문래동은 예술가들의 활동이 이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창작 활동에 참여하는 변화가 주어지는 등 자발적 문화클러스터로 성장한 것이 특징이다.

19) 플로렌스는 이탈리아 토스카나 주의 주도로 인구가 약 35만명의 중소도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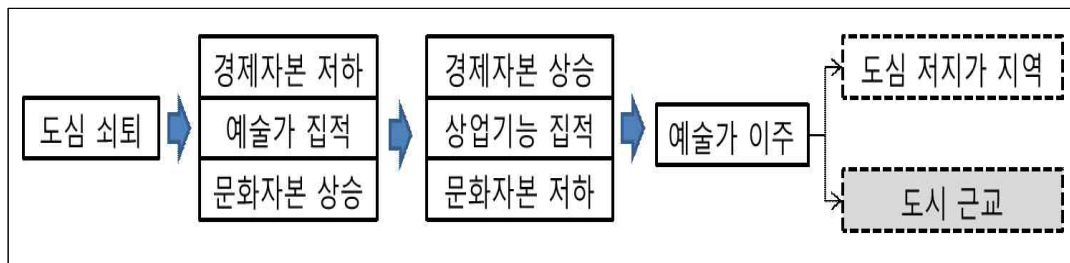
20) 박세훈(2011)은 도시 예술가의 자발적 집적지를 문화클러스터로 명명하였으며 문화클러스터가 형성된 후 장소인지도가 상승하면 지가가 상승하게 되고 이후 재개발로 지역이 해체되거나 상업화로 인해 문화기능이 소멸한다고 보았다.

때문에 예술가의 공간 입지 변화를 일시적인 축출이 아닌 교외화 측면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림 2-12] 예술가들의 공간적 집적지 형성·쇠퇴

자료 : 박세훈(2011) p.3에서 재인용



[그림 2-13] 예술가들의 공간입지 변화 과정

제 3 절 문화예술 창작클러스터의 역할과 지역발전

1. 문화예술 창작클러스터 국내외 사례

1) 해외사례

예술가 또는 창작공간의 지리적 집적이 특정도시나 지역차원에서 성장하고 발전되는 현상은 고대부터 이어져 왔고 문화예술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시각예술은 오랫동안 공간과 연계성을 가져왔다. 유럽에서는 시각예술을 비롯한 예술인들이 대도시에서 집중되었는데 위대한 예술이 생산된 문명화의 황금시기인 고대 아테네시대부터 16세기 런던, 18세기와 19세기 비엔나 그리고 20세기 파리와 로스앤젤레스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현상이 발견된다(Hall, 1999). 홀은 특히 창조성을 도시성의 조건으로 보았는데 창조성에 요구되는 투자와 재정적 여력을 갖춘 후원자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파리와 비엔나와 같은 도시들에서는 1950년대부터 시각예술인들을 비롯한 예술인이 집적되면서 현대 예술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오하간(O'hagan, J. and Hellmanzik C, 2008)은 유명한 화가의 출생지와 활동지에 대한 이동을 분석한 결과 14세기에서 20세기 걸쳐 특정 국가와 도시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탈리아의 로마와 플로렌스에 유명 화가의 출생과 활동지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하였고 19세기 초반에는 런던과 파리에 클러스터가 형성되었는데 파리는 19세기 후반까지도 유명 화가들의 활동이 지속되었으며 20세기 초반 들어와서는 작가들의 이동이 뉴욕과 런던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현재 뉴욕에 집적된 미술 관련 산업은 도시의 경제적 부흥과 뉴욕 시민의 정체성을 고양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맨해튼에만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뉴욕현대미술관, 구겐하임미술관, 휘트니미술관 등 100여 개의 미술관과 박물관, 500개 이상의 상업갤러리들이 존재하고 있다(박과랑, 2003; 이규현, 2006). 이 중 상업 갤러리로 시작한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미술의 주도권이 파리에서 뉴욕으로 이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시민들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Grosenick and Stange, 2005). 문화예술인 집

적지 및 문화도시 주도권을 잡고 있는 런던에서도 미술관과 갤러리는 도시경제와 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yBa(Young British Artists)’와 같은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젊은 영국의 아티스트들은 전통적으로 낙후 지역이었던 이스트엔드지역에 현대 미술운동을 일으켜 12개 이상의 갤러리와 1,320명 이상의 예술가와 그들의 작업 공간, 박물관 및 문화예술관련 시설이 모여들게 함으로써 독특한 예술클러스터이자 관광지로 변모시켰다(박세훈 2011).

최근 들어서는 대표적인 문화도시 및 예술 클러스터를 가진 뉴욕, 런던, 파리와 같은 상위계층의 대도시뿐 아니라 스페인의 빌바오, 영국의 리버풀, 프랑스의 랑스, 독일의 에센과 같은 서구의 지방중소도시로 예술 클러스터가 확산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미술관 건립, 산업유산의 재생, 문화예술촌 형성,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시각예술관련 문화시설과 창작공간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도시 이미지 제고, 관광 및 문화 산업 성장, 낙후 된 도심의 재생 등 다양한 효과를 창출(Evans, 1996; Plaza, 2006; Vicario and Monje, 2003)함으로써 걸쳐노믹스를 실현하고 있다²¹⁾.

도시 차원에서 도시와 문화예술의 접목은 도시 내 특정 공간에 문화시설 및 창작인력이 집적시켜 창작클러스터가 형성되는데 시각예술 창작인력들과 관련시설이 집적된 시각예술 창작클러스터의 대표적 사례로는 런던의 소호, 뉴욕의 이스트 사이드, 플로렌스, 더블린 템블바, 북경 파산즈, 플로렌스 예술품복원클러스터 등이 있다.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창작클러스터들은 창작인력 및 시설의 집적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반면 북경의 경우 정책적·계획적으로 조성되고 있다는데 차이가 있다.

몽고메리(Montgomery, 2003; 2004)는 더블린 템블바, 쉘필드 CIQ(Cultural Industrial Quarter), 맨체스터 MNQ, 아들레이드의 네 지역을 예술 선도 도시재생(arts-led urban regeneration works)의 사례로 지칭하면서 예술가의 작업실, 갤러리, 극장, 음악클럽 등 예술 활동이 국지적으로 집중됨으로써 도시의 경제와 인구 유입, 젊은이들에게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 재생의 효과를 가

21) 현대미술로 넘어오면서 미술산업 중에서도 현대 미술 전시는 단순한 시각적 볼거리를 넘어 사회,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의 사회적 인식이나 미의식을 재구성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기도 한다(Deutsche, 1996; Venkatesh and Meamber, 2006).

져왔다고 밝히고 있다. 이중 더블린 템블바 지역은 17세기와 18세기에 개발된 지역으로 현재는 낙후된 도심지역인데 이 지역의 낮은 임대료 수준이 예술가의 작업실, 갤러리, 녹음실, 디자이너의 공방, 카페 및 레스토랑, 젊은 디자이너 샵 등을 밀집시켜 지역의 활기를 되찾으면서 새로운 재개발계획을 무산시키고 대신 프로젝트 아트센터, 올림픽아극장과 같은 지역문화시설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로 인해 템블바는 [표 2-8] 과 같이 인구 및 경제활동을 촉진하게 되었고 역사적 건축환경을 간직한 다양한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변화하게 되었다(Montgomery, 2004).

[표 2-8] 더블린 템블바의 창작클러스터 현황 및 성장과정

시기	1992	1996	2001
인구 및 경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200명 • 문화산업 관련 업종 70개 • 기타 업종 8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2000명 • 고용인구 2000명 (300%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3000명 • 문화관련업종 450개 • 고용인구 2500명
문화시설 및 관련시설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 16채 • 레스토랑 27개 • 소매점 100개 • 아트빌딩 6개 • 호텔 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센터 12개 • 레스토랑 27개 • 소매점 200개 • 아트빌딩 6개 • 호텔 5개 	

자료:Montgomery(2004),“Cultural Quarters as Mechanisms for Urban Regeneration. Part 2: A Review of Four Cultural Quarters in the UK, Ireland and Australia”, p.7-8

뉴욕의 덤보(Down Under the Manhattan Bridge Overpass)지역도 1990년대 말 뉴욕의 지가가 급속히 상승하자 고정된 수입이 없는 예술가들이 덤보의 방치된 공장건물에 입주하여 창작공간, 작품 전시장, 공연장, 연습실 등을 만들고 일부 예술가들은 주거공간으로 이용하면서 시각예술클러스터로 변화하게 된 사례이다. 덤보는 이 과정을 통해 인구 및 부대시설이 유입되었고 매년 예술축제(Arts Festival)를 개최하여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약 25만명의 예술인 및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500명의 예술인, 100개의 스튜디오, 50개의 갤러리, 100개의 프로그램이 참여하여 예술가뿐 아니라 평범한 시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어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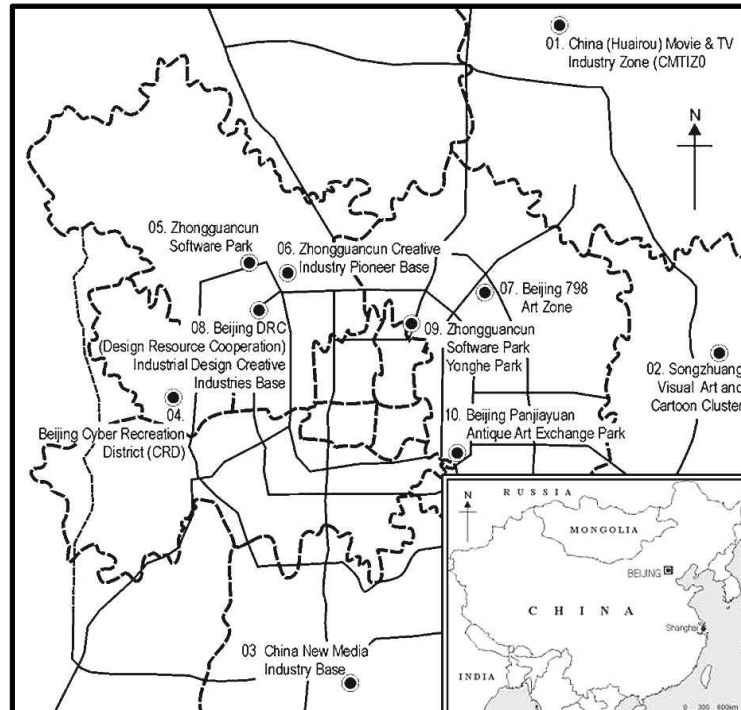
리고 상가 및 업무지구, 식당, 갤러리 등이 공존하는 세계적 시각예술 클러스터로 발전하게 되었다(신동호, 2011).

오래된 역사를 가진 이탈리아 플로렌스는 르네상스 시대부터 플로렌스로 유입되거나 창작되는 예술품을 중심으로 창작클러스터가 형성된 지역으로 현대에 와서는 예술품복원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 플로렌스는 지역의 오랜 역사성과 예술산업 클러스터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형성된 지역으로, 예술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 인적자원이 쉽게 이동하지 않는 안정적인 지역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프로세코, 상아, 지류, 캔버스 등 세부 복원분야별로 지리적인 근접성을 보임으로써 지역 문화시스템(cultural local system)을 구축하고 협업을 통해 성장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Lazzaretti, 2008).

아시아에서는 북경의 798공장(따산즈), 카오창디(Caochangdi), 송주앙(Songzhuang) 지역과 일본의 나오시마 등이 대표적인 시각예술클러스터 사례이다. 798지역은 1950년대 동독의 자금으로 지어진 바우하우스 양식의 군수 공장 지대로 북경의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면적이 확장되면서 초기 예술촌이 형성된 유안밍유안(원명원·圓明園)으로부터 축출된 예술가들과 학생들에게 2000년부터 임대되면서 형성되었다. 2000년 초반에는 공장이전으로 생긴 빈 공간에 예술인들이 입주하면서 자연발생적 ‘예술공장(Art Factory)’이 형성되었으나 작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예술촌에 국제적인 갤러리와 카페, 음식점들이 생겨나면서 점차 상권이 발달하게 되었다. 798은 2006년 북경시가 지정하는 문화창조지구(Cultural creative clusters)²²⁾로 선정되었고 지금은 예술가 클러스터를 넘어 유명 관광지로 성장하여 일평균 2~3만명, 매년 개최되는 798페스티벌 기간에는 3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아시아 최대 예술시장(세계 4위)으로 부각되었다²³⁾.

22) 2006년 북경시는 10개의 문화창조지구를 지정하고 “made in China”에서 “created in China”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북경의 문화창조지구는 디자인, 애니메이션, 디지털 콘텐츠, 시각예술, 공연예술, 패션부문이 포함된다(Kong, L. and O'Connor, J, 2009, p.85)

23) 798은 2005년 중국 정부에서 국가정책에 따라 이곳을 철거한다고 발표하였으나 2006년 정책을 변경해 798예술구를 ‘문화창의산업특구’로 공식 지정했다. ‘11차5개년경제사회발전계획’에서 ‘성장의 질’을 중시하는 중국정부가 연례화된 따산즈예술축제와 798 비엔날레 등으로 국제적 예술 인파가 모여들자 예술특구로 발전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후 더욱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중국 미술은 영국 yBa, 독일 라이프치히, 인도 현대미술과 더불어 세계미술계를 이끄는4대 천황 자리에 오르며 세계 미술시장



[그림 2-14] 베이징의 창조 클러스터(Kong, L, 2009, p.84)

798과 함께 북경을 대표하는 예술구인 송주양(Songzhuang) 지역은 시각예술과 카툰 클러스터로 지나치게 상업화된 798과 다르게 아직 예술 생산의 주요한 지역으로 남아있는 곳이다. 송주양은 베이징의 동쪽 28km에 위치한 인구 약 10만명의 교외지역으로 2009년 현재 약 3,000명의 예술가들이 모여 있다. 798과 더불어 2006년 CCI(Cultural and Creative industry)로 지정되어 지금은 원주민보다 예술가를 포함한 이주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송주양의 47개 자연 촌락 중 22개가 예술가 스튜디오와 갤러리를 가지고 있으며 예술가들의 80%는 시아오푸(Xiaopu) 지역에 살고 있는데 북경 도심에 있던 초기 예술촌인 유안밍유안에서 추방당한 예술가들도 다수 거주하고 있다. 시아오푸(Xiaopu) 지역 주민들은 예술촌이 형성되기 전인 1990년대 초까지도 일년에 300RMB의 소득이 있었지만 예술가들에게 공간을 임대해주면서 연소득이 약 2,000RMB까지 증가되었고 1994년까지 소매상가가 1개 밖에 없던 농촌지역에 2009년에는 40개의 갤러리와 58개의 레스토랑 및 슈퍼마켓, 28개의 예술관련 용품점이 들어서는 등 15년 사

의 블루칩으로 성장해 2007년 중국내 미술시장 규모가 9조에 달한다(김태만, 2008).

이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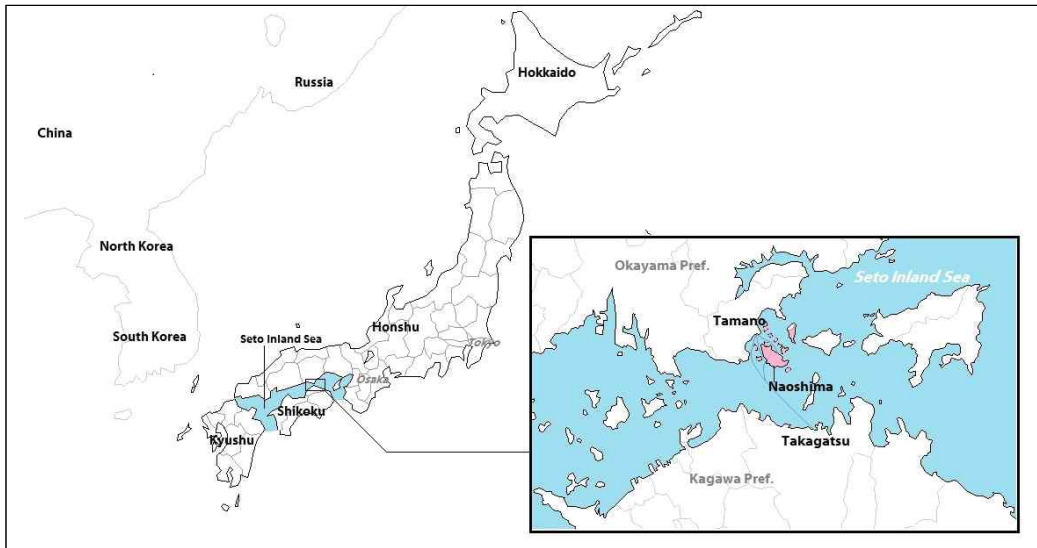
북경에서 시각예술창작클러스터인 예술구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은 정책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방정부 주도하에 예술 생산과 부동산 개발의 연계하는 예술적 도시화(artistic urbanization)와 예술가들의 감시 및 검열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Xuefei Ren and Meng Sun(2012) 서구의 자연발생적 클러스터 형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예술가들에게 안정적인 창작공간을 제공해주고 관련 산업이 밀집됨으로써 문화산업 발전 및 예술을 통한 지역개발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동일하다.



[그림 2-15] 송주앙 지역의 예술가 스튜디오와 레지던시(좌), 임대형 아트 콤플렉스(우)

일본의 나오시마섬²⁴⁾의 사례는 민간주도의 집중 투자를 통해 시각예술클러스터를 형성한 사례이다. 나오시마섬은 일본 가가와현 세토내해의 동부에 위치한 면적 약 7.8km²의 여의도와 비슷한 크기의 작은 섬이다. 나오시마는 구리 제련소가 폐쇄되면서 이로 인한 환경오염과 실업으로 8,000여명의 인구가 3,000까지 감소하였고 심각한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버려져 가던 섬이었다.

24) 나오시마 섬은 가가와현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 해상에 떠있는 27개의 섬들 중 하나로 1917년 미쓰비시광업이 나오시마 제련소를 설치한 후 나오시마 섬은 인구 8천 명에 달할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련소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폐기물 등 심각한 환경피해의 섬이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고 구리제련소가 폐쇄되면서 는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황폐화되기 시작했다(신영,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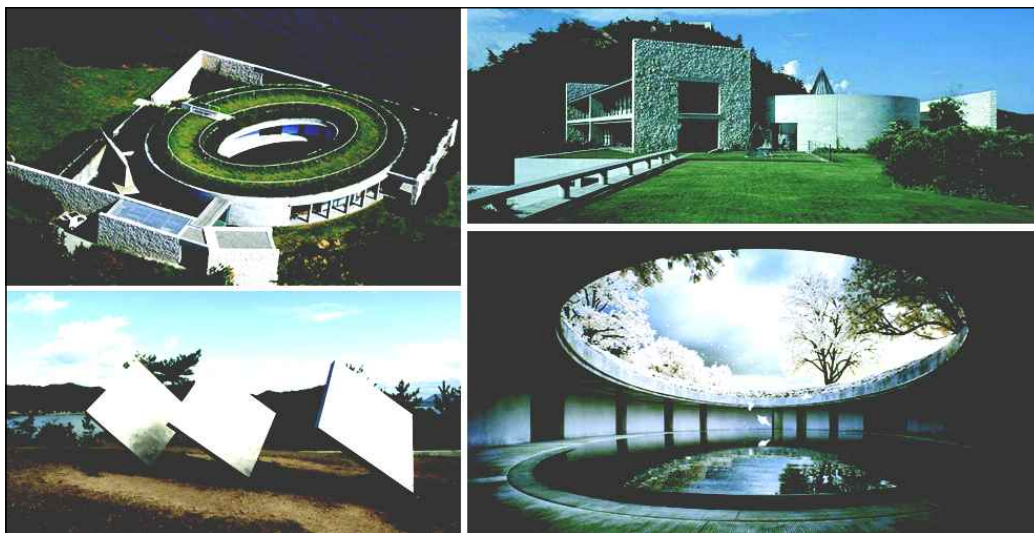
[그림 2-16] 나오시마섬 위치도

1989년 베네세 그룹의 이른바 ‘나오시마 프로젝트’로 인해 연간 30만명 (2008)의 관광객이 찾는 국내외적 명소로 바뀌었는데 ‘나오시마 프로젝트’는 베네세 그룹이 사회환원, 기업의 이미지 제고, 실버산업으로의 영역 확장 등을 목표로 나 오시마 문화촌을 구상하면서 시작되었고, 1987년 섬의 절반의 토지를 약 10억엔을 들여 매입해 국제 캠프장을 열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92년 베네세 하우스가 개설되면서 문화성 높은 섬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빈집프로젝트(1998), 지추미술관(2004), 이우환미술관(2010)을 완공했다.

특히 지추(地中(지중))미술관은 주변 섬의 능선과 스카이라인 보존 및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나오시마섬 남부의 산 위에 있는 계단식 밭 형태의 염전 터 지하에 만들어졌는데 사각형의 건축물을 땅 속에 묻는 형태로 자연환경과 조화된 미술관이고 베네세 하우스는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현대미술관과 호텔 기능을 하나로 묶은 체류형 미술관으로 소장된 전시 작품들은 미술관 설계 단계부터 작가와 건축가와의 협업에 의해 전시공간이 연출된 나오시마에만 존재하는 ‘장소 특정적(site-specific)’ 작품들을 설치하였다. 이밖에도 섬 전체에 미술작품을 설치함으로써 섬 자체가 미술 작품으로 뒤덮인 하나의 거대한 미술관을 이룬다. 1998년부터 시작된 빈집프로젝트는 유명예술가들의 폐를 활용한 예술작품인데 주민들은 집 프로젝트를 지역 환경의 일부로 인식하면서 관광 안내 및 작품

관리에까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주민들의 삶과 미술이 유기적인 관계와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다.

나오시마는 인위적 예술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개발의 주체인 베네스 그룹의 세계적 브랜드 가치 상승과 더불어 나오시마 섬에 젊은 층 유입을 포함한 거주 인구의 증가와 방문객 증가로 섬의 활성화를 이루어 섬지역 주민의 소득이 가가와현 35개 지자체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여운상 2009; 신영, 2013; 이호상·이명아, 2012). 2010년부터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나오시마 섬 인근에 제련소가 있던 섬인구 50명의 이누지마섬과 산업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던 데시마 등에서도 미술관을 개장하면서 인근 6개 섬을 연계하여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세토우 국제 예술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세토우 국제 예술 축제에는 100일 동안 약 938,000명의 방문객이 방문하는 큰 성과를 거두어 3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 될 예정²⁵⁾이다. 나오시마 섬의 사례는 도시개발에 있어서 시각예술이라는 주제를 가장 핵심요소로 본 ‘시각예술기반 지역개발’의 사례로 성공적인 도시재생 회복기능을 넘어 창조도시로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그림 2-17] 나오시마섬 베네세 하우스 (신영, 2013)

25) <http://www.benesse-hd.co.jp/en/csr/column/index.html>



[그림 2-18] 나오시마섬 지추미술관(신영, 2013)



[그림 2-19] 나오시마섬 몬무라지역 빈집 프로젝트(신영, 2013)

2) 국내사례

국내에서는 1990년대 이후 지역개발 측면에서 축제 등 관광자원에 주목하여 문화행사와 연계된 단지나 지구형 개발을 중심으로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예술인이나 예술인의 창작공간의 집적은 문화지구나 소규모 자생적 문화예술클러스터²⁶⁾가 형성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최근에는 제조업 중

26) 박세훈(2011)은 문화클러스터를 문화산업과 기업이 연계된 문화산업클러스터와 상업적 문화기능이 집적된 문화지구와 구별된 형태로 예술가의 인적 네트워크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형태로 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클러스터 형성 요인으로 작용한 자원의 형태가 문화예술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문화지구도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개발의 유형으로 포함하였다.

심 도시들의 쇠퇴와 도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문화를 활용한 도시 재생 모델에 더욱 관심이 더욱 커져 정책영역에서도 [그림 2-19], [표 2-9]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²⁷⁾를 중심으로 창작공간의 정책적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제도들이 생기고 있다.

문화 관련 정책들 중 마을미술프로젝트, 문화예술창작벨트,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등이 창작기능을 매개로한 정책들로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점적인 형태로 공간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선도 프로젝트적 성격을 띠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예술인이나 예술인의 창작공간의 집적 등 문화예술 기능이 강한 문화지구와 문화예술클러스터²⁸⁾를 중심으로 국내 창작클러스터의 사례를 파악해 보았다. 문화지구는 일정 구역에서 문화생산 기능과 문화 소비 기능이 집적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상업적 기능이 강한 지역을 의미하며, 문화예술클러스터는 문화예술활동 및 인력 등 주로 생산기능이 지리적으로 일정 지역에 집적되어 지역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영향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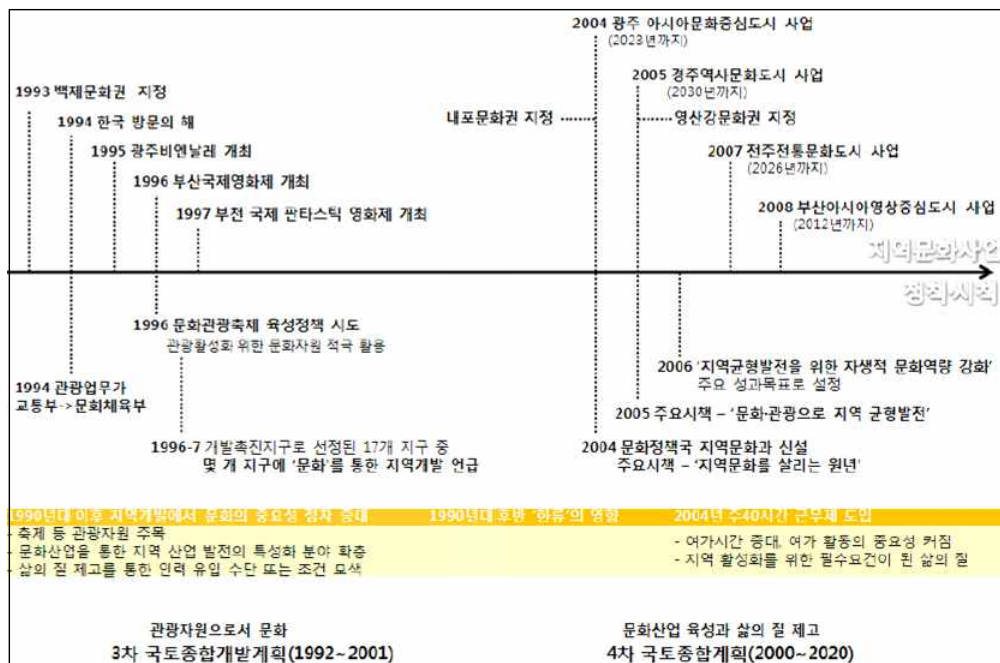
27)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 내 지역문화과가 신설되었고 지역을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토해양부, 행안부,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역발전 위원회 등에서 2007년 이후부터 문화를 매개한 지역재생 정책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28) 박세훈(2011)은 문화클러스터를 문화산업기업의 기업이 연계된 문화산업클러스터와 상업적 문화기능이 집적된 문화지구와 구별된 형태로 예술가의 인적 네트워크와 지역 사회가 연계된 형태로 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클러스터 형성 요인으로 작용한 자원의 형태가 문화예술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문화지기도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개발의 유형으로 포함하였다.

[표 2-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관련정책 추진 현황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하드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소프트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지방문화원 중심 지역문화프로그램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마을미술프로젝트			
휴먼	지역문화아카데미사업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하드+	문화역사								
소프트	마을 가꾸기								
	문화도시조성사업(경주, 전주, 공주·부여, 부산)								
				근대문화 유산을 활용한 구(舊)서울역사복합문화공간조성				문화역 서울 284 운영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문화예술창작벨트조성				
					지역근대 산업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벨트 조성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하드+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소프트+								문화이모작 사업	
휴먼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								
								문화디자인 프로젝트(간이역)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자료 : 추미경(2012), p.158~164 재구성



[그림 2-20] 문화관련 지역개발사업 정책 및 시책

자료 : 추미경(2012), p.191

현재 문화지구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서울 인사동, 대학로, 경기도 헤이리, 인천 개항장 4곳이 지정되어 있다. 이 중 헤이리는 소수의 출판인들에 의해 책을 제작하고 기획, 유통하는 공간이면서 출판업 종사자들이 거주하는 작은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하여²⁹⁾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쳐 화가, 도예가, 건축가, 영화인, 문화 기획자, 갤러리 등이 모인 문화예술 마을로 그 개념이 확대되었다. 문화예술인들은 서울은 지가가 비쌀 뿐 아니라 대자본의 유입으로 문화가 상업화될 소지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어 문화예술인들의 거주와 창작활동 및 창작품의 전시와 판매, 문화욕구를 가진 대중들과의 대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를 원했으며 장소도 지가가 낮은 경기도 외곽을 선택하게 되었다. 헤이리는 2009년 경기도와 파주시에 의해 문화시설 및 문화활동이 집적되어 있어 지역문화 활성화 및 경제적 효과, 도시 이미지 향상 등의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문화지구로 지정하였고 거주민 뿐 아니라 연간 유료 방문객 23만여 명에 달하는 거점 문화특화지구로 자리잡았다(이경은, 2010).

문화예술 창작클러스터는 전국적으로 소규모 예술촌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그 중 파악이 가능한 지역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문전성시 프로젝트)³⁰⁾ 중 문화예술형 사업과 지역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문화예술창작벨트 시범사업, 국공립창작스튜디오 등 공공주도의 사업으로 형성된 지역들과 그밖에 민간주도 및 자생적으로 발생한 클러스터들이 포함될 수 있으며 전국에 약 40곳³⁰⁾이 있다. 소규모 문화예술 클러스터들은 1995년 이후 민간과 공공영역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민간영역에서의 창작공간 형성은 농어촌 공동체의 붕괴와 함께 1995년 폐교와 같이 농어촌지역에 유휴공간이 생겨나면서 부터이다³¹⁾. 폐교를 활용한 창작공간은 도심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29) 헤이리는 1994년 ‘서화촌’이라는 문화예술인 모임으로 시작하였지만 명칭은 파주의 전래농요인 ‘헤이리소리’와 영국의 ‘헤이온와이’를 방문한 한길사대표와 열화당 출판사 대표가 한국에서도 책을 테마로 한 명소를 현실화하자는 논의에서 탄생하였다. 현재 헤이리는 거주자 382명중 113명이 미술 및 갤러리 종사자로 시각예술종사자 다수가 거주하고 있다(이경은, 2010).

30) 선행연구나 관련 자료들을 통해 확인된 곳만 40여 곳이며 문화예술 클러스터는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것 이외에도 다수의 민간 클러스터들이 존재한다.

어려 있는 입지적 조건으로 인해서 예술가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운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의 지원도 지속적이지 않아 교육부와 의 임대료 등을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 요인과 지역적 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예술가들이 주민들과 마찰로 인해 공간을 떠나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백기영, 2010) 전반적으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³²⁾ 원주 문막의 후용공연예술센터, 화성의 창문아트센터, 오궁리 예술촌, 평창 감자골 스튜디오와 같은 일부 사례는 주민들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문화교육과 예술인 지원의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표 2-10] 문화지구 및 문화예술 클러스터 현황

유형	현 황	
문화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인사동, 대학로, 경기도 헤이리, 인천 개항장 4곳 지정 	
문화예술클러스터	문전성시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형 : 대구방천시장, 청주가경터미널시장, 봉화상설시장 총 3곳
	문화예술창작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군산, 전남신안, 경기포천, 대구, 충남아산 5개소
	국공립창작스튜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창작스튜디오 : 서울창동, 경기고양 • 지방자치단체창작스튜디오 : 서울시(서교, 금천, 신당, 연희, 문래, 성북, 관악, 홍은 8곳), 경기도(경기창작센터), 인천(인천아트플랫폼), 대구(문화창조발전소), 밀양(밀양연극촌), 광주(광주시립미술관, 대인시장), 제주(가시리창작지원센터), 부산(또따또가)
	민간주도창작스튜디오 및 자생클러스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창작스튜디오 : 경기광주(경안창작스튜디오), 경기이천(금호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마포(쌈지스페이스), 서울종로(가나아트리에), 경기양주(장흥아트리에), 서울마포(달링스튜디오), 경기파주(하제마을), 강원원주(후용공연예술센터), 경기화성(창문아트센터), 경기양주(송추아트밸리) • 자생클러스터 : 홍대앞, 전주동문사거리, 문래예술촌, 인천배다리골

31) 폐교를 활용한 창작공간 지원정책은 1971년 뉴욕의 한 초등학교를 개조해 국제적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PS.1과 같은 사례를 참조하게 된 것으로 도심의 공동화 현상으로 생겨난 뉴욕시의 경우와는 매우 다른 상황이었지만 1997년 논산과 강화에 폐교를 활용한 미술창작실을 조성한 이후 1999년 제정된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하에 2004년까지 29개소가 생겨나게 되었다.

32)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하에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약 30곳이 조성되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문을 닫는 곳이 많다.

폐교를 활용한 민간에 의한 창작공간 조성과 함께 도심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국공립 창작스튜디오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국공립 창작스튜디오는 미술관의 부속시설 및 공공미술과 연계된 지역기반 프로젝트형 레지던시가 생겨난 2000년 중반까지 1세대 창작스튜디오들과 2000년대 중반이후 생활친화형 문화시설 및 장르 융·복합형 창작공간이 등장한 2세대 창작스튜디오로 구분된다(백기영, 2010). 2000년 중반이후 등장한 2세대 창작스튜디오들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갖추고 창작공간을 지원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형태³³⁾로 이 공간들은 예술가들의 창작지원 중심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지역주민들과 예술을 통해 소통하는 생활 문화시설에 가까운 형태이다. 최근에는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시작한 창작스튜디오들이 단일 예술장르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산업, 예술시장과 결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가 양평의 남한강 연수원을 개조해 추진하고 있는 양평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지역의 채석산업과 연계한 포천 아트밸리(2010), 유원지 내의 모텔 유휴공간을 활용한 양주군청의 장흥아트밸리(2006), 김해의 도예산업단지에 자리 잡고 있는 클레이아크미술관(2009), 패션디자이너들을 위한 동대문패션창작스튜디오(2009)와 대구패션창작스튜디오(2011), 전주 무형문화의 전당(2013) 등이 이에 해당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역에 조성된 문화예술 창작클러스터들의 현황을 종합

33) 서울시에서는 구로공단 지역의 인쇄공장을 개조한 금천예술공장(2009), 지하상가를 공예인들의 창작공간으로 전환한 신당창작아케이드(2009), 문학인들을 위한 연희문학창작촌(2009), 동사무소를 개조한 서교예술실험센터(2009), 철조공장 밀집지역의 공연 예술가들을 위한 문래예술공장(2010), 예술을 통한 치유와 나눔을 표방한 성북예술창작센터(2010), 관악어린이 창작놀이터(2011), 흥은예술창작센터(2011), 장애인창작스튜디오(2011) 등 총 9개가 만들어 졌다. 수도권에서도 경기도미술관이 주축이 되어 문화소외지역인 안산시 선감도의 (구)도립직업학교를 개조하여 경기창작센터(2009)가 오픈되었고 대규모 시설에 창작환경을 갖춘 이 센터에서는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및 지역과 함께하는 예술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인천 중구 구도심의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인천아트플랫폼(2009)은 근대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창작공간을 구축하였다.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유형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인천아트플랫폼은 전국의 지자체들의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푸는 문화적 열쇠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와 비슷한 프로젝트로는 KT&G의 연초창을 개조한 대구예술창조발전소(2011), 수원시가 추진하는 행궁동 레지던시(2011)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각 지방자치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창작스튜디오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해보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입지적 특성으로 서울, 광주, 인천 등 대도시뿐 아니라 수도권(포천, 안양, 파주, 화성, 양주, 양평 등) 및 지방의 중소도시(밀양, 아산, 신안, 청주 등)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기능적 측면에서 단순한 예술가의 창작공간에서부터 여러 장르의 예술가들이 복합되고 지역 주민 및 지역의 시민단체와 연계된 프로젝트들과 많아지면서 지역기반형 레지던시 및 생활친화형 예술공간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문화예술 창작클러스터가 기존의 문화기반시설과 차별화 되는 것으로 지역 사회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서울에서도 1960년대 이후부터 명동에서 강남까지 문화 및 문화예술에 의한 새로운 공간들이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왔고 인사동, 사간동, 평창동, 삼청동, 청담동 등 시각예술산업 중심의 클러스터들이 형성되었다. 이 지역들에 예술가의 창작공간과 유통공간이 집적되어 도시 내 문화지역 형성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³⁴⁾. 최근에는 인천시나 서천군³⁵⁾과 같이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지역의 도시재생에 적극적으로 문화예술 창작기능을 주요 콘텐츠로 도입하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창작클러스터의 확산이 기대되며 지역개발과의 연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34) 서울문화포럼에서 주요 문화지역(삼청동, 홍대, 서초동, 문래동, 답십리, 평창동, 명동, 남산, 돈화문호)을 대상으로 지역 밀집자원의 심층조사 및 커뮤니티를 조사한 결과 인적자원의 유입을 통해 새로운 생산과 유통, 소비를 촉진시키고 결과적으로 지역의 새로운 이미지와 정체성을 생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역 이미지 특화에 시각예술창작인력과 관련 시설의 집적이 특화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보았다.

35) 서천군은 장항읍을 중심으로 광복 후 1980년대 초까지 장항제련소를 중심으로 만톤급 무역선이 들어오는 국제항을 가진 인구 3만명의 소도시였으나 1989년 제련소가 폐쇄되고 2008년 장항역이 인근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인구가 1/3로 축소되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다. 2008년 충청남도내 낙후된 6개 시군을 지원해주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서천군이 선정되면서 정부에서 5년간 지원되는 예산을 기반으로 미디어아트를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아트센터, 레지던시, 선셋장항페스티벌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천군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외부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여 지역인지도가 낮고 인구 규모가 만명 수준인 장항읍일원에 방치된 미곡창고, 어망공장창고, 장항화물역사 등지에 미디어콘텐츠센터 설립 및 선셋장항페스티벌 등을 개최하여 문화예술인과 외부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재생을 도모하고 있다.

2. 문화예술 창작클러스터를 통한 지역발전

예술가의 창작공간은 과거에는 예술인이 사적인 작업 공간으로 인식되어 일반 대중의 관심밖에 놓여 있었고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지 못하였지만 최근 들어 예술생태계 측면이나 공간개발 측면에서 창작 공간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창작공간이 창작, 유통, 향유로 이어지는 예술 사이클의 전 과정과 깊이 관여되어 있고 급변하는 도시 환경에 반응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각예술 창작공간은 디지털 기술의 도입, 탈장르 실험프로젝트, 장소 특정적 설치작업, 공공미술 등 매체와 예술표현 형식의 전문화 및 다양화 그리고 갤러리 전시공간을 넘어 전자매체, 건축물, 컴퓨터, 도시공간 등으로 예술작품의 유통환경이 다변화됨으로 인해 창작공간은 개념과 기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유럽의 도시들이 적극적으로 창작공간을 확대 시키고 있는 것도 창작공간에 대한 역할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 시내 곳곳에 국가가 운영, 보조하고 있는 스튜디오, 스튜디오형 아파트, 창작스튜디오 등을 조성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주민들은 생활환경과 근접한 일상적인 환경 속에서 예술인을 접하고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적인 효과를 얻고 예술지원의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미국에서도 예술가들의 장기 지원 정책인 LINC(Leveraging Investments in Creativity)의 일환으로 예술가의 공간 개발(Artist Space Development)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예술가 지원과 공간 개발을 연계하고 있는 이유는 예술가의 창작공간이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는 도시 쇠퇴의 감소, 공간의 미화, 공실 부동산의 활성화, 보행 및 교통량 증가,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의 역할을 하며, 사회적으로는 지역주민이 문화프로그램 확대와 공식·비공식적 문화 참여, 자부심 증대, 세대간 교류 확산, 저소득층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측면으로는 예술가들의 이주를 통한 창조클러스터의 형성 및 부동산 가치 상승과 고용 창출, 커뮤니티 개발 전략의 다양화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Jacson, R. M. and Kabwasa-Green, F, 2007)³⁶⁾.

[표 2-11] 예술가 창작공간(artist space) 개발의 영향

	예술가 공간 개발(Artist Space Development)의 영향
물리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쇠퇴의 감소 • 공간의 미화 • 공실 부동산의 유동화 • 보행 및 자동차 교통의 증가 • 역사적 빌딩의 보존
사회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을 위한 예술 프로그램의 증가 및 공식·비공식적 문화참여 기회 확대 •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공간의 활용성 증대 • 저소득계층의 다각화 • 청소년 육성 • 민족적 자부심 고취 • 세대간 교류의 증진
경제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들의 이주로 인한 창조클러스터의 형성 및 촉진 • 부동산의 가치 증진이 지역 활성화 및 재생의 촉매제로 작용 • 고용 증가 • 커뮤니티 개발 전략의 다양화 • 문화 및 커뮤니티 계획에 예술가 창작공간 포함

자료 : Jacson, R. M. and Kabwasa-Green, F, 2007, "Artist Space Development: Making the Case", p.45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마커슨(Markuzen)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장소의 예술적 구분이 경쟁적 이점을 획득함으로써 다른 도시와의 차별화를 이끌어 냈고 동시에 예술가 공동체가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분배에 있어 경제적 가치를 높여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된다³⁷⁾ (Markusen and

36)LINC(Leveraging Investments in Creativity)는 예술가들의 지위 향상을 위한 10년 장기 국가적 계획으로 이를 통해 예술가의 창조적인 작업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사회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LINC는 세 가지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예술가들의 작품활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며, 둘째는 생활 및 작품활동을 위한 공간, 보험, 장비 및 전문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며, 셋째는 예술가의 작품활동 강화를 위한 지식, 네트워크, 정부 정책을 촉진하고 커뮤니티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잭슨(Jacson, R. M. and Kabwasa-Green, F, 2007)의 연구는 Urban Institute에 위탁받아 예술가들의 공간개발에 대한 미국 7개 도시의 23개 프로젝트를 사례로 지역사회 재생에 있어 예술가들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면서 예술가 창작공간 개발을 위한 재정적·계획적 필요요소를 도출하였다.

Johnson, 2006; 김홍주·박세훈, 2012 재인용). 커리드도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에서, 예술과 문화가 도시와 지역 경제개발을 위한 중요한 공헌자로서 가치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커리드에 의하면 인재들은 예술과 문화적 어메니티에 이 끌리는 경향이 있고 이를 통해 예술가나 디자이너와 같은 창의적 인재들 뿐 아니라 관광객 발생 및 지역 성장을 일으킴으로써 도시개발의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Currid, E. 2007b; 2009). 이는 문화경제와 관련된 창작 클러스터의 육성이 도시 그리고 지역 수준에서 공공정책의 중요 요소(Bassett et al., 2002)로 활용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화예술을 중요한 지역개발의 영향요소로 보는 연구들에서는 지역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도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관심이 창조도시나 문화도시 이론이 등장하면서 도시재생과 연계되어 주목 받기 시작했지만 유럽에서는 68혁명이후 70년대부터 폐기된 산업시설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형태를 시작으로 반문화운동과 아나키즘적 공동체 정신을 기반으로 예술의 사회적 관계와 역할이 시도되었다(박신의, 2012). 박신의(2011)는 폐 산업시설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공간을 만든 벨기에 브뤼셀 ‘레 알 드 샤에백’³⁸⁾ 사례를 통해 창작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술공간의 생성이 예술산업

37) 마커슨은 오랫동안 지역 경제 발전 모델 이었던 수출기반이론이 아닌, 지역거주민이 자기 거주지 내에서의 소비를 유도하는 소비기반 이론(consumption base theory)을 문화에 적용하여 공간적 측면에서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도시 거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대신 자기 지역의 문화 소비로 전환함으로써 지역이 수입에 기여하도록 하며, 지역 내 예술가들 역시 지역이 예술 섹터에서 소비함으로써 일정하게 지출된 비용을 지역 내로 모아낸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거주민의 지출은 지역예술가들을 유입하게 하고 또 다른 지역의 예술가들도 지역사회에 자리 잡게 하며 동시에 문화시설이나 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게 된다고 보았다(Markusen, 2006).

38) 1974년 정식 개관한 레 일 드 샤에백은 19세기 지어진 대형 마켓 홀을 개조한 것으로 벨기에 브뤼셀 북쪽에 위치한다. 1969년 공간이 용도 폐기된 이후 곧바로 철거될 위기에 놓였지만 예술가들과 민간인들이 문화공간으로 살려낸 곳이다. 1972년 극단의 단장이 이민자와 청소년 관련 센터를 운영하는 사회문화계 활동가와 함께 이곳을 국제적인 아방가르드 예술을 실험할 공간으로 사용권을 신청하였으나 처음에는 도시개발 계획으로 장기적인 운영을 보장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행정기관과의 관계 증진 노력 및 레 알에서 주도하는 사회문화 프로그램이 가져온 사회적 효과로 현재에도 활발히 운영중이다.

측면에서는 예술 창작과 배급 및 향유 등의 선순환적 구조를 갖게 하고 지역적 맥락에서는 다양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역주민의 자발적 문화 생산 자로의 전환을 유도하는데 기여한다고 보았다. ‘레 알 드 사에벡’은 1970년대 이후 유럽 전역에서 펼쳐진 문화민주주의의 실천의 사례로 정책적 지향점을 갖고 21세기 문화예술 공간이 지향하게 될 지역과 대중의 맥락을 주체적 개념으로 만들어가는 사회 통합적 기능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다(박신의, 2011).

문화예술 창작클러스터와 지역개발에 대한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면 문화예술 창작인 및 창작기능의 집적이 지역사회에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예술가 뿐 아니라 사회적·공간적 맥락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창작클러스터의 핵심 요소인 창작공간은 단순히 예술적 결과물이 생산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지역발전의 대안으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제 3 장 수도권 시각예술산업 공간적 입지 특성

제 1 절 가치사슬 단계별 입지와 공간적 변화

1. 가치사슬 단계별 입지분석의 필요성

본 장에서는 문화예술 창작기능의 교외 입지 요인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수도권 시각예술산업의 공간적 입지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시각예술산업의 가치사슬 단계별로 나누어 공간적 입지 특성을 보고자 하는 것은 첫째, 창작공간의 교외 입지 요인 분석은 창작기능이 도시 교외로 이동하는 입지 특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교외로의 입지 이동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차별화된 교외 입지 요인 도출은 의의를 가질 수 없다. 둘째, 예술산업 내에서도 창작단계와 유통단계 입지가 상이할 수 있다. 창조산업이나 예술산업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도 가치사슬 단계별로 입지패턴이 다르다는 것들은 이미 확인되고 있다. 시각예술산업도 가치사슬 단계별로 입지에 차이가 있어 창작단계와 유통단계가 차별적 입지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입지에서는 생산부문의 입지를 사업체 입지를 기준으로 분석하지만 시각예술산업에서 생산의 주체는 사업체가 아니라 창작인력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창작인력의 거주지 및 생산과정에 필요한 창작공간의 입지를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을 창작인력의 거주지까지 포함시킨 것은 창작인력이 별도의 창작공간을 갖지 않고 거주지 내에서 함께 작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창작인력의 거주지가 일부 창작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두 공간의 공간분포가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작인력의 거주지와 창작공간이 분석의 공간적 단위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였고 시간적 범위는 1999년과 2011년으로 설정하여 최근 약 10년 동안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단, 창작공간은 2011년 자료 구축이 어려워 2010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각예술 창작과정을 담당하는 시각예술 창작인력의 규모와 지역적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뢰도를 갖는 시각예술인 통계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시군구 단위로 시각예술인에 대한 현황이 집계되어 있는 자

료는 없다. 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2~3년 주기로 문화예술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모집단에 대한 규모를 정확히 산출하고 있지 못하다. 고용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하는 OES자료도 표본 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전체 인구의 비율로 산정한 수치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창작인력의 규모는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인구총조사 자료와 한국미술협회 회원 자료를 기준으로 시각 예술인의 규모와 공간적분포를 분석하였다. 인구총조사 자료는 공간적 단위가 시도단위로 이루어져 있고 조사 시점마다 직업분류체계에 변화가 있어 시군구단위의 공간분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술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통해 1970년대 이후 광역적인 변화 분석에 초점을 두었고 실질적인 시각예술 창작인력 입지 분석은 한국미술협회 회원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2. 생산단계 입지 현황 및 공간 이동

1) 창작인력 거주지 공간분포 및 입지변화

(1) 시각예술인 공간분포 변화

시각예술인 공간분포는 인구총조사 자료는 산업·직업 10% 표본 자료를 통해 시각예술인 및 예술가의 공간적 분포와 시계열 변화를 살펴보았다. 단, 국내 인구총조사 자료 중 직업세분이 되어 있는 산업·직업 10% 표본 자료는 직업분류 체계가 소분류까지만 구분되어 있고 조사시점마다 직업분류체계가 변경되어 예술인 및 시각예술인의 범위에 대한 연구자의 정의가 필요하다. 또한 분석의 단위가 시도단위 수준에서만 제공되므로 시군구 수준의 지역단위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구총조사 자료는 데이터의 규모 및 시계열 변화를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지므로 1975년부터 2010년까지(1980년, 1985년 자료는 산업·직업 표본 조사 미실시) 각 조사년도 별 직업세분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예술가 및 창작예술인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조사자료의 직업분류 한계로 인해 예술인의 입지 분석 시기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이며 시각예술창작인은 1975년, 1990년, 2010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술인의 공간분포는 1990년 이후 수도권의 비중이 80% 내외를 유지하면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의 비중이 약 52%에서 48%로 다소 감소된 반면 경기도의 비중은 약 21%에서 28%로 점차 증가하였다. 시각예술인의 경우 수도권 비중은 1975년 47%에서 2010년 69%로 역시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었지만 서울의 비중은 1990년 증가되었다가 2010년 다시 감소되어 전체 약 38%를 차지하며 예술인의 비중보다 낮다. 시각예술인의 경기도 비율은 1975년 약 10.8%, 1990년 15.6%에서 2010년에는 25.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체 예술인에 비해 수도권 내에서의 교외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 총조사 자료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선행연구 결과와 같이 국내 예술인의 분포도 일반적으로 대도시이자 중심도시인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대도시 지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시각예술 분야는 대도시 주변지역으로 교외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 3-1] 인구총조사 산업·직업 10% 표본자료의 예술인 및 시각예술인 직업분류

조사 년도	예술인	시각예술인
19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기술및관련직종사자 -저작가언론인 및 관련작가 -조각가화가사진사 및 관련 창작예술가 -작곡가 및 연예인
1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 -저작가언론인 및 관련작가 -조각가화가사진사 및 관련창작 예술가 -작곡가 및 연예인
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작가와 창작 및 공연예술가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 작가 및 관련 전문가 창작 및 공연예술가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 창작 및 공연예술가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작가기자 및 출판 전문가 큐레이터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연극영화 및 영상 전문가 화가사진가 및 공연예술가 디자이너

자료 : 각년도 인구총조사 산업·직업 10% 표본, 통계청, kostat.go.kr

[표 3-2] 예술가 입지 변화 (1995~2005년)

	1995년		2000년		2005년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전국	58,206	100.0%	102,041	100.0%	115,033	100.0%
수도권	44,736	76.9%	82,170	80.5%	91,728	79.7%
서울	30,538	52.5%	53,955	52.9%	55,299	48.1%
부산	1,952	3.4%	4,483	4.4%	5,661	4.9%
대구	2,009	3.5%	3,568	3.5%	4,162	3.6%
인천	1,995	3.4%	4,208	4.1%	4,575	4.0%
광주	1,929	3.3%	1,748	1.7%	1,586	1.4%
대전	1,010	1.7%	1,816	1.8%	2,345	2.0%
울산		0.0%	472	0.5%	715	0.6%
경기도	12,203	21.0%	24,007	23.5%	31,854	27.7%
강원도	674	1.2%	836	0.8%	698	0.6%
충청북도	623	1.1%	898	0.9%	805	0.7%
충청남도	397	0.7%	818	0.8%	1,074	0.9%
전라북도	1,019	1.8%	1,358	1.3%	1,470	1.3%
전라남도	719	1.2%	669	0.7%	829	0.7%
경상북도	981	1.7%	953	0.9%	1,234	1.1%
경상남도	1,655	2.8%	1,633	1.6%	2,057	1.8%
제주도	502	0.9%	619	0.6%	669	0.6%

자료 : 각년도 인구총조사 산업·직업 10% 표본, 통계청, <http://kostat.go.kr/>

[표 3-3] 시각예술인의 입지 변화 (1975~2010년)

	1975년		1990년		2010년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전국	21,441	100.0%	61,069	100.0%	53,104	100.0%
수도권	10,028	46.8%	44,057	72.1%	36,309	68.4%
서울	7,716	36.0%	31,697	51.9%	19,847	37.4%
부산	1,552	7.2%	4,219	6.9%	2,599	4.9%
대구	-	0.0%	3,290	5.4%	2,085	3.9%
인천	-	0.0%	2,816	4.6%	3,001	5.7%
광주	-	0.0%	1,141	1.9%	1,463	2.8%
대전	-	0.0%	1,069	1.8%	1,460	2.7%
울산	-	0.0%	-	0.0%	742	1.4%
경기도	2,312	10.8%	9,544	15.6%	13,461	25.3%
강원도	1,075	5.0%	679	1.1%	1,029	1.9%
충청북도	688	3.2%	705	1.2%	896	1.7%
충청남도	1,361	6.3%	570	0.9%	992	1.9%
전라북도	1,024	4.8%	621	1.0%	1,362	2.6%
전라남도	1,917	8.9%	806	1.3%	859	1.6%
경상북도	2,274	10.6%	945	1.5%	1,202	2.3%
경상남도	1,330	6.2%	2,174	3.6%	1,574	3.0%
제주도	192	0.9%	793	1.3%	532	1.0%

자료 : 각년도 인구총조사 산업·직업 10% 표본, 통계청, <http://kostat.go.kr/>

(2) 시각예술인 거주지 분포

인구총조사 데이터의 공간적 단위가 시도단위로 이루어져 있어 수도권 내에서 구체적 시각예술 집적지역(클러스터) 도출에는 한계가 있어 한국문화예술총연합회 소속 한국미술협회 회원³⁹⁾의 주소 자료⁴⁰⁾를 기준으로 입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입지 분석은 Arc GIS 10.0을 사용하여 수도권 시군구별 시각예술인 규모와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였다.

1999년 한국미술협회 자료⁴¹⁾에 의하면 [표 3-4]와 같이 전국의 시각예술인의 규모는 12,948명이며 이중 53.3%인 6,903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이 4,682명(67.8%), 경기도가 1,842명(26.7%), 인천광역시가 380명(5.5%)을 차지하여 서울 집중현상이 뚜렷하다.

[표 3-5]의 수도권내 시군구별 분포를 보면 서울의 경우 종로구와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종로구와 마포구의 비율이 높았고, 경기도에서는 고양시와 성남시의 비율이 높아 서울의 강남지역과 인접한 중소도시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회원의 주소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한 [그림 3-1]의 공간분포도를 보면 창

39) 한국미술협회는 정관에 의해 미술전공 관련 대학을 졸업하고 개인전 및 단체전을 포함하여 3회 이상 전시회 경력이 있어야 입회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성을 갖춘 창작인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장르도 서양화, 동양화, 조각, 공예, 서예, 판화, 디자인분야로 나누어져 있어 시각예술의 범위를 비교적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0) 한국미술협회는 1961년 12월에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의 산하단체로서 전체 미술인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창립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국전(國展)의 운영하는 전문시각예술인 단체이다. 한국미술협회 회원 자료는 거주지와 작업실에 대한 별도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나 협회 담당자 인터뷰 결과 대부분 회원이 거주지 기준으로 주소 정보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거주지 자료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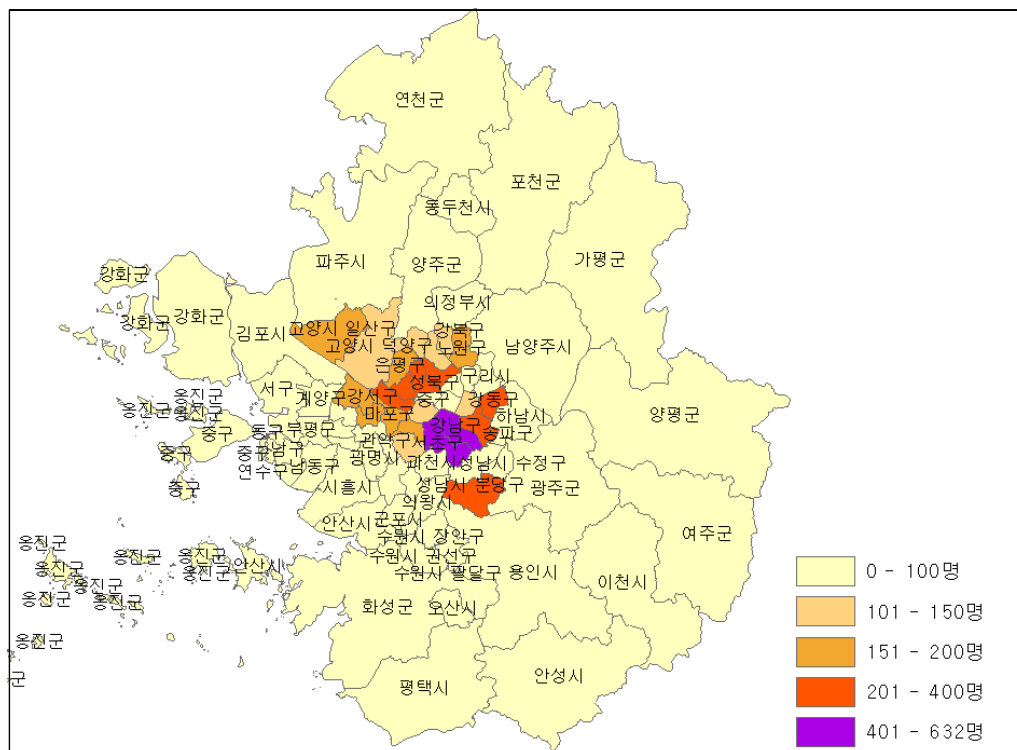
41)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에서는 1년에 한번씩 회원명부를 발간하였는데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1999년 회원명부에서 회원의 주소를 코딩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여 사용하였다. 회원명부는 서울본부, 전국지회(지부)별로 동양화분과, 서양화분과, 조각분과, 공예분과, 서예분과, 판화분과, 평론분과, 디자인분과, 행정분과로 구분되어있다. 본 논문에서는 회원들이 소속된 본부 또는 지부별로 집계하지 않고 회원의 주소를 기준으로 거주지를 분류하였으며, 분과중에서 행정분과의 회원은 창작인력에 속하지 않으므로 제외하였다.

작인력의 거주지는 크게 두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강남3구 일대와 성남시 지역이며, 다음은 종로구 일대와 고양시 및 파주시 지역으로 수도권 내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두 개의 중심지가 존재하며 수도권 외 광지역의 비중은 매우 낮다.

[표 3-4] 시각예술인 거주지 현황(1999년)

지역	회원수	수도권내 비중	전국비중
서울	4,682	67.8%	36.2%
경기	1,842	26.7%	14.2%
인천	380	5.5%	2.9%
수도권 합계	6,904	100.0%	53.3%
전국	12,948		100.0%

자료 : 한국미술협회 1999년 회원명부에서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 3-1] 수도권 시각예술인 거주지 분포도(1999년)

[표 3-5] 수도권 시각예술인 거주지 현황(1999년)

지역	회원수	수도권내 비중	지역	회원수	수도권내 비중
수도권 합계	6,904		동두천시	24	1.3%
서울 합계	4,682	100.0%	안산시	71	3.9%
종로구	297	6.3%	고양시	291	15.8%
중구	51	1.1%	과천시	50	2.7%
용산구	117	2.5%	구리시	24	1.3%
성동구	79	1.7%	남양주시	64	3.5%
광진구	124	2.6%	오산시	6	0.3%
동대문구	72	1.5%	시흥시	20	1.1%
중랑구	72	1.5%	군포시	52	2.8%
성북구	219	4.7%	의왕시	32	1.7%
강북구	102	2.2%	하남시	20	1.1%
도봉구	116	2.5%	용인시	77	4.2%
노원구	172	3.7%	파주시	31	1.7%
은평구	190	4.1%	이천시	37	2.0%
서대문구	206	4.4%	안성시	40	2.2%
마포구	317	6.8%	김포시	33	1.8%
양천구	182	3.9%	화성시	10	0.5%
강서구	152	3.2%	광주시	24	1.3%
구로구	44	0.9%	양주시	12	0.7%
금천구	30	0.6%	포천시	28	1.5%
영등포구	152	3.2%	여주군	23	1.2%
동작구	157	3.4%	연천군	4	0.2%
관악구	118	2.5%	가평군	4	0.2%
서초구	469	10.0%	양평군	46	2.5%
강남구	632	13.5%	인천 합계	380	100.0%
송파구	400	8.5%	중구	27	7.1%
강동구	212	4.5%	동구	4	1.1%
경기 합계	1,842	100.0%	남구	80	21.1%
수원시	108	5.9%	연수구	62	16.3%
성남시	258	14.0%	남동구	63	16.6%
의정부시	63	3.4%	부평구	87	22.9%
안양시	140	7.6%	계양구	28	7.4%
부천시	120	6.5%	서구	17	4.5%
광명시	69	3.7%	강화군	12	3.2%
평택시	61	3.3%	옹진군	0	0.0%

창작인력 거주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규모나 공간적 입지가 변화하였는데 2011년 한국미술협회 내부자료⁴²⁾에 의하면 전국의 시각예술인의 규모는 26,189

명으로 2배 정도 증가하였다. 전체 회원 중 수도권 시각예술인은 총 13,565명으로 2011년에도 전국 회원의 51.8%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지역이 7,458명으로 수도권 회원의 55%를 차지하며 경기도가 5,297명(39.0%), 인천광역시가 810명(6.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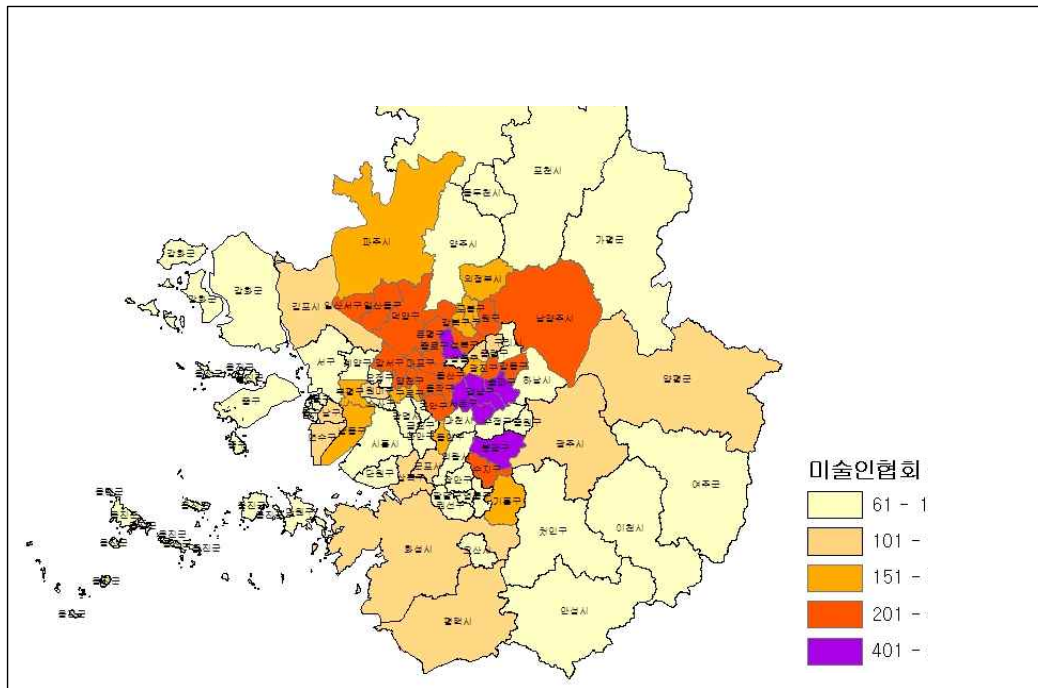
[표 3-6] 시각예술인 거주지 현황(2011년)

지역	회원수	수도권내 비중	전국비중
서울	7,458	55.0%	28.5%
경기	5,297	39.0%	20.2%
인천	810	6.0%	3.1%
수도권 합계	13,565	100.0%	51.8%
전국	26,189		100.0%

자료 : 한국미술협회 내부자료 , 2011년 기준

[표 3-7] 의 수도권 시군구별 분포에서는 강남 3구(강남구(11.9%), 서초구(8.9%), 송파구(8.3%))가 가장 높아 수도권 전체의 29.1%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종로구, 분당구지역의 비중이 높다. 이외에는 서울의 서북쪽 지역들과 남양주, 고양시 등의 비중이 높다. 파주, 인천지역 일부와 양평, 광주, 화성, 평택, 김포 지역에도 다수의 회원이 거주하고 있다. 시각예술 창작인력의 거주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그림 3-2] 의 시각예술인 거주지 분포도를 통해 보면 시각예술인이 가장 많이 분포된 서울 강남3구와 종로구를 중심으로 크게 3개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축은 강남3구-용인시-화성시-평택시까지 연결되며, 두 번째 축은 종로구-서울 서북권-고양시-파주시를 연결하는 축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축은 강동구-남양주시-광주시-양평군을 연결하는 축이다.

42)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에서는 과거 1년에 한차례 회원명부를 발간하였으나 현재는 더 이상 회원명부를 발간하지 않아 협회내부의 회원주소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림 3-2] 수도권 시각예술인 거주지 분포도(2011년)

[표 3-7] 수도권 시각예술인 거주지 현황(2011년)

지역	회원수	수도권내 비중	지역	회원수	수도권내 비중
수도권 합계	13,565	100.0%	동두천시	29	0.2%
서울 합계	7,458	55.0%	안산시	235	1.7%
종로구	427	3.1%	고양시	751	5.5%
중구	79	0.6%	과천시	85	0.6%
용산구	221	1.6%	구리시	55	0.4%
성동구	157	1.2%	남양주시	222	1.6%
광진구	238	1.8%	오산시	33	0.2%
동대문구	133	1.0%	시흥시	82	0.6%
종랑구	138	1.0%	군포시	149	1.1%
성북구	318	2.3%	의왕시	69	0.5%
강북구	156	1.2%	하남시	74	0.5%
도봉구	191	1.4%	용인시	573	4.2%
노원구	381	2.8%	파주시	161	1.2%
은평구	268	2.0%	이천시	75	0.6%
서대문구	270	2.0%	안성시	100	0.7%
마포구	393	2.9%	김포시	104	0.8%
양천구	364	2.7%	화성시	108	0.8%
강서구	278	2.0%	광주시	133	1.0%
구로구	156	1.2%	양주시	75	0.6%
금천구	78	0.6%	포천시	67	0.5%
영등포구	256	1.9%	여주군	51	0.4%
동작구	256	1.9%	연천군	6	0.0%
관악구	212	1.6%	가평군	37	0.3%
서초구	667	4.9%	양평군	123	0.9%
강남구	888	6.5%	인천 합계	810	6.0%
송파구	617	4.5%	중구	41	0.3%
강동구	316	2.3%	동구	9	0.1%
경기 합계	5,297	39.0%	남구	124	0.9%
수원시	300	2.2%	연수구	121	0.9%
성남시	680	5.0%	남동구	160	1.2%
의정부시	191	1.4%	부평구	168	1.2%
안양시	274	2.0%	계양구	75	0.6%
부천시	264	1.9%	서구	58	0.4%
광명시	90	0.7%	강화군	53	0.4%
평택시	101	0.7%	옹진군	1	0.0%

자료 : 한국미술협회 회원 자료 기준(2011년)

(3) 시각예술인 거주지 LQ 및 공간자기상관분석

지역별 시각예술인 집적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LQ(LQ: location quotient) 분석을 실시하였다. LQ값의 산정방법은 인구대비 시각예술인 비중으로 산정하였고⁴³⁾ 1999년과 2011년 두 개 년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999년에는 서울의 종로구(5.82), 서초구(4.28), 강남구(4.19), 마포구(3.01), 서대문구(2.06)의 LQ값이 매우 높아 이들 지역에 시각예술인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경기지역에서는 과천시(2.56), 양평군(2.05), 고양시(1.38)의 LQ값이 높았다. 2011년에도 종로구, 강남구, 서초구 지역의 LQ값은 여전히 높았지만 199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졌으며 반면 경기지역의 양평군,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강화군 지역은 1999년보다 LQ값이 상승하여 전반적인 인구 이동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시각예술인은 증가하여 시각예술인이 이들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이동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3) LQ(location quotient)지수는 다음과 산출하였다.

$$LQ_i = \frac{(j\text{지역 시각예술 창작인력수} / j\text{지역 총 인구수})}{(\text{전국 시각예술 창작인력수} / \text{전국 총 인구수})}$$

[표 3-8] 수도권 시군구별 창작인력 거주지 LQ 현황

시군구		인구		시각예술인		LQ	
		1999년	2011년	1999년	2011년	1999년	2011년
전국합계		47,355,678	50,734,284	12,948	26,189	1.00 (전국평균)	1.00 (전국평균)
서울시	종로구	186,590	168,382	297	427	5.82	4.91
	중구	126,254	133,193	51	79	1.48	1.15
	용산구	237,489	246,501	117	221	1.80	1.74
	성동구	339,175	300,711	79	157	0.85	1.01
	광진구	390,061	371,936	124	238	1.16	1.24
	동대문구	367,025	365,486	72	133	0.72	0.70
	종랑구	461,737	423,706	72	138	0.57	0.63
	성북구	472,929	485,171	219	318	1.69	1.27
	강북구	352,142	345,054	102	156	1.06	0.88
	도봉구	375,275	365,573	116	191	1.13	1.01
	노원구	617,500	603,930	172	381	1.02	1.22
	은평구	472,464	493,634	190	268	1.47	1.05
	서대문구	365,783	314,852	206	270	2.06	1.66
	마포구	385,114	389,493	317	393	3.01	1.95
	양천구	480,313	500,210	182	364	1.39	1.41
	강서구	519,786	569,072	152	278	1.07	0.95
	구로구	395,294	427,468	44	156	0.41	0.71
	금천구	268,629	243,438	30	78	0.41	0.62
	영등포구	404,306	397,443	152	256	1.38	1.25
	동작구	419,161	401,408	157	256	1.37	1.24
	관악구	517,552	526,397	118	212	0.83	0.78
	서초구	400,950	433,564	469	667	4.28	2.98
	강남구	552,293	565,710	632	888	4.19	3.04
	송파구	665,918	682,209	400	617	2.20	1.75
	강동구	490,520	495,138	212	316	1.58	1.24
인천시	중구	72,368	93,581	27	41	1.36	0.85
	동구	79,764	78,692	4	9	0.18	0.22
	남구	418,156	417,996	80	124	0.70	0.57
	연수구	261,202	287,903	62	121	0.87	0.81
	남동구	397,462	495,469	63	160	0.58	0.63
	부평구	528,339	560,936	87	168	0.60	0.58
	계양구	332,236	344,299	28	75	0.31	0.42
	서구	337,579	436,134	17	58	0.18	0.26
	강화군	67,924	66,779	12	53	0.65	1.54
	옹진군	14,056	19,485	0	1	0.00	0.10

시군구		인구		시각예술인		LQ	
		1999년	2011년	1999년	2011년	1999년	2011년
경 기 도	수원시	910,045	1,088,489	108	300	0.43	0.53
	성남시	921,204	979,323	258	680	1.02	1.35
	의정부시	344,780	430,400	63	191	0.67	0.86
	안양시	582,584	615,642	140	274	0.88	0.86
	부천시	775,573	872,452	120	264	0.57	0.59
	광명시	340,021	355,226	69	90	0.74	0.49
	평택시	352,181	426,886	61	101	0.63	0.46
	동두천시	74,665	96,253	24	29	1.18	0.58
	안산시	547,759	715,586	71	235	0.47	0.64
	고양시	772,390	961,239	291	751	1.38	1.51
	과천시	71,329	71,955	50	85	2.56	2.29
	구리시	166,232	194,881	24	55	0.53	0.55
	남양주시	334,551	578,485	64	222	0.70	0.74
	오산시	84,843	193,892	6	33	0.26	0.33
	시흥시	293,272	401,149	20	82	0.25	0.40
	군포시	270,061	287,294	52	149	0.70	1.00
	의왕시	116,300	149,607	32	69	1.01	0.89
	하남시	123,709	148,397	20	74	0.59	0.97
	용인시	357,126	896,044	77	573	0.79	1.24
	파주시	181,496	378,790	31	161	0.62	0.82
	이천시	180,285	204,566	37	75	0.75	0.71
	안성시	132,093	180,743	40	100	1.11	1.07
	김포시	148,066	256,994	33	104	0.82	0.78
	화성시	183,166	516,765	10	108	0.20	0.40
	광주시	123,865	265,222	24	133	0.71	0.97
	양주시	108,309	200,360	12	75	0.41	0.73
	포천시	144,912	157,967	28	67	0.71	0.82
	여주군	101,478	109,120	23	51	0.83	0.91
	연천군	53,766	44,900	4	6	0.27	0.26
	가평군	56,386	59,358	4	37	0.26	1.21
	양평군	81,885	99,430	46	123	2.05	2.40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통계, 한국미술협회 회원 자료 기준

[표 3-9] 시각예술인 LQ 상위 10개 시군구 현황(1999년 및 2011년)

1999년 LQ		2011년 LQ	
종로구	5.82	종로구	4.91
서초구	4.28	강남구	3.04
강남구	4.19	서초구	2.98
마포구	3.01	양평군	2.40
과천시	2.56	과천시	2.29
송파구	2.20	마포구	1.95
서대문구	2.06	송파구	1.75
양평군	2.05	용산구	1.74
용산구	1.80	서대문구	1.66
성북구	1.69	강화군	1.54

시각예술인 LQ가 높은 상위 10개 시군구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현상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 1999년에는 과천시와 양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서울에 있는 지역이었으나 2011년에는 양평군, 과천시, 강화군이 포함되었고 서울 지역 LQ값은 모두 감소한 반면 경기도 지역은 LQ값이 대부분 증가하였다. 특히 양평군은 1999년 여덟 번째에서 2011년 네 번째로 LQ값이 높아져 지속적으로 시각예술인이 유입되고 있으며 경기도지역 중에서는 가장 시각예술인 집적도가 높은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즉, 1999년에는 서울의 강북(종로, 마포, 서대문)과 강남지역(서초, 강남)과 경기 일부(과천, 양평, 고양) 지역을 중심으로 시각예술인이 집적되어 거주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교외 지역에 시각예술인 집적지가 증가하였고 특히 양평군의 경우 1990년대부터 2000년대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시각예술인이 집적된 지역으로 교외화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시각예술인의 지역적 군집경향을 공간자기상관분석을 실시하면 공간자료가 지리적 공간상에서 갖는 상호의존성 및 상호작용을 명확히 볼 수 있다. 공간자기상관 관계를 보여주는 글로벌 지수(global index)인 Moran I 계수⁴⁴⁾ 값과 연구

44) Moran I 계수는 전체 연구지역의 공간자기상관 관계를 하나의 값으로 보여주는 글로벌 지수(global index)이다. 하지만 연구지역이 상대적으로 넓은 경우, 이 지역 안에서도 공간자기상관이 위치(location)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지역 내에서

지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간자기상관의 국지적 변이(local variations)를 고려한 시각적 지표인 국지공간자기상관지표(local indicators of spatial association, 이하 LISA)를 이용하면 한 변수의 공간자기상관이 특정 지역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는 '온열지점(hot spots)'을 찾을 수 있는데 온열지점이 국지적 군집 지역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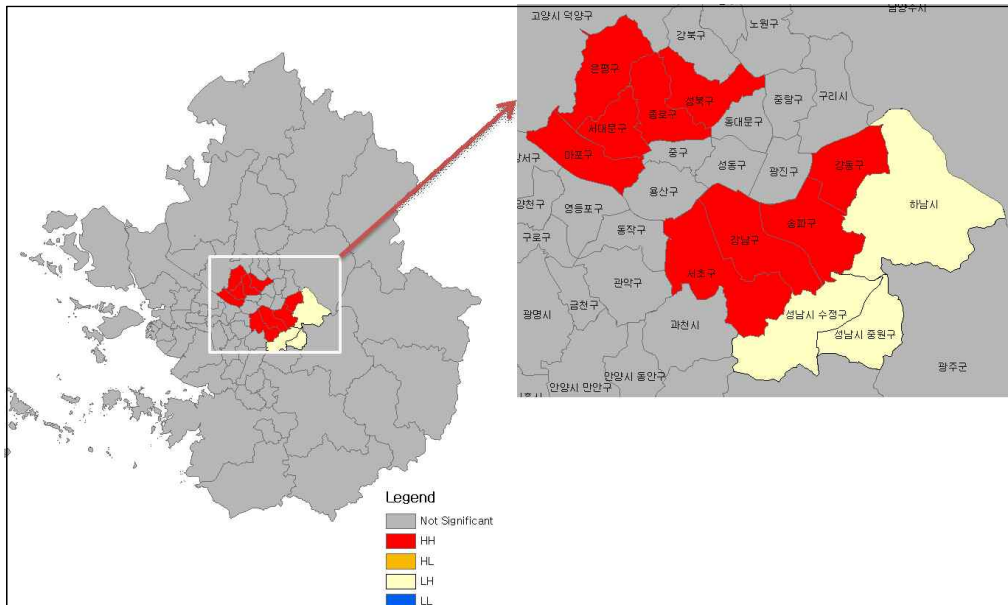
시각예술인의 거주지 분포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시각예술인 거주지는 서울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점차 외곽으로 분산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전체 지역 내에서의 공간적 연관성에 대한 국지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Anselin(1995)이 제시한 LISA지표를 산출하면 공간적 군집의 유의성을 판정할 수 있고 국지적 군집과 이례지역을 추출할 수 있다⁴⁵⁾.

[그림 3-3] 과 [그림 3-4]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지역들만을 대상으로 공간적 연관성의 네 유형을 지도화한 것으로 지난 약 10년 동안 공간적 클러스터 패턴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1999년의 경우 시각예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들이 이웃하고 있는 클러스터HH(high-high)유형은 강북지역의 종로-서대문-마포-성북-은평구 지역과 강남의 강남-서초-송파-강동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의 경우 HH(high-high)유형은 강북 클러스터가 노원구까지 확산되었고 강남 클러스터는 분당구가 포함되어 다소 외곽으로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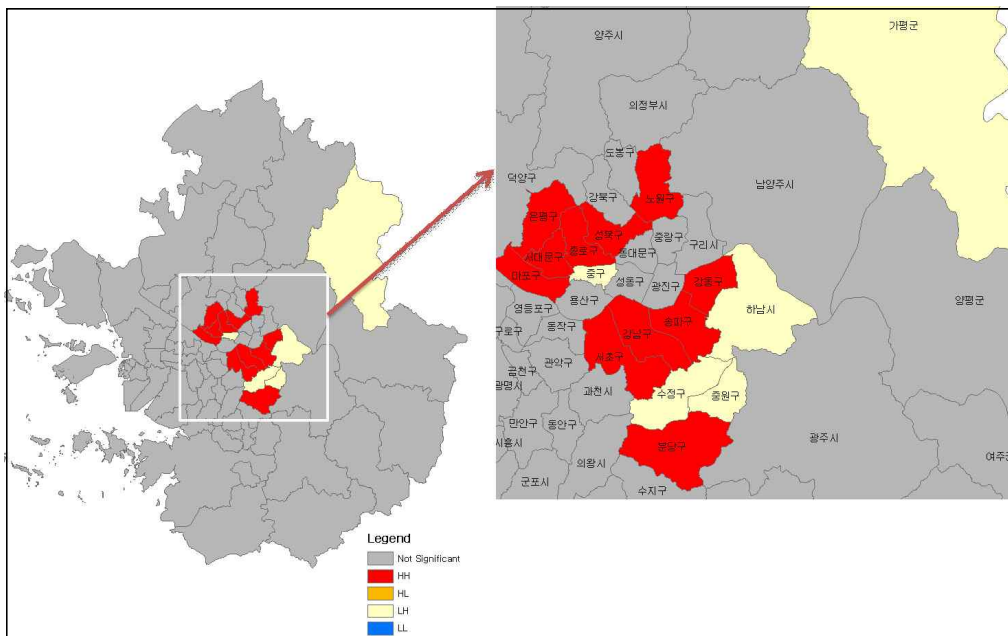
공간자기상관분석을 통해서도 지난 10년 동안 수도권 시각예술인 거주지가 종로와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두 개의 핵으로 하여 강한 정적인 공간적 연관성을 보이면서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왔지만 외곽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발생할 수 있는 공간자기상관의 국지적 변이(local variations)를 고려한 시각적 지표가 LISA이다(Getis and Ord, 1992; Anselin, 1995).

- 45) LISA분석에서는 국지적 차원에서 공간 연관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Moran 산포도(Moran scatter plot)를 통해 공간적 연관성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높은 값 주변에 높은 값이 존재하는 HH(high-high)유형, 낮은 값 주변에 낮은 값이 존재하는 LL(low-low), 높은 값 주변에 낮은 값이 존재하는 HL(high-low)유형, 그리고 낮은 값 주변에 높은 값이 존재하는 LH(low-high)유형이다. 국지적 차원에서 공간적 군집은 주로 HH와 LL유형을 말한다(이희연 2008).



[그림 3-3] 수도권 시각예술인 거주지역 LISA 분석 (1999년 기준)



[그림 3-4] 수도권 시각예술인 거주지역 LISA 분석 (2011년 기준)

2) 창작공간 공간 분포 및 입지 변화

수도권 시각예술인 창작공간 관련 자료는 예술인 등록제도나 예술인 지위를 지역에 신고함으로써 경제적·물리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규모와 위치 파악이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창작공간의 전체규모 파악보다는 공간적 집적 형태의 패턴 파악에 초점을 맞추었다.

시각예술인의 창작공간은 회화나 조각 분야에서는 ‘아틀리에’로 통칭되는데 아틀리에에는 작가 개인 창작공간과 대안공간, 오픈스튜디오, 창작 레지던지 또는 창작스튜디오로 불리는 공동 창작공간으로 분류된다. 공동 창작공간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과 공공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분류되는데 개인의 창작공간에 비해 그 수가 아직은 적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창작공간을 중심으로 입지를 분석하였다.

시각예술인 개인 창작공간 자료는 전국을 대상으로 작가들의 아틀리에 위치를 파악한 오픈스튜디오 네트워크 보고서(‘미술인회의’에서 2006년과 2007년 이년에 걸쳐 작성한 자료로 전국의 아틀리에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유일한 자료로 파악됨)의 “아틀리에 맵핑” 자료와 경기도 미술관에서 2010년에 개최한 ‘경기도의 힘’전시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자료를 구축하였다. 아틀리에 맵핑 자료가 창작공간이 집적되어 있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만 작성되어 수도권의 모든 시군구를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미흡하여 ‘경기도의 힘’ 전시 자료를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창작인력의 수도권 개인창작공간은 346곳으로 수도권 미술인협회 회원이 13,656명인 것을 감안하면 위치가 파악된 개인창작공간은 2.5% 수준으로 매우 미흡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시각예술인의 창작공간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로 이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단체나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없으므로 입지의 경향성을 설명하는데 의의를 갖고자 한다.

전국적으로 개인 창작공간은 [표 3-10] 과 같이 769곳이며 이 중 45.0%인 346곳이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다. 수도권 내부에서는 경기도가 236곳으로 68.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울이 97곳으로 27.2%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 시군구별 개인 창작공간 현황은 [표 3-11] 과 같으며, 서울에서는 마포구가 64곳으로 가장 많은 창작공간이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고양시에 58곳과 양

평균에 46곳이 분포하고 있어 경기도내에서도 일정 지역에 개인 창작공간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 마포구 지역은 홍익대학교앞을 중심으로 1980년대부터 시각예술인이 창작공간을 만들기 시작한 아뜰리에 밀집지역으로 잘 알려진 지역이고, 고양시와 양평군의 경우도 최근 작가들의 창작공간이 많이 밀집되고 있는 지역들이다. 수도권 전체적인 창작공간의 입지는 [그림 3-5]와 같이 서울 보다는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지역으로 확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확산지역들은 북쪽으로는 고양-과주지역, 동쪽으로는 남양주-광주-양평지역으로 남쪽으로는 성남-용인-화성-안성시까지 넓게 확산되어 있다.

이러한 공간적 분포는 앞서 살펴본 2011년 시각예술인 거주지의 공간적 분포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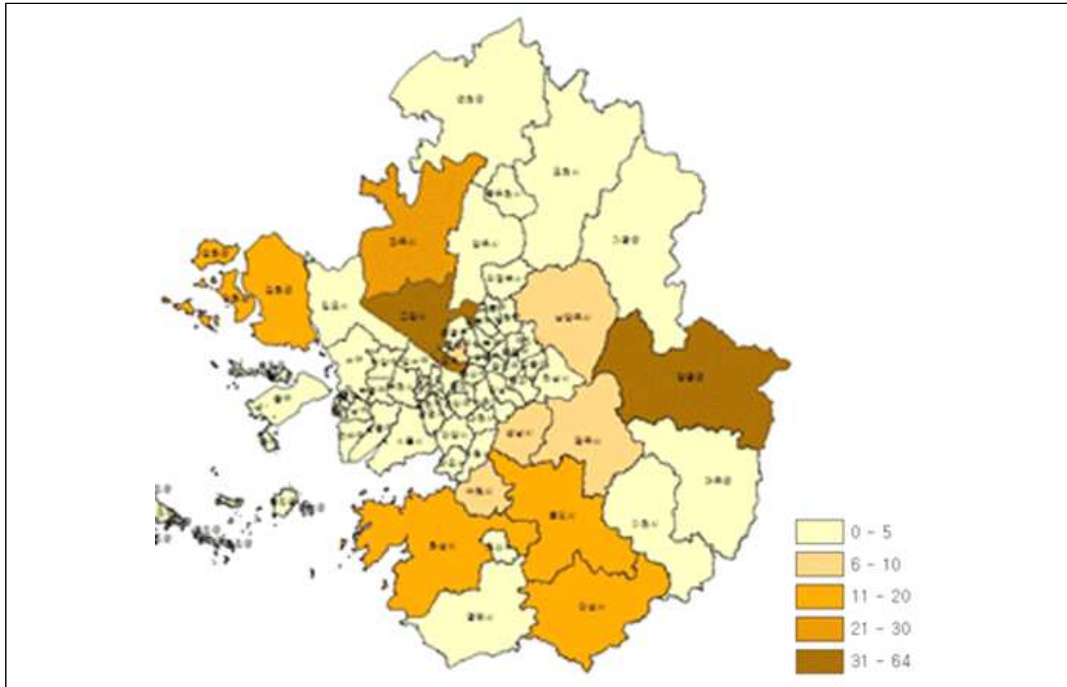
시각예술산업의 생산부문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 즉, 거주지와 창작공간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유사한 입지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연관성을 분석하였는데 Pearson 상관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s)값이 0.47로 창작인력의 거주지 분포와 창작공간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창작인력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일수록 창작공간도 다수 분포하여 유사한 입지 패턴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간적 입지 패턴이 유사하다는 것은 입지 요인도 유사함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창작공간의 유치가 창작인력의 거주 이전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⁴⁶⁾

[표 3-10] 전국 및 수도권 개인 창작공간 현황

지역	창작공간 수	수도권내 비중	전국비중
서울	94	27.2%	12.2%
경기	236	68.2%	30.7%
인천	16	4.6%	2.1%
수도권 합계	346	100.0%	45.0%
전국	769		100.0%

자료 : 오픈스튜디오 네트워크 사업성과보고서, 2008, 경기도의 힘 전시 자료집, 2010

46) 일반적으로 상관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s)값이 0.6이상이면 강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0.47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도출된 상관관계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였다.



[그림 3-5] 수도권 개인 창작공간 분포 현황도

자료 : 오픈스튜디오네트워크 “아틀리에 맵핑” 및 “경기도의 힘” 자료 기준

[표 3-11] 수도권 개인 창작공간 현황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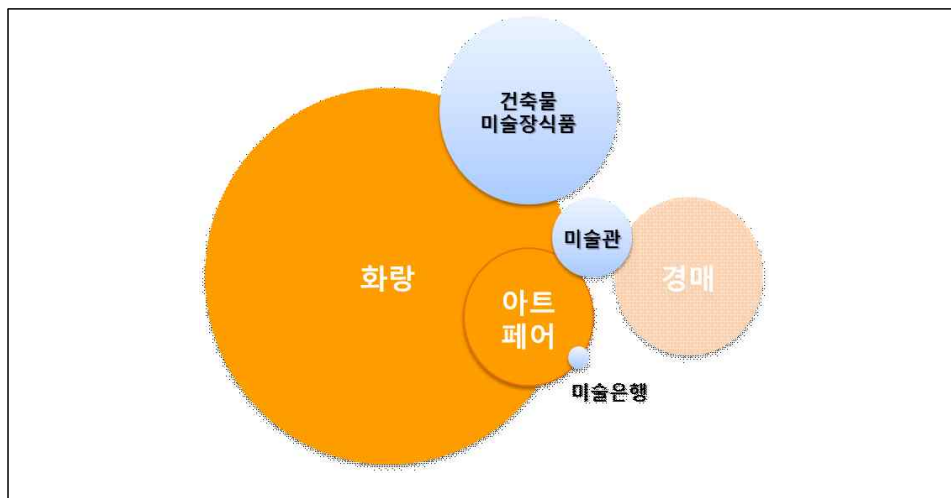
지역	창작공간 수	수도권내 비중	지역	창작공간 수	수도권내 비중
수도권 합계	346	100.0	동두천시	1	0.3%
서울 합계	94	27.2%	안산시	6	1.7%
종로구	2	0.6%	고양시	58	16.8%
중구	-	0.0%	과천시	4	1.2%
용산구	2	0.6%	구리시	-	0.0%
성동구	1	0.3%	남양주시	7	2.0%
광진구	-	0.0%	오산시	-	0.0%
동대문구	1	0.3%	시흥시	-	0.0%
종랑구	-	0.0%	군포시	-	0.0%
성북구	1	0.3%	의왕시	4	1.2%
강북구	-	0.0%	하남시	-	0.0%
도봉구	1	0.3%	용인시	12	3.5%
노원구	1	0.3%	파주시	28	8.1%
은평구	1	0.3%	이천시	3	0.9%
서대문구	10	2.9%	안성시	12	3.5%
마포구	64	18.5%	김포시	4	1.2%
양천구	-	0.0%	화성시	15	4.3%
강서구	-	0.0%	광주시	7	2.0%
구로구	-	0.0%	양주시	2	0.6%
금천구	-	0.0%	포천시	3	0.9%
영등포구	5	1.4%	여주군	1	0.3%
동작구	3	0.9%	연천군	-	0.0%
관악구	1	0.3%	가평군	1	0.3%
서초구	1	0.3%	양평군	46	13.3%
강남구	-	0.0%	인천 합계	16	4.6%
송파구	-	0.0%	중구	2	0.6%
강동구	-	0.0%	동구	1	0.3%
경기 합계	236	68.2%	남구	-	0.0%
수원시	9	2.6%	연수구	-	0.0%
성남시	7	2.0%	남동구	1	0.3%
의정부시	1	0.3%	부평구	-	0.0%
안양시	2	0.6%	계양구	-	0.0%
부천시	2	0.6%	서구	-	0.0%
광명시	-	0.0%	강화군	12	3.5%
평택시	1	0.3%	옹진군	-	0.0%

자료 : 오픈스튜디오네트워크 “아틀리에 맵핑” 및 “경기도의 힘” 자료 기준

3. 유통단계 입지 현황 및 공간 이동

1) 화랑의 입지 현황

시각예술산업의 유통 단계는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중 민간영역에서는 화랑, 경매회사, 아트페어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입지 분석이 가능한 화랑을 기준으로 유통부문 입지 현황 및 변화를 분석하였다. 화랑이 입지는 1999년과 2010년 두 시점에서 수도권을 대상으로 지역별 분포 특성, 집중도 및 입지 변화를 분석하였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화랑 총 수는 324개이고 1999년 화랑의 입지는 한국미술협회 회원명부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구축하였는데 전국에 총 437개의 화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6] 미술시장 작품거래 규모 및 매매주체
자료 : 문화관광부, 2010 미술시장 실태조사, 2011년

1999년 화랑의 지역적 분포는 [표 3-12] 와 같이 수도권에 242개가 입지하여 전체 화랑의 55.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은 221개로 수도권내서도 91.3%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16개와 5개씩 입지하여 서울로의 편중현상이 뚜렷하였다.

화랑의 공간적 입지를 시각화하고 군집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화랑업체의 주소를 GIS 소프트웨어(ArcGIS 10.0)을 이용하여 지오코딩하였다. 이렇게 지리적 좌표체계에 따라 위치가 부여된 화랑들의 입지를 [그림 3-7] 과 같이 분포도

로 작성하였는데 화랑의 입지가 종로구 일대와 강남구 일대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지역내 동단위별 입지는 [표 3-13] 과 같은데 크게 종로구와 중구 일대와 강남구 일대 두 지역에 화랑들이 밀집해 있다. 종로구에서는 관훈동(53), 인사동(18), 사간동(6), 동숭동(6) 지역순으로 화랑들이 집중적으로 밀집해 있고 강남구에서는, 청담동(32), 신사동(21), 논현동(6), 삼성동(5)에 밀집해 있다. 경기도에서는 과주시와 양평군이 각각 11곳과 4곳이 입지하고 있는데 양평군의 경우 군단위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랑이 입지하고 있어 창작기능 뿐 만 아니라 유통기능도 일부 집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2] 전국 화랑 현황 (199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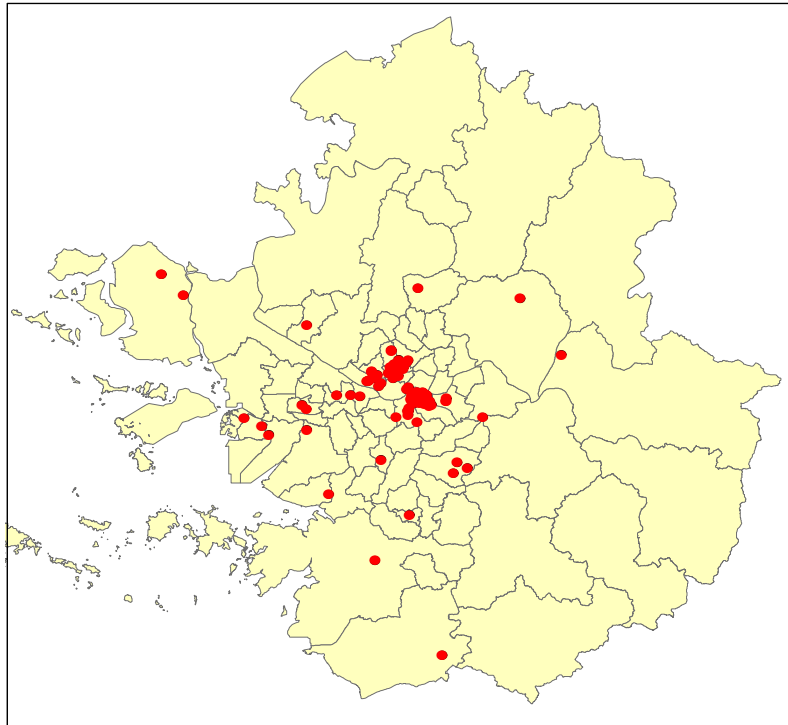
지역	화랑수(개)	수도권내 비중(%)	전국비중(%)
서울	221	91.3%	50.6%
경기	16	6.6%	3.7%
인천	5	2.1%	1.1%
수도권 합계	242	100.0%	55.4%
수도권 이외	195		44.6%
전국	437		100.0%

자료 : 한국미술협회, 1999년 회원명부, 2000

[표 3-13] 서울 지역 화랑 현황 (1999년)

지역	화랑수	동별 입지 현황
서울	종로구	112 관훈동(53), 인사동(18), 사간동(6), 동숭동(6), 소격동(4), 건지동(4), 통의동(2), 경운동(2), 낙원동(2), 윤니동(2), 평창동(2), 세종로(2), 공평동, 삼청동, 송현동, 수송동, 연건동, 원서동, 팔판동
	강남구	69 청담동(32), 신사동(21), 논현동(6), 삼성동(5), 역삼동(2)
	중구	11 소공동(2), 태평로(2), 충무로2가동, 충무로3가동, 충정로 1가동, 회현동, 수표동
	서초구	7 서초동(4), 방배동, 양재동, 잠원동
	마포구	6 서교동(3), 공덕동, 도화동, 창전동
	서대문구	5 연희동(2), 대신동, 신천동, 창천동
	성북구	3 동소문동, 삼선동, 성북동
	송파구	3 신천동, 잠실동
	영등포구	2 양평동, 영등포동
	용산구	2 한남동(2)
	양천구	1 신정동

자료 : 한국미술협회, 1999년 회원명부, 2000



[그림 3-7] 수도권 화랑 입지 현황도 (1999년)

2010년 화랑의 입지 자료는 미술시장 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미술시장 실태 조사에 의하면 전국에 총 324개의 화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화랑의 지역적 분포는 서울에 193개(59.57%)가 위치하고 있어 서울이 유통의 중심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 내에서는 [표 3-15]와 같이 종로구와 강남구 일대에 화랑들이 밀집해 있는데 관훈동(31), 경운동(11), 인사동(10)과 청담동(31), 신사동(20), 삼성동(6)에 화랑이 밀집되어 있다. 수도권 내에서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20곳과 1곳이 위치하고 있고 경기도내에서는 파주시와 양평군이 각각 11곳과 4곳이 입지하고 있는데 양평군의 경우 군단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랑이 입지하고 있어 창작기능 뿐 만 아니라 유통기능도 일부 집적되어 있다. 2010년 화랑의 공간적 입지를 표현한 [그림 3-8]을 보면 1999년과 같이 강남구 일대와 종로구 일대 지역에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4] 전국 화랑 현황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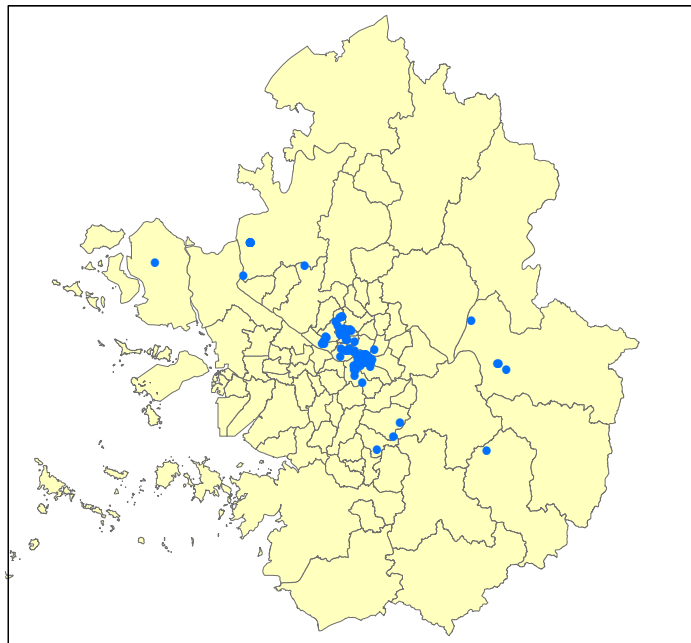
지역	화랑수(개)	수도권내 비중(%)	전국비중(%)
서울	193	90.2%	59.6%
경기	20	9.3%	6.2%
인천	1	0.5%	0.3%
수도권 합계	214	100.0%	66.0%
수도권 이외	110		34.0%
전국	324		100.0%

자료 : 문화관광부, 2010 미술시장 실태조사, 2011년

[표 3-15] 서울·경기 지역 화랑 현황 (2010년)

지역	회랑수	동별 입지 현황
서울	종로구 103	관훈동(31), 경운동(11), 인사동(10), 소격동(7), 팔판동(7), 사간동(6), 평창동(4), 안국동(3), 견지동(3), 가회동(3), 삼청동(2), 내수동(2), 창성동(2), 통의동(2), 궁정동, 낙원동, 남영동, 동숭동, 명륜동, 부암동, 송현동, 수송동, 화동, 홍지동
	강남구 64	청담동(31), 신사동(20), 삼성동(6), 논현동(4), 역삼동(2), 대치동(1)
		용산구(9), 서초구(7), 중구(4), 마포구(3), 서대문구(2), 광진구(1)
경기	파주시(11), 양평군(4), 성남시(2), 고양시(1), 용인시(1), 이천시(1)	

자료 : 문화관광부, 2010 미술시장 실태조사, 2011



[그림 3-8] 수도권 화랑 입지 현황도 (2010년)

수도권에 입지한 화랑들의 집적 수준은 최근린지수⁴⁷⁾ (nearest neighbour index)를 통해 보다 정확한 집적 정도를 알 수 있다⁴⁸⁾. 최근린지수는 점(화랑)들이 임의적으로 분포한다는 가정 하에서 산출된 평균임의거리에 대한 실제 점 분포로부터 산출된 평균최근린거리의 비율을 말한다. 만일 점 분포가 임의적 분포일 경우 그 값은 거의 1에 가까워지며, 완전히 집적되어있을 경우 1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다. 1999년 화랑들이 입지에 대한 최근린지수(nearest neighbour index)는 0.216으로 산출되었으며, 이 값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적인 것으로 판정되었다($z=-22.06$, $\neq 0.00$). 따라서 1999년 수도권 화랑들 입지는 상당히 군집하여 분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0년 화랑의 최근린지수 값도 0.221로 1999년 최근린지수값과 거의 같아 10년 동안 화랑의 입지 군집정도는 거의 변화가 없이 집중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7) 최근린지수를 산출하는 최근린분석은 실제 점 분포패턴을 이론적인 임의적 분포패턴과 비교하여 분포패턴의 군집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다. 최근린지수 값의 범위는 0에서 2.1491까지 값을 가지는데 0에 가까울수록 군집분포, 1에 가까울수록 임의적 분포, 1 값을 훨씬 상회할수록 규칙적으로 분산된 분포라고 볼 수 있다(이희연, 2005). 최근린지수 분석은 계산과정이 쉽고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통계적 유의성 검증에 있어 연구지역의 형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경계선이 최근린지수 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최근린거리만을 사용할 경우에 군집패턴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공간 스케일에서만 발견될 위험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G함수와 F함수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점 개체들 간의 입지가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고려해야 하나 화랑의 입지 분포 패턴을 살펴보면 목적이 있고 최근린지수에 문제점이 될 만한 요인들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없어 최근린지수 분석에 한정하여 군집패턴을 살펴보았다.

〈최근린 지수 산출식〉

$$R = \frac{\bar{r}_a}{r_e} = \frac{196.54m}{888.75m} = 0.2211$$

48) 화랑의 주소자료는 문화관광부 예술경영센터에서는 2010 미술시장 실태조사자료를 사용하였다. 미술시장 실태조사에 응답한 화랑들의 주소록 자료를 기준으로 지오코딩 하였으며 총 화랑 214개 중 주소가 수록되어 있는 화랑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3-16] 최근린지수 변화

	1999년	2010년
최근린지수	0.216	0.221
통계적 유의성	$z=-22.06$, $=0.00$	$z=-20.6$,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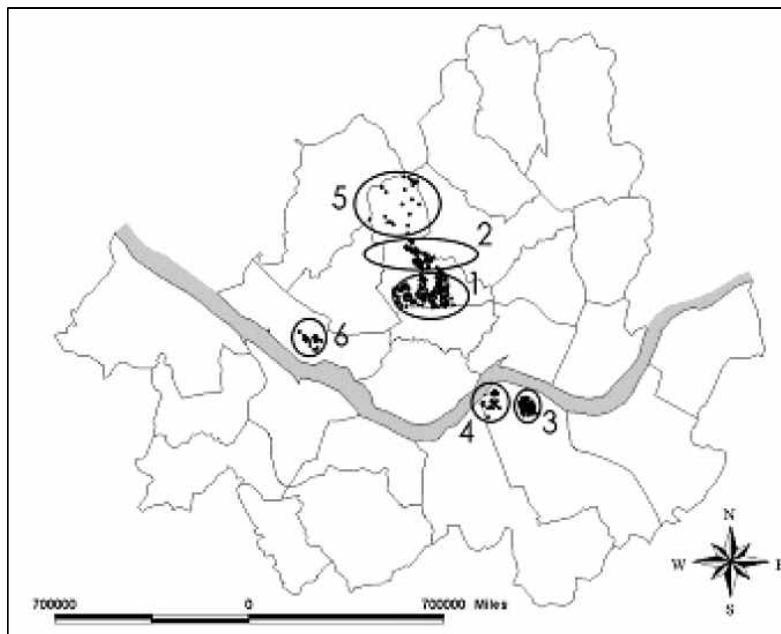
본 논문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화랑의 입지를 1999년과 2010년 두 시점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최근 10년간의 입지 분석 결과 화랑의 입지는 2000년 이후 종로구와 강남구 두 개의 중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0년 이전 시점에 대해서는 김학희(2007)⁴⁹⁾의 연구를 통해 서울시 화랑의 입지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김학희는 서울시 화랑의 입지를 1970대부터 고찰하였는데 80년대는 인사동 시대, 1990년대 청담동 시대, 2000년 이후 삼청동의 시대로 구분하고 화랑의 분포와 클러스터에 대해 [표 3-17] 과 같이 분석하였다. 김학희에 의하면 서울시 화랑의 입지는 1970~80년대에는 입지의 중심이 인사동에 있다가 1990년대 강남으로 이동했고 2000년대 이후 다시 평창동과 삼청동을 중심으로 하고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학희의 연구 결과에서 1990년대 말 부서의 화랑의 입지 이동은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49) 김학희(2007)는 창조경제와 도시 아트클러스터를 서울시 화랑의 입지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녀는 서울시 상업 화랑을 중심으로 아트 클러스터의 성장과 쇠퇴과정을 이해하고 그 분포 특성을 도시의 역사성과 시대적 특성, 예술가 집단의 성격과 연결시켜 대도시에서 아티스트 및 화랑이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배경을 아티스트의 생태, 아트 비즈니스의 특성, 세계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서울시 화랑의 입지는 예술가나 문화적 요인보다는 상업적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문화소비공간으로 쉽게 전환되는 경향이 있으며, 화랑의 분포는 도시 개발정책과 맞물린 지대의 상승, 문화 소비 취향의 변화, 국내외 미술 시장의 경기 변동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입지 주기 순환 양상을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표 3-17] 서울시 주요 아트 클러스터(박물관 및 갤러리) 분포

박물관 및 갤러리 클러스터	1987	1993	2002	2006
광화문 및 인사동 주변	36 (81.8%)	78 (45.1%)	72 (49.0%)	78 (41.5%)
사간동 및 삼청동 주변	0 (0.0%)	19 (11.0%)	17 (11.6%)	41 (21.8%)
청담동 및 압구정동 주변	4 (9.1%)	48 (27.7%)	25 (17.0%)	32 (17.0%)
신사동 주변	0 (0.0%)	24 (13.9%)	12 (8.2%)	16 (8.5%)
평창동 주변	0 (0.0%)	1 (0.6%)	12 (8.2%)	12 (6.4%)
홍익대 주변	4 (9.1%)	3 (1.7%)	9 (6.1%)	9 (4.8%)
합계(6개 클러스터 합산)	44 (100.0%)	173 (100.0%)	147 (100.0%)	188 (100.0%)

자료 : Art World(1987,1993), Seoul Art Guide(2002, 2006), 김학희(2007) p.266에서 재인용



[그림 3-9] 2006년 주요 아트 클러스터 위치

자료 : 김학희(2007) p.266에서 재인용

제 2 절 수도권 시각예술인 창작공간의 입지 특성

1. 창작인력 및 창작공간의 양적 증가

시각예술산업 생산부문에서 창작인력은 [표 3-18] 과 같이 전국적으로 202.3%의 증가율을 보여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수도권 전체는 전국 증가율과 유사한 196.5%가 증가하였으나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이 159.3%, 경기도가 287.6%로 서울보다는 경기도 지역에서의 증가율이 훨씬 크다. 이는 경기도 자체적 창작인력 규모의 성장과 더불어 서울에서 경기지역으로의 이주로 인한 증가도 원인이 되었다([그림 3-1] , [그림 3-2] 참조).

이러한 입지변화는 [표 3-19] 의 창작인력 지역별 규모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1999년에 서울시 창작인력의 수도권 내 비중이 67.8%이었지만 2011년에는 55.0%로 비중이 낮아진 반면 경기도 지역의 경우 1999년 14.2%에서 2011년에는 39.0%로 12.3%가 증가하였다. 창작인력이 전국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2배 이상이 증가하여 양적으로 규모가 증가하였고 특히, 경기도 지역의 경우 서울로부터의 이동과 경기도 자체적인 증가로 인해 창작인력 거주지로서의 입지적 특성이 강화되고 있다.

[표 3-18] 시각예술 창작인력 규모 변화

	1999년	2011년	증가율
서울	4,682	7,458	159.3%
경기	1,842	5,297	287.6%
인천	380	810	213.2%
수도권 합계	6,904	13,565	196.5%
전국 합계	12,948	26,189	202.3%

[표 3-19] 시각예술 창작인력 지역별 규모 변화

지역	1999년			2011년		
	회원수	수도권내 비중	전국비중	회원수	수도권내 비중	전국비중
서울	4,682	67.8%	36.2%	7,458	55.0%	28.5%
경기	1,842	26.7%	14.2%	5,297	39.0%	20.2%
인천	380	5.5%	2.9%	810	6.0%	3.1%
수도권 합계	6,904	100.0%	53.3%	13,565	100.0%	51.8%
전국 합계	12,948		100.0%	26,189		100.0%

창작인력 및 창작공간의 확산과는 달리 시각예술산업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인 화랑은 [표 3-20] 과 같이 규모가 축소되었다. 그러나 두 자료의 집계 기준에 차이가 있어 전체 규모의 변화량을 의미 있게 해석할 수는 없다. 1999년 자료의 경우 일부 전시공간까지 화랑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유통기능을 가진 2011년 자료와 차이가 있지만 자료의 한계를 감안하여도 지역별 변화에서 서울의 경우 화랑 규모가 감소하였으나 경기도의 경우 파주시 헤이리 지역에 화랑이 입지하면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지역전체의 성장으로 보기는 어렵고 화랑의 공간적 입지는 수도권 내부에서 1999년 서울이 91.3%에서 2010년 90.2%로 서울로의 중심성은 여전히 강하며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3-20] 화랑의 규모 변화

	1999년	2011년	증가율
서울	221	193	87.3%
경기	16	20	125.0%
인천	5	1	20.0%
수도권 합계	242	214	88.4%
전국 합계	437	324	74.1%

화랑의 이러한 입지변화는 1970년대 이후 지속된 현상으로 상업화랑은 도시의 역사성과 시대적 특성, 아트 비즈니스의 특성으로 인해 예술가나 문화적 요인보다는 상업적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대도시내에서 도시 개발정책과 맞물린 지대의 상승, 문화 소비 취향의 변화, 국내외 미술 시장의 경기 변동에 따라 입지가 변하기 때문이다(김학희, 2007).

[표 3-21] 화랑의 지역별 규모 변화

지역	1999년			2011년		
	화랑수	수도권내 비중	전국비중	화랑수	수도권내 비중	전국 비중
서울	221	91.3%	50.6%	193	90.2%	59.6%
경기	16	6.6%	3.7%	20	9.3%	6.2%
인천	5	2.1%	1.1%	1	0.5%	0.3%
수도권 합계	242	100.0%	55.4%	214	100.0%	66.0%
전국 합계	437		100.0%	324		100.0%

2. 교외지역 집적지 형성과 양평의 특성

시각예술의 가치사슬별로 나누어 수도권 내 입지를 분석한 결과 주목할만한 것은 유통기능은 여전히 서울에 중심성을 두고 있지만 창작기능은 교외로 확산되어 일정 지역에 집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시각예술인 거주지와 창작공간이 지난 10여 년 동안 양적 성장과 더불어 서울을 중심으로 인접한 중소도시로 확산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교외화 현상을 이루어졌는데 특히 양평, 파주, 일산, 이천 지역 등이 대표적으로 창작기능이 밀집된 지역이다.

수도권내 시각예술인 거주지 LISA분석 결과에서도 클러스터 지역이 경기도 남부 지역으로 확산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시각예술인의 거주지가 양적 팽창과 더불어 서울 종로구, 강남구를 중심으로 점차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중소도시로 공간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개인 창작공간이 수도권 전체적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주요 교통축을 중심으로 북쪽의 고양-파주지역, 동쪽의 남양주-광주-양평지역, 남쪽의 성남-용인-화성-안성시까지 확산되는 경향이 있고 양평군과 고양시 등에 집적되어 있다.

교외지역 중에서도 특히 양평은 시각예술인 거주지 LQ값이 경기도내에서 가장 높아 대표적 시각예술인 집적지로 볼 수 있으며, 작가들의 창작공간도 많은 곳이다. 더불어 갤러리, 박물관 등 유통기능까지 입지하고 있어 창작기능과 유통기능이 공존할 수 있는 유기적 클러스터개발이 기대되는 곳이다.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트밸리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어 창작기능과 유통기능의 집적된 시각예술클러스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유통부문은 작품의 소비층, 언론기관, 상업적 중심지와의 관계 등 다른 요소들과 상호관계로 인해 쉽게 중심기능이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 중심이 이동하기는 어렵다. 지금도 서울의 강북의 종로구와 강남의 강남구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이동을 하고 있고 있으므로 현재 집적된 창작인력들의 지원 기능 및 창작기능 강화를 위한 공간조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각예술산업의 가치사슬별 입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각예술산업의 창작기능 교외화 현상이 가장 잘 관찰되는 양평지역의 시각예술 창작 집적지를 대상으로 생산부문의 핵심 기능인 창작공간의 교외화 이동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 양평지역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1. 시각예술인 유입 배경

양평군은 서울 도심 동측으로 약 50km(1시간)에 위치한 지역으로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수계와 용문산 등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일반적으로 평균 소득이 낮은 전업 작가들은 작품활동을 지속하면서 저비용으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파리 근교의 바르비종⁵⁰⁾과 몽마르트가 그러한 지역이다. 양평군은 몽마르트처럼 낮은 비용으로 작업실과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면서 바르비종처럼 조용하고 자연환경이 수려하여 1980년대 말부터 서종면과 강상·강하면, 양동면 일대를 중심으로 작가들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경향신문, 2001. 5. 10).



〔그림 4-2〕 양평군 수계 현황도

양평군내에서도 가장 많은 창작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서종면, 강하면, 양동면, 지평면이다. 서종면에는 1987년 이주한 민정기 작가를 시작으로 서

50) 바르비종은 파리 외곽의 작은 마을로 밀레와 루소를 배출한 도시이다. 미술사에서 ‘바르비종파’도 그곳에서 비롯한다.

용선, 금동원, 김진화, 김금안, 윤동천, 나경찬, 이근명, 이봉임 작가 등이 있고, 강하면에는 김강용, 김인옥, 김영리, 송계일, 박동인등의 작가가 90년대 초 땅값이 비싸지 않았던 시기에 아틀리에를 지어 이주했다. 양동면 청계리 주변에는 故하태일 작가 가족(부인 류민자 작가, 딸 하태임 작가, 아들 하태경 작가 등)을 중심으로 파리에서 유학한 이태경, 정충일 작가등이 인접하여 화가촌을 형성하고 있다. 지평면에는 20~40대 젊은 조각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재효, 차종례, 차종규, 윤세정, 안진혁, 이종빈 작가의 작업실이 있다. 초기 양평으로 이주 작가들은 ‘영영클럽’이라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영영클럽’이란 제로(0), 젊음, 영원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한편 “양평에서 늙고 죽자”는 뜻으로 작품활동에 세월과 정열을 바치기 위해 몰려든 예술인들이었다(경향신문, 2001. 5. 10.). 이 모임은 1998년 양평 미술인협회 결성으로 이어져 양평환경미술제 등 활발한 활동을 하는데 주축이 되었다.

국내 작가들 뿐 아니라 최근에는 파리, 뉴욕 등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작가들도 경제적 부담이 서울에 비해 훨씬 적고 문화중심지 서울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서울을 떠나 양평으로 이주하고 있다. 양평으로 이주한 작가들은 개인 작품활동 뿐 아니라 공동전시 등 함께 작품활동도 하고 개인적 만남도 가지면서 ‘화가마을’, ‘예술의 고향’, ‘미술인마을’, ‘예술인의 낙원’등으로 불리우며 창작인력들의 집적지로서 명성을 이어 오고 있다.

양평지역은 “무명에서 스타까지 다양한 작가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으로 생활과 작업을 함께 하는 자연발생적 집단창작촌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작가들은 서울에서 자동차로 불과 1시간 거리지만 서울과 전혀 다른 남한강 주변의 흙냄새와 물소리가 느껴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중앙일보, 2002년 2월 23일)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양평군에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정착이 이어져 2011년 12월에는 양평군립 미술관을 개관하는 등 [그림 4-3] 과 같이 다양한 문화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는 지역으로 수도권 시각예술 집적지로서의 지역성을 가지고 있으며 3장의 분석결과와 같이 시각예술인과 그들의 창작공간이 지속적으로 이동하여 집적되고 있는 지역이므로 창작공간의 교외화 현상 및 교외화 입지 요인 분석의 대상지로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그림 4-3] 양평지역 일대 시각예술 및 문화 기반 시설 분포 현황

2. 시각예술인 규모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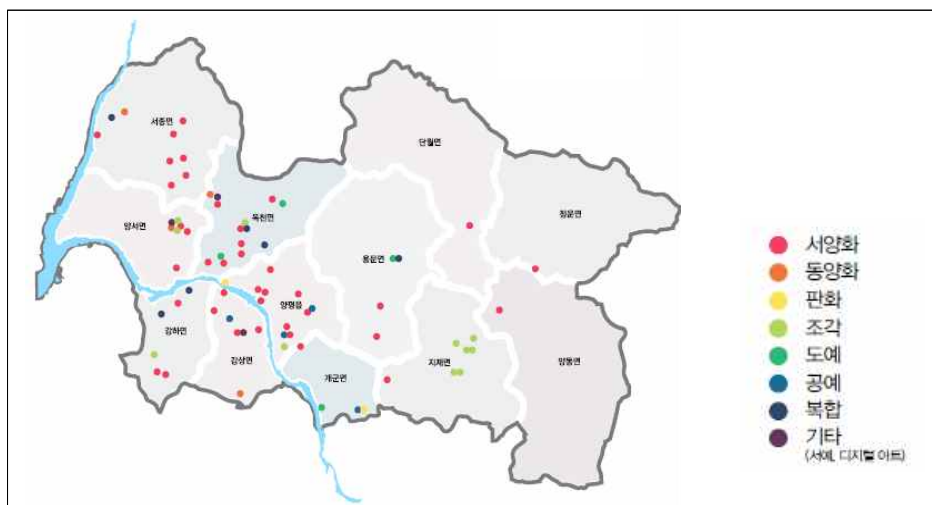
2010년 양평환경미술제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양평군에 창작공간 및 거주공간을 갖고 있는 시각예술인의 규모는 그림 [4-4] 와 같이 267명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연구자가 관련 공무원 및 다수의 작가들과 심층인터뷰를 통해 추가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시각예술분야만 약 400명이상, 미술분야 외에도 사진, 문학,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약 600여명(협회 가입 인원 기준)의 창작인력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⁵¹⁾된다. 양평군 시각예술인들은 1990년대 초부터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초 거주하기 시작한 작가들은 주로 서종면, 강상면, 강하면, 용문면에 다수 분포하고 있다. 2010년 양평환경미술제에서 양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작가 81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⁵²⁾에

51) 양평군 문화관광과 인터뷰에서는 양평군내 문학, 음악, 사진, 미술 분야를 포함한 창작인력의 규모를 약 6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규모와 거주지역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창작인력에 대한 별도의 지원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창작인력들이 예술인의 지위에 대한 노출 및 신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2) 양평군에서는 양평미술협회 주최로 매년 한번 씩 양평환경미술제(Yangpyeong Eco

의하면 작가들의 평균나이는 57세, 평균 거주기간은 13년으로 나타나 50대 이상 작가들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전체적으로는 거주기간이 오래된 작가와 비교적 최근에 이주한 작가들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양평군 시각예술인의 주요 특징은 창작공간 뿐 아니라 거주지와 창작공간이 모두 양평군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아 단기간 작품 활동만을 위해 머무르는 임시적 공간의 성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거주 및 창작공간을 위해 입지한 작가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이주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으로 작가들의 정착촌의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림 4-4] 양평군 시각예술인 분포 현황

자료 : 양평 환경미술제 자료집, 2010년

Art Festival)을 개최하고 있다. 2010년에는 “물-자연, 환경, 거주, 일상”이라는 주제로 양평군에 있는 90여명의 작가들의 작품전시와 거주 작가 100인 이상의 통계 자료를 시각화하는 전시가 개최되었다. 통계자료는 현재 활동 및 연혁 등 기본적인 작가 정보와 작품에 관한 예술 정보, 작가 인터뷰 동영상으로 구성되었다.

제 2 절 시각예술인 및 창작공간 현황

1. 시각예술인 현황 및 특징

1) 설문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창작공간의 입지 요인 도출 및 시각예술 창작인력과 창작공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양평군 시각예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목적은 첫째, 창작공간 선택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들을 도출하여 창작공간의 입지요인을 밝히는 것이며, 둘째, 시각예술 작가 및 창작공간의 특성, 창작공간의 미래 선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희망항목 등을 조사하여 창작공간에 대한 현황과 정책적 지원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설문조사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시각예술 작가 개별 방문 및 양평군립미술관에서 개최된 양평미술협회정기회원전(2012년 5월 11~5월 20일) 참여작가를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 방법을 통해 총 104부가 조사되었다. 양평미술협회정기회원전은 오픈닝 행사에서 조사를 실시하였고 개별 방문은 2012년 4월 15일부터 2012년 6월 15일까지 작가 작업실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의 주요 내용은 [표 4-1] 과 같이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되며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부분은 네 번째는 작업실 선택요인 및 선호, 두 번째는 창작공간 특성, 세 번째는 창작인력의 네트워크 형태, 마지막 네 번째는 창작인력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개인속성에 대한 내용이다.

창작공간 선택요인 및 선호에 대해서는 현재의 선호와 미래의 선호로 구분하였다. 현재의 선호는 현재의 작업실을 선택하게 된 요인에 대한 선택과 만족도가 포함되었으며, 미래선호에는 선호하는 작업실의 위치, 형태, 서울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대해 조사하였고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고 싶은 항목과 선호도로 포함시켰다. 작업실 선택요인은 고려요인을 8개로 제시하고 각 요인별 고려정도 5점 척도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선택요인은 선행연구 및 사전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요소들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입지론을 통해 도출된 창작공간 입지요인과의 차이와 요인별 중요도를 분석 하였다.

창작공간 특성은 창작공간의 이용형태, 공유형태, 건물형태, 면적, 소유상황, 공간선택 경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창작인력의 네트워크는 작가 간 교

류, 주민과의 교류, 지역과의 교류로 구분하여 교류의 수준과 선호에 대해 물어 보았다. 창작인력의 개인속성은 성별, 연령대, 가족구성, 학력, 소득, 거주기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전업작가 여부, 활동기간, 장르, 전시회, 예술활동 수입, 작업실 이용회수 항목이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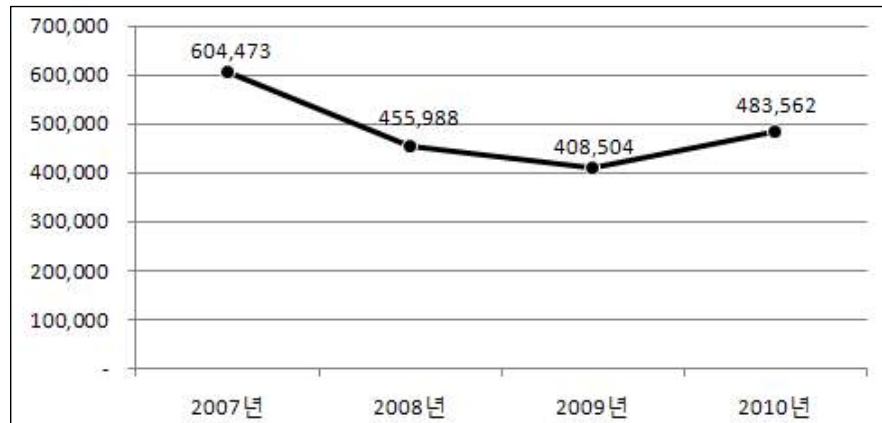
[표 4-1] 설문지 문항 구성

구분	설문 문항
작업실 선택요인 및 선호	• 현재 선호 : 선택요인, 만족도
	• 미래 선호 : 위치, 형태, 거리, 지자체 지원요소
창작공간 특성	• 공간특성 : 용도(주거복합 또는 독립 작업공간), 공유형태, 건물형태, 면적, 소유상황, 공간선택 경로
창작인력 네트워크	• 작가간 교류 : 정보제공 경로, 주변 작가거주, 작업실 공유, 작가간 교류
	• 주민과의 교류 : 교류 정도
	• 지역과의 교류 : 행사 및 활동 참여 정도
창작인력 개인 속성	• 인구통계학적 특성 : 성별, 나이, 가족구성, 학력, 소득, 양평균 거주기간
	• 작품활동 특성 : 전업작가 여부, 활동기간, 장르, 연평균 전시회, 순수 예술활동 수입, 작업실 이용회수

2) 이주시기 및 장르에 따른 시각예술인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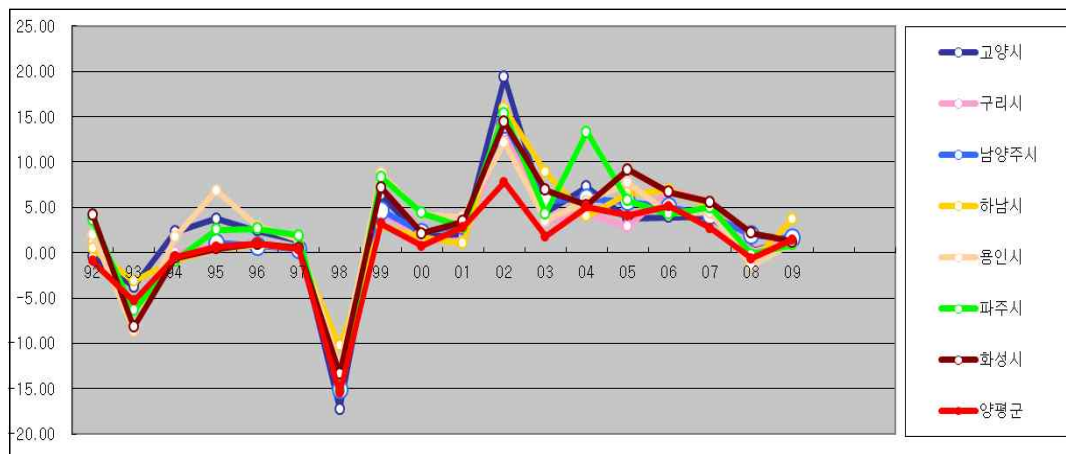
미술시장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7년을 전후로 세계경제 침체로 국내 경제도 동반 침체되면서 미술시장의 규모가 축소되어 작가들의 경제적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시장 규모의 축소와 더불어 기존 작가들이 집적되어 있는 일산, 화성지역들은 2000년 이후 1, 2기 신도시개발과 택지개발로 지가상승률이 높아졌고([그림 4-5], [그림 4-6] 참조) 창고, 공장, 축사 등을 많이 임대하여 활용하였던 창작공간의 임대료도 더욱 상승하게 되었다. 따라서 2007년 전후가 작가들의 공간적 이동에 영향을 준 시기로 판단하여 설문조사 대상자의 입지

요인도 이주시기(거주기간 5년 전후)와 장르(회화 및 비회화)에 따라 구분하고 각 집단별로 창작공간 선택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집단간 차이 분석을 통해 입지 요인의 시간에 따른 변화와 장르에 따른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⁵³⁾



[그림 4-5] 미술시장 규모 변화 (2007~2010년)

자료 : 예술경영지원센터, <http://webzine.gokams.or.kr/>



[그림 4-6] 경기도 작가 밀집지역 지가 상승률 현황

자료 : <http://www.onnara.go.kr/>

53) 수도권 다른 지역에 비해 양평군의 경우 참여정부 이후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 창고 등의 시설 건립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면서 작가들이 점유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창작공간의 공급이 확대된 시기이기도 하다. 2010년 이후 양평군은 수도권 전철개통과 양평미술관 건립 등 접근성 측면이나 시각예술관련 중요한 기반시설이 건설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작가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시기 구분에 포함하지 않았다.

3) 시각예술인 현황

(1) 기술통계 현황

양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시각예술인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표 4-2]와 같이 남성의 비율이 59.6%로 여성의 비율보다 높고 연령대는 50대 이상 52.9%로 연령대가 높은 편이다. 가족구성은 부부 비율이 30.8%로 가장 높고 학력은 대졸이상이 97.1%로 매우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다.

높은 학력에 비해 월평균 소득은 49%가 150만원 이하로 소득수준은 낮은 편이고 반대로 300만원 이상이 26%로 소득계층이 양분되어 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보면 50대 이상 부부 또는 30~40대 1인 가구가 많고 고학력인데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은 낮은 계층으로 볼 수 있다.

[표 4-2] 인구통계학적 특성 빈도 분석

항목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62	59.6
	여자	42	40.4
	합계	104	100.0
연령대	20대	1	1.0
	30대	26	25.0
	40대	22	21.2
	50대	37	35.6
	60대 이상	18	17.3
	합계	104	100.0
가족구성	1인	26	25.0
	부부	32	30.8
	부부+초등	16	15.4
	부부+중등	10	9.6
	부부+대학생	20	19.2
	합계	104	100.0
학력	무응답	1	1.0
	고졸	2	1.9
	대졸	72	69.2
	대학원졸	29	27.9
	합계	104	100.0
월평균수입	50만원 미만	12	11.5
	50~100만원	18	17.3
	100~150만원	21	20.2
	150~200만원	13	12.5
	200~300만원	13	12.5
	300만원 이상	27	26.0
	합계	104	100.0

작품활동 현황은 [표 4-3] 과 같이 전업작가 비율이 74%로 창작활동에만 전념하는 작가의 비중이 높고 겸업의 경우에도 주로 교수, 갤러리, 학원, 공방, 방과후 교사 등 예술관련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양평군에서 창작공간을 마련하여 거주하기 시작한 기간은 5~10년이 32.7%로 가장 많고 5년 미만과 10~15년도 26.9%로 많다. 작품활동 기간은 평균 연령대가 높은 작가들이 많아 20년 이상 활동한 작가의 비중이 51.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10년 사이와 10~15년 사이가 34.6%, 5년 미만의 작가는 3.8%로 작품활동 기간이 짧은 작가의 비중이 매우 낮다.

순수예술활동 수입은 60.6%가 연평균 1,000만원 이하로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은 매우 낮다.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은 낮지만 작업실 이용회수는 매일 이용하는 경우가 49%, 3~4회 이용이 23.1%, 5~6회 이용이 20.2%로 창작공간이용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연평균 전시회는 5~10회 이상이 35.6%, 3~4회가 30.8%로 작품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작가 개인의 작품활동 현황을 종합하면 전업작가 이면서 지속적으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으나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은 높지 않은 것으로 요약된다.

네트워크 현황과 관련해서는 작가간 교류는 인근지역에 다른 작가가 거주하는 것에 대해 긍정이 54.8%, 매우 긍정이 27.9%, 보통이 10.6%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 주변의 작가가 거주할 경우 5~1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거주하길 바라는 비율이 49.5%로 가장 높았고, 같은 마을이 39.2%, 같은 건물은 9.3%로 바로 인접해 있기 보다는 다소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기를 선호하고 있다. 작업실을 다른 작가와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이 63.5%로 가장 높고 긍정과 보통이 각 14.4%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양평지역 내 작가들간의 교류는 보통이 60.6%, 자주만남이 21.2%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시각예술인들이 집적해 있는 것을 선호하지만 근접되어 있기 보다는 다소 떨어진 개별입지 형태를 선호하였다. 작업실 인근 주민과의 교류는 보통이 51.8%, 만나지 않음이 28.8%, 자주 만남이 17.3%로 보통이거나 만나지 않는 비율이 80.8%로 교류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마지막 지역사회와의 교류는 행사 및 활동 참여 정도 등으로 질문하였는데 참여가 34.6%, 보통이 24%, 불참여 24.4%로 참여하는 작가들과 참여하지 않는 작가

들로 나누어진다.

시각예술인의 네트워크 상황을 종합해보면 작가들간의 교류는 선호도나 교류 정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여지나 주민이나 지역사회와의 교류는 약한 편이다.

[표 4-3] 창작인력 네트워크 현황 빈도 분석

항목		빈도	백분율(%)
인근지역에 타작가의 거주에 대한 생각	매우긍정	29	27.9
	긍정	57	54.8
	보통	11	10.6
	부정	3	2.9
	상관없음	4	3.8
	합계	104	100.0
타작가의 적정 거주 거리	같은 건물	9	9.3
	같은 마을	38	39.2
	5~10분 인근	48	49.5
	기타	2	2.1
	합계	104	100.0
다른 작가와의 작업실 공유에 대한 생각	매우긍정	3	2.9
	긍정	15	14.4
	보통	15	14.4
	부정	66	63.5
	상관없음	5	4.8
	합계	104	100.0
양평지역 작가들과의 교류	매우자주만남	3	2.9
	자주만남	22	21.2
	보통	63	60.6
	만나지않음	16	15.4
	합계	104	100.0
작업실 인근 주민들과의 교류	매우자주만남	2	1.9
	자주만남	18	17.3
	보통	54	51.9
	만나지않음	30	28.8
	합계	104	100.0
양평군 주최 전시 및 행사 참여	적극참여	18	17.3
	참여	36	34.6
	보통	25	24.0
	불참	25	24.0
	합계	104	100.0

[표 4-4] 작품활동 현황 빈도 분석

항목		빈도	백분율(%)
거주기간	5년미만	28	26.9
	5~10년 미만	34	32.7
	10~15년 미만	28	26.9
	15~20년 미만	11	10.6
	20년 이상	3	2.9
	합계	104	100.0
전업여부	비전업	27	26.0
	전업	77	74.0
	합계	104	100.0
순수예술활동 수입	500만원 미만	41	39.4
	500~1,000만원	22	21.2
	1,000~2,000만원	17	16.3
	2,000~3,000만원	11	10.6
	3,000~5,000만원	8	7.7
	5,000만원 이상	5	4.8
	합계	104	100.0
작품활동 기간	5년 미만	4	3.8
	5~10년 미만	18	17.3
	10~15년 미만	18	17.3
	15~20년 미만	10	9.6
	20년 이상	54	51.9
	합계	104	100.0
작업실 주평균 이용회수	매일	51	49.0
	5~6회	21	20.2
	3~4회	24	23.1
	1~2회	6	5.8
	거의 이용하지 않음	2	1.9
	합계	104	100.0
연평균 전시회	10회 이상	13	12.5
	5~10회	37	35.6
	3~4회	32	30.8
	1~2회	13	12.5
	거의 열지 못함	9	8.7
	합계	104	100.0

(2) 이주시기 및 장르에 따른 특성

창작인력 및 창작공간의 특성이 이주시기 및 장르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작가들의 이주시기(거주기간 5년 전후)에 따라 1세대와 2세대로 구분하고 장르에 따라 회화, 비회화 그룹으로 구분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 작품활동, 창작공간 현황 및 미래 선호, 네트워크 현황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①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는 교차분석에서는 변수들이 명목척도에 의해 측정된 데이터이므로 비모수통계의 카이제곱(Chi-square) 검정을 이용하였다⁵⁴⁾.

세대간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들은 1세대는 여자와 50대 이상 연령층의 비율이 높고 가족구성에서는 부부의 비율이 높았다. 여기서 연령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가족구성에서 부부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부부라는 현재의 가족상태가 결혼 후 자녀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여 부부만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세대는 30~40대 남자의 비율이 높고 1인가구나 비율이 높았다. 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학력의 경우 대학원졸업의 비중이 더 높으나 월평균 소득은 1세대 작가들의 비해 더 낮게 분석되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비교 결과는 전반적으로 2세대 작가들이 남성이 비율이 높고 젊고 학력은 높지만 소득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장르별 교차분석에서는 비회화부분이 남자의 비중이 높고 20~30대 및 40대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낮은 특성이 있다. 남자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 도구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남자 작가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령층이 낮기 때문에 가구구성에서도 1인가구와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비중이 높다.

소득에 대해서는 장르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4) 두 표본집단의 ²검정은 관찰된 두 표본집단을 서로 비교하는 것으로 귀무가설은 두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주장이며, 연구가설은 두 변수들이 독립적이지 아니라는 것이다.

[표 4-5] 세대간 인구통계학적 특성 카이제곱 검정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세대		전체 (빈도,%)	2 통계량
		1세대 (빈도,%)	2세대 (빈도,%)		
성별	여자	33(50.8)	9(23.1)	42(40.4)	7.764 **
	남자	32(49.2)	30(76.9)	62(59.6)	
연령대	20~30대	6(9.2%)	21(53.8)	27(26.0)	31.782 **
	40대	12(18.5)	10(25.6)	22(21.2)	
	50대	31(47.7)	6(15.4)	37(35.6)	
	60대 이상	16(24.6)	2(5.1)	18(17.3)	
가족 구성	1인	7(10.8)	19(48.7)	26(25.0)	25.134 **
	부부	25(38.5)	7(17.9)	32(30.8)	
	부부+초등자녀	8(12.3)	8(20.5)	16(5.4)	
	부부+중·고등자녀	7(10.8)	3(7.7)	10(9.6)	
	부부+대학생	18(27.7)	2(5.1)	20(19.2)	
학력	대졸이하	50(76.9)	25(64.1)	75(72.1)	1.922
	대학원졸	15(23.1)	14(35.9)	29(27.9)	
소득	50만원 미만	5(7.7)	7(17.9)	12(11.5)	6.458
	50~100만원	12(18.5)	6(15.4)	18(17.3)	
	100~150만원	10(15.4)	11(28.2)	21(20.2)	
	150~200만원	9(13.8)	4(10.3)	13(12.5)	
	200~300만원	10(15.4)	3(7.7)	13(12.5)	
	300만원 이상	19(29.2)	8(20.5)	27(26.0)	

[표 4-6] 장르간 인구통계학적 특성 카이제곱 검정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장르		전체 (빈도,%)	통계량 ²
		회화 빈도,%)	비회화 (빈도,%)		
성별	여자	35(53.8)	7(17.9)	42(40.4)	13.047 ^{**}
	남자	30(46.2)	32(82.1)	62(59.6)	
연령대	20~30대	10(15.4)	17(43.6)	27(26.0)	31.782 ^{**}
	40대	12(18.5)	10(25.6)	22(21.2)	
	50대	29(44.6)	8(20.5)	37(35.6)	
	60대 이상	14(21.5)	4(10.3)	18(17.3)	
가족 구성	1인	11(16.9)	15(38.5)	26(25.0)	9.296 [*]
	부부	24(36.9)	8(20.5)	32(30.8)	
	부부+초등자녀	8(12.3)	8(20.5)	16(5.4)	
	부부+중·고등자녀	7(10.8)	3(7.7)	10(9.6)	
	부부+대학생	15(23.1)	5(12.8)	20(19.2)	
학력	대졸이하	47(72.3)	28(71.8)	75(72.1)	0.003
	대학원졸	18(27.7)	11(28.2)	29(27.9)	
소득	50만원 미만	7(10.8)	5(12.8)	12(11.5)	7.605
	50~100만원	12(18.5)	6(15.4)	18(17.3)	
	100~150만원	8(12.3)	13(33.3)	21(20.2)	
	150~200만원	9(13.8)	4(10.3)	13(12.5)	
	200~300만원	9(13.8)	4(10.3)	13(12.5)	
	300만원 이상	20(30.8)	7(17.9)	27(26.0)	

② 작품활동 특성

작품활동 기간은 세대 간 차이에서는 작품활동 기간에서만 차이가 있고 전업 여부나 작업실 이용회수, 연평균 전시회와 같은 활동적 특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장르에 따른 집단간 차이에서는 비회화 작가들의 전업작가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났고 작품활동 경력에 있어서는 회화작가들이 20년 이상이 69.2%로 비회화작가들의 비중 23.1%보다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작업실 주평균 이용회수, 연평균 전시회, 소득수준 등은 통계적으로 장르간 차이가 보기 어려워 작품활동에 대해서는 이주시기나 장르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4-7] 세대간 작품활동 특성 카이제곱 검정 결과

창작공간 특성		세대		전체 (빈도,%)	통계량 ²
		1세대 (빈도,%)	2세대 (빈도,%)		
전업 여부	비전업	16(24.6)	11(28.2)	27(26.0)	0.163
	전업	49(75.4)	28(71.8)	77(74.0)	
순수 예술 활동 수입	연 500만원 미만	24(36.9)	17(43.6)	41(39.4)	1.116
	500~1000만원	13(20.0)	9(23.1)	22(21.2)	
	1000~2000만원	12(18.5)	5(12.8)	17(16.3)	
	2000~3000만원	7(10.8)	4(10.3)	11(10.6)	
	3000만원 이상	9(13.8)	4(10.3)	13(12.5)	
작품 활동 기간	5년 미만	1(1.5)	3(7.7)	4(3.8)	25.896 ^{**}
	5~10년	4(6.1)	14(35.9)	18(17.3)	
	10~15년	10(15.4)	8(20.5)	18(17.3)	
	15~20년	5(7.7)	5(12.8)	10(9.6)	
	20년 이상	45(69.2)	9(23.1)	54(51.9)	
작업실 주평균 이용 회수	거의 이용하지 않음	2(3.1)	0(0.0)	2(1.9)	5.770
	1~2회	6(9.2)	0(0.0)	6(5.8)	
	3~4회	13(20.0)	11(28.2)	24(23.1)	
	5~6회	12(18.5)	9(23.1)	21(20.2)	
	매일	32(49.2)	19(48.7)	51(49.0)	
연평균 전시회	거의 열기 못함	5(7.7)	4(10.3)	9(8.7)	4.919
	1~2회	7(10.8)	6(15.4)	13(12.5)	
	3~4회	17(26.2)	15(38.5)	32(30.8)	
	5~10회	25(38.5)	12(30.8)	37(35.6)	
	10회 이상	11(16.9)	2(5.1)	13(12.5)	

[표 4-8] 장르간 작품활동 특성 카이제곱 검정 결과

창작공간 특성		장르		전체 (빈도,%)	통계량 ²
		회화 (빈도,%)	비회화 (빈도,%)		
전업 여부	비전업	21(32.3)	6(15.4)	27(26.0)	3.632 [*]
	전업	44(67.7)	33(84.6)	77(74.0)	
순수 예술 활동 수입	연 500만원 미만	26(40.0)	15(38.5)	41(39.4)	2.446
	500~1000만원	12(18.5)	10(25.6)	22(21.2)	
	1000~2000만원	13(20.0)	4(10.3)	17(16.3)	
	2000~3000만원	7(10.8)	4(10.3)	11(10.6)	
	3000만원 이상	7(10.8)	6(15.4)	13(12.5)	
작품 활동 기간	5년 미만	1(1.5)	3(7.7)	4(3.8)	10.283 ^{**}
	5~10년	8(12.3)	10(25.6)	18(17.3)	
	10~15년	9(13.8)	9(23.1)	18(17.3)	
	15~20년	6(9.2)	4(10.3)	10(9.6)	
	20년 이상	41(63.1)	13(33.3)	54(51.9)	
작업실 주평균 이용 회수	거의 이용하지 않음	1(1.5)	1(2.6)	2(1.9)	3.793
	1~2회	5(7.7)	1(2.6)	6(5.8)	
	3~4회	18(27.7)	6(15.4)	24(23.1)	
	5~6회	12(18.5)	9(23.)	21(20.2)	
	매일	29(44.6)	22(56.4)	51(49.0)	
연평균 전시회	거의 열기 못함	4(6.2)	5(12.8)	9(8.7)	1.643
	1~2회	8(12.3)	5(12.8)	13(12.5)	
	3~4회	21(32.3)	11(28.2)	32(30.8)	
	5~10회	23(35.4)	14(35.9)	37(35.6)	
	10회 이상	9(13.8)	4(10.3)	13(12.5)	

③ 네트워크 현황

작가들의 네트워크와 관련된 항목들에 대해서는 세대별 차이에서는 인근지역에 작가들이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집단내에서는 ‘긍정’으로 대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 항목에 대해 보통이상의 대답을 한 사람 중 타작가가 거주하길 원하는 적정거리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물음에서는 2세대 작가들이 같은 건물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평균보다 높았고 1세대 작가

들은 5~10분 정도 떨어진 거리의 비중이 높았다. 작업실 공유에 대해서도 1세대 작가들은 ‘부정’의 비중이 76.9%이고 2세대 작가들은 ‘보통’과 ‘긍정’이 각각 25.6%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네트워크에서 주민과의 네트워크는 1세대작가들이 ‘보통’과 ‘자주만남’의 비중이 2세대 작가의 비중이 비해 높았고 지역내 행사 참여도 ‘참여’와 ‘적극참여’의 비중이 높아 거주기간이 더 오래된 1세대 작가들이 최근에 이주한 작가들에 비해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보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다.

장르에 따른 네트워크 차이는 지역주민과의 교류정도와 지역내 행사참여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주민과의 교류항목에서는 회화작가들이 ‘보통’과 ‘자주만남’이 비중이 높았고 지역내 행사참여도 ‘참여’와 ‘적극참여’의 비중이 높았다. 비회화장르의 경우에는 지역내 행사참여도에서 ‘불참’이 38.5%로 전반적으로 참여도가 낮았다.

[표 4-9] 세대별 네트워크 특성 카이제곱 검정 결과

네트워크 현황		세대		전체 (빈도,%)	통계량 ²
		1세대 (빈도,%)	2세대 (빈도,%)		
인근 지역 작가 거주	상관없음	3(4.6)	1(2.6)	4(3.8)	3.443
	부정	3(4.6)	0(0.0)	3(2.9)	
	보통	5(7.7)	6(15.4)	11(10.6)	
	긍정	36(55.4)	21(53.8)	57(54.8)	
	매우긍정	18(27.7)	11(28.2)	29(27.9)	
타작가 적정 거주 거리	같은 건물	1(1.7)	8(21.2)	9(9.3)	11.103 ^{**}
	같은 마을	23(39.0)	15(39.5)	38(39.2)	
	5~10분 인근 및 기타	35(59.3)	15(39.5)	50(51.5)	
작업실 공유	상관없음	4(6.2)	1(2.6)	5(4.8)	17.581 ^{**}
	부정	50(76.9)	16(41.0)	66(63.5)	
	보통	5(7.7)	10(25.6)	15(14.4)	
	긍정	5(7.7)	10(25.6)	15(14.4)	
	매우긍정	1(1.5)	2(5.1)	3(2.9)	
양평 지역 작가와 교류	만나지 않음	8(12.3)	8(20.5)	16(15.4)	3.179
	보통	39(60.0)	24(61.5)	63(60.6)	
	자주만남	15(23.1)	7(17.9)	22(21.2)	
	매우 자주만남	3(4.6)	0(0.0)	3(2.9)	
지역 주민 교류	만나지 않음	12(18.5)	18(46.2)	30(28.8)	11.413 ^{**}
	보통	36(55.4)	18(46.2)	54(51.9)	
	자주만남	15(23.1)	3(7.7)	18(17.3)	
	매우 자주만남	2(3.1)	0(0.0)	2(1.9)	
지역내 행사 참여	불참	9(13.8)	16(41.0)	25(24.0)	16.519 ^{**}
	보통	14(21.5)	11(28.2)	25(24.0)	
	참여	25(38.5)	11(28.2)	36(34.6)	
	적극참여	17(26.2)	1(2.6)	18(17.3)	

[표 4-10] 장르간 작품활동 특성 카이제곱 검정 결과

네트워크 현황		장르		전체 (빈도,%)	통계량 ²
		회화 (빈도,%)	비회화 (빈도,%)		
인근 지역 작가 거주	상관없음	1(1.5)	3(7.7)	4(3.8)	3.842
	부정	2(3.1)	1(2.6)	3(2.9)	
	보통	7(10.8)	4(10.3)	11(10.6)	
	긍정	34(52.3)	23(59.0)	57(54.8)	
	매우긍정	21(32.3)	8(20.5)	29(27.9)	
타작가 적정 거주 거리	같은 건물	4(6.5)	5(14.3)	9(9.3)	2.398
	같은 마을	27(43.5)	11(31.4)	38(39.2)	
	5~10분 인근 및 기타	31(50.0)	19(54.3)	50(51.5)	
작업실 공유	상관없음	3(4.6)	2(5.1)	5(4.8)	5.272
	부정	46(70.8)	20(51.3)	66(63.5)	
	보통	6(9.2)	9(23.1)	15(14.4)	
	긍정	8(12.3)	7(17.9)	15(14.4)	
	매우긍정	2(3.1)	1(2.6)	3(2.9)	
양평 지역 작가와 교류	만나지 않음	9(13.8)	7(17.9)	16(15.4)	2.202
	보통	40(61.5)	23(59.0)	63(60.6)	
	자주만남	13(20.0)	9(23.1)	22(21.2)	
	매우 자주만남	3(4.6)	0(0.0)	3(2.9)	
지역 주민 교류	만나지 않음	13(20.0)	17(43.6)	30(28.8)	8.095 ^{**}
	보통	39(60.0)	15(38.5)	54(51.9)	
	자주만남	11(16.9)	7(17.9)	18(17.3)	
	매우 자주만남	2(3.1)	0(0.0)	2(1.9)	
지역내 행사 참여	불참	10(15.4)	15(38.5)	25(24.0)	7.189 [*]
	보통	17(26.2)	8(20.5)	25(24.0)	
	참여	25(38.5)	11(28.2)	36(34.6)	
	적극참여	13(20.0)	5(12.8)	18(17.3)	

2. 창작공간 현황

1) 창작공간 특성

창작공간의 용도 형태는 주거복합형이 67.3%로 창작공간만 독립적으로 있기 보다는 거주와 작품활동을 동시에 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 또 독립작업실만 있는 경우 거주지는 주로 서울시(47.1%)에 있으며, 양평군내에서는 동일 읍면에 있는 경우가 29.4%로 다른 읍면(17.6%)에 있는 경우보다 비율이 높아 창작공간으로부터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게 입지하고 있다.

창작공간의 공유 형태는 작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67.3%, 공동사용이 32.7%로 단독사용비율이 높다. 건물의 형태로는 단독주택 형태가 56.7%로 가장 많고 창고가 26%, 상가 10.6%순이다. 전용면적은 40평 이상이 47.1%, 20~30평이 21.2%로 전용면적의 규모가 주택보다는 크다. 마지막으로 창작공간의 소유 형태는 자가 6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월세가 25%로 많다. 소유형태별 매매가격 및 임대료 수준은 자가의 경우 평균 3억6천만원 정도이며, 전세나 월세의 경우 각 4,800만원과 4,900만원으로 5,000만원 내외 수준이다. 창작인력들은 창작공간 선택 시 정보제공의 경로는 동료나 선후배 등 주변 작가들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가 52.9%로 가장 많았고 중개업소가 20.2%, 가족이 14.4% 순으로 나타났다.

창작인력의 창작공간과 관련한 특성을 종합해보면 작품활동을 위한 작업공간 겸 주거 공간으로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분리 이용 시 거주지는 서울시 또는 양평군내 인접지역에 두고 있다. 창작공간은 작가 단독으로 도심의 자가 주택보다 규모가 큰 단독주택이나 창고형태를 자가로 이용하는 비중이 높고 공간 선택 시에는 주변 작가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특징이다.

[표 4-11] 창작공간 특성 빈도 분석

항목		빈도	백분율(%)
작업실 용도	주거복합	70	67.3
	독립공간	34	32.7
	합계	104	100.0
작업실 공유형태	단독	70	67.3
	공동	34	32.7
	합계	104	100.0
건물형태	단독주택	59	56.7
	다세대연립	1	1.0
	아파트	1	1.0
	공장	3	2.9
	상가	11	10.6
	창고	27	26.0
	축사	1	1.0
	기타	1	1.0
	합계	104	100.0
전용면적	5평 미만	1	1.0
	5~10평	1	1.0
	10~15평	4	3.8
	15~20평	14	13.5
	20~30평	22	21.2
	30~40평	13	12.5
	40평 이상	49	47.1
	합계	104	100.0
소유형태	무응답	1	1.0
	자가	72	69.2
	전세	4	3.8
	월세	26	25.0
	년세	1	1.0
	합계	104	100.0
정보습득 경로	동료및선후배	55	52.9
	가족	15	14.4
	중개업소	21	20.2
	기타	13	12.5
	합계	104	100.0

2) 창작공간 만족도 및 미래 선호

현재 작업실에 대한 만족도 만족이 58.7%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 24.2%, 매우 만족과 불만이 각각 8.7%로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미래선호와 관련해서는 향후 작업실의 선호 위치로 수도권 중소도시를 선택한 비율이 62.5%로 가장 높고, 농어촌 24.0%, 서울도심 10.6%순으로 도심보다는 외곽지역을 선호 하고 있다. 도심과의 적정거리는 35km 정도가 33.7%, 50km 정도 32.7%, 25km 정도 20.2%로 35~50km 정도를 적정거리로 생각하고 있었다. 희망하는 작업실의 형태는 단독주택 64.4%, 창고 18.3%, 창작레지던시 6.7% 순으로 현재 작업실로 이용하는 형태와 유사하다.

창작공간 만족도를 종합하면 현재의 작업실에 대해 만족도가 높아 현재의 입지에 대한 효용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미래선호도 서울 도심으로부터 35~50km지역에 단독주택이나 창고형태의 작업실을 갖는 것을 선호하였다.

[표 4-12] 현재 작업실 만족도 및 미래선호 빈도 분석

항목		빈도	백분율(%)
작업실에 대한 만족도	매우만족	9	8.7
	만족	61	58.7
	보통	25	24.0
	불만	9	8.7
	합계	104	100.0
희망 작업실 위치	서울 도심	11	10.6
	수도권중소도시	65	62.5
	농어촌	25	24.0
	기타	3	2.9
	합계	104	100.0
희망 작업실 형태	단독주택	67	64.4
	공장	4	3.8
	상가	2	1.9
	폐교	5	4.8
	창고	19	18.3
	창작레지던시	7	6.7
	합계	104	100.0
서울도심(시청)과의 거리	10km 이내	11	10.6
	10km ~ 25km	21	20.2
	25km ~ 35km	35	33.7
	35km ~ 50km	34	32.7
	50km 이상	3	2.9
	합계	104	100.0

3) 이주시기 및 장르에 따른 창작공간 선호

창작공간 현황 및 미래선호 항목에서는 세대별 차이 분석을 통해보면 1세대가 2세대에 비해 단독주택 형태를 주거복합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고 작업실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현재 소유형태는 자가의 비중이 70.8%로 전체인 평균 56.7%보다 높았고 만족도는 불만이 4.6% 밖에 안되어 만족도가 2세대에 비해 높았다. 현재의 작업실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미래선호와 연관되어 있는데 미래 선호에 있어서도 현재의 위치와 비슷하게 35km이상 지역을 선호하는 비율이 46.2%로 2세대의 17.9%의 2배 이상이다.

장르별로 구분했을 때는 창작공간 현황과 미래 선호에 있어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 결과들이 많았다. 먼저 작업실 현황과 관련해서는 비회화작가들이 회화

작가들에 비해 주거복합보다 독립공간으로 사용하는 비중이 높았고 작업실 공유 형태에 있어서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형태가 51.3%로 회화작가들의 비중 24.6%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작업의 특징에 따른 차이에서 비롯되기도 하는데 회화작가들의 경우 작품이 대부분 혼자 완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조각과 같은 비회화 장르의 경우 작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여러 공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고 주변작가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창작공간의 물리적 형태도 회화작가들은 단독형태가 많지만 비회화작가들은 창고 형태가 가장 많았고 소유형태도 월세의 비중이 회화작가에 비해 높다.

현재 작업실에 대한 만족도는 회화작가들이 비회화작가들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다. 향후 희망작업실의 위치에 있어서는 선호형태의 차이만 유의한 결과였는데 회화작가들은 단독주택을 평균보다 더 선호했고 비회화작가들은 창고를 더 많이 선호했다.

[표 4-13] 세대간 창작공간 현황 및 미래 선호 특성 카이제곱 검정 결과

창작공간 현황 및 미래선호		세대		전체 (빈도,%)	통계량 ²
		1세대 (빈도,%)	2세대 (빈도,%)		
작업실 이용	주거복합	51(78.5)	19(48.7)	70(67.3)	9.800 ^{**}
	독립공간	14(21.5)	20(51.3)	34(32.7)	
공유 형태	단독	51(78.5)	19(48.7)	70(67.3)	9.800 ^{**}
	공동	14(21.5)	20(51.3)	34(32.7)	
건물 형태	단독주택	46(70.8)	13(33.3)	59(56.7)	19.935 ^{**}
	다세대·연립, 아파트	2(3.1)	0(0.0)	2(1.9)	
	창고	8(12.3)	19(48.7)	27(26.0)	
	공장, 상가, 축사, 기타	9(13.8)	7(17.9)	16(15.4)	
소유 형태	자가	55(86.2)	16(41.0)	72(69.2)	24.811 ^{**}
	월세	6(9.2)	20(51.3)	26(26.0)	
	전세, 기타	3(4.6)	3(7.7)	6(5.8)	
면적	20평 미만	9(13.8)	11(28.2)	20(19.2)	4.703
	20~30평	14(21.5)	8(20.5)	22(21.2)	
	30~40평	7(10.8)	6(15.4)	13(12.5)	
	40평 이상	35(53.8)	14(35.9)	49(47.1)	
정보 습득 경로	동료 및 선후배	28(43.1)	27(69.2)	55(52.9)	7.856 ^{**}
	가족	13(20.2)	2(5.1)	15(14.4)	
	중개업소	15(23.1)	6(15.4)	21(20.2)	
	기타	9(13.8)	4(10.3)	13(12.5)	
만족도	불만	3(4.6)	6(15.4)	9(8.7)	6.389 [*]
	보통	13(20.0)	12(30.8)	25(24.0)	
	만족	42(64.6)	19(48.7)	61(58.7)	
	매우만족	7(10.8)	2(5.1)	9(8.7)	
선호 형태	단독주택	47(72.3)	20(51.3)	67(64.4)	5.427
	창고	8(12.3)	11(28.2)	19(18.3)	
	창작레지던시	4(6.2)	3(7.7)	7(6.7)	
	공장, 상가, 폐교	6(9.2)	5(12.8)	11(10.6)	
선호 거리 (도심 기준)	10km 이내	6(9.2)	5(12.8)	11(10.6)	8.495 ^{**}
	10km ~ 25km	11(16.9)	10(25.6)	21(20.2)	
	25km ~ 35km	18(27.7)	17(43.6)	35(33.7)	
	35km 이상	30(46.2)	7(17.9)	37(35.6)	
선호 위치	서울 도심	5(7.7)	6(15.4)	11(10.6)	4.902
	수도권 중소도시	38(58.5)	27(69.2)	65(62.5)	
	농어촌 및 기타	22(33.8)	6(15.4)	28(26.9)	

[표 4-14] 장르별 창작공간 현황 및 미래 선호 특성 카이제곱 검정 결과

창작공간 현황 및 미래선호		장르		전체 (빈도,%)	통계량 ²
		회화 (빈도,%)	비회화 (빈도,%)		
작업실 이용	주거복합	49(75.4)	21(53.8)	70(67.3)	5.139 ^{**}
	독립공간	16(24.6)	18(46.2)	34(32.7)	
공유 형태	단독	49(75.4)	21(53.8)	70(67.3)	5.139 ^{**}
	공동	16(24.6)	18(46.2)	34(32.7)	
건물 형태	단독주택	47(72.3)	12(30.8)	59(56.7)	30.898 ^{**}
	다세대·연립, 아파트	1(1.5)	1(2.6)	2(1.9)	
	창고	5(7.7)	22(56.4)	27(26.0)	
	공장, 상가, 축사, 기타	12(18.5)	4(10.3)	16(15.4)	
소유 형태	자가	51(78.5)	21(53.8)	72(69.2)	7.056 ^{**}
	월세	11(16.9)	15(38.5)	26(25.0)	
	전세, 기타	3(4.6)	3(7.7)	6(5.8)	
면적	20평 미만	8(12.3)	12(30.8)	20(19.2)	6.705 [*]
	20~30평	15(23.1)	7(17.9)	22(21.2)	
	30~40평	7(10.8)	6(15.4)	13(12.5)	
	40평 이상	34(53.8)	14(35.9)	49(47.1)	
정보 습득 경로	동료 및 선후배	30(46.2)	25(64.1)	55(52.9)	3.527
	가족	10(15.4)	5(12.8)	15(14.4)	
	중개업소	16(24.6)	5(12.8)	21(20.2)	
	기타	9(13.8)	4(10.3)	13(12.5)	
만족도	불만	3(4.6)	6(15.4)	9(8.7)	8.068 ^{**}
	보통	12(18.5)	13(33.3)	25(24.0)	
	만족	43(66.2)	18(46.2)	61(58.7)	
	매우만족	7(10.8)	2(5.1)	9(8.7)	
선호 형태	단독주택	47(72.3)	20(51.3)	67(64.4)	9.983 ^{**}
	창고	7(10.8)	12(30.8)	19(18.3)	
	창작레지던시	6(9.2)	1(2.6)	7(6.7)	
	공장, 상가, 폐교	5(7.7)	6(15.4)	11(10.6)	
선호 거리 (도심 기준)	10km 이내	8(12.3)	3(7.7)	11(10.6)	1.499
	10km ~ 25km	11(16.9)	10(25.6)	21(20.2)	
	25km ~ 35km	22(33.8)	13(33.3)	35(33.7)	
	35km 이상	24(36.9)	13(33.3)	37(35.6)	
선호 위치	서울 도심	8(12.3)	3(7.7)	11(10.6)	1.286
	수도권 중소도시	38(58.5)	27(69.2)	65(62.5)	
	농어촌 및 기타	19(29.2)	9(23.1)	28(26.9)	

제 3 절 창작공간 교외 입지요인

1. 분석방법 및 과정

창작공간 입지 요인은 작업실 선택요인이 곧 창작공간의 입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표 4-15] 와 같이 작업실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고려정도를 각각 5점 리커드 척도 형태로 측정하였다. 분석은 먼저 8개의 각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를 통해 평균값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각 항목들 간 관련성 파악을 위해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요인점수의 평균을 통해 최종적으로 어떠한 요인이 가장 중요한 선택요인이 되었는지 분석하였다.

[표 4-15] 창작공간 입지 요인 설문내용 및 측정 형태

	고려 요인	적극 고려	조금 고려	보통	별로 고려 하지 않음	전혀 고려 하지 않음
①	지가 및 임대료가 저렴	1	2	3	4	5
②	서울과의 교통이 편리	1	2	3	4	5
③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쾌적	1	2	3	4	5
④	작품의 소재를 찾기 용이	1	2	3	4	5
⑤	동료 작가들과의 교류	1	2	3	4	5
⑥	갤러리·전시시설 이용편리	1	2	3	4	5
⑦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1	2	3	4	5
⑧	미술인 집적지로서의 지역성	1	2	3	4	5

요인분석⁵⁵⁾을 실시한 것은 창작공간을 선택하는데 있어 고려한 입지 요인들

55) 주성분 분석을 포함한 요인분석은 수집된 많은 변수들을 여러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기초로 하여 유사한 특성을 지닌 변수들끼리 묶어 적은 수의 인자로 축소시키는 다변량 분석방법으로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의 구분이 없고 추출된 요인은 여러 변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적 특성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요인분석을 사용하는 목적은 변수 축소를 통해 공통 인자를 유도하고 이에 기초하여 전체 정보를 요약하거나 단순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계 분석이며 여러 개의 변수들을 소수의 새로운 요인으로 축소시켜 추가적인 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이희연·노승철, 2012).

간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고 상호 관련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하나의 요인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선택요인 8개 항목을 변수로 주성분분석 추출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⁵⁶⁾ 부분상관계수를 통해 투입된 데이터의 적합성을 검정해주는 KMO (Kaiser-Mayer-Olkin) 통계량과 바틀렛 (Bartlett) 구형 검정을 통해 분석의 적합성을 검정하였다. 인자 수의 결정은 고유치가 1.0 이상⁵⁷⁾, 요인축 회전은 베리맥스 방법⁵⁸⁾을 사용하였다.

2. 창작공간 입지 요인

1) 선택요인별 기술통계

창작공간 선택요인 8개 항목에 대한 평균은 [표 4-16] 과 같이 지가가 4.2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연환경이 4.14, 접근성이 4.05로 이 세 가지가 가장 주요한 선택요인으로 분석되었다⁵⁹⁾. ‘작품소재 적지’가 평균 3.06으로 다음으로

56) 요인분석에서 바람직한 표본의 크기는 이론적으로 최소한 50개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개를 넘기는 것이 정상이며 변수의 수는 관측치의 수보다 10배 이상이 되어야 바람직하지만 분석하려는 변수수의 약 4~5배 정도의 표본 수를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본의 크기가 50미만의 경우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요인분석을 통해 산출된 인자를 타당하게 해석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최소 표본크기는 대체로 100~200개가 권장되며, 변수와 표본 사례수의 비율은 1:5 정도를 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본 연구의 설문 분석의 변수는 8개이고 표본의 수가 104개이므로 바람직한 표본의 크기는 충족된다.

57) 고유치가 1.0이란 의미는 하나의 인자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변수의 분산을 설명해 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변수의 개수를 축약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인자의 수에 대한 적절한 선택에 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스크리 플롯 검사와 누적분산비율을 기준으로 고유치를 참조하면서 결정하되, 추출된 인자에 대한 해석 가능성도 고려하여 결정한다.

58) 요인분석에서는 변수들이 여러 요인에 대하여 비슷한 요인 부하량을 나타낼 경우, 변수들이 어느 요인에 속하는지 분류하기 힘든데 이 경우 변수들이 요인 부하량이 어느 한 요인에 높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요인축을 회전시킨다. 회전의 방법에 따라 직각회전과 비직각회전방법이 있는데 베리맥스 방법은 직각회전의 한 종류이다.

59) 설문지에는 응답자의 이해도를 고려하여 적극고려를 1점으로 하고 고려 정도가 낮아 질수록 높은 값을 갖도록 작성하였으나 평균 분석시에는 역코딩하여 고려정도가 높은수록 높은 값을 갖도록 하였으므로 평균 3.0이상이 고려정도가 높은 요인이 된다.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작가간 교류’, ‘미술인 집적지로서의 지역성’, ‘시설이용편리’, ‘지자체 지원’은 평균이 3.0 미만으로 중요도가 낮았다.

[표 4-16] 창작공간 선택요인 기술통계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통계량	통계량
선택요인	1.지가 및 임대료 저렴	104	4.25	1.15
	2.서울과의 접근 편리	104	4.05	1.11
	3.자연환경 수려·쾌적	104	4.14	1.13
	4.작품소재 찾기 용이	104	3.06	1.22
	5.동료 작가들과의 교류	104	2.94	1.18
	6.갤러리·전시시설 이용편리	104	2.40	1.09
	7.지방자치단체의 지원	104	1.81	1.02
	8.미술인 집적지 지역성	104	2.78	1.28

2) 요인분석 결과

요인분석은 8개의 입지 선택요인별로 5점 리커드 척도로 구축된 정량적 자료 (Metric data)를 변수로 하였다. 전체 표본수가 104개로 인자분석을 위한 변수의 형태와 표본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KMO검정과 Bartlett의 단위행렬 (identity matrix)검정을 실시한 결과 KMO통계량은 0.6을 넘고 Bartlett의 단위행렬 (identity matrix) 통계량도 유의수준 ($p <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 이용된 표본은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7] 단위행렬점검 및 표본 적합도 검정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0.728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근사 카이제곱 (Approx. Chi-Square)	223.060
	자유도(df)	28
	유의확률(Sig.)	0.000

주성분분석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방법 및 베리맥스 회전방식을 통하여 아이겐값 1이상인 요인을 추출한 결과 [표 4-19] 와 같이 8개의 변수가 3개

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추출된 요인은 전체 분산의 약 69.8%를 설명해주고 있다. 또한 추출된 요인을 베리맥스 회전한 결과 [표 4-20] 과 같이 3개의 요인에 의해 설명된다.

요인1은 변수 5에서 8까지(동료 작가들과의 교류, 갤러리·전시시설 이용편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미술인 집적지 지역성) 4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2는 변수3(자연환경 수려 및 쾌적)와 변수4(작품소재 찾기 용이)로 구성되어 ‘창작자원 접근성’으로 명명할 수 있으며 요인3은 변수1(지가 및 임대료 저렴)과 변수2(서울과의 접근 편리)로 구성되는데 지가 및 임대료와 저렴한 지역과 대도시로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을 경제적 교환가치가 성립하여 ‘경제성’ 으로 명명하였다.

[표 4-18] 설명된 총분산

성분	초기 고유값			회전 제곱합 적재값		
	합계	% 분산	% 누적	합계	% 분산	% 누적
1	3.068	38.355	38.355	2.671	33.394	33.394
2	1.347	16.834	55.189	1.486	18.575	51.968
3	1.170	14.623	69.812	1.427	17.844	69.812
4	.698	8.730	78.542			
5	.528	6.596	85.138			
6	.489	6.108	91.246			
7	.383	4.789	96.035			
8	.317	3.965	100.000			

[표 4-19] 회전된 성분행렬^a

성분	성분		
	1	2	3
1.지가 및 임대료 저렴			0.836
2.서울과의 접근 편리			0.675
3.자연환경 수려·쾌적		0.907	
4.작품소재 찾기 용이	0.437	0.696	
5.동료 작가들과의 교류	0.697		
6.갤러리·전시시설 이용편리	0.810		
7.지방자치단체의 지원	0.803		
8.미술인 집적지 지역성	0.784		

요인추출방법:주성분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a. 4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

요인분석 결과 창작공간의 입지요인은 ‘경제성’, ‘창작자원접근성’,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요인으로 축약되었다.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산출된 세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을 산술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 ‘경제성’이 평균값 4.15로 가장 중요한 입지 요인으로 보이며, ‘창작자원 접근성’이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요인은 2.48로 평균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고려정도가 약하다.

[표 4-20] 창작공간 선택요인 산술평균

	항목	요인분석결과	산술평균
선택요인	1.지가 및 임대료 저렴	경제성 및 접근성	4.15
	2.서울과의 접근 편리		
	3.자연환경 수려·쾌적	창작자원 접근성	3.60
	4.작품소재 찾기 용이		
	5.동료 작가들과의 교류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2.48
	6.갤러리·전시시설 이용편리		
	7.지방자치단체의 지원		
	8.미술인 집적지 지역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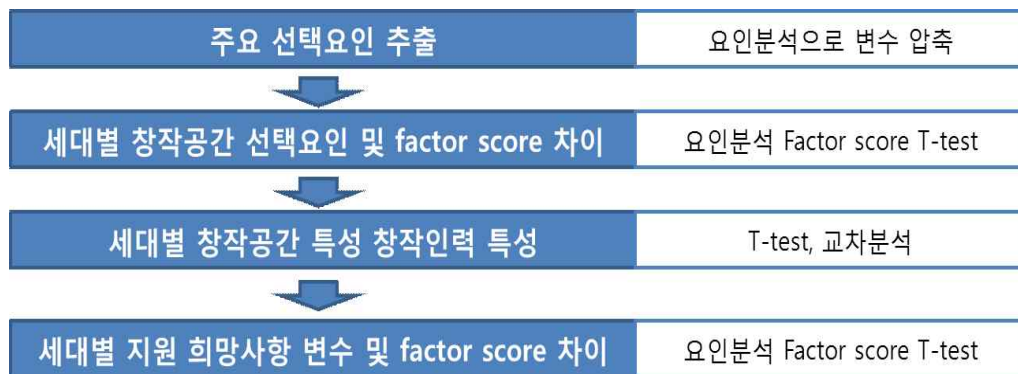
3) 이주시기별·장르별 입지요인 차이

(1) 이주시기별 입지요인 차이

이주시기에 따른 세대별 창작공간 선택요인 차이 분석은 [그림 4-7] 과 같은 방법으로 선택요인에 대한 모든 변수와 앞서 분석된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된 요인점수를 T-test를 통해 1세대와 2세대간 평균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함으로써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주시기에 따른 분석은 향후 유입이 가능한 작가들의 선호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세 가지 요인에 대한 요인점수를 기준으로 세대 간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요인 모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1세대는 2요인인 ‘창작자원 접근성’에 대한 평균이 높아 자연환경에 대한 고려를 더 많이 하여 창작공간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되며, 2세대는 1요인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요인과 3요인 ‘경제성’요인을 1세대에 비해 더 많이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인점수는 변수를 축약한 상태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볼 수 있지만 선택요인별 T-test에서는 개별 요인들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8개의 요인별 T-test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가와 작가들간 교류는 2세대가 자연환경은 1세대의 평균이 높아 2세대가 상대적으로 경제적 측면과 작가들 간 네트워크를 더 많이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7] 세대별 창작공간 선택요인 차이 분석 흐름도

[표 4-21] 선택요인 요인점수 세대간 평균 비교

선택요인	세대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유의확률 (양쪽)
					F	유의확률	
1요인 (네트워크및클러스터)	1	65	-.142	1.064	3.502	.064	.062
	2	39	.236	.844			.048
2요인 (창작자원 접근성)	1	65	.279	.846	5.587	.020	.000
	2	39	-.465	1.072			.000
3요인 (경제성)	1	65	-.193	1.058	4.541	.035	.010
	2	39	.321	.809			.006

[표 4-22] 선택변수별 세대간 평균 비교

변수	세대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유의확률
1.지가 및 임대료 저렴	1	65	4.02	1.231	7.008	.009	.006
	2	39	4.64	.873			.003
2.서울과의 접근 편리	1	65	4.00	1.159	.098	.754	.571
	2	39	4.13	1.031			.560
3.자연환경 수려·쾌적	1	65	4.46	.937	8.821	.004	.000
	2	39	3.62	1.227			.000
4.작품소재 찾기 용이	1	65	3.14	1.261	.942	.334	.387
	2	39	2.92	1.156			.377
5.작가들과의 교류	1	65	2.72	1.179	.340	.561	.014
	2	39	3.31	1.104			.013
6.관련시설 이용편리	1	65	2.28	1.097	.005	.945	.127
	2	39	2.62	1.067			.125
7.지방자치단체의 지원	1	65	1.85	1.093	1.206	.275	.624
	2	39	1.74	.910			.607
8.미술인 집적지 지역성	1	65	2.62	1.295	1.690	.197	.092
	2	39	3.05	1.213			.087

(2) 장르별 입지요인 차이

장르별 입지요인 차이 분석은 유입 가능한 작가군과 군집화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분석 흐름은 시기별 선택요인 차이 분석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3가지 요인의 요인점수를 기준으로 장르간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창작자원 접근성’만 회화장르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전체에 대한 T-TEST 결과에서는 ‘지가’와 ‘자연환경’에 대한 평균이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지가’는 비회화의 평균이 높고 ‘자연환경’은 회화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표 4-23] 선택요인 요인점수 장르간 평균 비교

선택요인	장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유의확률 (양쪽)
					F	유의확률	
1요인 (네트워크및클러스터)	회화	65	-.037	1.053	.660	.419	.624
	비회화	39	.062	.914			.612
2요인 (창작자원 접근성)	회화	65	.310	.861	2.731	.101	.000
	비회화	39	-.517	1.012			.000
3요인 (경제성)	회화	65	-.080	1.059	2.906	.091	.295
	비회화	39	.133	.890			.275

[표 4-24] 선택변수별 장르간 평균 비교

변수	장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유의확률
					회화	유의확률	
1.지가 및 임대료 저렴	회화	65	4.09	1.234	3.274	.073	.070
	비회화	39	4.51	.942			.053
2.서울과의 접근 편리	회화	65	4.09	1.114	.072	.789	.602
	비회화	39	3.97	1.112			.602
3.자연환경 수려·쾌적	회화	65	4.52	.868	14.277	.000	.000
	비회화	39	3.51	1.233			.000
4.작품소재 찾기 용이	회화	65	3.22	1.269	1.668	.199	.089
	비회화	39	2.79	1.105			.079
5.작가들과의 교류	회화	65	2.95	1.192	.011	.917	.898
	비회화	39	2.92	1.178			.898
6.관련시설 이용편리	회화	65	2.38	1.114	.009	.926	.818
	비회화	39	2.44	1.071			.816
7.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회화	65	1.86	1.088	.832	.364	.492
	비회화	39	1.72	.916			.473
8.미술인 집적지 지역성	회화	65	2.74	1.326	1.309	.255	.679
	비회화	39	2.85	1.204			.672

3. 지방자치단체 지원 희망 사항

1) 지원 희망 요인

본 연구는 창작인력 입지와 지역개발의 연계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므로 창작인력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희망하는 요소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도 조사하였다. 창작인력 지원 희망사항에 대한 분석 방법은 창작공간 입지요인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전체 변수들에 대한 평균값은 [표 4-24]와 같이 ‘작품활동에 대한 지원’이 4.33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창작공간 및 작가 홍보’(4.21), ‘작업공간 세금 감면’(4.18), ‘갤러리·전시시설’(4.1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4] 지방자치단체 지원 희망 사항 기술통계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지 원 요 인	1.임대료 지원	104	3.42	1.305
	2.유지관리비 지원	104	3.63	1.192
	3.창작공간 제공	104	3.77	1.309
	4.창작공간 및 작가홍보	104	4.21	1.094
	5.작품활동 지원(전시회 등)	104	4.33	1.047
	6.갤러리·전시시설 확충	104	4.13	0.962
	7.작업공간 세금 감면	104	4.18	1.156

다음으로 7개의 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⁶⁰⁾ 세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요인1은 변수1(임대료 지원), 변수2(창작공간 지원), 변수3(유지관리비 지원)로 ‘경제적 지원’으로 명명할 수 있으며, 요인2는 변수4(시설확충), 변수5(활동지원), 변수6(홍보)로 ‘홍보 및 활동 간접지원’으로 마지막 요인3은 ‘세금지원’이다.

60) KMO통계량은 0.6을 넘고 Bartlett의 단위행렬(identity matrix) 통계량도 유의수준 ($p <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 이용된 표본은 인자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방법 및 베리맥스 회전방식을 통하여 아이겐값 1이상인 요인을 추출한 결과 추출된 요인은 전체 분산의 약 78.5%를 설명해주고 추출된 요인을 베리맥스 회전한 결과 [표 4-29]과 같이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요인 축약 후 산술평균값을 살펴보면 [표 4-28] 와 같이 ‘홍보 및 활동에 대한 간접지원’(4.22)과 ‘세금지원’(4.18)이 ‘경제적지원’의 평균 3.61보다 높게 나와 작가들은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보다는 활동에 대한 간접지원과 세금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재 미술시장의 구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몇몇 작가들은 제외하고는 대관화랑을 이용하여 작가가 대부분이 경비를 충당해야 전시회를 열 수 있고 전시회를 지속적으로 해야만 작품판매와 같은 경제적 측면과 작가로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가들은 창작공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보다는 활동에 대한 지원을 더욱 필요하다.

[표 4-25] 단위행렬점검 및 표본 적합도 검정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0.681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근사 카이제곱 (Approx. Chi-Square)	284.965
	자유도(df)	21
	유의 확률(Sig.)	0.000

[표 4-26] 설명된 총분산

성분	초기 고유값			회전 제곱합 적재값		
	합계	% 분산	% 누적	합계	% 분산	% 누적
1	3.268	46.685	46.685	2.380	34.003	34.003
2	1.214	17.340	64.025	2.032	29.022	63.026
3	1.013	14.470	78.495	1.083	15.469	78.495
4	.510	7.284	85.779			
5	.471	6.726	92.505			
6	.358	5.111	97.616			
7	.167	2.384	100.000			

[표 4-27] 회전된 성분행렬^a

성분	성분		
	1	2	3
1.임대료 지원	.886		
2.창작공간 지원	.832		
3.유지관리비 지원	.771		
4.시설확충		.859	
5.활동지원		.846	
6.홍보	.488	.686	
7.세금감면			.967

요인추출방법:주성분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a. 4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

[표 4-28] 지방자치단체 지원 희망 사항 산술평균

	항목	요인분석결과	산술평균
지 원 요 인	1.임대료 지원	경제적 지원	3.61
	2.창작공간 지원		
	3.유지관리비 지원		
	4.시설확충	홍보 및 활동 간접지원	4.22
	5.활동지원		
	6.홍보		
	7.세금감면	세금지원	4.18

2) 세대별·장르별 지원 희망 사항

세대별 지방자치단체 지원 희망 사항에 대한 차이는 지원사항 전체 변수 및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요인점수에 대한 T-test를 통해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1세대는 ‘세금지원’에 대한 평균이 높았고 2세대는 ‘경제적 지원’의 평균이 높았다. ‘홍보 및 활동지원’도 평균값도 2세대가 높았다. 변수 전체에 대한 T-TEST에서는 2세대가 ‘경제적 지원’ 중에서는 ‘임대료’에 대한 지원 평균이 높고 ‘홍보 및 작품지원’ 항목 중에서는 ‘창작공간 지원’에 대한 평균이 높았다.

[표 4-29] 지방자치단체 지원항목 요인점수 세대간 평균 비교

선택요인	세대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유의확률 (양쪽)
1요인 (경제적 지원)	1	65	-.162	1.117	14.928	.000	.000
	2	39	.271	.699			.017
2요인 (홍보 및 활동지원)	1	65	-.016	1.072	3.277	.073	.073
	2	39	.027	.880			.823
3요인 (세금지원)	1	65	.206	.816	17.658	.000	.006
	2	39	-.343	1.182			.013

[표 4-30] 지방자치단체 지원항목 세대간 평균 비교

변수	세대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유의확률
1_임대료	1	65	3.15	1.349	6.149	.015	.006
	2	39	3.87	1.105			.004
2_유지관리비	1	65	3.60	1.260	2.603	.110	.784
	2	39	3.67	1.084			.776
3_창작공간	1	65	3.55	1.458	26.898	.000	.030
	2	39	4.13	.923			.016
4_홍보	1	65	4.11	1.226	6.456	.013	.213
	2	39	4.38	.815			.170
5_활동지원	1	65	4.28	1.083	1.164	.283	.532
	2	39	4.41	.993			.523
6_시설확충	1	65	4.12	1.023	3.184	.077	.979
	2	39	4.13	.864			.978
7_세금	1	65	4.40	.997	11.863	.001	.013
	2	39	3.82	1.315			.021

장르간 차이는 1세대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항목에 대해 요인점수 및 변수 전체에 대한 T-TEST에서 집단간 평균 차이는 있지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아니다.

[표 4-31] 지방자치단체 지원항목 요인점수 장르간 평균 비교

선택요인	장르	N	평균	표준편차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유의.확률 (양쪽)
					회화	유의확률	
1요인 (경제적 지원)	회화	65	-.026	1.011	.021	.884	.730
	비회화	39	.044	.992			.729
2요인 (홍보 및 활동지원)	회화	65	.020	.918	.118	.732	.797
	비회화	39	-.033	1.135			.807
3요인 (세금지원)	회화	65	-.002	.975	.138	.711	.983
	비회화	39	.003	1.054			.983

[표 4-32] 지방자치단체 지원항목 장르간 평균 비교

변수	장르	N	평균	표준편차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유의확률
					F	유의확률	
1_임대료	회화	65	3.31	1.249	.690	.408	.246
	비회화	39	3.62	1.388			.260
2_유지관리비	회화	65	3.63	1.153	1.279	.261	.950
	비회화	39	3.62	1.269			.951
3_창작공간	회화	65	3.75	1.358	1.217	.273	.878
	비회화	39	3.79	1.239			.875
4_홍보	회화	65	4.28	1.068	.045	.832	.434
	비회화	39	4.10	1.142			.443
5_활동지원	회화	65	4.38	.878	4.341	.040	.471
	비회화	39	4.23	1.287			.512
6_시설확충	회화	65	4.06	.933	.000	.992	.388
	비회화	39	4.23	1.012			.398
7_세금	회화	65	4.18	1.158	.089	.765	.983
	비회화	39	4.18	1.167			.983

4. 창작공간 주요 입지 선택요인별 창작인력 특징

1) 분석 방법

작가들이 창작공간 주요 입지 선택요인으로 선정한 변수들(지가, 대도시 접근성, 원료접근성)은 전체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지만 개개의 변수는 작가들의 개인 속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순서형 로짓 모델(Ordered logit model)을 사용하여 주요 입지 선택별로 창작인력의 개인특성 중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창작인력의 개인특성을 나타내는 독립변수로는 장르(회화/비회화), 소득, 작품활동기간, 성별, 가족구성으로 선정하였다. 작품활동 기간(career)과 나이(age)는 상관관계수가 0.816으로 매우 높아 작품활동 기간만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⁶¹⁾.

[표 4-33] 순서형 로짓분석 종속변수

	항목	데이터 내용
종속변수	1. 지가 및 임대료	1 = 전혀 고려하지 않음, 2 = 별로 고려하지 않음, 3 = 보통, 4 = 조금 고려, 5 = 적극 고려
	2. 서울로의 접근성	
	3. 원료접근성	

[표 4-34] 순서형 로짓분석 독립변수

장르	income	career	gender	family
범주형 변수	연속형 변수	연속형 변수	범주형 변수	범주형 변수
0=회화 1=비회화	1=50만원 미만 2=50~100만원 3=100~150만원 4=150~200만원 5=200~300만원 6=300만원 이상	1=5년 미만 2=5~10년 3=10~15년 4=15~20년 5=20년 이상	0=남자 1=여자	1=1인 2=부부+초등 3=부부+중고등 4=부부+대학생 5=부부

61) 순서형 로짓 모델은 리커트척도로 조사된 설문항목의 로짓분석에 사용된다(이성우 외, 2008). 종속변수로 선정된 선택요인 3가지 항목에 대해 작가 개인특성으로 선정된 독립변수별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순서형 로짓 회귀 모델의 적합성 판정은 F검정과 같은 우도비 검정(Log Likelihood ration test)과 피어슨 카이제곱 검정과 평균 검정 결과가 사용되고 표본으로부터 산출된 회귀계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여야 한다.

2) 입지 선택요인별 창작인력 특성

창작공간의 주요 세 가지 입지 선택요인에 대한 순서형 로짓 모델(Ordered logit model)의 분석결과는 [표4-35], [표4-36], [표4-37]과 같다. 세 개의 모형 모두 절편만 사용했을 때보다 독립변수를 포함시키면 -2Log L값이 감소하여 모형이 더 나아졌다고 볼 수 있으며 검정 결과 추정모형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 선택요인별로 분석결과를 해석해 보면 첫 번째 ‘지가 및 임대료 저렴’의 요인에 대해서는 작가의 특성 중 가족구성이 1인 경우에 요인1의 고려 정도가 정적으로 유의미 하다. 이는 1인 가구일 경우 상대적으로 이동이 자유로워 지가 및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을 선호하는 입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인 1에 대해서는 가족 구성 이외 다른 독립변수들의 계수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없었다.

[표 4-35] ‘지가 및 임대료 저렴’ 요인에 대한 모수 추정값

		B 추정값	표준오차	Wald	PAR 유의확률
한계치	종속변수 고려정도 = 1	-2.904	1.123	6.691	.010
	종속변수 고려정도 = 2	-2.153	1.079	3.981	.046
	종속변수 고려정도 = 3	-1.151	1.056	1.188	.276
	종속변수 고려정도 = 4	-.281	1.050	.072	.789
	종속변수 고려정도 = 5				
독립변수	소득	-.041	.129	.102	.749
	작가 경력	.016	.199	.007	.934
	가족구성 = 1인	1.294	.700	3.416	.065
	가족구성 = 부부+초등	.472	.686	.473	.491
	가족구성 = 1부부+중고등	-.319	.683	.218	.640
	가족구성 = 1부부+대학생	-.187	.543	.119	.730
	가족구성 = 1부부				
	성별	.552	.452	1.492	.222
	장르	-.401	.488	.675	.411

표본크기(N)=104, 절편만 -2Log L=251.664, 최종 229.786, * p < .1, ** p < .05, *** p < .01

‘서울과의 교통이 편리’에 대해서는 소득변수와 가족구성 중 가족구성이 1인가구와 대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족구성의 작가 그룹에 대해 계수값이 유의한 것으로 나왔다. 이는 작가의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족구성이 1인가구이거나 많이 성장한 대학한 이상의 가족구성을 가진 작가일수록 서울로부터의 접근성을 더 많이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작가의 소득이 높고 대부분 1인가구인 젊은 작가들의 경우 화랑 등 유통기능과의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활동을 위해 서울로부터의 접근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4-36] ‘서울과의 교통이 편리’ 요인에 대한 모수 추정값

		B 추정값	표준오차	Wald	PAR 유의확률
한계치	종속변수 고려정도 = 1	-.638	1.091	.342	.559
	종속변수 고려정도 = 2	.925	.983	.887	.346
	종속변수 고려정도 = 3	2.101	.986	4.541	.033
	종속변수 고려정도 = 4	3.455	1.024	11.387	.001
독립변수	소득	.346	.123	7.945	.005
	작가 경력	.254	.180	2.005	.157
	가족구성 = 1인	1.062	.592	3.224	.073
	가족구성 = 부부+초등	.690	.610	1.280	.258
	가족구성 = 1부부+중고등	.476	.690	.477	.490
	가족구성 = 1부부+대학생	1.451	.608	5.698	.017
	가족구성 = 1부부				
	성별	.261	.431	.368	.544
	장르	.183	.441	.172	.678

표본크기(N)=104, 절편만 -2Log L=237.674, 최종 194.766, *p <.1, **p <.05, ***p <.01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쾌적’에 대해서는 작가경력과 성별, 장르에 대해 계수값이 유의하게 나왔다. 작가경력이 많을수록, 성별은 여성일수록, 장르는 회화 장르일수록 자연환경에 대한 고려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회화장르의 경우 비회화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연이 작품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작가 경력이 많다는 것을 작가의 나이도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예술가가 아닌 경우에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가

들의 경우에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에 대한 선호는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표 4-37]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쾌적’ 요인에 대한 모수 추정값

		B 추정값	표준오차	Wald	PAR 유의확률
한계치	종속변수 고려정도 = 1	-2.554	1.403	3.314	.069
	종속변수 고려정도 = 2	.473	1.055	.201	.654
	종속변수 고려정도 = 3	1.656	1.066	2.415	.120
	종속변수 고려정도 = 4	2.774	1.093	6.441	.011
독립변수	소득	.109	.134	.665	.415
	작가 경력	.569	.198	8.298	.004
	가족구성 = 1인	.093	.637	.021	.884
	가족구성 = 부부+초등	.060	.637	.009	.925
	가족구성 = 1부부+중고등	.121	.748	.026	.872
	가족구성 = 1부부+대 학생	1.023	.726	1.988	.159
	가족구성 = 1부부				
	성별	-.822	.491	2.799	.094
	장르	-.822	.491	2.799	.020

표본크기(N)=104, 절편만 -2Log L=237.674, 최종 194.766, *p < .1, **p < .05, ***p < .01

순서형 로짓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지가 및 임대료 저렴’, ‘서울로의 접근성’, ‘수려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의 세 가지 주요 입지 선택 요인이 작가 개인의 속성에 따라 고려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경제력과 관련된 ‘지가 및 임대료 저렴’의 요인은 1인 가구 구성을 갖고 있는 젊은 작가들에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서울과의 교통이 편리’ 요인은 작가의 소득이 높고 대학생 이상 자녀를 가진 가족구성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쾌적’한 요인은 경력이 많고 여성작가와 회화작가가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이런 결과는 입지의 선택요인은 작가의 개인적 측면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 속성이 유사한 작가그룹이 조건이 충족되는 지역에 집적할 경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4 절 소결

본 장에서는 3장의 수도권 입지분석 결과 수도권 교외지역 중 시각예술창작 인력의 집적지로 도출된 양평군의 시각예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창작공간 교외 입지 요인을 분석하였다.

양평군 시각예술인의 특성은 인구 통계학적으로 연령대가 높고 1인 가구의 비율이 많으며 학력은 높지만 소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작공간은 주로 주변 작가들로 부터 많은 정보를 얻어 이주하였으며, 단독주택이나 창고에서 개인의 작업공간 겸 주거 공간을 함께 이용하고 있다. 현재의 창작공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미래의 창작공간 선호도도 수도권 중소도시에 단독주택이나 창고, 레지던시에 입주하고 싶은 작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장 중요한 창작공간 입지 요인은 8개의 변수에 대해 리커드척도로 측정하였는데 지가, 자연환경, 대도시 접근성 순으로 평균값이 높았고 요인분석 결과 8개의 변수가 상호 연관성을 가져 세 개의 요인으로 축약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지가 및 임대료’, ‘서울과의 접근 편리’라는 두 변수로 구성되어 ‘경제성’이라 명명하였고 두 번째 요인은 ‘자연환경 수려 및 쾌적’, ‘작품소재 찾기 용이’라는 두 변수 구성되어 ‘창작자원 접근성’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동료 작가들과의 교류’, ‘갤러리·전시시설 이용편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미술인 집적지 지역성’이라는 4개의 다양한 변수로 구성되어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창작공간 선행연구 및 입지론을 통해 창작공간의 입지 결정요인으로 도출된 요인들과 유사하다. 하지만 양평군과 같은 교외지역의 경우 ‘경제성’과 ‘창작원료 접근성’에 대한 입지 우선순위는 높은 반면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요인’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창작클러스터의 규모와 형성 수준이 아직 집적단계에 있어 도심에 비해 네트워크 형성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입지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외 이동에 미치는 입지 요인들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일종의 필요충분조건⁶²⁾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가 및 임대료’가 저렴하고 서울로부터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 충분조건⁶²⁾으로 선행

62) 충분조건은 그것이 만족되었을 때 진술의 참을 보장하는 것으로 ‘P이면 Q이다.’에서

되어할 입지 조건이 되고, 다음으로 필요조건 중에서는 창작자원의 원료가 되는 자연환경 등 작품 소재와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 선호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충분조건이 되는 지역의 거리는 도심으로부터 약 35km 내외의 거리로 서울 교외의 중소도시가 위치한 거리이다. 지가 및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것은 대도시로의 접근성과 대립요소로 교환가치(Trade Off)가 성립되므로 두 가지 요소의 효용이 극대화 되는 지점에서 입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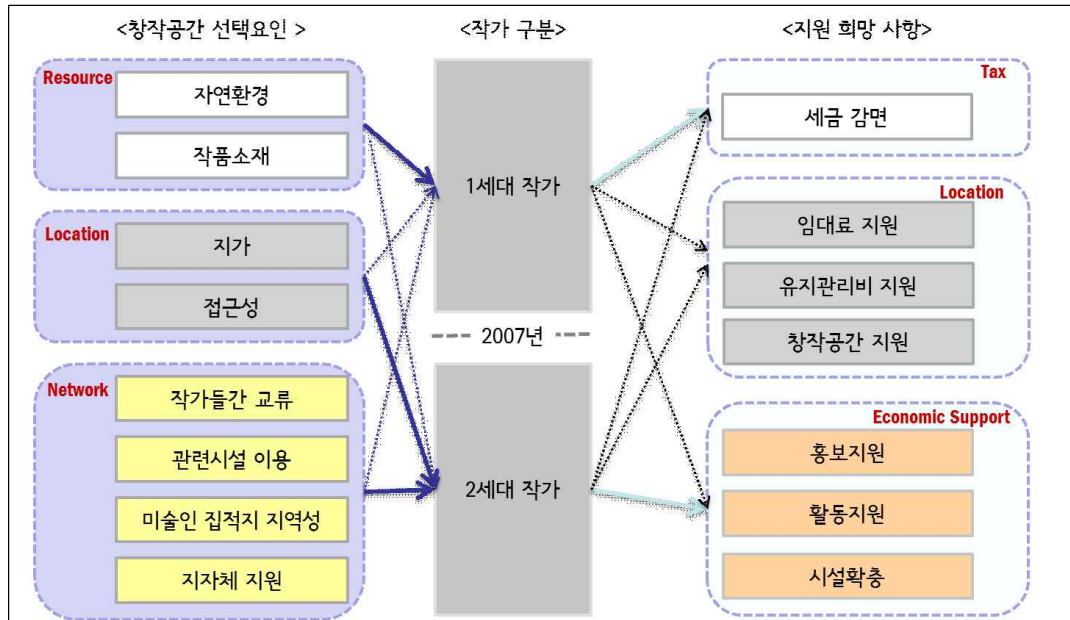
창작공간 입지 선택요인과 지원 희망사항은 창작인력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그림4-8] , [그림 4-9] 참조). 이주시기별로 1세대와 2세대로 하면 1세대 작가들의 경우 창작공간 입지 선택요인으로 ‘창작자원 접근성’ 요인을 중요한 입지 요인으로 고려하였고 최근에 이주한 2세대 작가들의 경우 ‘경제성’ 요인과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원 희망사항에서는 1세대 작가들의 경우 ‘세금지원’을 2세대 작가들의 경우 ‘경제적 지원’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더욱 열악해진 작가들의 경제적 입지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르에 따른 차이는 회화작가들은 ‘창작자원 접근성’을 더욱 많이 고려하는 특징을 보였다.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장르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니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창작인력 지원을 위한 공공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설문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원 선호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 지원항목은 ‘경제적 지원’, ‘홍보 및 활동 간접지원’, ‘세금지원’의 세 가지로 축약될 수 있는데 ‘홍보 및 활동에 대한 간접지원’과 ‘세금지원’의 평균값이 높아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간접지원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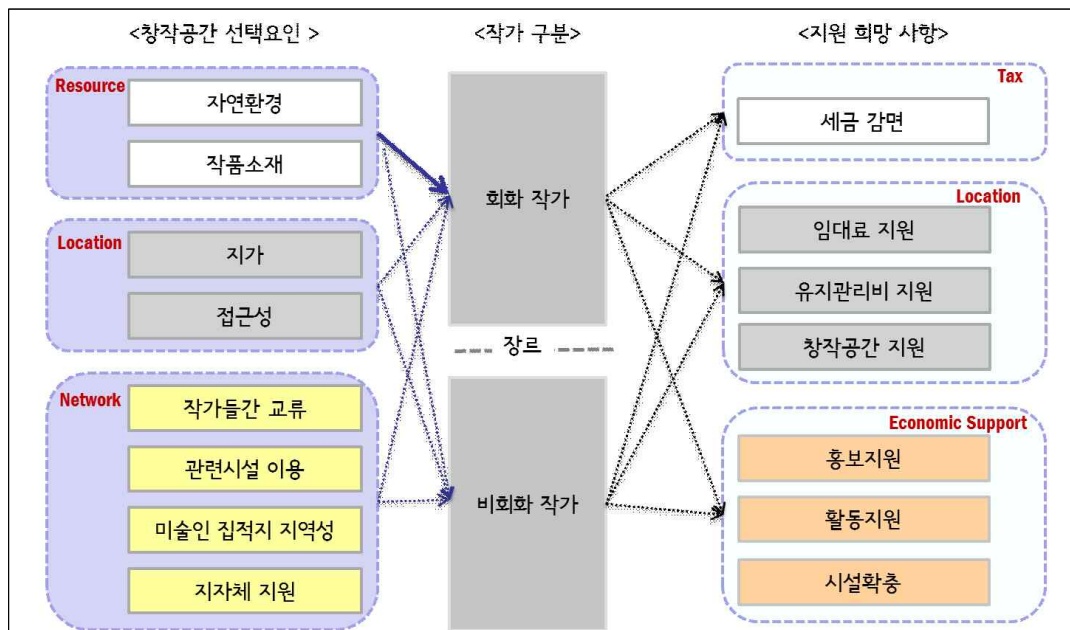
창작공간의 주요 세 가지 입지 선택요인(‘지가 및 임대료 저렴’, ‘서울과의 교통이 편리’,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쾌적’)에 대해 순서형 로짓 분석을 통해 작가 개인의 속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가 및 임대료 저렴’의 요인은 젊은 1인 가구형태의 작가들에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서울과의 교통이 편리’ 요인은 소득이 높고 대학생 이상 자녀가 있는 가족구성을 가진 작

P를 Q의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 수학의 집합의 개념에서 부분 집합은 전체집합에 충분조건이고 전체집합은 부분집합에 대해 필요조건이 된다. 즉, 충분히 속 들어가는 것을 충분 조건이라고 하므로 전체집합 Q가 부분집합 P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가들에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쾌적’한 요인은 경력이 많고 여성작가와 회화작가가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입지 선택요인이 작가 개인의 속성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며, 개인적 속성이 유사한 작가그룹의 입지 요인을 충족시킬 경우 일정 지역에 집적할 경향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4-9] 양평군 이주시기별 창작공간 입지요인 및 지원 선호



[그림 4-11] 장르별 창작공간 입지요인 및 지원 선호

제 5 장 창작공간의 교외화 특성과 효과 : 양평지역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제 1 절 창작공간의 필요성과 교외 이동 배경

1. 분석개요

본 장에서는 4장에서 창작공간 교외 입지 요인으로 도출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교외화의 특성과 창작공간의 집적이 양평군에 미친 경제사회적 효과를 분석한다. 연구방법은 양평군에 거주하거나 창작공간을 두고 있는 작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조사(In-depth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전문가 심층면담방법은 대화를 통하여 질적연구를 하는 방법을 말한다. 심층면담의 목적은 첫째, 설문조사 대상자들로부터 응답에 대한 배경 및 창작공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창작공간의 교외화 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며, 둘째, 작가 유형별 창작공간 입지 요인에 대한 선호 차이를 보다 명확히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예술인들과의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예술인들의 전문적 작업공간인 창작공간의 물리적·비물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교외 이동 요인의 원인을 이해하는데 활용하였다. 또한 전문가 심층면담은 작가의 창작공간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통해 창작공간을 직접 관찰하고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심층면담의 대상자는 양평군에 거주하거나 창작공간을 갖고 있는 작가들을 대상으로 [표 5-1] 과 같이 연령대, 겸업여부, 거주기간, 활동경력, 양평지역 내 거주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3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총 3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심층면담 시 대상자들이 면접에 대한 이해와 질문의도를 알 수 있도록 양평지역 창작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공간에 대한 내용, 지역특성 요인에 대해 요약한 간단한 질문지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질문지는 면접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견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핵심키워드만 제시하는 반구조화된 면접방식⁶³⁾을 택하였고 창작인력의 특성, 창작공간 선택을

63) ‘반구조화된 면접’은 연구자가 기존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고 보다 깊이 있는 질문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사용하는데, 비교적 여러 면의 제보자로부터 정보를 확인하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요인, 창작인력 집적을 위한 지역적 지원형태 등을 중심으로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접의 형태를 일대일 면접과 FGI(Focus Group Interview) 두 가지 형태를 함께 사용하였다.

[표 5-1] 심층면담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작가 특성

		작가 1	작가 2	작가 3	그룹 A	그룹 B	그룹 C	작가 4	작가 5	작가 6	작가 7	작가 8	작가 9	그룹 D	그룹 E	작가 10	작가 11	작가 12	작가 13
거주 기간	10년 이상																		
	6~10년																		
	5년 미만																		
장르	회화																		
	조각																		
	도예																		
연령대	30대 이하																		
	40대																		
	50대																		
	50대 이상																		
전업 여부	전업																		
	복수직업																		
지명도	신진																		
	기성무명																		
	기성유명																		
거주지	인접지역																		
	개별입지																		

심층면담의 질문지는 Krueger & Casey(2000)가 제시한 질문방식을 참고하여 [표 5-2]와 같이 도입, 전환, 주요, 요약, 마무리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고 질문지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도입 및 전환 부분으로 양평군 시각예술인 집적지에 대한 현황평

거나 비교할 필요가 있는 때 주로 사용하게 된다. ‘비구조화된 면접’은 연구자가 한 현상에 관하여 적절한 질문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혹은 어떤 현상에 대해 탐색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에 유용하다. 반면 ‘구조화된 면접’은 취득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며 주로 자료수집이 종료되는 단계에서 진행하게 된다(최영진, 1999: 10~11). 본 연구에서 반구조화된 면접을 택한 것은 구조화된 면접이나 비구조화된 면접과는 달리 면접자와 피면접자간의 토의의 자유로움이 보장되면서도 면접 지침에 따른 제약이 분명하기 때문이다(문홍빈, 2000: 137, 김동완, 2002 재인용).

가부분이고, 둘째는 양평군을 창작공간을 포함하는 거주지 또는 창작공간으로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한 부분이다. 주요 질문내용은 창작공간 입지 요인으로 가정한 요인을 중심으로 각 요인에 대한 이유와 의견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 외 의견에 대해 추가적으로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 및 마무리 부분에서는 양평군이 창작인력을 위해 지원해주었으면 하는 사항과 주요 면접내용에 대한 요약 그리고 인터뷰 내용 이외 추가적인 전문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층면담의 내용분석은 다양한 특성을 지닌 작가들의 의견을 구조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심층면담 대상자를 [그림 5-1] 과 같이 양평군으로의 이주시기(5년이하, 5년 초과) 및 장르(회화, 비회화)의 총 네 가지 그룹으로 분류하고, 작가현황(개인 특성, 창작공간의 의미, 양평군으로 이주 경로)과 입지 특성 및 원인(경제적 요인, 대도시 접근성, 자연환경, 소셜 네트워크), 창작공간 물리적 특성, 지방자치단체 지원사항의 4가지로 나누어 특성을 정리하였다. 네 가지 그룹으로 분류하여 내용을 정리한 것은 설문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이 네 가지 그룹별로 전체적인 인터뷰 내용에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⁶⁴⁾.



[그림5-1] 심층면담 내용 분석 틀

64) 그룹B는 회화 작가와 조각 작가가 함께 인터뷰가 이루어져 두 그룹에 모두 포함시켰다.

[표 5-2] 심층 면담 설문지

시간	질문방식	주제	질문내용
5분	도입		면접 목적 및 질문 개요 설명
5분	전환	창작인력의 분포와 창작공간의 필요성	“문화예술산업의 기초가 되는 문화예술인력들의 거주지 및 창작공간이 수도권 어디에 분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평군으로 이주 경로	“양평군에 거주지 및 창작공간을 마련하시게 된 시기와 입지 선택 시 정보를 제공 받은 경로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분	주요 질문 내용	경제적 능력	“창작 활동 및 기타 활동을 통한 경제적 수입 수준이 창작공간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쳤나요?” - 전업작가 및 겸업 여부 - 경제적 능력의 수준 - 창작공간을 위한 지출의 형태와 규모
		서울로의 접근성	“창작공간 선택에 있어 서울과의 접근성을 고려 하셨나요?” - 서울과의 접근성 고려 및 고려 이유 - 적정 거리 및 이동시간, 주요 교통수단
		창작공간의 물리적 특성	“창작공간에 필요한 적합한 물리적 환경은 어떠한 요소가 있나요?” - 창작공간의 적합한 건물 형태, 점유 면적, 구조 등
		자연환경	“창작공간 선택 시 양호한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을 선호하시나요?” - 선호하는 자연환경, - 자연환경이 창작활동에 미치는 영향
		클러스터	“창작공간 선택 시 창작인력이 모여 있는 지역을 선호하십니까?” - 클러스터 형태 선호 시 선호이유 - 클러스터의 형성 규모 및 교류활동 - 양평군내 창작인력 창작예술인들과의 교류 여부 및 형태 - 개별입지 선호 시 선호이유
		지역사회와의 교류	“양평군내의 창작인력 또는 인근지역의 창작예술인들과의 교류는 있나요?” -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 여부 및 형태 : 마을 모임, 활동 - 지자체와 교류 여부 및 형태 : 행사참여 - 외부방문객에게 작업실 공유에 대한 선호 및 여부
		지방자치단체 지원	“양평군에서 창작인력들에게 지원해주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요약	내용정리	“지금까지 제 요약이 적절했습니까?”
5분	마무리	인터뷰총정리	“지금까지 문화예술 창작인력의 입지 및 지역적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더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2. 창작공간의 필요성

1) 창작공간의 필요성

본 연구에서 창작공간의 입지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창작공간의 입지와 정확한 선호요인을 파악하여 공간적 측면에서 창작공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예술가에게 있어 창작공간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보편적 필요성 파악과 창작공간의 역할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창작공간은 일반적으로 창작활동이 일어나는 물리적인 공간으로 창작을 위한 기술 습득과 연마, 조사, 연구 등을 위한 준비 과정과 예술작품의 구상, 제작, 수정, 완성 등의 전반적인 창작과정이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공간이다. 또한 예술가의 삶터와 일터가 교차하는 공간으로서 예술가 개인 생활의 영위와 직업상 실험적인 배움과 발전, 성장을 담보하고 예술작품과 그로 인한 정보를 창조적으로 생산, 교류, 관리하는 기능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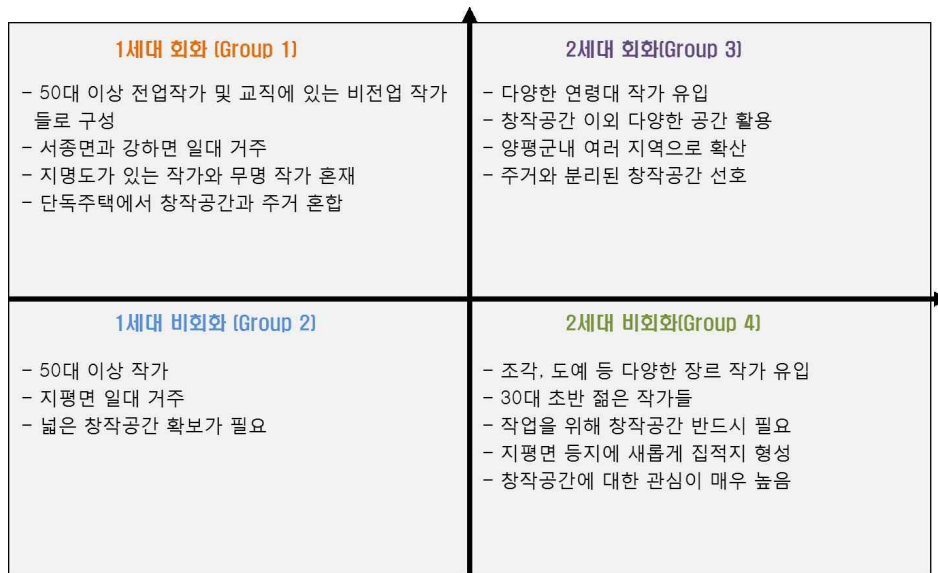
이러한 창작공간의 기능으로 창작과정에 있어 창작공간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은 대부분의 심층면담 작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작가의 특성에 의해 구분된 네 그룹 모두 시각예술의 경우 전업작가로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창작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며 작가로서 경력이 많아질수록 작품이 쌓여가므로 공간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말하고 있다. 조각의 경우 그룹 B작가들의 인터뷰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 주거공간에서 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업실 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 항상 고민하게 되며 일반사람들이 주거의 선택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가에게 작업실은 일종의 공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관심요소가 되고 있다.

1세대 비회화 작가들도 연령대는 높았고 회화 작가들에 비해 300~500평대의 넓은 공간을 소유하고 있는 작가들이 많았고 최근 유입이 많아진 2세대 비회화 작가들의 경우 연령대다 30대로 많이 낮아 졌다. 이들은 다른 어떤 그룹보다 창작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작가들간의 교류를 통해 양평지역으로 다수가 유입되고 있었고 5~10분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한 지역에 집적된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작가들간의 교류도 활발하여 주변 작가들과 비교적 자주 왕래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아침에 만나서 눈 감을 때까지 같이 있는 작가와 주로 하는 얘기가 작업실에 대한 얘기다. 30대 초중반까지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이제는 지쳐서 여기로 오게 되었다. 다른 작가들도 젊어서는 창작레지던시에 들어가려고 여기저기 다녔보고 공동으로 작업실도 써보고 하지만 레지던시는 오래 있어야 1~2년이고 결국은 떠돌이다. 공동작업실은 여럿이 모이면 말이 많아지고 문제도 생겨서 결국 안정적으로 옮겨 다니지 않고 작업에 몰두 할 수 있는 나만의 작업실을 찾게 되는 것 같다.” (그룹 D 작가 인터뷰)

작가 2, 작가 9와 같이 최근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지명도가 높은 작가들의 경우 한국에서도 양평군 이외에 삼청동, 용산 등 다른 지역에 작업을 추가하고 갖고 있고 베를린이나 뉴욕에도 개인 작업실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 작가가 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지면 여러 개의 작업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저는 삼청동과 베를린, 양평 이렇게 세 군데 작업실이 있어요. 베를린은 작년부터 아트페어 전후로 가서 활동할 때 필요해서 얻게 되었고 다른 현지 작가와 함께 쓰고 있어요. 삼청동의 경우 삼청동 지역이 워낙 안테나 같은 곳이고 갤러리, 카페, 아름다운 거리 등 예술적 요인이 있는 곳이라 외부로 부터의 향기를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창작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삼청동의 매력은 다른 작가들과 소통할 수 있지만 또 작가들은 소통과 차단을 겸비한 적당한 은둔 장소가 필요해요. 솔직히 심지가 강하지 않으면 흔들려서 그림이 비슷해질 수 있거든요.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작가8 인터뷰)



[그림 5-2] 창작공간의 필요성

2) 창작공간의 물리적 특성

시각예술 분야는 창작공간과 갤러리와 같은 전시공간 모두 내부가 넓고 기둥이 없는 공간을 선호한다. 1990년대초 형성된 첼시의 갤러리들은 대부분 원래 자동차에 페인트를 칠하던 도색공장으로 내부의 땀 뚫린 공간이 현대미술 전시장으로 적격이었기 때문이다(이규현, 2010).

심층면담 결과 양평군 시각예술인들도 도심의 일반적 주택 유형과는 차별화된 창작공간을 선호하였다. 층고, 공간 구획, 창호, 면적 등에 있어 작가들의 공간 선호가 기존 주택 유형과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맞추어 직접 만들거나 창고 등을 선택하여 점유하는 특징이 있다. 시각예술 중에서도 장르에 따른 차이도 있는데 조각분야의 경우 소음으로 인해 주거 밀집지와 떨어져 개별 입지를 선호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창작공간의 면적인데 작품의 크기나 사과의 크기가 창작공간의 물리적 공간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능한 넓은 공간을 선호하는 작가들이 많았다.

“주어진 작업실이 10평이면 머리도 10평에서만 생각하게 되요. 절대로 머릿속에서 10평 이상의 작품을 구상하지 않게 되더라구요. 작가는 공간이라는게 주어지면 거기에 맞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작가9)

창작공간은 창작이외에 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과 조각의 경우 만들어지는 공정이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업공간의 구획이 필요하게 된다. 평균적으로 300평 이상의 대지를 사서 여러 동의 작업실을 만들거나 임대인 경우에도 40~60평 정도를 선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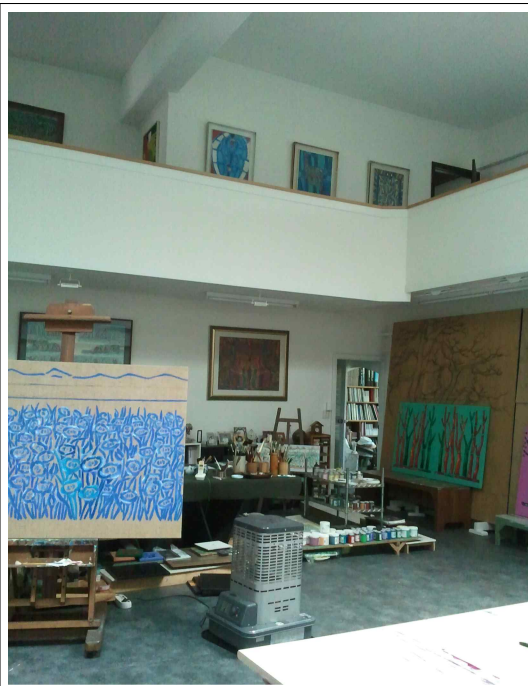
내부 공간의 물리적 특징은 되도록 1층에 층고가 높고 창이 많지 않는 경향이 있고 공간을 구획하지 않는다. 층고가 높아야 되는 것은 작품의 크기와 이동을 위해 4M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고 지하층은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생겨 작품 보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작품을 갤러리에 전시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알기 위해 벽면에 미리 전시하거나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등 창작과 전시의 기능을 위해 높은 층고를 선호한다. 구조적으로도 창문보다는 조명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작업실 구조는 창을 많이 내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조각은 창작공간과 이동하고 철수하는 공간, 보관하는 공간이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작업실은 제가 설계하고 제가 용도에 맞게 만들었습니다.”(작가9)

“대지 500평인데 5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고 전시장은 제가 직접 설계했습니다. 마음대로 작업하고 마음대로 전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작가5)

<p>1세대 회화 (Group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의 크기나 사조의 크기가 창작공간의 물리적 공간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능한 넓은 공간을 선호 하게 됨 - 창작 공간 뿐 아니라 작품 보관을 위해 300평 이상 선호 - 작품 크기 및 작품조망을 위해 층고가 높아야 함 - 작품 보관 및 이동을 위해 작업실은 1층 선호 	<p>2세대 회화(Group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형을 선호하나 상가나 아파트 등 임대료가 저렴한 곳에서 창작활동 가능 - 작업실 구조는 창을 많이 내지 않는 경향이 강함
<p>1세대 비회화 (Group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공정간 이동 및 창작을 위해 내부 공간이 구획되어 있지 않은 창고형 공간 - 소음 등 작품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변에 다른 주거시설이 없는 곳을 선호 - 작품에 따라 지하층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p>2세대 비회화(Group 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의 경우 300평이상을 고려하며 임대인 경우 40~60평 정도 선호 - 소음 등 작품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변에 다른 주거시설이 없는 곳을 선호 - 작품 공정간 이동 및 창작을 위해 내부 공간이 구획되어 있지 않은 창고형 공간 - 창작공간 외부공간도 작품 소재 적재 및 이동을 위해 차량 진입이 가능한 넓은 공간 필요

[그림 5-3] 창작공간 물리적 선호 특성



<회화작가 작업실 내부 공간이용>



<공간이용 및 작업실 총고>



<작업실 이외 전시공간>



<창작공간 및 공간 구획>

[그림5-4] 작업실 내부 물리적 특성



<공장형 작업실 건물 외관 및 작품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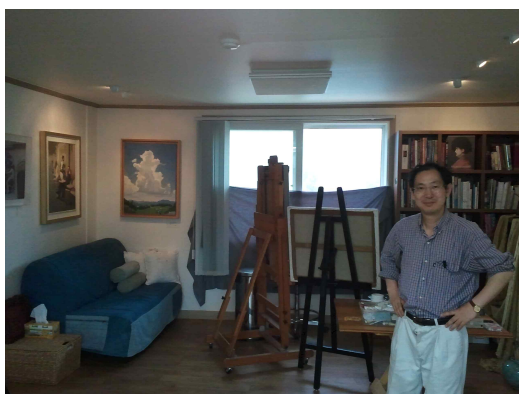
<작업실 및 주거복합 공간 형태>



<창고형태 작업실>



<창고형 작업실 내부공간>



<상가형 작업실 내부공간>



<단독주택형 작업실 외부>

[그림5-5] 유형별 작업실 형태

3. 양평군으로의 이동 배경

1) 양평군으로의 이동 배경

시각예술인들이 양평군으로 이동하게 된 배경은 작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1세대 초기 입주 회화작가들은 작가1의 인터뷰와 같이 개인적 연고가 있거나 건강상의 이유, 또는 원하는 형태의 자연환경 조건을 갖춘 곳을 찾아 작가 스스로 입지를 선택한 경우가 많았지만 2세대 작가부터는 대부분의 작가들이 다른 작가의 소개해 주는 작가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주하고 있었다. 지역적 연고가 없어도 작가들은 다른 작가의 작업실을 방문하거나 선후배 작업을 도와주러 왔다가 옮기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작가들이 작업실을 옮기게 되면 쓰던 작업실을 다른 작가가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 한공간이 여러 작가들에 의해 순환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양서면 청계리, 서종면 문호리, 강하면 항금리, 지평면 곡수리 일대에 형성된 작가들의 자연적 집적지가 대부분 이런 경로로 형성되었다.

1세대 회화작가들은 주로 연령대가 50대 후반인 전업작가와 30~40대 젊은 작가들이 혼재해 있으며, 작업에 열중하고 싶은 환경과 노후를 대비한 거주공간까지 염두하여 창작 뿐 아니라 거주목적으로 이주하였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일반적으로 다른 작가들도 연령대가 높아지면 도심보다는 근교로 이동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 생애주기에 따라 입지도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세대 회화작가들은 창작공간을 작가 개인의 생산의 공간에서 교류와 소통의 공간으로 인식을 확장하고 있었다. 이들은 창작공간을 카페나 미술교육, 미술관 등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복합적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어 창작공간의 다양한 기능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이들 작가들은 향후 경제적 여건이 된다면 더욱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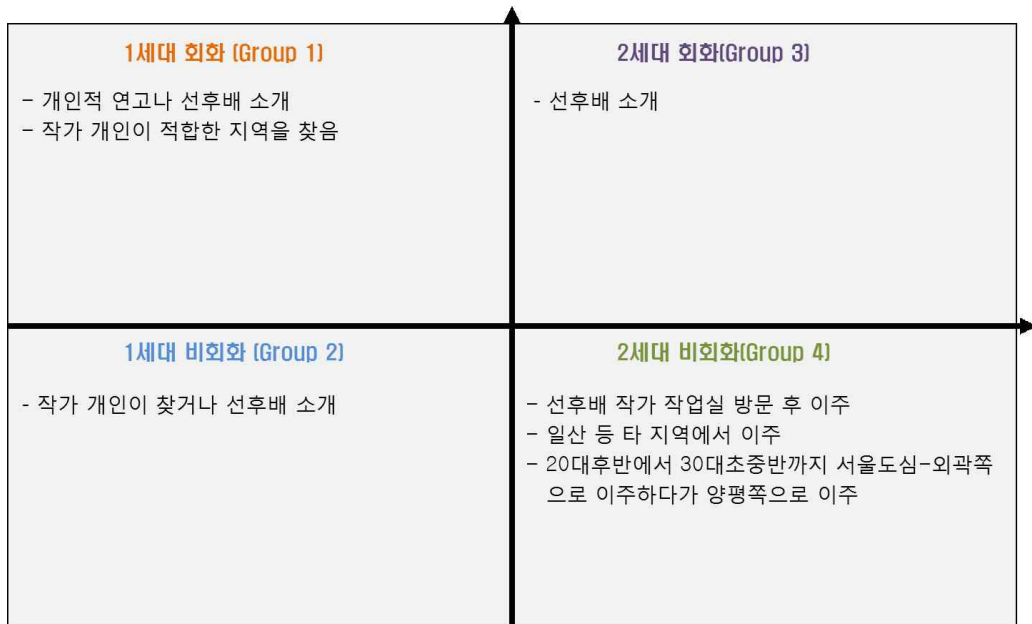
“저는 어머님 산소가 있어서 서종면에 왔다갔다 하다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집 밑으로 학교 후배가 오고 그리고 그 친구 제자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제 어디에 몇 명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다들 그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 같네요.” (작가A, 서종면 문호리 거주)

“88올림픽을 전후한 시기에 예술가들이 교회로 이주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여주쪽으로 많이 나갔는데 졸업하고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활동해서 돈이 좀 모이면 노후 대비도 할 겸 나가기 시작해요. 우리 부부도 처음에는 주말농장처럼 만들었다가 애들 대학가면서 서울 생활정리하구 완전히 이주했어요.” (그룹 A 작가 인터뷰)

“제가 이 동네 부동산이에요. 작가들이 전부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요. 저 통해서 이동네로 온 작가들이 10명도 넘는 것 같은데요.”(그룹D 작가, 지평면 곡수리 거주)

“지금 작업실로 옮기기 전에 작업실도 선배 작가가 쓰고 곳이었는데 제가 쓰다가 이쪽으로 옮기면서 저를 도와주던 다른 작가가 그곳을 쓰고 있어요.”(작가5, 지평면 무왕리 거주)



[그림 5-6] 양평군으로의 이주 배경

2) 창작공간 지원 희망 요소

작가들이 자방자치단체에 바라는 지원 사항은 설문조가 결과와 같이 대부분

의 작가들이 보조금과 같은 직접적이고 경제적 지원보다는 이미 작업공간을 마련한 상태이므로 작품활동 지원과 작업공간에 대한 세금지원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었다. 특히, 2세대 작가들의 경우 일부 유명작가를 제외하고는 작품판매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창작과 더불어 판매까지 모든 걸 스스로 해나가야하는 어려움이 많아 유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욕구가 컸다. 젊은 작가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창작공간을 위한 지출보다는 홍보나 전시회 지원 등 간접지원에 대한 지원체계가 마련된다면 많은 작가들이 이주할 것으로 생각하는 작가들이 많았다. 동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트밸리와 같은 공공주도의 사업에서도 꾸준히 작가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창작레지던시 등 창작공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내에서는 여주, 광주 등에서 작가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들을 시도 중이지만 양평군에서는 아직 지원 정책이 거의 없어 지역차원에서 예술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작가들 역시 베니스, 바젤, 카셀, 뮌스터 등 미술을 통한 지역발전 사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예술가의 공생적 발전에 대한 가능성은 크게 인식하고 있었고 특히 최근 중국미술이 시장의 확대가 파산즈나 송왕과 같은 예술가들의 집적지 형성으로 많은 예술가들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송주앙이 양평과 같아요. 798에서 30분정도 거리인데 798에서 밀려난 작가들이 버려진 농가로 자꾸 들어오니까 미술관도 생기고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이제는 타운이 생겼어요.”

“카셀 도큐멘타도 처음에는 주민이 반발이 심했지만 지역의 지속적 노력으로 오늘과 같은 성과를 이루었어요. 지역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그룹C 작가)

“지방자치제 이후에 양평군도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작가들에 대한 지원은 아직 전혀 없어요.”(작가9)

<p>1세대 회화 (Group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작업공간을 마련한 상태이므로 세금 등 간접적인 지원이 필요 - 예술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지역적 특성을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외면 -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있지만 소통의 창구 부족 	<p>2세대 회화(Group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유명작가 이외에는 작품판매가 어려우므로 유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
<p>1세대 비회화 (Group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서도 여주, 광주를 작가들에 대한 지원책이 많지만 양평에서는 전혀 정책이 없음 	<p>2세대 비회화(Group 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작가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창작공간을 위한 지출보다는 홍보나전시회 지원 등 간접지원이 더 절실함

[그림 5-7] 지방자치단체 지원 선호 특성

제 2 절 창작공간 교외화 특성

지 요 인 별

1. 입 창작공간 교외화에 미친 영향

1) 경제성

경제성의 입지 요인이 창작공간 선택에 미친 영향을 ‘대도시 접근성’과 ‘지가 및 임대료’ 부분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두 변수가 대립관계로 상호 연관되어 있지만 교외로의 이동에 작용하는 영향은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작가들은 창작공간은 근교에 입지하더라도 주요 유통 경로인 갤러리와 고객이 서울에 매우 밀집되어 있어 입지 선택 시 서울로의 접근성은 배제될 수 없다. 작품의 판매 이외에도 젊은 작가들의 경우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공간과의 접근성은 매우 중요하며 작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와 네트워크 유지를 위해 서울로의 접근성이 더욱 중요하다. 일부 작가의 경우 서울에 작업실을 별도로 만드는 것도 이러한 측면에서의 필요성 때문이다.

교수, 대학 시간강사 등 창작활동 이외의 경제활동의 기회도 대부분 서울을 비롯한 근교에서 이루어지므로 지방으로의 이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른 문야분야와 마찬가지로 미술계도 서울이 갖는 중심성이 강한 분야이기 때문에 작가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더라도 가능한 서울과 가까운 곳에 입지하려고 노력하는 특징을 보인다.

“40km가 넘어가게 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홍익대학교 교수들이 한동안 안성에 많이 자리잡았다가 다들 후회하고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요. 미술계는 서울중심의 사회예요. 전시회·친구들 모두 서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1시간 이상 거리가 되면 작가들이 나중에 다 후회하고 다시 가까운 곳으로 옮기게 되더라구요. 그리고 1시간 이상 되면 작업실에 오고 가는 시간도 오래걸려서 심적 부담이 돼요.” (그룹B 작가)

“지방에서는 강의도 나갈수가 없어요. 미대들이 거의 서울과 경기 남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그나마 정기적인 수입이 되는 강의 자리도 거의 없어요.” (작가 7)

“대전까지 내려가는 것은 작가로서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작가로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더 이상은 못가요”(그룹E 작가)

“전시회와 관련된 회의나 모임 등 약속을 잡을때 한시간 이상 거리는 바로바로 만날 수가 없어서 힘들어요. 제 경우 춘천에서 작업실을 주겠다고 제의가 들어왔는데 거절했어요. 가까워지긴 했지만 지방의 이미지도 있고 아무래도 서울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작가 13)

“작가들은 전시에 출품하고 인터뷰도 해야 하고 작품 운반도 하고 작가가 손발로 뛰어 다녀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접근성을 무시할 수 없어요.”(작가2)

“작업실을 구하기 구하려고 걱정했을 때 컴파스를 지도위에 놓고 도심으로부터 1시간 이내 거리권을 대고 돌렸어요. 동그라미 바깥쪽은 아예 생각도 안했어요” (작가 13)



[그림5-8] ‘대도시 접근성’이 창작공간 선택에 미친 영향

경제성과 관련된 ‘지가 및 임대료’는 모든 그룹에서 창작공간 선택에 가장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였다. 특히 전업작가의 경우 작품활동을 통한 고정 수입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반면 임대료는 고정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므로 임대료에 대해 많은 부담을 갖게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작품활동을 평생해야 하므로 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 창작공간을 위해 지출한다.

작가들은 작품활동공간 뿐 아니라 작가는 작품활동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필요하게 되므로 점유 면적은 거의 작품활동 기간에 비례하게 된다. 도심에서는 창작공간 자체를 마련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보관공간까지 마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에 맞추어 넓은 면적을 가질 수 있는 외곽으로 이동하게 된다. 양평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산보다 임대료나 지가가 절반 수준으로 이었던 점이 많은 작가들이 유입할 수 있었던 흡입요인이 되었다.

“단지 늘어나는 자식 같은 그림 때문에 밀려 밀려나서 왔어요. 아파트 지하에 그림을 보관했다가 물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고 작업실을 마련하게 됐어요. 고호의 작은 다락방을 보고 오면 창작공간에 대해 불평을 안하게 되지만 쌓여가는 그림 때문에 큰 공간을 찾아 외곽으로 왔어요. 서울에서는 이만한 작업실을 만드는건 제 평생 불가능할 거예요.”(작가2)

“교직에 있어서 서울에 계속 있었는데 서울에서 작업실을 얻으면 자주 집세를 올려달라고 해요. 주인이 우리가 짐이 많아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걸 알았나봐요. 나중에 제가 나올 때 주변보다 값이 높아 힘들었는데 그걸 받아서 양평으로 옮겨 왔는데 지금도 작업공간은 자주 수장고가 되어 가고 있어요.”(그룹 A 작가)

“작가에게 작품의 깊이보다 현실적으로 버티는 게 중요해요. 일산이 월세 60만원 이었는데 여기가 30만원 이었어요. 임대료 이외에도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료는 최소화해야 해요. 생각할게 없었어요.”(그룹 E 작가)

<p>1세대 회화(Group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와 작업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넓은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저렴한 지가가 전제 - 대지를 마련하고 단독주택을 짓는 형태가 많아 지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IMF 이후 경제적 상황이 악화와 기존 거주 작가들의 권유도 영향을 많음 	<p>2세대 회화(Group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은 고정적이지 않은데 임대료는 고정적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가장 부담이 되는 요인이라 임대료가 저렴한 곳을 선택 - 미술시장 침체로 인해 창작활동으로 인한 수입 저조
<p>1세대 비회화(Group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 특성상 작업실 면적이 넓어야 하므로 임대료가 낮은 곳을 선택 - 회화 작품과 달리 작품 보관시에도 넓은 공간이 필요 	<p>2세대 비회화(Group 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시장 침체로 인해 수도권 외곽으로 이주 - 저렴한 곳으로 작업실을 계속 이전하는데 지쳐 300평 이상 대지 확보를 위해 저렴한 지역 선호 - 작가들이 많이 있는 일산지역보다 임대료나 지가가 50%정도 수준이라 매력적 입지 - 다른 작가들이 많이 있어 예술활동과 관련된 부업이 가능한 지역

[그림 5-9] ‘지가 및 임대료’가 창작공간 선택에 미친 영향

2) 창작자원 접근성

교외지역에서 창작자원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견해는 장르 및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상대적으로 이주 한 지 오래되었고 연령대가 높은 1세대들에게는 창작자원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지만 2세대에게는 부가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세대 회화작가인 작가3의 경우처럼 자연환경이 작품활동에 직접적으로 깊이 영향을 미치거나 작품의 주제가 자체가 자연으로 변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2세대 비회화장르의 그룹D 작가들처럼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자연환경은 그룹별 특성보다 개인적 선호의 차이가 많았지만 공통적인 견해는 작가들은 환경적 요인이 작품에 많이 투영되는 경향이 있고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이 대부분 소음이 적어 작품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기 때문에 정신적인 안정을 준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입지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회화작가들의 경우 작품 활동 이외에도 밀폐된 공간에서 오랜 기간 작업을 하게 되어 호흡기질환이 생기는데 이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어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을 고려하여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으로 선택한 경우도 있었고 주거 공간과 복합적으로 사용할 경우 거주를 위한 공간으로 자연환경이 주요 고려 요소가 된다.

“양평에 들어오면서 작품에 확연히 자연이 들어왔어요. 시각예술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보고 느낀 것이 작품에 완전히 배제될 수 없지요. 양평에 와서 1년 동안 자연의 변화로 흥분상태를 겪었고 그 이후 자연의 경이로움이 내 작품 속에서 선의 생명력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그룹A 작가)

“처음에는 자연에 도취해서 몇 년씩 그냥 보내요. 생명이 움트는 것을 보면 다 무의미해져요. 예술도 무의미해져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을 한 번씩 거치고 나면 이제 자연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술 속으로 들어와요.”

“작가에게 자연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 좋아요. 강가처럼 너무 큰 자연을 가까운 곳에 마주하고 있으면 우울증이 많이 걸리고 처음에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나도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식물이 에너지를 보약으로 먹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진 것 같아요.”

“자연은 작가 내부를 정리하고 승화시켜주는 공간 이예요. 산속에서 집중하게 해주죠.”(작가5)

“산속에서 작업하는게 생산성은 좋아요. 나갈때도 없고 볼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네트워크는 약해져요. 10년정도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시나 활동을 위해서 세컨 작업실을 용산에 마련했는데 두 개의 작업실이 있어서 균형이 느껴져요.”(작가9)

“매일 산만 보니 나무도 지겨워요. 저기 네온싸인 몇 개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룹D 작가)

<p>1세대 회화 (Group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에 매료되어 이주 결정 - 이주 후 자연은 작품의 직접적 소재가 되거나 작품에 많은 영향을 주어 작품에 변화를 가져옴 - 정신적 안정 및 작품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제공 	<p>2세대 회화(Group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흡기 질환이 많아 건강이 악화되어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으로 이주 - 작품의 소재가 되거나 창작활동에 집중
<p>1세대 비회화 (Group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제공 	<p>2세대 비회화(Group 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에 집중할 수 있으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택하지는 않음 - 작품에 따라 소재를 얻는데 도움이 됨 - 오히려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음

[그림5-10] ‘창작자원 접근성’이 창작공간 선택에 미친 영향

3)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는 일반적으로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요소이다. 예술을 비롯한 창조적인 작업들은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에 의존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적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유동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암묵적 지식이 성공적으로 전이되기 위해서는 공간적 접근성이 요구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있는 장소에 접근하기 용이해야 한다(Andersson,

2013).

양평의 시각예술인들도 창작 공간 이주 주요 경로가 작가들 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빈번한 교류를 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작가들이 거주하는 것에 대해 정서적 측면과 작품활동 측면에서 긍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1세대 작가들의 경우 대학 선후배가 함께 이주한 경우가 많았고 현재도 대부분 작가들의 소개로 양평으로 오게 되기 때문에 작품 활동을 도와주거나 친분도모 등 작가들 간의 교류는 많은 편이다.

청계리에는 故하태일 화가의 가족(아내 류민자화자, 딸 하태임화가, 아들, 사위도 조각가)이 먼저 입지한 후 정충일, 이태경, 조순호, 김근중, 최용대 화가등이 한 마을에 있어 일명 화가마을로 불리워지는데 이 지역은 프랑스 유학을 한 선후배 관계이거나 작가들의 소개로 한 곳에 모이게 되었다. 지평면에도 이재효 작가를 시작으로 박승모, 이석, 박재연, 김병진, 김철환 작가 등 10명 이상이 무봉리, 곡수리 일대에 모여 조각가 집적지를 이룬다.

설문조사에서는 작가들간의 네트워크가 뚜렷한 입지선택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작은 지역 단위로 자생적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었다. 1세대 작가들은 ‘물뽕리’와 같은 여성작가모임, 남자작가들의 사생회, ‘서종 사람들’과 같은 모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 하고 있고 주로 같은 마을 정도를 모여 있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초기의 작가들간 네트워크의 중심은 양평미술협회 활동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작가들이 많아지면서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고 젊은 작가들의 경우 협회활동에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다.

“지방에서 와서 연고는 없는데 양평에는 잘나가는 작가들과 젊은 작가들이 다 같이 있어서 작가들의 인프라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 때문에 오게 됐어요.”(그룹E 작가)

“여자 기혼 작가들은 교육 때문에 서울시내에 있으려고 해요. 이사갈 때 마다 방하나를 작업실로 쓰면서 도심에서 힘들게 작품활동을 해왔는데 많이 망설이다가 양평으로 먼저 온 선배언니 작가의 권유로 오게 됐어요.”

“작가는 외로운 직업이지만 작품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주변에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작가가 있다는 것은 큰 위안이 되요.”

“물피리 작가들은 정기적으로 친목모임을 갖고 있고 올해에는 한독 초청전이 있어 작품활동도 같이 하고 있다.”(그룹C 작가)

작가들간 교류에 비해 주변 주민들과의 관계는 인사하는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작가들의 경우 작품 활동에 주민이 참여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어 친밀한 지역도 있어 작가 간 격차가 크다.

“작가들은 마을에 작은섬이 둥둥 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친해지고 싶지만 치열하게 작업하는 작가들이 많이 때문에 시간에 쫓기고 야행성이 많아서 시간도 맞지 않아서 쉽지 않은 문제예요.”(작가3)

“농번기때는 막걸리 마시고 가라고 계속 불려서 길을 지나갈 수 없어요. 겨울 농번기 때 작품 관련한 아르바이트를 주민들한테 주니까 이제는 서로 공생관계가 됐어요.”(작가5)

지역사회와의 교류는 아직은 양평환경미술제나 공공미술에 참여하는 일부 작가들에 한정되어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작가들의 유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다수의 작가들과 접촉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직은 많지 않다. 작가들도 양평군립미술관 건립, 아트밸리 사업 등 문화관련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양평작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지원이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소통은 매우 단절되어 있다.

“아트밸리 사업에 정말 관심이 많아요. 레지던시 같은곳에 들어가고 싶고 작품이 팔릴 수 있는 갤러리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실질적으로 작품 활동에 도움될 것 같은데 전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그룹D 작가)

“아트투어나 오픈스튜디오와 같은 행사들을 진행했었지만 결과적으로 큰 성과를 못 얻었다. 여기 작가들이 프로다. 외국의 경우처럼 정해진 몇일 동안 철저한 준비를 통해 오픈스튜디오 행사를 치르는건 작가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준비 없이 작가의 시간만 뺏는건 의미가 없다. (그룹B 작가)

그러나, 작가들은 해외에서 활동했던 작가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술가 지원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경험이 있고 바젤아트페어 등 성공사례를 보면서 예술을 통한 지역개발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파리 주변에서는 빈집도 창작공간으로 대여해주고 아파트단지에 예술가를 위한 주거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주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예술가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가져 준다면 작가들이 사회에 환원 할 수 있는 부분에 충분히 참여할거라고 생각합니다.”(그룹C 작가)

<p>1세대 회화 (Group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후배가 주변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자주 만나는 편임(강하면 항금리, 서종면) - 초기에 양평미협등 단체활동 활발 - 작품활동을 같이 하거나 친분도모 등 작가들간 교류가 많고 ‘물외리(여성작가 모임)’ ‘서중사람들’과 같은 모임을 통해 지속적 교류 - 주민과의 교류는 미미 	<p>2세대 회화(Group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공간에 전시, 교류 등 다양한 활용이 필요 - 작가간 교류 및 단체활동 미미
<p>1세대 비회화 (Group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장르 작가간 개인적 교류가 있음 - 양평지역내 활동에는 미온적 - 개인차는 있으나 주민과의 교류 양호 	<p>2세대 비회화(Group 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공간은 작품이 만들어 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소통의 공간 - 작품을 도와주거나 친목 등 목적으로 동일 장르간 작가들과 주로 교류

[그림5-11]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가 창작공간 선택에 미친 영향

2. 입지요인과 창작공간의 교외화

심층 면담 결과 내용을 토대로 창작 입지 요인별로 교외화에 미친 영향을 보면 ‘경제성’이 교외화를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창작인력은 전업작가의 비중이 높고 직업이 있는 작가일지라도 입지자유적인(foot-loose) 특성이 있어 입지선정에 있어 비교적 자유로운 계층이지만 생산품의 유통경로인 갤러리가 있고, 작가들과의 교류 및 각종 전시공간이 밀집되어 있는 시장과의 거리는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그러나 소득의 불안정성과 저소득계층인 작가들에게 ‘임대료와 지가’는 창작공간 선택에 가장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다. 창작공간 마련에 필요한 지가 및 임대료라는 경제적 요인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수준이 낮은 창작인력으로 하여금 중심지로부터 경제적으로 감당할수있는 수준만큼 외곽지역을 선택하게 한다. ‘지가 및 임대료’는 창작인력의 작품활동 기간과 생애주기에 따라 점차 증가하게 되면서 젊었을때는 도심 또는 도심 근처에 입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외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 교외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창작공간이 작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점유면적이 넓어지게 되면 더 많은 부담을 갖게 되어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지가와 임대료를 가진 지역이 입지 대상이 되는 것이다.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정신적 측면과 작품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창작자원 접근성’인데 교외 지역 중 접근 가능한 거리내에서 자연환경 등이 양호한 지역이 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창작자원 접근성’에 대한 견해치는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연령대가 높고 회화 장르의 경우 자연환경 자체가 작품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외에도 건강상의 이유와 주거복합일 경우 주거환경으로 자연환경이 주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요인도 창작인력의 특성에 따라 입지 요소로 작용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작가 들이 밀집한 클러스터안에 거주하는 작가와 그렇지 않은 작가간의 고려정도 차이도 컸다. 이는 창작공간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교외지역의 입지선정과 이동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거주하면서 작품활동 이외에도 인간적 교류와 정서적 측면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네트워크 형성 정도는 지역사회, 주민, 작가간 네트워크 필요성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지만 실제 참여 정도는 낮았다.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통해 창작 입지 요인과 교외화의 관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창작인력들은 창작공간의 점유면적이 증가하고 창작공간 확보를 위해 교외 이동을 결정하게 되지만 생산품의 시장이나 네트워크의 중심지인 서울로부터 구심력(centripetal force)이 존재하여 도시 근교를 선호한다. 교외지역의 위치는 ‘경제성’ 요인을 중심으로 이동 반경이 결정되고 여기에 ‘창작자원 접근성’ 요인과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요인을 고려하여 적합한 교외 지역을 선택하게 된다.

창작공간의 입지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창작공간이 갖는 물리적 특성도 교외화에 영향을 미친다. 시각예술인들은 창작공간으로 1층 층고가 높고 창이 많지 않으며 구획되지 않은 내부 공간을 선호하기 때문에 공장이나 창고 등을 개조하거나 직접 건축과 설계를 하는 경우도 많다. 교외지역은 창작공간을 위해 넓은 공간 확보가 가능하고 창작공간의 특성에 맞게 신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창고와 같은 기존 공간을 활용할 경우 도로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주변 주택가와 거리가 있어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을 하는 조각 작가들이 교외지역을 선호한다.

제 3 절 양평군 창작공간 집적의 지역활성화 효과

1. 지역 정체성 확보 및 경제적 효과

양평군은 양평미술협회 회원수만 2012년 기준 183명에 달하며 시각예술산업 입지 현황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창작인력 및 창작공간이 집적도가 가장 높은 시각예술인 집적지이다. 1999년 이후 [표 5-3] 과 같이 언론자료에서도 지속적으로 양평군을 창작인력 및 창작공간 밀집지역으로 소개하고 있어 양평군이 시각예술인 집적지로 지역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평은 한국의 바르비종이자 몽마르트르’ <경향신문> 2001년 5월 10일

어느 나라에서든 미술가들은 가난한 편이다. 특히 젊은 미술가들은 절대 다수가 절대 빈곤 속을 헤맨다. 그래서 그들은 값싸게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게 프랑스에서는 파리 근교의 바르비종과 몽마르트르였다면 한국에서는 경기 양평군일 듯싶다. 현재 양평에 거주하는 미술가는 약 380명. 양평의 미술가들에 따르면 이는 서울·부산을 제외한 전국 시·도에서 가장 많은 미술가가 사는 곳이며 미술가 인구 밀도로 따지자면 세계 최고라는 것이다....

[표 5-3] 양평군 창작인력 집적 관련 언론 보도자료

기사제목	날짜	게재지
200여명 미술인 모여사는 '예술의 고향' 양평 화가마을	1999. 4. 10	경향신문
'한국의 바르비종' 양평의 작가들	2000. 1. 7	국민일보
양평 '화가마을'에 낭만 넘실	2000. 2. 10	서울신문
'양평자연과 예술산책' 패키지	2000. 2. 10	문화일보
'양동작업실 사람들'展 미술동네서 바라본 오늘의 세태	2001. 12. 21	문화일보
경기 양평 '미술인마을'	2001. 5. 10	경향신문
전원속의 작가들 -김영리, 민정기, 김근중-	2003. 11~2004. 2	세계일보
예술의 향기 솔솔 양평에 가볼까	2004. 8. 19	서울신문
우리땅에 들려주는 과거와 현재 - 민정기화가-	2004. 10. 26	한국일보
양평 갤러리 투어	2005. 4. 8	동아일보
'봄날은 왔다' 양평 강가로 떠나보자	2006. 2. 25	문화일보
'화가촌'에 들어선 미술관, 양평군립미술관 개관	2011. 12. 21	문화일보
남한강변이 문화예술의 메카로	2012. 2. 24	동아일보

자료 : 한국언론진흥재단(<http://www.kinds.or.kr/>) 검색

양평군이 시각예술 창작공간 집적지로서의 지역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시각예술인 및 그들의 창작공간 집적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 기반시설과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각예술 관련 대표적 기반시설은 박물관과 갤러리를 들 수 있는데 주로 대도시에 입지하고 있는 갤러리와 미술관이 1990년대 초부터 양평군에 입지하기 시작했다. 민간에 의해 만들어진 다양한 갤러리와 작가들의 공방은 작가들이 지역사회에 정착을 돕고 지역 사회에 자생적 문화 역량을 증가시키는 역할도 한다.

[표 5-4] 양평군 문화기반시설 현황

유형	명칭	특징
박물관 및 전시 시설	양평 군립미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평군 미술문화의 확산과 육성을 위해 2011년 미술관건립 • 전시관, 카페,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체험 위주의 문화공간 및 테마형 관광상품으로의 조성이 목표
	환경재생조형 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재활용품을 이용한 조형작가 이환이 수십년간 모아온 각종 폐품들을 보관하고, 제작한 작품들을 전시한 박물관 • 국내 유일의 환경재생 문화체험의 장으로 작업과정 체험
	잔아문학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여러 대학교 국문과 학생들의 학습장으로 시작하여 문학박물관으로 조성 • 세계적인 문호들과 국내 작고 문인들의 흉상을 입체적으로 전시
	곤충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평 및 국내외 각지에 서식하는 곤충 460종, 1,500여 개체가 전시된 국내 최고의 곤충전문박물관
	양평 숲속의 미술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교원단체 총연합회, 경기도 교원단체 총연합회와 함께 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미술교육공원 • 실내미술관, 야외조각공원, 삼림욕장과 세계 최대의 코르텐스틸 JESUS CHRIST 소장
	서종 문화의 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종 면사무소내의 갤러리로 다양한 종류의 문화적 교육과 모임을 진행
갤 러 리	바탕골예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및 미술 전시 • 도자기, 판화, 염색, 금속, 한지 작업 등 체험시설과 숙박시설
	닥터박 갤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화중심 사설 갤러리로 유망작가를 발굴하여 소개
	마나스아트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각 전문 갤러리로 작품 전시 및 다양한 분야의 작품이 상설 전시
	갤러리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큐멘터리 중심 갤러리로 사진작가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초대전 중심으로 운영
	갤러리서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형 화랑으로서 1998년에 개관 • 현대미술 가운데 <한국성>에 주목한 기획과 전시를 주로 함 • 미술인구가 많은 양평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다양한 시도들을 진행
	갤러리다우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채화, 유화, 사진등의 개인전을 열수 있도록 대관 갤러리

자료 : <http://tour.yp21.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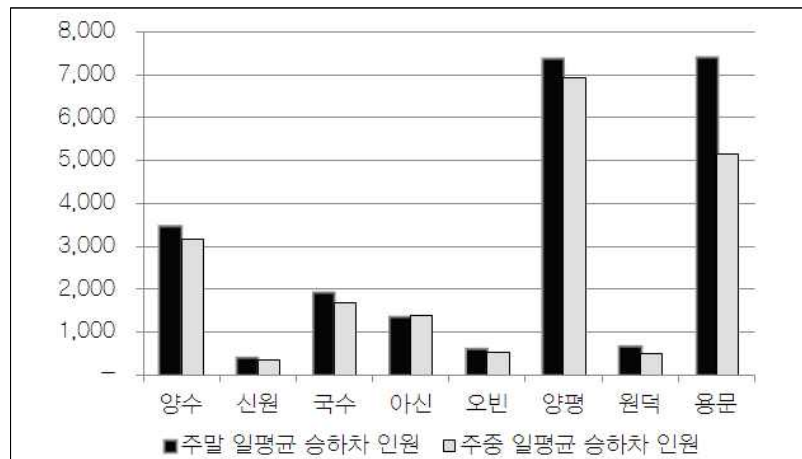
양평군내 문화시설 중 개인이 운영하면서 규모가 큰 바탕골 미술관은 서양화를 전공한 박의순 관장이 1986년 서울 대학로에 미술관과 소극장을 함께 운영하다가 1999년에 강하면으로 옮겨왔다. 바탕골예술관은 1969년부터 양평에 부지를 준비하기 시작해 2만 8363㎡(8500여 평)의 대규모 부지 위에 바탕골미술관, 예술극장, 미술체험 교육관, 도자기공방 등을 조성되어 있고 해마다 2회 이상 현대미술기획전등을 기획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양평군의 대표적인 문화시설이다. 바탕골예술관은 미술전시 뿐 아니라 대상별 맞춤형 예술교육과 학교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미술감상 프로그램 시행과 함께 〈양평은 춤춘다〉, 〈양평휴게소〉, 〈이젠, 양평이다〉 등 관객 참여형 축제행사를 매년 실시함으로써 지역미술관의 교육적 역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어 양평군이 시각예술 클러스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바탕골 예술관 주변은 양평의 주요 작가 집적지 중 한 곳으로 예술관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 전시와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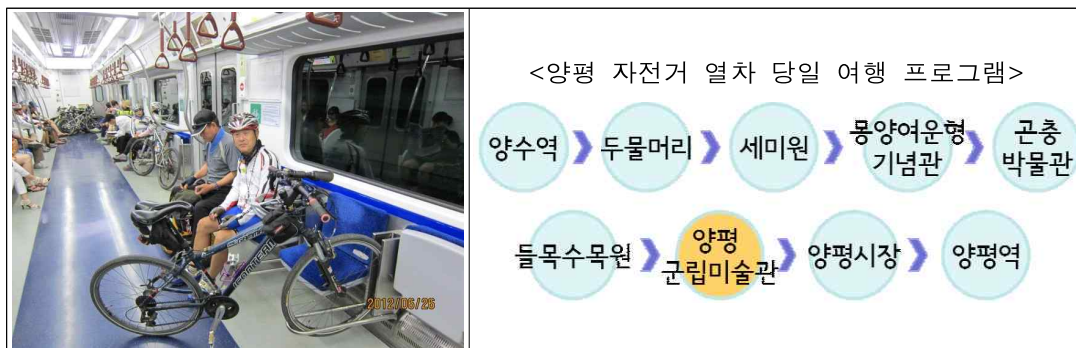
[그림 5-12] 바탕골예술관 전경 및 주요시설

민간 갤러리 이외에도 군단위로는 처음으로 2011년에 양평미술관이 개관하였는데 현재까지 많은 관람객수를 유치하고 있어 지역의 주요 문화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2008년부터는 수도권 광역전철이 개통되면서 접근성이 급격히 향상되어 양호한 자연환경과 자전거길, 문화예술시설을 바탕으로 많은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주말 관광객 증가하여 광역전철역 이용객 현황 분석 결과 주중보다 주말 이용율이 높은 역이 많다([그림 5-13] 참조). 코레일에서는 2012년 6월부

터 최초로 자전거 전용 열차를 운행하기 시작했으며 [그림 5-14] 와 같이 양평 지역내 박물관과 미술관등을 연계한 자전거 당일 여행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기존의 관광자원과 문화예술 기반시설이 결합되어 관광객 유입 요소로 활용하는 등 지역내 문화시설이 관광객 유치와 연계되고 있다.



[그림 5-13] 양평군내 수도권 광역전철역 이용객 현황 (2011년)



[그림 5-14] 자전거 전용열차 및 문화시설 연계 여행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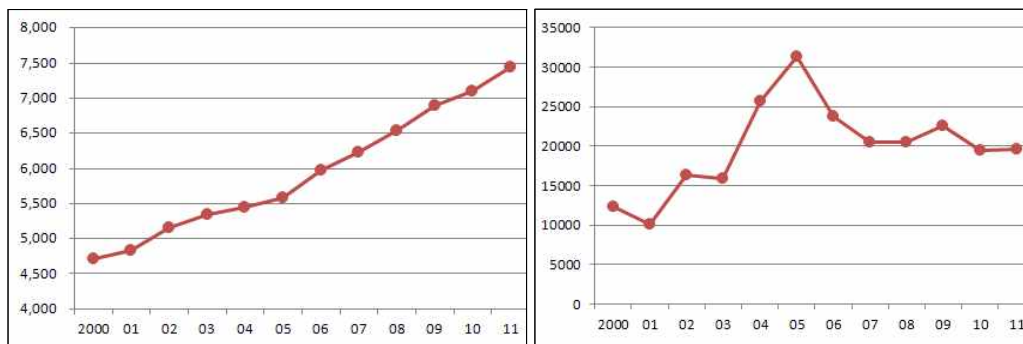
양평군립미술관은 양평미술협회의 요청에 의해 군비 약 80억(군비 40억, 국비 40억)을 조달하여 2011년 12월에 건립된 양평군립 미술관 입장객은 2012년 9월까지 누적 입장객수가 5만명으로 지방 미술관 입장객으로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주말에 수도권에서 방문하는 입장객 비중이 높아 지역내 문화시설 기능 뿐 아니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양평군립 미술관은 전

시기능과 더불어 지역작가들을 위한 사무공간 제공 및 작품매입 및 지역작가들을 모티브로 하는 기획전시도 이루어지고 있어 예술가들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강좌와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주민들의 예술교육 참여기회를 늘려 주고 있다.



양평군이 자연환경이 양호하고 문화예술인의 거주가 많아지면서 경제적 측면에도 영향을 가져왔다. 양평군 내에서도 예술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지역인 서종면의 경우 인구증가 및 부동산 거래가 타 지역에 비해 활발하다. 양평군 전체인구가 최근 11년 동안 연평균 1.8%씩 증가했는데 서종면은 「그림

5-16] 과 같이 인구가 4.3%씩 증가하여 2000년 4,720명에서 2011년 7,449명으로 약 58%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량도 양평군 전체적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7.6%씩 증가하였고 서종면이 양평군 전체 거래의 약 20%를 차지한다([그림 5-17] 참조). 언론보도 자료와 공인중개사와 인터뷰결과 문화예술인의 집적과 문화기반시설의 증가가 실질적인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교육여건 변화 등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으로 외부로부터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그림 5-16] 서종면 인구변화(2000~2011년) [그림 5-17] 양평군 부동산 거래건수 (2000~2011년)

자료 : 온나라부동산정보, 양평군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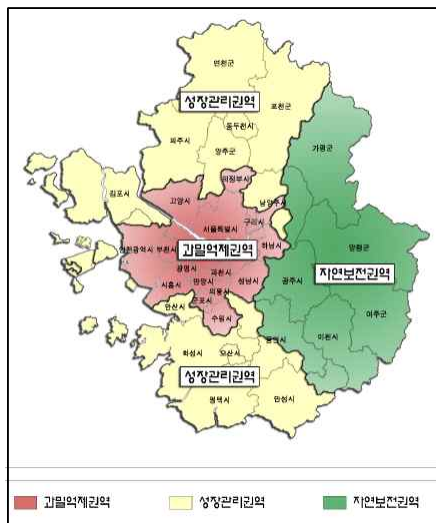
한국의 '바르비종' 으로...양평의 대변신 - 인구 10만 郡에 예술인 1000여명 동지 - (한국경제 2013년 1월 1일)

예총 회원만 560여명 몰려...청계리엔 '화가마을' 들어서...박물관·갤러리 개관 잇따라
2년새 8000여명 인구 유입...부동산 값도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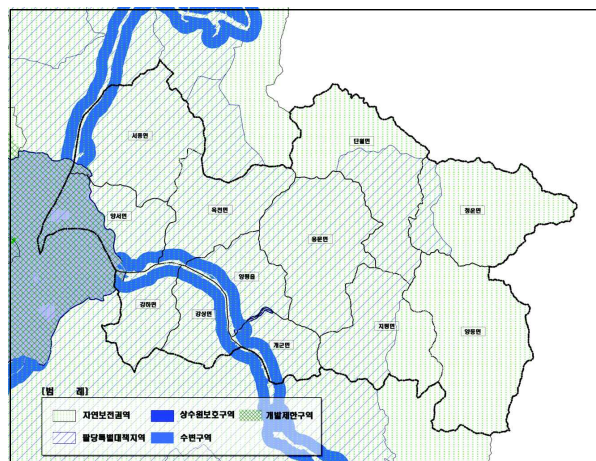
예술인이 늘자 학교환경도 덩달아 좋아졌다. 폐교 위기까지 갔던 용문면 조현초등학교는 자연 친화적인 창의 교육을 앞세워 5년 새 학생 수가 2.5배로 늘었다. 양서고등학교는 대도시 명문 학교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자연히 인근 지역에 비해 부동산 값도 강세다. 유대근 명품공인중개사 대표는 "서울과 가깝고 남한강이 보이는 서종면, 양서면에 있는 10억원 이상의 고급 주택들 수요가 꾸준하다"며 "최근에는 강남·잠실 등지로 출근하는 30~40대 가운데 전원주택을 찾는 이도 늘어 중소형 전원주택 거래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인식변화와 관련 정책 증가

양평군은 행정구역 총면적의 약 1.8배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I, II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지역에 해당되어 건축물의 입지 및 용도 등이 제한되고 있다. 개발 규제로 인해 다른 지역처럼 고용창출이나 세수 증진을 위한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2012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24.7%로 경기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림 5-18] 수도권정비계획 권역구분도



[그림 5-19] 양평군 규제지역 현황도

[표 5-5]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단위 :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국평균	53.6	53.9	78.9	75.7	76.7	77.2
서울평균	90.5	88.3	92.0	85.8	90.3	90.2
경기평균	74.9	76.3	75.9	72.8	72.5	72.6
경기시평균	53.7	56.3	57.6	55.6	54.0	51.9
경기군평균	28.4	30.8	31.3	27.7	30.9	28.9
경기여주군	40.2	42.4	39.7	35.8	42.1	39.0
경기연천군	28.6	28.0	27.2	27.0	27.6	23.4
경기가평군	23.9	25.8	25.7	26.9	27.1	27.4
경기양평군	18.7	23.9	29.7	24.4	25.0	24.7

자료 :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 201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양평군은 지방자치제 출범이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개발의 방향을 생태 문화도시 육성으로 전환하고 문화를 활용한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시각예술을 비롯한 예술인의 집중, 지역 문화기반시설 증가, 문화관련 정책들의 추진 등이 지역의 비전 설정 및 개발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군수를 비롯한 지방정부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지역의 문화정책 추진과 지속성은 지방정부의 개입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인터뷰의 주요 내용은 양평군에서 추진되는 문화관련 정책들이 지방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지 또 향후 지역개발의 방향으로 문화자원을 활용할 것인지와 다양한 문화자원 중에서도 특히 시각예술인 및 창작공간 집중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력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양평군수, 부군수, 경기도의회 의원, 문화예술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별심층면담이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심층면담 결과 지방정부의 리더인 양평군수는 문화예술인력을 지역의 중요 인적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규제가 많은 지역 현황을 감안할 때 문화예술을 통한 관광객 유입을 지역개발의 주요 목표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각예술 창작인력 등 지역 내 작가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고 미술관 유치도 이러한 관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작가들의 전시회 지원, 작품 매입, 해외 사례 방문, 공공미술 프로젝트 진행 등 문화예술인력에 대한 활동지원과 문화인프라 구축 등의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창작인력들과 심층면담에서도 양평군청이 문화예술인과의 교류를 도모하려는 노력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혀 상호교류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⁶⁵⁾과 정책자료에 반영되어 있는데 「2013년 군정계획」의 다섯 가지 중점실천과제로 하나가 문화·레포츠 중심이며 “일상에 문화가 흐르는 예술도시 조성”을 위해 공공미술 설치, 와글와

65) 현재 문화예술과 진행 중인 사업들은 문화예술관광 중에서도 특히 상설공원과 공공미술을 통해 관광객 유치 및 지역 예술인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향후 공공미술을 300작품까지 확대하여 일본의 에치고-츠마리 아트 트리엔날레와 같은 축제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군에서 의뢰하여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 30점과 작가 개별 공공미술작품 44점을 포함한 74점의 공공미술작품은 작품설명과 위치를 표시한 양평예술 지도를 별도로 작성하여 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글 음악회 공연, 서종면 우리동네 음악회 개최, 양평 문화원 조성, 지역문화 예술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문화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해 양평군 문화관광과 내부에 문화예술팀, 박물관팀을 신설하여 전담 인력 배치하는 등 전담 조직을 배치하고 관련 예산 편성(매년 상설공연과 공공미술에 각각 4억씩 예산 편성,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공공미술 73개작품 설치)하는 등 군단위 지역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문화예술과 관광을 연계하는 상설공연과 공공미술을 통해 관광객 유치 및 지역 예술인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향후 공공미술을 300작품까지 확대하여 일본의 에치고-츠마리 아트 트리엔날레⁶⁶⁾와 같은 축제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군에서 의뢰하여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 30점과 작가 개별 공공미술작품 44점을 포함한 74점의 공공미술작품은 작품설명과 위치를 표시한 양평예술지도를 별도로 작성하여 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5-20] 양평군 예술지도

66) 도심의 재개발과 대비되는 낙후된 지역과 지역 주민을 위한 예술을 통한 지역만들기 개발의 사례로 니가타현 농촌지역인 에치고-츠마리는 인구가 감소하고 눈이 4~5m와서 쌓여있는 전형적인 지역에 공공미술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사례이다. 에치고츠마리 지역에는 760km²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 곳곳에 약 300여 점의 공공미술을 설치하여 2000년부터 에치고츠마리 트리엔날레 실시하였는데 처음 2개 마을에서 시작하여 2009년 200개로 확산, 방문객 40만명 유치(3년에 한번씩 개최)하고 있다. (자료 :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양평 비전 2020 읍면 발전계획」에서는 민·관 합동으로 주민이 직접 해당 지역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작가들이 많이 집적된 서종면은 지역만들기의 목표를 “사람과 자연이 아름다운 문화예술마을 만들기”이다.

「양평 비전 2020 읍면 발전계획」이 수립되기 이전부터 서종면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서종마을디자인운동본부를 만들어 발전계획에 문화예술마을 만들기를 테마로 할 것을 먼저 제안하였다. 나오시마나 송주양같은 해외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개발에서는 공공의 역할과 더불어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커뮤니티의 문화역량 증가 및 교류 활성화와 같은 사회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민간 부문에서의 적극적 참여는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5-21] 2013년 양평군 군정계획



[그림 5-22] 양평 비전 2020 읍면 발전계획(서종면)

3. 지역문화운동 태동

지역사회에 시각예술인과 창작공간이 증가하고 많은 예술가들이 정착되면서 지역 사회에 문화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 다수의 작가들이 분포하고 있는 서종면의 경우 90년대부터 정착하기 시작한 작가들의 모임에서 출발한 ‘서종사람들’이 현재는 지역 문화모임으로 발전하여 면사무소 별관을 고쳐 만든 문화센터를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음악회는 12년째 이어져 현재 100회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매회 100~500명까지 공연장을 찾으며 모스크바 소년소녀 합창단 공연이 열리는 수준으로 성장하여 후원회가 조성되고 일부 비용을 양평군에서도 지원하고 있다.



[그림 5-23] 서종면 우리동네 음악회

최근에는 기존 주민들과 새로 이주한 예술인들이 함께 지역의 마을 경관디자인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서종 마을(경관)디자인”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서종 마을 경관 디자인 운동의 추진 주체는 “서종마을 디자인 운동본부”로 서종면 주민자치위원회가 3년 전부터 시작하여 2012년 11월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하게 되었다. 서종의 지역문화 운동의 추진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업기획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종규변호사와의 인터뷰 및 주민자치위원회 제작자료⁶⁷⁾를 통해 문화운동의 추진방향과 사업 내용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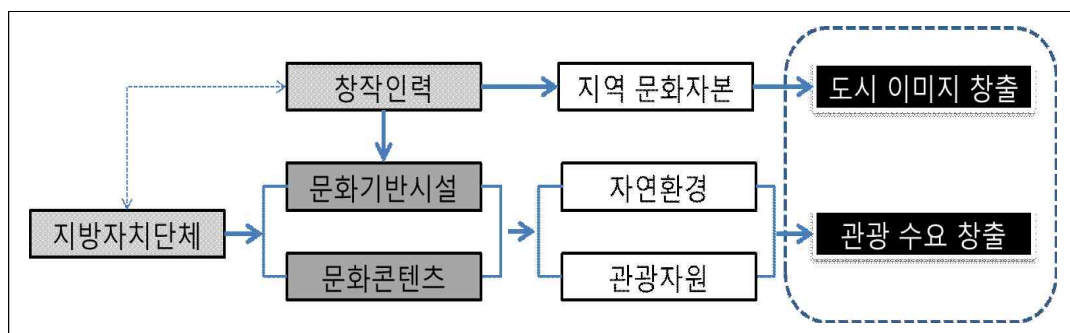
67) “서종을 디자인하라! -서종 ‘마을(경관)디자인’운동 제안”, 서종면 주민자치위원회 사업기획분과 작성, 2011년

서종면에서 마을 경관을 변화를 위한 지역문화운동이 형성된 것은 지역 내 주민 중 다수가 문화예술 종사자로 문화예술에 대한 안목과 역량이 높으며 예술가의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이제 지역 일에 대해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특히 지금까지 계획 없이 진행된 도로, 다리, 학교시설 등 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반감과 무질서한 간판으로 마을 경관이 저해되는 점들에 대해 의견이 모아지면서 주민이 직접 서종을 디자인하여 아름다운 마을을 만드는 것을 운동의 취지로 하는 문화예술마을 만들기가 만들어졌다.

서종마을디자인사업은 원칙적으로 ‘디자인’사업에 국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하는 사업에 서종마을디자인 운동주체의 의견을 전달하고 시행을 권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서종의 예술문화벨트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며 향후에는 예술문화시장(art market) 조성이나 서종음악당 신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서종 디자인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가로 및 교량 디자인, 간판디자인, 문화예술시장 및 서종음악당 신축, 건축물 디자인, 경관협정 제정, 서종 ‘미(美)의 선언(宣言)’ 공표 등이다. 서종마을디자인운동의 추진주체는 궁극적으로는 NPO(Non Profit Organization) 결성을 목표로 하며 2013년 2월 현재 ‘(가칭)서종마을디자인운동본부’를 만들어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문화예술인의 대표자 및 지역거주 전문가가 결합하여 초기 조직을 결성하였고 조직의 대표자는 1990년부터 서종에 정착하면서 지역사회 활동에 꾸준히 참여한 민정기 화가가 맡고 있다. 운영은 자원봉사 형태로 이루어지며 양평군에서 일부 활동비를 지원한다. 운동에 참여하는 지역문화예술인들의 대표 및 지역에 거주하는 전문가는 건축, 경영, 디자인, 도시계획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주민으로 향후 실무디자인그룹을 별도로 조직하여 실제적인 디자인과 설계도를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종마을디자인사업의 추진 원칙은 모든 사업의 단계마다 공청회와 발표회, 토론회, 여론조사, 홍보, 디자인 공모 등을 통하여 마을 전부가 참여할 시작과 공간을 개방하는 주민전부의 참여와 군 담당자 및 면 담당자를 참여시켜 지방자치단체와 취지에 동감하고 원활하게 소통함으로써 조화와 협력 달성을 목표로 한다. 서종면의 마을디자인운동본부는 시작단계이지만 주민에 의한 디자인의 제안과 문화예술인들이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참여할 수 있으며 중요한 인적자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활동이다. 궁극적으로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이 지향하는 바가 런던의 파운드 베리 사례와 같이 지역사회의 물리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마을만들기 활동에 참여주체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인데 서종면이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서종면에서 지역문화운동이 발생하게 된 것은 민간에 의해 만들어진 다양한 갤러리와 공방이 작가들이 많은 서종면에 밀집되어 있고 작가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과 문화예술공연 등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림 5-24]와 같은 구조를 통해 사회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창작인력과 그들의 창작공간이 양평지역에 집적되면서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입지와 문화콘텐츠를 풍부하게 만드는데 기여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재정적·계획적 측면에서 지원함으로써 외부 관광객 유치 및 지역 문화자본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양평군은 ‘예술가의 도시’라는 새로운 장소성을 형성하게 되고 개발에 제한이 많은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을 찾게 됨으로써 일종의 문화의 영역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24] 문화예술을 통한 양평군 활성화

제 4 절 소결

창작인력의 심층면담 내용 분석 결과 설문조사에서 ‘경제성’, ‘창작자원 접근성’,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라는 창작공간의 입지요인은 다음과 같이 창작공간의 교외화에 영향을 미쳤다. 경제성 요인 중 ‘대도시 접근성’은 대도시가 시장기능 및 작품활동의 충전지로서 기능하므로 중요한 입지요인이 된다. ‘임대료와 지가’는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작가들에게 창작공간 선택의 가장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다. 작가들은 서울로부터 본인이 지불가능한 수준의 임대료와 지가를 가진 외곽지역을 선택한다. ‘임대료와 지가’는 활동 기간과 생애주기에 영향을 받아 젊었을때는 도심에 입지하다가 교외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창작자원 접근성’은 창작 자원 또는 주거 환경에 영향을 미쳐 교외 지역 중 자연환경 등이 양호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한다. 특히 연령대가 높고 회화 장르의 경우 자연환경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요인은 교외지역의 입지선정과 이동을 유발한다.

창작 입지 요인이 교외화에 미친 영향을 종합하면 ‘경제성’요인에 의해 자의 및 타의에 의해 도시 근교로 입지가 결정되고 교외지역 중 ‘창작자원 접근성’ 요인과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요인을 고려하여 작가의 선호에 의해 적합한 창작공간의 교외 입지가 결정된다.

창작공간의 입지에는 창작공간이 갖는 물리적 특성도 영향을 미친다. 높은 층고, 구획되지 않은 내부 공간 등을 선호하기 때문에 교외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창작인력이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지원 사항은 작품활동에 대한 간접적 지원과 창작레지던시와 같은 창작공간 확충이다.

양평군은 시각예술인과 그들의 창작공간이 집적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경제적, 사회·문화적 효과를 가져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창작공간과 미술관이나 갤러리 등 미술관련 인프라가 집적되어 새로운 지역 정체성을 확보하였다는 것이다. 지역 정체성의 확보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예술이 지역개발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재정적·정책적으로 지원으로 연결되고 있다. 또한 주민차원에서 지역문화운동이 형성되는 등 사회적·문화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차원에서 지역활성화 효과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요약

문화산업의 팽창과 창조경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창조성이 발현되는 예술가의 창작공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창작공간은 예술가 개인의 창작활동이 일어나는 사적공간이지만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다양한 외부효과를 주기 때문에 지역개발의 새로운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지구로 불리 우는 새로운 장소성을 가진 지역의 생성과 소멸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공간적 이동을 거듭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역경제와 사회적 자본 형성이 기대되는 창작인력과 창작공간의 입지와 선호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창작공간의 공간적 함의와 교외로이 공간적 이동에 주목하여 양평지역의 시각예술 창작 집적지를 사례로 창작기능의 교외 입지를 유발하는 요인을 도출하는 것이다. 또 창작공간 집적을 통한 지역개발 활성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문화예술에 기반한 지역개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창작공간의 교외 입지 분석을 위해 실시한 국내 시각예술산업의 입지 특성은 창작단계와 유통단계가 차이를 보였다. 시각예술인의 거주지와 창작기능을 포함하는 창작단계는 지난 10여년 동안 양적 성장과 함께 일부가 인접한 경기도 양평, 파주 등 중소도시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여 도시 교외지역으로 이동이 확인되었다. 반면 유통단계는 여전히 서울의 강북과 강남에 집중되어 있어 시각예술 산업내에서 가치사슬에 따른 입지는 차별성을 띠고 있었다. 교외 지역 중 양평 지역은 시각예술인 거주지 LQ값이 경기도내에서 가장 높아 대표적 시각예술인 집적지로 볼 수 있으며, 작가들의 창작공간과 갤러리, 박물관 등 유통기능까지 입지하고 있어 창작기능의 교외 입지 연구에 적합한 대상지로 판단되며, 창작기능과 유통기능이 함께 밀집한 지역으로 시각예술 클러스터로의 성장 잠재력을 가진 곳이다.

창작기능의 입지 요인은 양평지역 창작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창작기능을 주요한 입지요인은 입지론에서 도출된 입지요인과 같이 ‘경제성’, ‘창작자원 접근성’,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의 세 가지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도출된 세 가지 입지 요인 중 교외 입지에는 ‘경제성’과 ‘창작원료 접근성’은 평균값이 높아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요인’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작용하고 하였다. 이는 교외에 위치한 양평군의 창작클러스터 규모와 형성 수준이 아직 집적단계에 있어 도심에 네트워크 형성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입지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외 이동에 미치는 입지 요인들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일종의 필요충분조건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지가 및 임대료’가 저렴하고 서울로부터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 충분조건으로 선행되어할 입지 조건이 되고, 다음으로 필요조건 중에서는 창작자원의 원료가 되는 자연환경 등 작품 소재와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 선호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창작공간의 입지 선택은 창작인력의 특성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이주시기별로 1세대와 2세대로 하면 1세대 작가들의 경우 창작공간 입지 선택요인으로 ‘창작자원 접근성’ 요인을 중요한 입지 요인으로 고려하였고 최근에 이주한 2세대 작가들의 경우 ‘경제성’ 요인과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심층면담 내용분석 결과 창작공간의 교외화는 작가들의 수입이 낮고 수입이 불안정한 열악한 경제적 지위 때문에 경제적 요인에 의해 먼저 교외화가 유발된다. 전업작가의 경우 입지자유적인(foot-loose) 특성이 있어 입지선정에 비교적 자유로운 계층이지만 시장과의 거리는 여전히 중요한 고려 요소로 중심지로부터 경제적으로 감당 할 수 있는 수준만큼 외곽지역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창작인력의 작품활동 기간과 생애주기에 따라 젊었을때는 도심 또는 도심 근처에 입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외곽으로 이동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정신적 측면과 작품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창작자원 접근성’은 자연환경 자체를 작품의 대상으로 삼거나 건강상 이유, 주거환경적 측면에서 주로 고려하였고,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창작공간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교외지역의 입지선정과 이동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거주후에도

작품활동, 인간적 교류 등 정서적 측면에 기여하는 바가 컸다.

창작 입지 요인이 교외화에 미친 영향을 종합하면 ‘경제성’요인에 의해 자의 및 타의에 의해 도시 근교로 입지가 결정된다. 입지요인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교외지역으로 창작공간이 이동하더라도 생산품의 시장 및 네트워크의 중심지인 서울로부터 구심력이 존재하여 일정한 이동 반경이 존재하게 된다. 교외지역 중 ‘창작자원 접근성’ 요인과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요인을 고려하여 작가의 선호에 의해 적합한 창작공간의 교외 입지가 결정된다. 창작공간의 교외화는 도심 외곽지역의 저렴한 지가와 임대료가 중요한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추가로 시장 및 원료 접근성과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에 대한 고려를 통해 입지가 개별적·자율적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를 갖는다.

양평군은 시각예술인과 그들의 창작공간이 집적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경제적, 사회·문화적 효과를 가져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창작공간과 미술관이나 갤러리 등 미술관련 인프라가 집적되어 새로운 지역 정체성 확보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경제적 효과도 있었다. 지역 정체성의 확보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예술이 지역개발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재정적·정책적으로 지원으로 연결되고 있다. 주민차원에서도 지역문화운동이 형성되는 등 사회적·문화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차원에서 지역활성화 효과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양평군은 향후 예술가에 대한 지원과 다양한 지역사회 교류방안들이 제시된다면 미국의 산타페와 같이 예술창작기능에 기반한 지역으로 성장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문화예술정책은 공공에 의한 일방적 접근보다는 콘텐츠를 가진 예술가와 그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간접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정책의 효과가 지역사회 전체로 파급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본 연구가 갖는 정책적 시사점과 의의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역과 공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예술가와 창작공간의 특성과 입지를 파악하였다는 것이다. 기존 국내연구에서는 아직 예술가의 입지나 창작공간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지 못하다. 시각예술 분야에 한정되었지만 창작인력의 입지와 특성, 입지 요인에 대한 연구는 창작기능에 초점을 맞춘 정책지원의 타당성과 지원방안에 방향을 설정해줄 수 있을 것이다. 창작인력의 개인적 특성과 창작공간이 입지 요인 도출은 주택이나 기업의 수요 분석을 통해 산업단지와 신도시를 개발한 것과 같이 창작공간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 접근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문화예술에 기반한 도시재생도 창작기능의 특성을 공간에 제대로 담아 내지 못한다면 사회경제적 효과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며 공간을 창조하는 예술가들 역시 지역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새로운 공간을 찾아 계속 이동을 거듭해야 하기 때문에 창작기능의 속성에 대한 파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예술산업이 반드시 도심에서만 성장한다는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교외지역에서도 입지 여건에 부합하는 기능을 유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교외에 입지하는 예술가들의 특성을 도출한 것이다.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유통을 모두 도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많은 예술가들이 젊은 시기에는 창작공간의 도심입지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경제적 여건과 생애주기에 따른 어메니티 선호, 작품의 보관 공간 필요 등 작품활동과 및 일상생활의 필요에 의해 점유면적이 넓어져 자연스럽게 외곽으로 이동을 선택하게 되는 이중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 양평군을 사례로 교외에 입지하는 작가들의 세부적인 특성도 파악할 수 있었다. 양평군에는 다양한 작가 특성을 가진 작가들이 있지만 양평의 자연환경을 선호하고 작가로서 기반이 구축되어 창작공간을 자가로 소유할 수 있는 회화 작가와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젊은층의 조각 작가들의 선호가 높았다.

셋째, 창작인력과 창작공간이 집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설문조가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작가들이 보조금과 같은 직접적이고 경제적 지원보다는 이미 작업공간을 마련한 상태이므로 작품활동 지원과 작업공간에 대한 세금지원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었다. 특히, 일부 유명작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젊은 작가들은 작품판매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창작과 더불어 판매까지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유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욕구도 컸다. 양평군과 같은 교외지역은 양호한 자연환경과 넓고 저렴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입지적 특징이 있다. 이러한 입지적 특성을 활용하여 작가들이 원하는 작품활동 지원과 세금 지원 등의 지원 방안을 구축한다면 향후 더 많은 작가들을 유입되어 교외형 창작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도 여주, 광주 등에서 작가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들을 시도 중이지만 중국의 파산즈나 송주양과 같이 보다 적극적으로 창작기능 유치를 위한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중국미술이 시장의 확대가 예술가들의 집적지 형성으로 많은 예술가들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작가들은 많은 해외 활동으로 이미 베니스, 바젤, 카셀, 윈스터 등 미술을 통한 지역발전 사례를 인지하고 있었다. 지역사회와 예술가의 공생적 발전에 대해 예술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인식을 같이 하고 협력해야 국내에서도 자생력을 가진 시각예술 클러스터가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예술만을 대상으로 창작공간의 입지 요인과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실증분석의 자료가 갖는 대표성과 대상의 한정성에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술인과 예술인의 창작공간에 대한 규모와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시각예술 분야 창작인력에 대한 규모와 데이터도 자료 구득의 한계로 인해 전문 예술인 단체의 회원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이 진행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예술분야가 도시공간과 접목 될 수 있도록 여러 예술분야의 입지에 대한 공간 분포와 입지특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간적 범위도 최근 10년 동안은 외부의 경제적 변화가 많았던 시기로 타 산업이나 주

거의 입지도 외곽으로의 확산이 이루어졌던 시기인 만큼 창작기능 자체에 가진 고유의 공간적 이동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시간적 범위를 확장하여 입지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실증분석의 대상도 본 연구에서는 양평군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지만 창작집적지가 형성된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 한다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입지요인 도출도 가능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안나(2009), 시각예술 창작공간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문모·임상오·김재준(2000), 「문화 산업의 발전방안」, 서울: 을유문화사
- 구문모(2001), “지역개발과 지방 문화산업정책”, 「문화경제연구」, 4(2): 1-20. 한국문화경제학회
- 구문모(2007), “국내 지방광역시의 창조산업 특성화를 위한 구조조정 기본방안”,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9(2): 95-120.
- 국사편찬위원회(2008), 「근대와 만난 미술과 도시」, 서울: 두산동아
- 김다윗(2011), 문화예술창작인 거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달진미술연구소·한국문화예술위원회(2007), 「2006 시각예술인 실태조사 및 분석」, 서울: 서울: 김달진미술연구소
- 김동영(2010), 도심활성화에서 신예술가집단의 역할-전주한옥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보름(2010), 「뉴욕 미술시장 : 예술과 경제가 만나는 곳」, 서울: 미술문화
- 김봉원·권니아·길지혜(2010), “삼청동길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상업화 특성분석”, 「한국지역경제연구」, 15:83-102
- 김연진(2011), 「문화지구제도 개선 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정수(2010), 「문화행정론: 이론적 기반과 정책적 과제」, 서울: 집문당
- 김지은(2008), 「예술가의 방」, 파주: 서해문집
- 김학희(2007), “The Creative Economy and Urban Art Clusters : 창조경제와 도시 아트 클러스터: 서울시 화랑의 입지 특성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2(2):258-279
- 김학희(2007), “문화소비공간으로서 삼청동의 부상: 갤러리 호황과 서울시 도심

- 재활성화 전략에 대한 비판적 성찰”, 「대한도시지리학회지」, 10(2):127-144
- 김홍주·박세훈(2012), “창작촌이 예술가 창조네트워크 비교: 문래 창작촌과 또따 또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25(1): 181-200
- 김효정의(2007),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사례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희순·정희선(2011), “커뮤니티 아트를 통한 다문화주의의 실천: 안산시 원곡동 “리트머스”의 사례”, 「지리학연구」, 45(1): 93-106
- 김희순·정희선(2011),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도시 재생과 창조성의 배양: 서울시의 금천예술공장, 문래예술공장, 서교예술실험센터를 중심으로”, 「지리학연구」, 45(2): 279-293.
- 김희진·안대기(2010), 「문화예술축제로 - 사례와 분석-」,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태만(2008), “따산즈(大山子)예술촌과 베이징의 도시문화 아이콘”, 「동북아문화연구」, 17:221-248
- 김태만(2012), “798예술촌, 도시의 흔적과 기억의 공간”, 「현대중국연구」, 13(2):121-156
- 계기석(2010),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전략모형의 적용방향 연구 : 부천시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3(24): 175-194. 한국도시행정학회
- 나은(2012), 예술인의 법적지위와 사회보장제도-국내외 예술인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나혜영(2011), 문화콘텐츠산업의 공간분포와 입지요인 : 한국도시에 관한 경험적 분석,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데이비스 트로스비(2004), 성제환 옮김, 「문화 경제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 라도삼(2010), 「문화특화지역 형성요인 및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랜드리(2005), 임상오 옮김, 「창조도시」, 서울: 해남

- 문지윤(2008), 미술문화공간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제 및 사회문화적 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화관광부(2006), 「공공미술이 도시를 바꾼다」
- 문화관광부 예술경영센터(2011), 「2010년도 미술시장실태조사」, 서울: 문화관광부
- 박광순(2008), 「문화의 경제학」, 서울: 유朋출판사
- 박상미(2004), 「뉴욕」, 서울: 마음산책
- 박삼철(2006), 「왜 공공미술인가」, 서울: 학고재
- 박세훈 외(2011),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클러스터 활용방안 연구」, 평촌: 국토연구원
- 박세훈·김은란(2013), “문화클러스터를 활용한 도시문화전략의 가능성과 한계: 광주광역시 대인예술시장 사례”, 국토연구, 77: 241~260
- 박신의(2008), “창조도시, 창조계급, 문화예술경영”, 「문화예술경영학연구」, 1:3-18
- 박신의(2008), “문화예술경영, 이론적 기반과 실천의 21세기적 전망”, 「문화예술경영학연구」, 1:205-214
- 박신의(2011), “문화예술공간, 지역사회, 이웃 : 벨기에 브뤼셀의 ‘레알드샤에 백’”, 「문화예술경영학연구」, 4(1):33-54
- 박신의(2012), “예술가의 도시 내 화학반응 일으키기: 도심 속 문화공동체 형성의 의미”, 「건축」, 56(1):33-36
- 박영정(2010), 「문화예술인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박진수·구문모·신창호(2001), 「문화산업과 도시발전」, 서울: 산업연구원
- 박진수(2001), “문화산업과 도시개발전략”, 「문화경제연구」, 4(1): 1-17.
- 박과랑(2003), 「어떤그림좋아하세요: 어느불량큐레이터의고백」, 서울: 아트북스
- 백혜선·라도삼(2008), 「예술을 통한 지역만들기 방안 연구」, 서울: 서울시정개

발연구원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2000), 「미협 1999 회원명부」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2012), 「미협 2011 회원명부」

서울문화포럼(2010), 「서울시 문화특화 및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책연구
및 개발」

서순복(2007),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의 정책적 함의”, 「한국지방자치연
구」, 8(3): 23-44.

서진수(2009), “한국 미술시장과 경기변동 -2005~2009년 미술시장을 중심으로”,
「현대미술학 논문집」, 3:295-324

소병희(2012), 「문화예술경제학」, 서울: 율곡출판사

송인혁(2009), “프랑스 바르비종 회화의 자연관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손경년(2001), “지식정보시대의 문화벤처 지원정책”, 「문화경제연구」, 4(1):
68-87. 한국문화경제학회

손은하·신나경(2010), “공공미술의 전개와 로컬공간의 재생”, 「기초조형학 연
구」, 11(4): 135-143

송도영(2004), 「인류학자 송도영의 서울 읽기」, 서울: 소화

신동호(2011), “창조산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의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미
국 뉴욕 브루클린의 문화예술 산업클러스터를 사례로”, 「한국경제지리
학회지」, 14(1):71-85

신영(2013),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도시브랜드 구축에 관한 고찰,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양평환경미술제조조직위원회(2010), 「양평환경미술제 2010 : 자연을 그리는 3번
째 이야기 - 물, 자연, 환경, 거주, 일상」, 양평: 양평환경미술제조조직위
원회

양평군(2007), “양평생태도시기본계획”, 양평군

- 양은희(2010), 「뉴욕, 아트앤더시티」, 서울: 랜덤하우스
- 양종회·권숙인·김우식(2006), 「영국의 문화산업체계」, 서울: 미래인력연구원
- 엘리자베스 커리드(2009), 최지아 옮김, 「세계의 크리에이티브공장 뉴욕」, 서울: 쌤앤파커스
- 여운상(2009), “낙후된 작은 섬이 예술의 섬으로, 나오시마”, 「부산발전포럼」, 119:51-55, 부산발전연구원
- 오민근(2005), “문화에 의한 도시활성화 방안”, 「문화정책논총」, 17:41-82
- 오픈스튜디오네트워크(2006), 「창작환경 실태조사」, 서울: 미술인회의
- 오픈스튜디오네트워크(2007), 「오픈스튜디오 네트워크 사업성과 보고서 I, II」, 서울: 미술인회의
- 오픈스튜디오네트워크(2008), 「어디에나 작업실은 있다」, 서울: 미술인회의
- 오픈스튜디오네트워크(2008), 「작업실이 가까워집니다」, 서울: 미술인회의
- 유네스코한국위원회(1980), 「예술인지위에 관한 권고」,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1995), 「제1차 아·테 문화포럼 보고서」
- 유정아(2012), 「한국 축제와 지역문화 콘텐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유재윤·진영효(2002), “도시문화산업과 도시정책”, 「도시정보」, 246:3-15
- 윤홍근(2008), “문화산업의 영역과 접근시각에 관한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1:235-258
- 윤태석·김웅진(2004), “지역 문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연구”, 「문화산업연구」, 4(1):99-124
- 이경은(2010), “헤이리 예술마을의 장소성 창출기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군희(2007), 「사회과학연구방법론」, 서울: 법문사
- 이규현(2006), 「그림쇼핑」, 서울: 공간사

- 이규현(2010), 「안녕하세요? 예술가씨!」, 서울: 넥서스
- 이동기·박홍식(2003), “지방정부의 문화마케팅: 담당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3):169-189
- 이병민(2005), “문화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지리학연구」, 39(3):399-420
- 이병민(2007), “참여정부 문화산업 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인문콘텐츠」, 9:205-235
- 이성우 외(2008), 「로짓·프라빗모형 응용」, 서울: 박영사
- 이정훈(2004), “중소도시 지역개발 수단으로서 제3의 문화전략 : 관광과 문화산업의 사회·공간적 결합-부천시를 사례로-”, 「관광경영학연구」, 8(3):257-292
- 이종원(2009), “문화예술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연구-대학로 공연예술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창효(2012), 토지이용-교통 상호작용을 고려한 주거입지 예측모델 연구, 서울 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호상·이명아(2012), “문화예술을 매개로한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사례연구-부산 감천마을과 나오시마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예술포럼」, 10:110-121
- 이희연(2005), “인터넷산업의 입지적 특성과 공간적 집적화”, 「국토계획」, 40(2):33-51
- 이희연·노승철(2012), 「고급통계분석론」, 서울: 법문사
- 이희연·심재현(2012), 「GIS지리정보학」, 서울: 법문사
- 전영옥(2004), “문화자원 개발과 지역활성화 전략”,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 전영옥(2006), “신문화도시전략과 시사점”,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 정성욱(2004), 「순수예술과 문화산업의 연계전략 개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정철현(2004), 「문화정책론」, 서울경제경영
- 정철현(2005), 「문화연구와 문화정책」, 서울경제경영
- 조은영(2012), 지속가능한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커뮤니티 아트 모델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추미경(2012),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추진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채서일(2000), 「사회과학조사방법론」, 서울: 학현사.
- 최관호(2007), 한국 미술창작 스튜디오의 현장성과 활성화,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병식(1999), 「미술시장과 경영: 한국미술품 유통구조의 현황과 개선방향」, 서울: 동문선
- 최혜실(2003), “한국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이론적 토대로써 문화콘텐츠”, 인문콘텐츠학회 학술심포지움, 24-40
- 프레이(2008), 주수현 외 옮김, 「문화예술경제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12),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한국문화경제학회(2001), 「문화경제학 만나기」, 서울: 김영사.
- 한완택(1983), 「도시개발론」, 서울: 대학문화사
- 한혜경(2010), 「꿈꾸는 미술공장, 베이징 일기」, 서울: 세미콜론
- Andersson, A. E., Andersson, D. E., Daghbashyan, Z., Harsman, b., “Location and spatial clustering of artists”,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In Press, Corrected Proof, 2013
<http://dx.doi.org/10.1016/j.regsciurbeco.2013.09.008>
- Artfield, A.(1999), “Brad and circues? The making of Hoxton’s cultural quarter and its impact on urban regeneration in Hackney, Rising East”, The Journal of East London Studies, 1(3):133-154.
- Basset, K., Griffiths, R., and Smith, I.(2002), "Cultural Industries, cultural

- clusters and the city: the example of natural history film-making in Bristol", *Geoforum* 33:165-177
- Becker, H. S.(2008), *Art Worlds*, Berkeley and Los Angeles,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oston Redevelopment Authority(2003), "Keeping Boston's Creative Capital- A Survey of Artist Space Needs", Boston: Massachusetts
- Currid, E.(2007a), "How Art and Culture Happen in New York",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73(4):454-467
- Currid, E.(2007b), "The Warhol Economy : how fashion, art, and music drive New York C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urrid, E.(2009), "Bohemia as Subculture: "Bohemia" as Industry -Art, Culture, and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23(4):368-382
- Deutsche, R.(1996), *Evictions: Art and Spatial Politics*, Cambridge, MA: MIT Press
- Evans, G.(2005), "Measure for Measure: Evaluation the Evidence of Culture's Contribution to Regeneration", *Urban Studies*, 42(5/6): 1-25.
- Evans, R.(1996), "Liverpool's urban regeneration initiative and the arts: a review of policy development and strategic issues, in P. Lorente (eds.), *The Role of Museums and the Arts in the Urban Regeneration of Liverpool*, Centre for Urban History, University of Leicester: 17-22.
- Florida, R.(2001),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Basic Books
- Florida, R.(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And How It's Transforming Work, Leisure, Community and Everyday Life", Basic Books
- Fopp, M.(1997), *Managing Museums and Galleries*, London: Routledge.
- Gabe, T. M.(2006), "Growth of Creative Occupation in U.S Metropolitan

- Area: A Shift-Share Analysis", *Growth and Change*, 10(1):393-415
- Gibson, C and Homan, S.(2004), "Urban redevelopment, live music and public space: cultural performance and the re-making of Marrickville", *International Journal Cultural Policy*, 10(1):67-84.
- Glass, R.(1964), "Aspect of Change, Center for Urban Studies" , London: MacGibbon and Kee.
- Griffiths, R.(1993), "The Politics of Cultural Policy in Urban Regeneration Strategies", *Policy and Politics*, 21: 39-46.
- Grosenick, U. and Stange R. (eds.)(2005), *International Art Galleries: Post-War to Post-Millennium*, London: Thames & Hudson
- Hall, P.(1999), *Cities in civilization : culture, innovation, and urban order*, London: Phoenix Giant
- Hartley, J.(2006), *Creative Industries*, London: Blackwell Publishers
- Hesmondhalgh, D.(2002), *The Cultural Industries*, London: SAGE
- Heilbrun, J.(1992), "Art and Culture as Central Place Functions", *Urban Studies*, 29(2): 205-215
- Heilbrun, J.(1996), "Growth, Accessibility and the Distribution of Arts Activity in the United States: 1980 to 1990",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20:283-296
- Hill Strategies Research Inc(2006), "Artist in small and rural municipalities in Canada, Statistical Insights on the Art", 4(3):1-28
<http://www.hillstrategies.com/>
- Jacson, R. M. and Kabwasa-Green, F(2007), *Artist Space Development: Making the Case*, LINC(Leveraging Investments in Creativity)
- Jacob, D. J(2012), "Cultural Industries in Small-sized Canadian Cities: Dream or Reality?", *Urban Studies*, 49(1):97-114
- Kong, L. and O'Connor, J(2009), *Creative Economies, Creative Cities:*

- Asian-European Perspectives, The GeoJournal Library series, 98*,
Dordrecht and New York: Springer
- Krueger, R. A. and Casey, M. A.(2000),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London: SAGE
- Lazzeretti, L.(2003), "City of Art as a High Culture Local System and Cultural Districtualization Processes: The Cluster of Art Restoration in Flor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7(3): 635–648.
- Lewis N. and Donald B.(2010), "A New Rubric for 'Creative City' Potential in Canada's Smaller Cities", *Urban Studies*, 47(1): 29–54
- Ley, D.(1980), "Liberal ideology and post-industrial city", *Annals of the Association Geographers*, 76:238–258
- Ley, D.(1986), "Alternative explanations for inner-city gentrification: a Canadian assessment",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6 (4):521 - 35.
- Ley, D.(1994), "Gentrification and the politics of the new middle clas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2:53 - 74
- Ley, D.(1996), "The New Middle Class and the Remaking of the Central C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ey, D.(2003) "Artists, aestheticisation and the field of gentrification", *Urban Studies* 40 (12):2527 - 44.
- Lim, S.-O.(2002), "Cultural Industries and Regional Development",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cultural Policy, Kyoto Tachibana Woman's University, Kyoto, 23
- Lim, S.-O(2004). "Artisticcreativityandculturalpolicy", *Cultural Economics*
- Lloyd, R. and Clark, T. N.(2000), "The City as an Entertainment Machin",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 Lloyd, R. and Clark, T. N.(2001), "The City as an Entertainment Machine" *Critical Perspectives on Urban Redevelopment*, 6:259–380
- Markusen, A. and King, D.(2003), *The Artistic Dividend: The Hidden Contributions of the Arts to the Regional Economy*. Minneapolis, MN: Project on Regional and Industrial Economics, University of Minnesota, July.
- Markusen, A. and Gerg S.(2006a), "The Artistic Dividend: Urban Artistic Speci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mplication", *Urban Studies*, 43(10):1661–1686
- Markusen, A.(2006b), "Urban Development and the Politics of a Creative Class: Evidence from the Study of Artists", *Environment and Planning*, 38(10):1921–1940
- Markusen, A.(2006), *Cultural planning and the Creative City*, Paper for annual American Collegiate Schools of Planning meeting Ft. Worth, Texas
- Mikunda, C.(2004), *Brand Lands, Hot Spots & Cool Spaces: Welcome to the Third Place and the Total Marketing Experience*, London: Kogan Page
- Montgomery, J(2003), "Cultural Quarters as Mechanisms for Urban Regeneration. Part 1: Conceptualising Cultural Quarters", *Planning Practice and Research*, 18(4):293–306
- Montgomery, J(2004), "Cultural Quarters as Mechanisms for Urban Regeneration. Part 2: A Review of Four Cultural Quarters in the UK, Ireland and Australia", *Planning Practice and Research*, 19(1):3–31
- Mundelius, M(2006), "Visual artists between cultural demand and economic subsistence. Empirical findings from Berlin", 46th ERSa Conference "Enlargement, Southern Europe and the Mediterranean"; University of Thessaly, 2006

<http://www-sre.wu-wien.ac.at/ersa/ersaconfs/ersa06/papers/247.pdf>

- O'hagan, J. and Hellmanzik C.(2008), "Clustering and Migration of Important Visual Artists –Broad Historical Evidence–": *Historical Methods*, 41(3):121–134
- Plaza, B.(2006), "The Return on Investment of the Guggenheim Museum Bilbao",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0(2): 452–467
- Pratt, A. C.(1997), "The Cultural Industries in Sweden: An Assessment of Place in Swedish Economy", *Economic Geography*, 78:103–127
- Pratt, A.(2004), "Creative clusters: toward the governance of the creative industry production system?", *Media International Australia Incorporating Culture and Policy*", 112:50–66.
- Pratt, A. C.(2009), " Urban Regeneration: From the Arts 'Feel Good; Factor to the Cultural Economy: A Case Study of Hoxton, London", *Urban Studies*, 46(5&6):495–496
- Schaffer, R and Smith, N.(1986), "The Gentrification of Harlem?", *Annals of the Association Geographers*, 76: 347–365
- Scott, A, J.(2000), *The Cultural Economy of Cities*, SAGE Publication, London
- Smith, N.(1979), "Toward a theory of gentrification; back to the city movement by capital, not people",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45(4):538–548
- Smith, N and Williams, P(1986), "The Gentrification of the City", London: Allen and Unwin
- Serifert, S., Stern, J.M and Zaman, M(2005), "Artists and their Social Networks, Metropolitan Philadelphia, 2004, Dynamics of Culture Working paper#2005-5, University of Pennsylvania.

- Towse, R.(2002), "Copyright Policy and Creativity in the Cultural Industries", 「문화경제연구」, 5(1):
- Throsby, D(2001), *Economics and Cul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urok, I.(2003), "Cities Cluster and Creative Industries: The Case of Film and Television in Scotland", *European Planning Studies*, 11:499-565.
- UNESCO(1982), *Cultural industries*, Paris: UNESCO
- Venkatesh, A. and Meamber, L. A.(2006), "Arts and aesthetics: Marketing and cultural production", *Marketing Theory*, 6(1): 11-39.
- Vicario, L. and Monje, M. M.(2003), "Another 'Guggenheim Effect'? The Generation of a Potentially Gentrification Neighbourhood in Bilbao", *Urban Studies*, 40(12): 2383-2400.
- Wojan, R. T, Lambert, M. D and McGranahan, A. D(2007), "The Emergence of Rural Artistic Havens: A First Look",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36(1):53-70
- While, A.(2003), "Locating Art Worlds: London and the Making of Young British art", *Area*, 35(3):251-263.
- Williams, D.(1997), "How the Arts Measure Up - Australian Research into the Social Impact of the Arts. Social Impact of the Arts Working Paper 8. Stroud: Comedia
- Xuefei Ren and Meng Sun(2012), "Artistic Urbanization: Creative Industries and Creative Control in Beijing",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Regional Research*, 36(3):504-51
- Zukin, S.(1982), *Loft Living: Culture and Capital in Urban Change*,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Zukin, S. (1987), "Gentrification: Culture and Capital in the Urban Core" *Annual Review of Sociology*, 13:129-147

Zukin, S.(1995), The Cultures of Cities, Blackwell Publishes

Zukin, S. (1998), “Urban Lifestyles: Diversity and Standardisation in Spaces of Consumption”, Urban Studies, 35(5-6):825-839.

미술종합포털, 달진닷컴, <http://www.daljin.com>

양평군청, <http://www.yp21.net>


양평군, 「통계연보」, 2010

한국언론진흥재단, <http://www.kinds.or.kr>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http://www.makehope.org>

New York State Artist Workspace Consortium(2004), <http://www.nysca.org>

부록 1. 창작인력 설문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창작인력 설문지	날짜 (2012년 월 일)			
		ID (코드)	지역		설문지
			읍 면	동 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을 전공하고 있는 박사과정 김미옥입니다.

저는 “창작인력의 창작공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특성요인”을 밝히는 박사논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사례연구 대상지인 양평지역 시각예술인을 대상으로 창작활동 공간에 대한 현황과 창작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적 특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작성되었습니다.

귀하의 의견과 습득된 개인 자료는 공개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며, 논문 작성을 위한 순수 학술적 목적의 통계분석에만 사용되오니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및지역계획 전공 박사과정 김 미 옥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작업실 관련 문항

- 귀하의 **작업실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주거복합형 작업 공간(주거공간과 혼재)
 ② 독립 작업 공간(주거와 분리된 별도의 작업실)
 귀하의 **주거지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시·도 ()시·군·구 ()읍·면·동
- 귀하의 **작업실 종류**는 무엇입니까?
 ① 개인작업실 단독형
 ② 2인 이상 사용하는 공동 작업실
- 귀하의 **작업실 건물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단독주택 ② 다세대·연립 ③ 아파트 ④ 공장
 ⑤ 상가건물 ⑥ 폐교 ⑦ 창고 ⑧ 축사 ⑨ 기타
- 현재 **작업실의 전용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단독주택의 경우 건평 기준
 ① 5평 미만 ② 5~10평 ③ 10~15평
 ④ 15~20평 ⑤ 20~30평 ⑥ 30~40평
 ⑦ 40평 이상

※ 경제적 측면 관련 문항

- 귀하는 **전업작가**입니까?
 ☞ 시간강사 등 전임 이외의 교직은 전업작가로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겸업 종류 :)
- 귀하의 **월 평균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 모든 경제활동 수입을 포함한 총 수입
 ① 50만원 미만 ② 50~100만원 ③ 100~150만원
 ④ 150~200만원 ⑤ 200~300만원 ⑥ 300만원 이상
- 귀하의 연 평균수입 중 **순수예술활동에서의 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500만원 미만 ② 500~1,000만원
 ③ 1,000~2,000만원 ④ 2,000~3,000만원
 ⑤ 3,000~5,000만원 ⑥ 5,000만원 이상
- 귀하의 **작업실 소유상황 및 임대료**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자가 (매매가격 기준: _____ 천만원)
 ② 전세 (_____ 만원)
 ③ 월세 (보증금: _____ 만원, 월세: _____ 원)
 ④ 년세 (_____ 만원)

※ 커뮤니티 관련 문항

- 양평군을 거주지 및 **창작공간으로 선택 시 정보를 제공 받은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① 동료 및 선·후배 작가 ② 가족
 ③ 부동산 중개업소 ④ 기타()
- 작업실 **인근 지역에 다른 작가들이 거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긍정	긍정	보통	부정	상관 없음
1	2	3	4	5

작업실 인근 지역에 다른 작가들이 거주할 경우 **어느 정도 거리**에 거주하기를 원하십니까?

- ① 같은 건물 ② 같은 마을
 ③ 5~10분 인근 마을 ④ 기타()

- 작업실을 **다른 작가와 함께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긍정	긍정	보통	부정	상관 없음
1	2	3	4	5

- 양평지역 작가들과** 개인적인 교류 및 작품 활동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교류**하고 계십니까?

매우 자주 만남	자주 만남	보통	만나지 않음	전혀 만나고 싶지 않음
1	2	3	4	5

- 작업실 인근 주민과** 개인적인 모임이나 주민활동을 위해 **어느 정도 교류**하고 계십니까?

매우 자주 만남	자주 만남	보통	만나지 않음	전혀 만나고 싶지 않음
1	2	3	4	5

- 양평군**에서 주최하는 **전시, 행사 등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까?

적극 참여	참여	보통	불참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음
1	2	3	4	5

※ 작업실 선택요인 및 선호 관련 문항

15. 보기 중 현재의 **작업실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고려정도를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려 요인	적극 고려	조금 고려	보통	별로 고려 하지 않음	전혀 고려 하지 않음
①	지가 및 임대료가 저렴	1	2	3	4	5
②	서울과의 교통이 편리	1	2	3	4	5
③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쾌적	1	2	3	4	5
④	작품의 소재를 찾기 용이	1	2	3	4	5
⑤	동료 작가들과의 교류	1	2	3	4	5
⑥	갤러리·전시시설 이용편리	1	2	3	4	5
⑦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1	2	3	4	5
⑧	미술인 집적지로서의 지역성	1	2	3	4	5
⑨	기타					

16. 현재 사용하고 계신 **작업실에 대해 전반적**
으로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1	2	3	4	5

17. 귀하가 **장래 희망하는 작업실의 위치**는 어
떠합니까?
① 서울 도심 ② 수도권 인근 중소도시
③ 농어촌지역 ④ 기타 ()
18. **장래 희망하는 작업실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단독주택 ② 다세대·연립 ③ 아파트
④ 공장 ⑤ 상가건물 ⑥ 폐교
⑦ 창고 ⑧ 축사 ⑨ 창작레지던시
19. **서울 도심(시청)으로부터의 거리**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10km(서울시내) 이내
② 25km(분당·일산 정도 거리) 정도
③ 35km(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거리) 정도
④ 50km(양평·청평정도 거리) 정도
⑤ 50km 이상


20. **지자체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진
다면 **지원받고 싶은 항목과 선호도**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 요인	매우 필요	필요	보통	별로 필요 하지 않음	전혀 필요 하지 않음
①	임대료 지원	1	2	3	4	5
②	유지관리비 지원	1	2	3	4	5
③	창작공간 제공	1	2	3	4	5
④	창작공간 및 작가 홍보	1	2	3	4	5
⑤	작품활동 지원	1	2	3	4	5
⑥	갤러리·전시시설 확충	1	2	3	4	5
⑦	작업공간 세금 감면	1	2	3	4	5
⑧	기타					

※ 응답자 정보 관련 문항

2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2. 귀하의 **나이**는?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23. 귀하의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큰 자녀 기준)
① 1인 ② 부부 ③ 부부+초등학생 자녀
④ 부부+중고등학생 자녀 ⑤ 부부+대학생 자녀
24. 귀하의 **작품활동 기간**은 몇 년입니까?
① 5년미만 ② 5-10년미만 ③ 10-15년미만
④ 15년~20년 ⑤ 20년 이상
25. 현재 사용하고 계신 **작업실의 주 평균 이**
용 횟수는 몇 번입니까?
① 매일 ② 5-6회 ③ 3-4회
④ 1-2회 ⑤ 거의 이용하지 않음
26. **연평균 전시회**(개인 및 단체전 포함)는 몇
회 정도 여십니까?
① 10회 이상 ② 5-10회 ③ 3-4회
④ 1-2회 ⑤ 거의 열지 못함
27. 귀하의 **학력**은? (학교명 기재)
고등학교 (사·도)
대학교 ()
대학원 ()

부록 2. 전문가 심층면담 질문지

	<p>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p>	<p>문화예술 창작인력의 입지 및 특성요인 도출을 위한 전문가 심층 면담</p>
<p>안녕하십니까?</p> <p>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심층 인터뷰에 시간을 할애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p> <p>최근 관심이 증가된 문화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기초예술의 성장이 필수적이고 지역의 문화적 기반 확산을 위해서도 기초예술분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초예술을 담당하고 있는 창작인력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작인력의 공간적 입지 및 창작인력의 거주 및 창작공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특성요인을 밝힘으로써 향후 창작인력의 창작활동공간의 확대와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p> <p>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전문가의 귀한 의견으로 창작인력을 위한 적합한 지역에 대한 인식제고와 이를 통한 창작공간 확충과 지원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연구협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사는 연구목적 이외에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p> <p>본 인터뷰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자유로이 말씀하여 주시면 됩니다.</p> <p>※ 본 인터뷰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박사과정 김 미옥</p>		

시간	질문 방식	주제	질문내용
5분	도입	면접 목적 및 질문 개요 설명	
5분	전환	창작인력의 분포와 창작공간의 필요성	“문화예술산업의 기초가 되는 문화예술인력들의 거주지 및 창작공간이 수도권 어디에 분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평군으로 이주 경로	“양평군에 거주지 및 창작공간을 마련하시게 된 시기와 입지 선택 시 정보를 제공 받은 경로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분	주요 질문 내용	경제적 능력	“창작 활동 및 기타 활동을 통한 경제적 수입 수준이 창작공간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쳤나요? - 전업작가 및 겸업 여부 - 경제적 능력의 수준 - 창작공간을 위한 지출의 형태와 규모
		서울로의 접근성	“창작공간 선택에 있어 서울과의 접근성을 고려 하셨나요? - 서울과의 접근성 고려 및 고려 이유 - 적정 거리 및 이동시간, 주요 교통수단
		창작공간의 물리적 특성	“창작공간에 필요한 적합한 물리적 환경은 어떠한 요소가 있나요? - 창작공간의 적합한 건물 형태 - 점유 면적, 내부 구조, 층고 등
		자연환경	“창작공간 선택 시 양호한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을 선호하시나요? - 선호하는 자연환경, - 자연환경이 창작활동에 미치는 영향
		클러스터	“창작공간 선택 시 창작인력이 모여 있는 지역을 선호하십니까? - 클러스터 형태 선호 시 선호이유 - 클러스터의 형성 규모 및 교류활동 - 양평군내 창작인력 창작예술인들과의 교류 여부 및 형태 - 개별입지 선호 시 선호이유
		지역사회와 의 교류	“양평군내의 창작인력 또는 인근지역의 창작예술인들과의 교류는 있나요? -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 여부 및 형태 : 마을 모임, 활동 - 지자체와 교류 여부 및 형태 : 행사참여 - 외부방문객에게 작업실 공유에 대한 선호 및 여부
		지방자치단 체 지원	“양평군에서 창작인력들에게 지원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요약	내용정리	“지금까지 제 요약이 적절했습니까?”
5분	마무 리	인터뷰총정 리	“지금까지 문화예술 창작인력의 입지 및 지역적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었는데 더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Abstract

A Study on the Suburbanization of the Artist Space

: Focusing on Visual Arts Agglomeration Area
in Yangpyeong-*gun*

Kim, Mi Ok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ulture and art cause changes to the areas where culture is produced and created and contribute to creative urban environments. American and European cities have been keen to implement cultural planning, which makes active use of cultural spaces, resources, and events as a strategic interventive means to react to industrial re-structuralization and promote urban regeneration. As culture and art attract attention as a new alternative to de-industrialization, more and more interest is

invested in the creative manpower of culture and art called artists and their creative spaces. It is because artists' spaces lead to the facilitation of cultural consumption and sensitivity as well as the creation of art, thus generating social and economic effects in the community. Recent studies combining culture and art with local development also showed increased interest in their creative spaces.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the dual situation in which artists and their creative spaces were not restricted to the downtown areas and moving to suburbs .

The study set the following goals: first, to analyze the location of the visual arts industry in terms of creative functions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and investigate the phenomenon of creative functions moving to suburbs; and second, to analyze the effects of local development activation through the location factors in suburbs and the accumulation of creative functions with the case of Yangpyeong-*gun*, where the move of creative spaces to suburbs kept happening. The investigator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with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The survey was carried out with 104 artists that either lived or had a creative space in Yangpyeong,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31 artists. Survey results were analyzed with the SPSS 19.0 program, and spatial distribution was examined with ArcGIS 10.0 program.

The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the locations of the visual arts industry were divided in the creation and distribution stage along the value chain. The study delved in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patial location by the stages and

found that creative functions made quantitative growth over the past ten years and showed a trend of being expanded to small- or medium-sized cities near Seoul such as Yangpyeong and Paju in Gyeonggi Province. Those findings confirm the move of creative spaces to suburbs. The location of galleries in the distribution stage, on the other hand, remained concentrated in Gangbuk and Gangnam in Seoul, which indicates that creative and distribution functions had different spatial locations in the visual art industry and that creative functions held a dual location pattern between downtown and suburbs.

The survey results among the creative manpower of Yangpyeong identified three factors behind the move of creative spaces to suburbs, namely "economy," "access to creative resources" and "networks and clusters." Of the three factors, "economy" and "access to creative resources" held relatively greater significance in the move of creative spaces to suburbs, whereas "networks and clusters" did lower significance in it.

The in-depth interviews led to the following summary of the location factors in suburbs and the influences on spatial moves: "Economy", "access to creative resources" and "networks and clusters" worked as important location factors in the move of creative spaces to suburbs in the following aspects, respectively: in the dimension of economy, "access to big cities" served as a battery charger for market functions and work activities, and "rents and land values" turned out to be the most important motive in selecting a suburb for a creative space, which takes a considerable percentage in the expenditure

given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of artists whose incomes are unstable and low.

Representing "access to creative resources" in suburbs, natural environments were considered as a factor in the raw materials and emotional aspects of work activities and in residential location. "Networks and clusters" had impacts on the location selection and moving process of suburbs when there was limited information about creative spaces. They played positive roles in work activities, human exchanges, and emotional aspects after the location was picked.

Although creative spaces were moved to suburbs by considering the three location factors in a complex manner, there was a certain radius of move set because of the centripetal force of Seoul, the center of commodity markets and networks. The low land values and rents of suburbs were attractive important factors in the move of creative spaces to suburbs. In addition, they made a decision through individual and autonomous choices by taking access to markets and raw materials and also networks and clusters into consideration.

Today the move of creative spaces to suburbs is determined by individual and autonomous choices. If individual changes happen according to the changing occupancy area and life cycle of creative spaces and the public sector offers active supports for creative spaces including tax benefits, local and voluntary areas of accumulation will be able to grow into clusters and further promote the move of creative spaces to suburbs. On the contrary, sustainable creative clusters can be formed even in

the downtown areas by providing policy supports focused on the factors of downtown preference such as networks to the creative manpower with a downtown preference.

Finally, the case area Yangpyeong-*gun* obtained new placeness as the area of accumulated creative spaces based on the accumulation of creative spaces and visual art infrastructure. The local changes brought about by the private sector-led voluntary accumulation induced the perception conversion of the public and resulted in the increased number of concerned policies. Furthermore, they also encouraged the effects of local activation in the social and cultural aspects including a cultural movement among residents.

The study had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and significance: first, the study advocated the need to support pure creative functions by presenting the roles and importance of artists and creative spaces, which were the core functions of culture and art in the spatial aspect. Second, the study identified a dual location style between downtown and suburbs due to the life cycle of artis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creative spaces through empirical analysis and built a foundation for policy alternatives to consider the location characteristics of creative spaces. Suburbs will be able to form a suburb-style creative cluster by offering favorable natural environment to promote concentration on works and low-priced space and inviting artists actively.

The study limited the scope to visual art among the various genres of culture and art and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of

only one suburb, Yangpyeong-*gun*. Based on the findings, future study needs to carry out empirical analysis across various genres of culture and art and many different areas and thus conduct in-depth research on the location of creative functions of culture and art.

Keywords : visual arts, artist space, location choice, suburbanization,
Yangpyeong-gun, culture and arts, regional vitalization

Student Number : 2007-31019

감사의 글

가장 먼저 지도교수님이신 최막중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석사 때부터 오랜 기간 동안 교수님의 학문적 가르침과 학문이외 배풀어 주신 많은 배려들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교수님 가르침 잊지 않고 좋은 연구자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박사과정 동안 문화라는 크고 넓은 주제에 대해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논문을 심사해주신 전상인 교수님과 조경진 교수님, 이정훈 박사님, 박세훈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심사위원분들의 열정적인 조언 덕분에 논문의 방향을 잡아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많이 늦어 송구하지만 어린시절 공부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김현수교수님께 긴 여정의 마침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미술에 대해 문외한인 제가 창작공간에 대한 인터뷰를 청했을 때 따뜻이 맞아주시고 장시간 좋은 말씀을 해주신 양평의 작가 선생님들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작품할 시간도 부족하신데 여러 작가들과 만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신 민정기 선생님, 류민자 선생님, 신철 선생님 특별히 감사드리며,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신 박동인, 금동원, 김강용, 이봉임, 이재효, 박승모, 서정인, 고정수, 김병진 선생님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 주신 의견을 제대로 담아 내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다소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늦게 시작한 박사과정을 보내며 많이 힘들고 외로웠지만 함께한 319호 연구실 식구들이 있어 지난했던 과정들을 헤쳐 나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성, 유진, 진수, 윤정, 지정이를 비롯한 연구실 식구들과 환경대학원 동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연구실의 좋은 선배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쁜 엄마와 아내를 이해해준 윤, 민, 남편 그리고 가족들에게 긴 시간 함께 인내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지만 제 노력의 결실을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께 드립니다. 두 분의 믿음과 헌신적 사랑에 작은 보답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